연구보고 2023-28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 (한국아동패널 II)

조미라·최효미·김동훈·김혜진·강민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2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 (한국아동패널 Ⅱ)

저 자 조미라, 최효미, 김동훈, 김혜진, 강민권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혜 진**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강 민 권**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2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 (한국아동패널 II)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 2269-991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80-0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는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성인이 되는 2027년까지 단일연령집단의 횡단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 제공하는 연구입니다. 아동과 아동의 주양육자,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발달, 가정의 양육환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경험 등을 조사하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육아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패널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태아기부터의 표집을 통해 신생아시기부터 성인기까지 아우르는 조사로는 현재 한국아동패널이 국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생애적 관점에서 한국아동의 성장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장기종단 기초자료로서 한국아동패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2008년도에 1차 조사를 실시한 2008년생 아동들은 2023년 올해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들어서 완연한 청소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맞게 설문체계와 구성을 수정하고 진로진학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관련된 조사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은 16차 조사를 실시한 해로 지난 15년간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 주신 패널가구들을 격려하고 조사 비중이 높아진 아동의 참여동기를 높이고자 다양한 독려방안을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가을 실시된 제14차 학술대회에서는 14차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신생아기부터 영유아, 아동기를 거쳐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는 자료를 활용한 논문발표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바쁜 일상에서도 16차 조사에 참여해주신 패널가구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한국아동패널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공유해주시는 아동패널 이용자분들,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일구어 주시는 전국의 조사원분들과 연구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Ⅰ. 개요 19

1. 사업 목적 21
2. 사업 내용 23
3. 주요 방법 25

Ⅱ. 16차년도(2023년) 조사 사업 보고 31

1. 16차년도 조사과정 33
2. 16차년도 조사내용 41
3. 패널유지를 위한 사업 56

Ⅲ. 15차년도(2022년) 데이터 기초분석 61

1. 15차년도 조사개요 63
2. 아동 특성 65
3. 부모 및 가구 특성 143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178
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203
6. 가중치 산출 및 적용 219

Ⅳ.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225

1. 자료 활용 현황 227
2.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231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변수정리 작업 235

Ⅴ. 심층분석: 패널아동의 삶의 만족도 궤적과 사교육 특성 247

1. 심층분석Ⅰ-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 궤적을 활용한 유형화 분석 및 집단별 특성 ····· 249
2. 심층분석Ⅱ- 사교육 이용패턴의 종단적 분석과 특성 분석 ····· 290

Ⅵ. 패널데이터 추이분석 및 시사점 309

1. 한국아동패널 1-15차 추이분석 ····· 311
2. 15차년도 데이터 분석의 시사점 ····· 323

참고문헌 333

Abstract 337

부록 339

부록 1. 16차년도(2023년 조사) IRB 승인통지서 ····· 339
부록 2. 15차년도(2022년 조사) 질문지 ····· 340
부록 3. 15차년도(2022년 조사) 질문지 : 보호자용 ····· 378
부록 4. 15차년도(2022년 조사) 질문지 : 어머니용 ····· 411
부록 5. 15차년도(2022년 조사) 질문지 : 아버지용 ····· 424
부록 6. 15차년도(2022년 조사) 질문지 : 담임교사용 ····· 437

표 목차

〈표 Ⅰ-2-1〉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조사 실시 개요 ····· 24
〈표 Ⅰ-3-1〉 2023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및 주요 조사내용 ··· 26
〈표 Ⅰ-3-2〉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실시 계획 ····· 28
〈표 Ⅰ-3-3〉 14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요 ····· 30
〈표 Ⅱ-1-1〉 2023년 16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 35
〈표 Ⅱ-1-2〉 2023년 16차년도 조사의 유효표본 ····· 35
〈표 Ⅱ-1-3〉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 37
〈표 Ⅱ-1-4〉 2023년 조사대상별 조사참여율 ····· 38
〈표 Ⅱ-1-5〉 2023년 조사유형별 조사참여율 ····· 39
〈표 Ⅱ-1-6〉 2008~2023년 지역별 조사 참여가구수 ····· 39
〈표 Ⅱ-1-7〉 16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 40
〈표 Ⅱ-1-8〉 16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 41
〈표 Ⅱ-2-1〉 16차년도 설문지별 구성 ····· 42
〈표 Ⅱ-2-2〉 14~16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일상생활 영역 ····· 44
〈표 Ⅱ-2-3〉 14~16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 46
〈표 Ⅱ-2-4〉 14~16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인지 발달 및 학습 영역 ····· 47
〈표 Ⅱ-2-5〉 14~16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영역 ····· 49
〈표 Ⅱ-2-6〉 14~16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변인 ····· 51
〈표 Ⅱ-2-7〉 14~16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변인 ····· 52
〈표 Ⅱ-2-8〉 14~16차년도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 53
〈표 Ⅱ-2-9〉 14~16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 56
〈표 Ⅱ-3-1〉 패널가구 대상 진로진학설명회 개요 ····· 57
〈표 Ⅱ-3-2〉 패널가구 문자, SNS 채널 관리 ····· 58
〈표 Ⅱ-3-3〉 패널가구 문자 및 SNS 채널 관리 일정 ····· 59
〈표 Ⅲ-1-1〉 15차년도 조사대상자별 조사 참여 수 및 비율 ····· 63
〈표 Ⅲ-1-2〉 15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4
〈표 Ⅲ-2-1〉 15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 65
〈표 Ⅲ-2-2〉 아동의 식생활 진단: 섭취 권장 항목 ····· 67
〈표 Ⅲ-2-3〉 아동의 식생활 진단: 과잉섭취 자제 권장 항목 ····· 68

〈표 Ⅲ-2- 4〉 아동의 식생활 진단: 균형 잡힌 식생활 ····· 69
〈표 Ⅲ-2- 5〉 최근 7일간 아동의 탄산음료 섭취빈도 ····· 70
〈표 Ⅲ-2- 6〉 최근 7일간 아동의 인스턴트식(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 섭취빈도 ····· 71
〈표 Ⅲ-2- 7〉 아동의 기상 및 취침시각 ····· 72
〈표 Ⅲ-2- 8〉 아동의 수면시간 ····· 73
〈표 Ⅲ-2- 9〉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 74
〈표 Ⅲ-2-10〉 아동의 책읽기 시간 ····· 75
〈표 Ⅲ-2-11〉 아동의 독서량(주당) 빈도표 ····· 76
〈표 Ⅲ-2-12〉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 ····· 77
〈표 Ⅲ-2-13〉 아동의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시청, 게임시간 ··· 78
〈표 Ⅲ-2-14〉 아동의 휴대폰 소지 여부 및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이용 시간 ····· 79
〈표 Ⅲ-2-15〉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정도 ····· 80
〈표 Ⅲ-2-16〉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응답) ····· 81
〈표 Ⅲ-2-17〉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아동응답) ····· 82
〈표 Ⅲ-2-18〉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스포츠, 집 밖 레저활동 및 취미생활 ····· 84
〈표 Ⅲ-2-19〉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사교활동 대면 및 비대면 교제 ····· 85
〈표 Ⅲ-2-20〉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종교활동,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 86
〈표 Ⅲ-2-21〉 아동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 (지난 7일간) ····· 87
〈표 Ⅲ-2-22〉 취미(악기, 운동 포함) 유무 및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순위 ··· 88
〈표 Ⅲ-2-23〉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2순위 ····· 88
〈표 Ⅲ-2-24〉 아동의 취미 유무(악기, 운동) ····· 89
〈표 Ⅲ-2-25〉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기본생활 시간, 가사 돕기 시간 ····· 90
〈표 Ⅲ-2-26〉 아동의 가사참여 정도 ····· 91
〈표 Ⅲ-2-27〉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 92
〈표 Ⅲ-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 93
〈표 Ⅲ-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종교활동 ··· 94
〈표 Ⅲ-2-30〉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 95
〈표 Ⅲ-2-31〉 컴퓨터 사용 능력 ····· 96
〈표 Ⅲ-2-32〉 아동의 시간사용 충분성 인식: 가족과의 시간 ····· 98

〈표 Ⅲ-2-33〉 아동의 시간사용 충분성 인식: 친구, 휴식, 여가활동 시간 ····· 98
〈표 Ⅲ-2-34〉 아동의 시간사용 충분성 인식: 숙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 99
〈표 Ⅲ-2-35〉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 100
〈표 Ⅲ-2-36〉 아동의 신체치수: 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 101
〈표 Ⅲ-2-37〉 아동의 특성별 신체치수 ····· 101
〈표 Ⅲ-2-38〉 신체적 자아상 ····· 102
〈표 Ⅲ-2-39〉 아동이 인식한 아동의 체형 ····· 103
〈표 Ⅲ-2-40〉 체중조절 경험 ····· 104
〈표 Ⅲ-2-41〉 체중조절 방법(중복응답) ····· 104
〈표 Ⅲ-2-42〉 아동의 시력 보정 도구 착용 시기 ····· 105
〈표 Ⅲ-2-43〉 남학생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 106
〈표 Ⅲ-2-44〉 여학생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 106
〈표 Ⅲ-2-45〉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 107
〈표 Ⅲ-2-46〉 아동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결과 ····· 107
〈표 Ⅲ-2-47〉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 108
〈표 Ⅲ-2-48〉 아동의 장애 여부 ····· 109
〈표 Ⅲ-2-49〉 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 109
〈표 Ⅲ-2-50〉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 110
〈표 Ⅲ-2-51〉 집행기능 ····· 111
〈표 Ⅲ-2-52〉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 112
〈표 Ⅲ-2-53〉 아동의 학업 이해도 ····· 112
〈표 Ⅲ-2-54〉 학업 스트레스 ····· 113
〈표 Ⅲ-2-55〉 아동의 과목선호도: 1순위 ····· 114
〈표 Ⅲ-2-56〉 아동의 과목선호도: 1+2순위 ····· 114
〈표 Ⅲ-2-57〉 자기조절학습 ····· 115
〈표 Ⅲ-2-58〉 아동의 자아존중감 ····· 116
〈표 Ⅲ-2-59〉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 116
〈표 Ⅲ-2-60〉 아동의 우울 ····· 117
〈표 Ⅲ-2-61〉 아동의 GRIT(끈기) ····· 118
〈표 Ⅲ-2-62〉 아동의 공감 ····· 119
〈표 Ⅲ-2-63〉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 120
〈표 Ⅲ-2-64〉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공부 및 학교친구 ····· 121
〈표 Ⅲ-2-65〉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 ····· 122

〈표 Ⅲ-2-66〉 아동의 이성친구 유무 ····· 123
〈표 Ⅲ-2-67〉 아동의 또래애착 ····· 124
〈표 Ⅲ-2-68〉 폭력피해 경험: 전체 ····· 125
〈표 Ⅲ-2-69〉 폭력피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 126
〈표 Ⅲ-2-70〉 폭력가해 경험: 전체 ····· 126
〈표 Ⅲ-2-71〉 폭력가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 127
〈표 Ⅲ-2-72〉 아동의 음주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 128
〈표 Ⅲ-2-73〉 아동의 음주 빈도 ····· 128
〈표 Ⅲ-2-74〉 아동의 흡연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 129
〈표 Ⅲ-2-75〉 아동의 흡연일수 ····· 130
〈표 Ⅲ-2-76〉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1 ····· 131
〈표 Ⅲ-2-77〉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2 ····· 131
〈표 Ⅲ-2-78〉 비속어 사용 ····· 132
〈표 Ⅲ-2-79〉 아동의 미래기대(장래희망) ····· 133
〈표 Ⅲ-2-80〉 아동의 진로성숙도: 전체 ····· 134
〈표 Ⅲ-2-81〉 아동의 진로성숙도: 세부문항별 ····· 135
〈표 Ⅲ-2-82〉 아동의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 136
〈표 Ⅲ-2-83〉 아동의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 137
〈표 Ⅲ-2-84〉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 137
〈표 Ⅲ-2-85〉 아동의 용돈 사용처 ····· 138
〈표 Ⅲ-2-86〉 아동의 저축 실태 ····· 139
〈표 Ⅲ-2-87〉 아동의 공동체 의식 1 ····· 140
〈표 Ⅲ-2-88〉 아동의 공동체 의식 2 ····· 141
〈표 Ⅲ-2-89〉 아동의 안전 체감도 및 대처인식 ····· 142
〈표 Ⅲ-3- 1〉 15차년도 부모 및 가구 특성 변인 ····· 143
〈표 Ⅲ-3- 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 145
〈표 Ⅲ-3- 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 145
〈표 Ⅲ-3- 4〉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 145
〈표 Ⅲ-3- 5〉 부모의 부부 갈등 ····· 146
〈표 Ⅲ-3- 6〉 부모의 자아존중감 ····· 147
〈표 Ⅲ-3- 7〉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 148
〈표 Ⅲ-3- 8〉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 149
〈표 Ⅲ-3- 9〉 부모의 삶의 만족도 ····· 150

〈표 Ⅲ-3-10〉 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151
〈표 Ⅲ-3-11〉 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152
〈표 Ⅲ-3-12〉 부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153
〈표 Ⅲ-3-13〉 부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154
〈표 Ⅲ-3-14〉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 155
〈표 Ⅲ-3-15〉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 155
〈표 Ⅲ-3-16〉 부모의 음주 실태 ····· 156
〈표 Ⅲ-3-17〉 부모의 흡연 실태 ····· 156
〈표 Ⅲ-3-18〉 부모 취·학업 상태 ····· 157
〈표 Ⅲ-3-19〉 모의 취·학업 상태 ····· 157
〈표 Ⅲ-3-20〉 부의 취·학업 상태 ····· 158
〈표 Ⅲ-3-21〉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 159
〈표 Ⅲ-3-22〉 부모의 종사상 지위 ····· 159
〈표 Ⅲ-3-23〉 취업부모 근무일 및 시간 ····· 160
〈표 Ⅲ-3-24〉 취업부모 일자리 만족도 ····· 161
〈표 Ⅲ-3-25〉 부모의 성취압력 ····· 162
〈표 Ⅲ-3-26〉 부모애착: 어머니 ····· 163
〈표 Ⅲ-3-27〉 부모애착: 아버지 ····· 163
〈표 Ⅲ-3-28〉 합리적 설명 ····· 164
〈표 Ⅲ-3-29〉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 165
〈표 Ⅲ-3-30〉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경험 ····· 166
〈표 Ⅲ-3-31〉 아동학대: 언어적 학대 경험 ····· 167
〈표 Ⅲ-3-32〉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 ····· 167
〈표 Ⅲ-3-33〉 아동학대: 방임 ····· 168
〈표 Ⅲ-3-34〉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수 ····· 169
〈표 Ⅲ-3-35〉 부모 감독: 보호자 응답 ····· 170
〈표 Ⅲ-3-36〉 부모 감독: 아동 응답 ····· 171
〈표 Ⅲ-3-37〉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 172
〈표 Ⅲ-3-38〉 사회적 지원 정도 ····· 173
〈표 Ⅲ-3-39〉 부모-자녀 의사소통 ····· 174
〈표 Ⅲ-3-40〉 가구 구성 및 가구원수 ····· 175
〈표 Ⅲ-3-41〉 아동의 단독 방 여부 ····· 175
〈표 Ⅲ-3-42〉 월평균 가구소득 및 어머니/아버지 근로소득 ····· 175

〈표 Ⅲ-3-43〉 월평균 지출 ····· 176
〈표 Ⅲ-3-44〉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176
〈표 Ⅲ-3-45〉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 177
〈표 Ⅲ-4- 1〉 15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 178
〈표 Ⅲ-4- 2〉 학교 재학 여부 ····· 179
〈표 Ⅲ-4- 3〉 전학 여부 ····· 180
〈표 Ⅲ-4- 4〉 학교 유형 ····· 180
〈표 Ⅲ-4- 5〉 남녀공학 여부 ····· 181
〈표 Ⅲ-4- 6〉 시범학교 유형 ····· 181
〈표 Ⅲ-4- 7〉 학교풍토: 교사풍토 ····· 182
〈표 Ⅲ-4- 8〉 학교풍토: 학생풍토 ····· 182
〈표 Ⅲ-4- 9〉 학교풍토: 학부모풍토 ····· 183
〈표 Ⅲ-4-10〉 학생비행 ····· 184
〈표 Ⅲ-4-11〉 전체 학급수 및 해당 학급 학생수 ····· 184
〈표 Ⅲ-4-12〉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 185
〈표 Ⅲ-4-13〉 교사 담당과목 ····· 185
〈표 Ⅲ-4-14〉 교사 성별 및 연령 ····· 186
〈표 Ⅲ-4-15〉 교사 경력 및 1일 평균 근무시간 ····· 186
〈표 Ⅲ-4-16〉 교사 최종학력 ····· 187
〈표 Ⅲ-4-17〉 교사 업무 스트레스 ····· 187
〈표 Ⅲ-4-18〉 교사효능감 ····· 188
〈표 Ⅲ-4-19〉 아동과 교사관계 ····· 189
〈표 Ⅲ-4-20〉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횟수: 부모 응답 ····· 190
〈표 Ⅲ-4-21〉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교사 응답 ····· 191
〈표 Ⅲ-4-22〉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 ····· 191
〈표 Ⅲ-4-23〉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 192
〈표 Ⅲ-4-24〉 학교 서비스 만족도 ····· 193
〈표 Ⅲ-4-25〉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여부 ····· 194
〈표 Ⅲ-4-26〉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 195
〈표 Ⅲ-4-27〉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 196
〈표 Ⅲ-4-28〉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 196
〈표 Ⅲ-4-29〉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이용비용 ····· 197
〈표 Ⅲ-4-30〉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 ····· 197

〈표 Ⅲ-4-31〉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 198
〈표 Ⅲ-4-32〉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 199
〈표 Ⅲ-4-33〉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효과 인식 ····· 200
〈표 Ⅲ-4-34〉 사교육 이용 이유: 1순위 ····· 201
〈표 Ⅲ-4-35〉 사교육 이용 이유: 1+2순위 ····· 202
〈표 Ⅲ-4-36〉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 ····· 202
〈표 Ⅲ-5- 1〉 15차년도 지역 규모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 203
〈표 Ⅲ-5- 2〉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 203
〈표 Ⅲ-5- 3〉 최근 이사 사유 ····· 204
〈표 Ⅲ-5- 4〉 지역 규모 ····· 205
〈표 Ⅲ-5- 5〉 6개 권역 구분 ····· 205
〈표 Ⅲ-5- 6〉 교육·의료·복지시설 편리성 ····· 206
〈표 Ⅲ-5- 7〉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 편리성 ····· 207
〈표 Ⅲ-5- 8〉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208
〈표 Ⅲ-5- 9〉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208
〈표 Ⅲ-5-10〉 양육환경 안전성 ····· 209
〈표 Ⅲ-5-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211
〈표 Ⅲ-5-12〉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중복응답) ····· 211
〈표 Ⅲ-5-13〉 교육정책별 추진 동의 정도 ····· 212
〈표 Ⅲ-5-14〉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 213
〈표 Ⅲ-5-15〉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자유학년제 운영 ····· 213
〈표 Ⅲ-5-16〉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 214
〈표 Ⅲ-5-17〉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 215
〈표 Ⅲ-5-18〉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교학점제 ····· 216
〈표 Ⅲ-5-19〉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 216
〈표 Ⅲ-5-20〉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217
〈표 Ⅲ-5-21〉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교육 급여 지원 확대 ····· 218
〈표 Ⅲ-5-22〉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코로나19 대응 ····· 218
〈표 Ⅲ-6- 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 221
〈표 Ⅲ-6- 2〉 15차년도 횡·종단면 자료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 223
〈표 Ⅲ-6- 3〉 15차년도 최종 횡·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 223
〈표 Ⅳ-1- 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수 ····· 228
〈표 Ⅳ-1- 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논문수: 2011-2022년 ····· 228

〈표 Ⅳ-1- 3〉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차수: 2011-2022년 ····· 229
〈표 Ⅳ-1- 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21, 2022년 발간 논문 기준 ····· 230
〈표 Ⅳ-2- 1〉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 231
〈표 Ⅳ-2- 2〉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일정 ····· 232
〈표 Ⅳ-2- 3〉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 234
〈표 Ⅳ-3- 1〉 1-14차 설문지 종류 ····· 236
〈표 Ⅳ-3- 2〉 아동 특성 조사변인 ····· 237
〈표 Ⅳ-3- 3〉 부모 특성 조사변인 ····· 240
〈표 Ⅳ-3- 4〉 가구 특성 조사변인 ····· 242
〈표 Ⅳ-3- 5〉 보육/교육/학교서비스 특성 조사변인 ····· 244
〈표 Ⅳ-3- 6〉 지역사회 특성 조사변인 ····· 245
〈표 Ⅳ-3- 7〉 정책 특성 조사변인 ····· 246
〈표 Ⅴ-1- 1〉 조사차수별 및 설문 유형별 삶의 만족도 응답자 수 ····· 253
〈표 Ⅴ-1- 2〉 아동의 삶의 만족도 설문문항 내용 ····· 254
〈표 Ⅴ-1- 3〉 모의 삶의 만족도 ····· 259
〈표 Ⅴ-1- 4〉 모 집단 유형별 삶의 만족도(평균) ····· 261
〈표 Ⅴ-1- 5〉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과 모의 특성 및 가구 특성 (2022년 기준) ····· 262
〈표 Ⅴ-1- 6〉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모의 취업 여부 및 가구소득 (2022년 기준) ····· 263
〈표 Ⅴ-1- 7〉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모의 취업 비중 변화 (2018~2022년) ····· 264
〈표 Ⅴ-1- 8〉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 (2018~2022년) ····· 265
〈표 Ⅴ-1- 9〉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자녀 양육비용(2018~2022년) ··· 266
〈표 Ⅴ-1-10〉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부부 갈등 (2018~2022년) ··· 267
〈표 Ⅴ-1-11〉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의 일주일 학습시간 (2018~2022년) ····· 267
〈표 Ⅴ-1-12〉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학업 이해도(2018~2022년) ··· 268
〈표 Ⅴ-1-13〉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 (2018~2022년) ····· 268
〈표 Ⅴ-1-14〉 아동의 삶의 만족도 ····· 269

〈표 Ⅴ-1-15〉 아동 집단 유형별 삶의 만족도 ····· 271
〈표 Ⅴ-1-16〉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과 모의 특성 및 가구 특성 (2022년 기준) ····· 273
〈표 Ⅴ-1-17〉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모의 취업 여부 및 가구소득 (2022년 기준) ····· 274
〈표 Ⅴ-1-18〉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모의 취업 비중 변화 (2018~2022년) ····· 274
〈표 Ⅴ-1-19〉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 (2018~2022년) ····· 275
〈표 Ⅴ-1-20〉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의 일주일 학습시간 (2018~2022년) ····· 276
〈표 Ⅴ-1-2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학업 이해도(2018~2022년) ··· 277
〈표 Ⅴ-1-22〉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학교 선호도(2018~2022년) ··· 277
〈표 Ⅴ-1-23〉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성취압력(2018~2022년) ··· 278
〈표 Ⅴ-1-24〉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학업 스트레스(2018~2022년) ··· 278
〈표 Ⅴ-1-25〉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또래애착_의사소통 (2018~2022년) ····· 279
〈표 Ⅴ-1-26〉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또래애착_신뢰 (2018~2022년) ····· 279
〈표 Ⅴ-1-27〉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또래애착_소외 (2018~2022년) ····· 280
〈표 Ⅴ-1-28〉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의 부에 대한 애착 (2018~2022년) ····· 280
〈표 Ⅴ-1-29〉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 (2018~2022년) ····· 281
〈표 Ⅴ-1-30〉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집단 교차 분석 ····· 282
〈표 Ⅴ-1-31〉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집단 ····· 283
〈표 Ⅴ-1-32〉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유형 집단별 가구소득(2022년 기준) ··· 284
〈표 Ⅴ-1-33〉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유형 집단별 특성(2022년 기준) ····· 286
〈표 Ⅴ-2- 1〉 사교육 이용형태별 연도별 추이(2015~2022년) ····· 294
〈표 Ⅴ-2- 2〉 사교육 이용형태별 월평균 사교육비(협의) 추이 (2015~2022년) ····· 295

〈표 Ⅴ-2- 3〉 사교육 기관별 사교육비 추이(2015~2022년) ····· 296
〈표 Ⅴ-2- 4〉 사교육 이용형태별 주당 사교육 이용시간 추이 (2015~2022년) ····· 297
〈표 Ⅴ-2- 5〉 그룹수 및 사교육비 변화궤적에 따른 집단중심추세모형별 BIC값 ····· 298
〈표 Ⅴ-2- 6〉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성별 및 지역특성(2022년) ····· 300
〈표 Ⅴ-2- 7〉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부모 및 가구 특성(2022년) ····· 301
〈표 Ⅴ-2- 8〉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사교육 특성(2022년) ····· 303
〈표 Ⅴ-2- 9〉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학업 이해 및 수행능력 ····· 304
〈표 Ⅴ-2-10〉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자녀 지출비 비중 (2015~2021년) ····· 306
〈표 Ⅵ-1- 1〉 아동의 체중 ····· 311
〈표 Ⅵ-1- 2〉 아동의 신장 ····· 313
〈표 Ⅵ-1- 3〉 아동의 BMI ····· 314
〈표 Ⅵ-1- 4〉 부모의 취/학업 상태 ····· 315
〈표 Ⅵ-1- 5〉 부모의 종사상 지위 ····· 317
〈표 Ⅵ-1- 6〉 부모의 결혼 만족도 ····· 319
〈표 Ⅵ-1- 7〉 부모의 부부 갈등 ····· 320
〈표 Ⅵ-1- 8〉 사회적 지지 ····· 321
〈표 Ⅵ-1- 9〉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 322

그림 목차

[그림 Ⅰ-2-1] 2023년도 한국아동패널 주요 사업 ····· 23
[그림 Ⅱ-1-1] 16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 조사과정 ····· 33
[그림 Ⅱ-1-2] 2008~2023년 조사참여율 ····· 38
[그림 Ⅱ-3-1] 패널가구 대상 진로진학설명회 만족도 조사 결과 ····· 57
[그림 Ⅱ-3-2] 패널가구 대상 진로진학설명회 행사 포스터 등 ····· 58
[그림 Ⅱ-3-3] 문자 발송 링크 퀴즈 이미지 예시 ····· 59
[그림 Ⅱ-3-4]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레터링 이미지 예시 ····· 60
[그림 Ⅱ-3-5] 15차 조사 연속참여가구 감사장 및 감사선물/시계 뒷면 감사인사 문구시안 ····· 60
[그림 Ⅲ-2-1]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응답) vs.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아동응답) ····· 83
[그림 Ⅳ-2-1] 제14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논문공모 및 개최 포스터 ····· 233
[그림 Ⅳ-2-2]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모습 ····· 234
[그림 Ⅴ-1-1] 모 삶의 만족도 궤적(2018~2022년): 사건계열 그래프 ····· 260
[그림 Ⅴ-1-2] 모의 집단 유형별 삶의 만족도 사건계열 그래프 (2018~2022년) ····· 261
[그림 Ⅴ-1-3]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 (2018~2022년) ····· 265
[그림 Ⅴ-1-4] 아동의 삶의 만족도 궤적(2018~2022년): 사건계열 그래프 · 270
[그림 Ⅴ-1-5] 아동 집단 유형별 삶의 만족도 사건계열 그래프(2018~2022년) · 272
[그림 Ⅴ-1-6]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2018~2022년) ····· 275
[그림 Ⅴ-2-1] 사교육 이용형태별 연도별 추이(2015~2022년) ····· 294
[그림 Ⅴ-2-2] 사교육 이용형태별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2015~2022년) ···· 295
[그림 Ⅴ-2-3] 사교육 기관별 사교육비 추이(2015~2022년) ····· 296
[그림 Ⅴ-2-4] 사교육 이용형태별 주당 사교육 이용시간 추이 (2015~2022년) ····· 297
[그림 Ⅴ-2-5]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 변화유형 ····· 299
[그림 Ⅴ-2-6]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학업 이해 및 수행능력 ····· 305

[그림 Ⅴ-2-7]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자녀지출 비중 (2015~2021년) ····· 306
[그림 Ⅵ-1-1] 아동의 체중 ····· 312
[그림 Ⅵ-1-2] 아동의 신장 ····· 313
[그림 Ⅵ-1-3] 아동의 BMI ····· 315
[그림 Ⅵ-1-4] 부모의 취업 상태 ····· 316
[그림 Ⅵ-1-5]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 318
[그림 Ⅵ-1-6]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 318
[그림 Ⅵ-1-7] 부모의 결혼 만족도 ····· 319
[그림 Ⅵ-1-8] 부모의 부부 갈등 ····· 321

요약

1. 개요

가. 사업 목적

□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는 한국 최초로 실시된 신생아부터의 장기종단연구로서 2008년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실시하여 2023년 16년차에 접어들고 있음.

-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 가족, 돌봄 및 보육(영유아기), 학교·사교육(아동기) 특성을 조사하며, 조사대상으로 아동, 주양육자, 아동의 부모,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영유아기), 학교의 담임교사(아동기)를 설정하여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층적인 조사자료를 축적하고 있음.

□ 한국아동패널은 한국아동의 성장발달의 궤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로 인식되고 있으며 축적된 자료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하여 학술적, 정책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2023년은 16년차 연구로 2008년생인 패널아동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진입하였음.

- 아동이 완연한 청소년으로 성장한 단계이기에 설문체계와 구성이 청소년 대상 조사에 맞는지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지난 15년간의 조사를 성실히 이행한 패널가구를 격려하고 조사 참여비중이 커진 아동의 참여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음.

나. 사업 내용

□ 첫째, 한국아동패널 제16차년도 조사를 실시함.

- 2023년 중등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패널아동과 가구(주양육자, 부모), 아동의 학교(담임교사)를 대상으로 16차년도 조사를 실시함.

□ 둘째, 한국아동패널 15차 조사 데이터로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그간 축적된 종단자료를 활용해 심층분석을 수행함.

- 제14차년도 조사의 아동, 부모,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정책 영역의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횡단면 기초분석을 실시하고 종단자료를 이용해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 분석, 아동의 사교육 이용패턴 분석을 실시함.

□ 셋째,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4차 조사 데이터를 공개함.

- 2023년 제14회 학술대회의 참가자에게 14차년도 조사 데이터가 우선 제공되었으며 학술대회 후 일정의 검증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함.

□ 넷째, 1~14차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사용자 편의작업을 수행함.

- 1~14차까지의 조사 데이터, 설문지, 도구프로파일 및 변인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점검 관리함.

다. 주요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에 맞는 조사의 내용과 방식을 검토함.

□ 1,508가구를 유효표본으로 설정하여 패널아동, 아동의 주양육자, 아동의 부모, 아동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 16차 조사를 수행함.

□ 16차 조사내용의 구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자료 관리 및 사용자 편의제공 강화 논의를 위한 아동패널 유저와의 간담회를 진행함. 이외 조사업체 관리자와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조사 개선방안을 논의함.

□ 15차 자료의 클리닝 및 에디팅 작업을 수행하고 기초분석을 실시함.

□ 축적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심층분석을 수행함.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 아동의 사교육패턴을 주제로 분석함.

□ 1~13차 조사의 조사 데이터, 질문지, 코드북, 사용자 지침서, 변인지도 및 도구프로파일를 업데이트 및 관리함. 또한 14차 자료를 제14회 학술대회에서 선공개한 후 수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함.

□ 데이터 활용과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2023년 제14회 학술대회)를 개최함.

2. 16차년도(2023년) 조사 사업 보고

가. 16차년도 조사과정

□ 16차 조사의 유효표본은 전체표본 2,150가구 중 2018~2022년 5년 연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630가구, 강력 거절 11가구, 아동사망 등으로 조사불가한 1가구를 제외하고 1,508가구로 설정함.

- 16차 조사에서는 전체표본 2,150가구 1회 이상 컨택을 시도함. 강력거절가구 대상 패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유예조사'를 진행하고, 근 3년간의 미참여 가구가 16차년도 조사에 참여시 '복원패널'로 지칭하여 문항과 조사참여 중단 이유 등을 추가로 조사함.

□ 16차년도 조사는 2023년 4~5월 실사담당 기관에서 패널가구 사전정보 확인 연락을 취하고 6월 조사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제의 가구 방문조사는 7월부터 시작함.

- 보호자 설문지와 아동 설문지는 대면면접 조사(TAPI), 어머니, 아버지 설문지는 지필식 조사(우편발송, 방문수거), 교사용 설문지는 온라인 조사(CAWI)로 진행됨. 아동 조사의 경우 대면조사가 어려울 시 온라인 조사(CAWI)를 실시하여 패널유지를 꾀함.

□ 16차년도 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가구는 1,288가구(아동 1,258명)로, 2023년 조사에 설정했던 유효표본 1,508가구 대비 85.4%임.

-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의 62.0%, 15차년도 조사완료 가구 1,304가구 대비 98.8%임.

- 조사대상별로는 주양육자는 1,288명이 참여하였고 아동은 1,258명(주양육자의 97.7%)가 참여함. 어머니 조사에는 1,198명(주양육자의 93.0%), 아버지 조사에는 1,106명(주양육자의 85.9%), 교사 조사에는 526명(주양육자의 40.8%)이 참여함.

- 정규조사 외 패널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유예조사 및 복원패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예조사에는 40가구가 참여하였으나 복원패널로서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없었음.

나. 16차년도 조사내용

□ 한국아동패널 사업의 조사 설문지는 패널아동 설문지, 패널아동의 보호자 설문

지, 패널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설문지와 패널아동의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5종으로 구성됨.

□ 16차 조사는 중학교 3학년 시점의 조사로 중학교 1, 2학년에 실시하였던 조사와 연속성을 가지도록 내용 면에서는 대체로 기존의 것을 유지함.

- 고교진학을 앞두고 진로준비와 관심이 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진학 준비와 직업선택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함.
- 사회적 지원 정도 등 활용도가 적은 문항을 삭제하고 아동성장에 따라 음주·흡연 등의 문항을 보완하였으며, 부모 감독, 정책수혜 및 인식 등 일부 문항을 청소년 시기에 맞는 문항으로 교체함.
- 격년조사로 실시되는 문제행동 조사를 실시하는 해로 보호자와 교사 대상으로 각각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과 TRF(Teacher's Report Form)를 실시함.

□ 아동, 주양육자(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교사 대상의 5종 설문지를 살펴 설문지의 구성과 흐름을 검토하고 문항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여 응답자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이고자 함.

- 아동용 설문지는 1) 일상생활과 경험, 2) 학업, 3) 정서 및 관련 경험, 4) 진로진학 및 가치관, 5) 부모님, 6) 신체 발달로 구성하여 조사함.
- 주양육자(보호자)용 설문지는 1) 가구 및 가구원, 2) 아동, 3) 아동의 학교, 4) 아동의 사교육, 5) 지역사회 및 정책으로 구성하여 조사함.
- 부모용 설문지는 1) 평소 느낌과 생각, 2) 일상생활과 건강, 3) 취업 및 직업으로 구성하여 조사함.
- 교사용 설문지는 1) 학교, 2) 교사, 3) 아동으로 구성하여 조사함.

다. 패널유지를 위한 사업

□ 패널가구에 진로진학과 주요 과목 학습법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고 아동패널 사업 참여의 만족도와 패널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함.

- 2023년 5월 13일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고, 한국갤럽과 한국교육방송(EBS)이 공동기획함.

□ 패널유지의 방안으로 문자, SNS를 통해 조사에 대해 공지하고 퀴즈를 통한 상품권 지급, 레터링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진행함.

□ 2008년도 1차 조사 이후 2022년 15차 조사까지 연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감사장과 함께 감사선물을 증정함.

3. 15차년도(2022년) 데이터 기초분석

가. 15차년도 조사개요

□ 1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가구는 주양육자 조사 기준 1,304가구(아동 조사 1,293명)임.

□ 가구 특성은 평균 가구원수 4.60명, 자녀수 2.23명이었음.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616.8만원으로 조사되었음. 거주지역은 대도시 69.71%, 중소도시 17.71%, 읍면 12.58%임.

나. 아동 특성

□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의 일상생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식생활 진단 조사 결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인스턴트 섭취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는 월평균 55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보다 과일 섭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시간의 주중과 주말 수면시간 조사 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수면시간이 길게 나타났고 책읽기 평균시간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숙제 및 학습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길었으며, 월평균 750만원 초과하는 가구는 월평균 350만원 초과 550만원 이하 가구보다 주말 아동의 숙제 및 학습시간이 길게 나타남. 또한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숙제 등 학습시간이 길게 나타남.
- 영상시청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긴 반면, 게임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길게 나타남. 월평균 35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주중 영상시청시간이 길고, 게임시간은 저소득가구가 고소득가구에 비해 길게 나타남.

-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부모응답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아동응답의 차이는 매우 크게 조사됨. 부모가 응답하는 미디어기기 중독 조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중이 44.94%로 나타났으나, 아동이 응답하는 스마트폰 중독 조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 비중이 1.02%로 매우 낮았음.

□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의 신체 및 건강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신장은 평균 165.36cm(남학생 169.39cm, 여학생 161.14cm), 체중은 평균 58.40kg(남학생 63.30kg, 여학생 53.11kg)으로 조사되었음.
- 신체적 자아상의 경우 아동들은 4점 척도 중 평균 2.68점으로 응답함. 성별로는 신장 만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체중조절 경험도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 증량 노력 17.62%, 노력 안함 34.46%, 유지 노력이 23.64%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과반에 가까운 45.47%가 감량 노력을 했다고 조사되었음.
-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읍면지역의 아동이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더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음.

□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의 학습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아동의 집행기능 분석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행동통제 곤란 평균점수가 더 높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은 반대로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남.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아동이 타지역 아동에 비해 부주의 평균점수가 더 낮음.
-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2.67점(5점 척도)으로 조사되어 14차 응답결과(전체 평균 2.42점, 김지현 외, 2022: 132)에 비해 높아짐.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숙제/시험 스트레스가 더 높게 조사됨.
- 자기조절학습의 경우 전체 평균은 2.69점(4점 척도)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월평균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월평균 750만원 초과 고소득가구 아동의 자기조절학습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의 사회 및 정서 발달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자아존중감의 전체 평균은 3.13점(4점 척도)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3.19점, 여학생 3.06점으로 남학생이 더 높았음.

- 아동의 삶의 만족감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96점(4점 척도)이었음.
- 아동의 우울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1.51점(4점 척도)으로 나타남. 우울수준의 경우 남학생이 1.49점, 여학생 1.54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았고, 지역 규모가 클수록 우울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 아동의 끈기는 평균 3.06점(5점 척도)이었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3.11점으로 여학생 3.00점보다 높게 나타남.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소재 아동이 3.16점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아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공감척도는 평균 4.21점(6점 척도)이었음. 이는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남.
- 학교적응은 성별로는 학교친구 영역과 학교생활 영역의 경우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은 반면, 학교교사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남. 가구소득별로는 학교공부 영역에서 월평균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550만원 초과 가구 아동의 점수가 더 높고, 학교친구 영역에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750만원 초과 고소득가구 아동의 점수가 높게 조사됨.
- 아동의 또래애착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는데, 또래애착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만 남학생 3.08점, 여학생 3.2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사이버 비행 인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읍면이 도시지역에 비해 점수가 높았음.
- 공동체 의식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집과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았음.

다. 부모 및 가구 특성

□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 부모의 가구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패널가구의 가구 구성은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84.51%이고 평균 가구원수는 4.60명, 평균 총 자녀수는 2.23명임.
- 패널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616.76만원이며, 구간별로는 350만원 이하 13.86%, 350~550만원 34.22%, 550~750만원 28.35%. 750만원 초과는 23.57%임.

- 거주지역의 규모는 대도시 69.71%, 중소도시 17.71%, 읍면 12.58%임.

□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 부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어머니 평균연령 45.10세, 아버지 평균연령 47.62세임. 어머니의 경우 초혼 유배우 93.62%, 재혼 유배우 0.92%, 이혼 4.23%이며, 아버지의 경우는 초혼 유배우 93.47%, 재혼 유배우 1.08%임.
- 부모 각각 조사한 자아존중감은 부모 모두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남. 주관적 만족감과 삶의 만족도도 대체로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시의 이점과 갈등을 살펴보면, 일-가정 이점은 평균 3.79점, 갈등은 2.17점으로 갈등보다 이점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일-가정 이점 점수는 평균 3.89점, 갈등은 2.15점으로 아버지 역시 갈등보다 이점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 부모의 양육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 어머니의 경우 아동 성별,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 성별이 남성이거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어머니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한편, 아버지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남.
-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학업적/교육적 지원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집안 공부 분위기 조성과 공부방법 조언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남. 또한, 남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평소 자녀의 생활 확인 및 일정 관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경우 아동은 전체 문항 평균이 3.91점, 아버지는 3.74점, 어머니는 3.76점으로 아동의 점수가 가장 높아 가족 내 의사소통이 대체로 잘 이뤄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구소득별로 달리 나타나 고소득가구의 어머니는 저소득가구보다 가정 내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라. 학교 및 사교육 특성

□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의 학교 및 교사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학교의 평균 학급수는 7.55개이고, 반 평균 학생수는 26.65명임.
- 교사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73.08%이고, 남성이 26.92%였으며, 평균 교사 연령은 39.84세임. 평균 교사경력은 12.18년이고, 교사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63.65%로 가장 많고 이어 석사학위 취득이 26.92%였음.
- 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8.48시간임.
- 담임교사 대상으로 학교풍토를 교사풍토, 학생풍토, 학부모풍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교사풍토의 경우(4개 항목, 4점 척도) 3.21점에서 3.66점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가 3.6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항목은 3.21점으로 가장 낮았음.
- 학생풍토의 경우(5개 항목, 4점 척도), 2.94점에서 3.33점으로 나타남. 학생들의 학교 시설을 아끼려는 마음 항목은 2.94점으로 가장 낮았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는 3.33점으로 가장 높았음.
- 학부모풍토의 경우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항목이 가장 낮았고,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항목이 3.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사 대상의 학생비행 조사 결과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한다'는 평균 2.47점,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균 2.90점으로 두 문항 모두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
- 담임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를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로 구분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4개 항목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항목은 생활지도 항목이었고(3.37점), 수업지도 항목은 2.73점으로 4개 항목 중에서는 비교적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조사됨.
- 교사효능감 분석결과 전체 평균은 4.13점(5점 척도)으로 효능감 수준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 연령이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았음.

□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의 사교육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 조사 결과, 90.80%가 학교 수업

외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가구소득이 높고 지역 규모가 클수록 응답비중이 높았음.

-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에 설문에서도 88.57%가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가구소득이 높거나 지역 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용하는 사교육의 과목은 수학이 가장 많고, 영어, 과학, 국어, 체육, 논술, 음악 순임.
-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하는 학교 외 기관 및 매체는 학원으로 월평균 53.61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어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8.19만원, 인터넷/화상 강의 13.41만원, 학습지(방문교사) 11.74만원 순임.
- 아동이 느끼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 정도의 전체 평균은 2.25점(5점 척도)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부담 정도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 아동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마.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패널가구가 경험한 지역사회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최근 1년 동안 이사한 패널가구 중 이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대상 패널가구의 43.92%가 주거환경(주택, 교통) 때문이라 응답함.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주변환경(의료, 문화)의 이유로 이사했다는 응답비중이 높았음.
- 지역사회 시설의 편리성 조사 결과 교육·의료·복지시설 모두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여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접근편리성이 낮게 나타남.
-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의 경우 여가 공간시설에서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편리성 점수가 낮았음.
-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안정성 조사에서는 지역 규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정기순찰’ 항목에서 대도시의 안정성 점수가 높았음.

□ 패널가구가 응답한 정책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한 동의 정도 분석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약 42%로 나타난 가운데 가구소득이 높거나 지역 규모가 클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 비율이 높았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동의가 약 9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고등학

교 체제 단순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정도로 나타난 가운데 고소득이고 지역 규모가 클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고교학점제는 동의한다가 약 42%, 보통이 약 38%로 나타났으며, 지역 규모가 클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약 71%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중이 높았음.

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가. 자료 활용 현황

□ 2023년 3월 15일 기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표된 연구보고서, 세미나, 논문 등은 총 1,228편임.

- 학술논문이 857편으로 70% 정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학술논문의 데이터 활용을 살펴보면 횡단연구는 523편, 종단연구는 334편임.

나. 제14회 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 제14회 학술대회는 '한국아동패널로 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since 2008'을 주제로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9월 8일(금)에 개최되었음.

□ 제14회 학술대회는 연구자들에게 14차 자료를 우선 제공하는 자리로 1~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을 공모·발표함. 성장발달, 미디어, 부모, 학교생활 및 적응의 4개 주제로 총 16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대학원생의 연구논문 공모 심사결과로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1개 팀에 대해 시상함.

□ 이외 종단연구 방법론 워크숍(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자료의 분석)을 포함하여 주요 요인 종단분석 인포그래픽 전시(한국아동패널 아동의 과거, 현재, 미래) 등의 세션을 마련함.

□ 제14회 학술대회는 8월 말에 학술대회를 개최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신규 패널사업(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과 연계하여 홍보하였으며 총 10개 학회가 협력하였음.

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변수정리 작업

□ 한국아동패널은 2021년부터 변수, 설문지, 도구프로파일을 연결시키는 변인지도를 제작하여 공개해 왔으며 2023년에는 1차부터 14차년도까지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함.

5. 심층분석: 패널아동의 삶의 만족도 궤적과 사교육 특성

가. 심층분석Ⅰ -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 궤적을 활용한 유형화 분석 및 집단별 특성

□ 패널아동(아동·청소년기)과 패널아동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각각 알아보고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성장궤적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함.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성장궤적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고찰하고, 이어 아동·청소년기(초4~중2)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며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봄. 종합적으로, 모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고찰함.

□ 분석자료는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2019년, 초4)부터 15차년도(2022년, 중2)까지의 원자료임. 5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어머니,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어머니 1,031명, 아동 1,145명, 어머니+아동 1,00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 분석변수로는 삶의 만족도, 인구학적 특성,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학습, 상호관계 및 발달 관련 변인을 활용함.

□ 분석방법으로는 사건계열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형화 한 후 유형화된 집단별로 아동 및 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심리적 요인 및 아동 발달 관련 요인들 간의 차이 검정을 실시함.

□ 모의 삶의 만족도 궤적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 모의 삶의 만족도는 자녀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유형화 분석결과 1.만족도가 계속해서 높았던 집단(M1), 2.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만족도가 높아지는 집단(M2), 3.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만족도가 낮아진 집단(M3), 4.계속해서 만족도가 낮았던 집단(M4)로 나눠짐.
- 모의 삶의 만족도 유형에 있어 가구 특성 중에서 모 학력과 가구소득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부부 갈등 점수는 정확하게 삶의 만족도와 동일한 변화궤적을 보였으며,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아동의 삶의 만족도 궤적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 모의 삶의 만족도와 달리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형화 분석결과 1.지속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C1), 2.삶의 만족도가 증감을 반복하는 집단(C2), 3.초등 6학년 이후 삶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집단(C3), 4.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C4)로 나눠짐.
-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가구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 가구소득 조차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 되지 않음.
- 학업 이해도(학업성취), 학교 선호도와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등의 변인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 집단별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긍정적인 또래애착(의사소통, 신뢰)과 부정적인 또래애착(소외)은 모두 유형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음.

□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궤적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궤적을 유형화 해보면, 1.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CM1), 2.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반면, 모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CM2), 3.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CM3), 4.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CM4)로 구분됨.
- 모-아동의 삶의 만족도 유형 집단에 따라 가구 특성 중 가구소득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나. 심층분석II - 사교육 이용패턴의 종단적 분석 및 특성

□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사교육 이용형태와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함. 구체적으로 아동의 사교육 참여형태를 연도별로 살펴보고,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 변화패턴을 그룹화한 후 인구사회학적·사교육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 분석자료는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 초1)부터 15차(2022년, 중2)까지 총 8개년도 원자료임.

□ 분석변수로는 사교육 관련 변수(사교육 종류 및 이용여부, 사교육 이용기관, 사교육비, 사교육 시간, 사교육비 부담 정도, 사교육 만족도 등), 학업능력 변수(학업 이해도, 학업 수행 능력 등), 개인 및 가구 배경 변수(아동성별, 부모학력, 부모직업, 모 근로시간, 가구소득 등)을 사용함.

□ 분석방법은 사교육비 변화패턴 유형화를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이외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함.

□ 아동의 사교육 참여, 사교육비. 사교육 시간 변화 추이

- 사교육 참여 여부를 '사교육 안함', '교과목×, 특기적성○', '교과목○, 특기적성×', '교과목○, 특기적성○' 등 4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였고, '교과목×, 특기적성○'사례는 없었음.
- 초1에서 초6까지 '교과목○, 특기적성×'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교과목○, 특기적성○'은 감소추세를 보임. 이를 통해 초등학교 시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의 형태가 교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목 중심 사교육 비율이 높아지고, 특기적성 사교육은 교내 방과후과정 등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함.
- 사교육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사교육비 상승폭은 다소 둔화 추세를 보인 후 중학교 입학 시기에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함.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비 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특기적성에 사교육비 투자는 크게 감소함.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 과외에 지출되는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주당 평균 사교육 이용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기존 초등학교 시기(9~10시간)보다 2시간 정도 증가함.

□ 아동 사교육비 지출 변화유형 그룹화

- 패널아동의 사교육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떠한 변화패턴을 찾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변화패턴을 3개로 그룹화함.
- 그룹1은 사교육비가 다소 낮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상태로 지속되는 그룹(사교육 저투자 유지형 그룹)이고, 그룹2는 평균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룹(사교육 중투자 증가형 그룹)이며, 그룹3

은 다른 아동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많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사교육 고투자 증가형 그룹)임.

□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특성 분석

-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지역별로는 그룹3은 대도시, 서울/경인권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그룹1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부모학력과 직업에 따라서는 그룹3은 고학력 비율과 관리직/전문가/사무종사자 비율이 높았고, 그룹1은 고졸이하 비율과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모의 근로시간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음.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의 사교육 투자금액이 높게 나타남.
-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사교육 이용 특성(이용기관, 이용시간, 이용부담,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결과, 사교육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고투자 증가형(그룹3)은 학원 이용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저투자 유지형(그룹1)은 인터넷 강의와 학습지, 공공기관 이용 등 기타 시설 이용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
-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높고 매년 상승하는 그룹3이 그룹1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사교육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부담 또한 그룹3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학업능력 간의 차이분석결과, 아동이 응답한 학업 이해도와 교사가 응답한 학업 수행 능력 모두 사교육비 지출금액이 높은 그룹(그룹3 〉 그룹2 〉 그룹1)일수록 학업능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가구소득 대비 자녀 지출비 비중은 초1~2학년 시기에는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초3시기부터는 사교육비 고투자 증가형(그룹3)의 비율이 높고, 저투자 유지형(그룹1)은 낮은 비율을 보임.

6. 패널데이터 추이분석 및 시사점

가. 한국아동패널 1-15차 추이분석

□ 아동 특성

-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의 체중은 남학생 평균 63.20kg, 여학생 평균 53.11kg으로 중학교 1학년 때에 비해 남학생은 4.21kg, 여학생은 1.98kg 증가함.
-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의 신장은 남학생 평균 169.35cm, 여학생 평균 161.14cm로, 중학교 1학년 때에 비해 남학생은 5.2cm, 여학생은 2.15cm 증가함.

□ 부모 특성

- 아버지는 취/학업 상태의 비중이 줄곧 90% 중후반대로 나타나는 반면, 어머니는 아동이 0세 때 30% 초반 대부터 시작하여 초1 때 다소 감소하다가 14세 때에는 68.1%까지 증가함.
- 아버지의 정규직/상용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70~80% 정도로 나타나고 비정규직 2~6% 정도, 자영업 등의 기타의 비중이 10~20% 정도로 나타남. 어머니의 경우는 정규직/상용직의 비중이 아동의 영아기를 제외하면 줄곧 60% 대를 보이다가, 중등시기 정규직/상용직의 비중이 90% 후반대로 높아짐.
- 부부 갈등은 아동연령 0세 때 어머니의 점수가 다소 높으나, 이후 성별 차이가 미미한 편임. 부부 갈등 점수는 아동이 중등 2학년인 14세에는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어머니의 점수가 2.10점으로 아버지 2.03점보다 높아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 갈등 정도가 크게 나타남.

□ 지역사회 특성

- 지역사회의 여가 및 문화시설의 접근 편리성 분석결과, 영유아기, 아동초기에 조사된 점수보다 초등·중학년 이후인 아동후기부터 조사된 점수가 높게 나타남. 아동이 14세 때의 분석결과를 보면 여가 및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은 각각 3.64점, 3.26점으로 1~15차년도의 점수 중 가장 높음.

나. 15차년도 데이터 분석의 시사점

□ 부모-자녀 간 관점차이에 대한 인식 및 상호이해를 위한 지원 필요

- 미디어 중독 조사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결과 아동과 부모의 응답 결과가 큰 차이를 보임.

- 부모, 자녀 간 관점 차이로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충분한 인식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도시지역 아동의 학업부담 경계 및 읍면지역 편의시설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도시지역 아동이 읍면지역에 비해 학업비중이 높고 관련 스트레스가 높으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 정서의 점수도 높게 나타남. 읍면지역의 경우는 교육, 의료, 복지, 여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남.
- 도시지역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과도한 학업부담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읍면지역의 교육, 의료, 복지, 여가 시설의 확충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저소득가구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모색 필요

- 저소득가구 아동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미디어, 게임시간이 길고 부모로부터의 교육적 지원이 낮게 나타남. 또한, 저소득의 경제적 상황은 아동의 조절능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과도 부정적 연관도 드러남.
- 경제적 빈곤으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 모색이 필요함.

□ 뚜렷해지는 성차에 대한 이해 및 지원 필요

- 아동의 성별 격차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함께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임.
- 성별 격차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야기된 면도 있지만, 신체적 자아상과 같이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기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적 개입도 필요해 보임.

I

개요

01 사업 목적
02 사업 내용
03 주요 방법

Ⅰ. 개요

1. 사업 목적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Ⅱ)」(이하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한국의 유일한 신생아 대상 장기 종단연구로서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하여 아동의 성장에 따른 주요 영역별 종단자료를 국가수준에서 수집·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아동이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아동의 신생아기부터 영유아기,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의 자료를 축적하게 된다. 조사영역과 관련해서는 E. Bronfenbrenner(1979, 1989)의 생태학이론과 G. Elder(1998, 2006)의 생애이론에 기반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 가족, 돌봄 및 보육(영유아기), 학교·사교육(아동기) 특성을 조사하며, 환경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회와 정책 영역도 포괄한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으로 아동과 주양육자, 아동의 부모,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영유아기), 학교의 담임교사(아동기)를 설정하여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층적인 조사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조사대상별로 매년 1회 진행되는 일반조사 외에도 2~4년의 기간을 두고 아동의 발달단계별 적정 시기에 패널의 일부 집단(200~500여명)을 대상으로 일반조사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심층조사는 그간 패널아동이 1세, 5세, 8세, 12세가 되는 해에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애착, 기질, 성격, 언어 발달, 인성, 정서조절, 건강(알레르기 등) 등에 대해 다루어왔으며, 아동이 청소년후기에 진입하는 2024년(16세)과 성년기(19세) 2027년 두 차례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한국아동패널은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지필 및 면접 방식 외에도 아동의 발달단계와 조사내용에 따라 의료진, 발달영역별 전공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관찰 및 수행검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차별적인 시도를 해왔다.

이렇게 축적된 한국아동패널 조사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자료 관리주체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는 국가가 승인 관리하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 자료를 공개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3년차가 되는 2010년부터 매해 학술대회를 개최해 학계 및 연구·정책기관의 학생, 연구자, 전문가들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학술논문을 작성하고 토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발표된 연구물은 1,228편에 달하며 이중 학술논문으로 857편이 작성되었다. 특히 영유아기의 자료를 종단분석할 수 있었던 2016년도와 초등시기까지의 종단연구가 가능한 2020년 이후에 활용논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도남희·배윤진·김혜진·강규돈·장현진, 2022: 25). 2023년에는 14차 자료의 공개로 패널아동이 중학생이 된 초기 청소년 시기까지의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종단자료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여 자료의 관리주체로서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고하고자 했다.

2023년은 16년차 연구로 2008년생인 패널아동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진입하였다. 진로진학에 대한 탐색과 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으며, 아동이 완연한 청소년으로 성장한 단계이므로 현 설문체계와 구성이 청소년 대상 조사에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22년 15차년도 자료로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간 축적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아동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궤적을 분석하고 사교육 특성을 살펴보는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15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신생아였던 아동들이 완연한 청소년으로 성장한 단계이므로 오랜 기간 조사를 성실히 이행한 패널가구를 격려하고 조사 비중이 커진 아동의 참여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특히 패널아동이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이므로 이에 맞는 독려방안을 고안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아동패널 중3을 위한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5차 연속 조사참여가구에 대한 감사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이행하였다.

2. 사업 내용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아동패널 16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2008년에 2008년생을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은 2023년 중등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패널아동과 가구(주양육자, 부모), 아동의 학교(담임교사)를 대상으로 16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한국아동패널 15차 조사 데이터로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그간 축적된 종단자료를 활용해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15차 조사 데이터로 아동, 부모,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정책 영역의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횡단면 기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단자료를 이용해 패널아동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궤적을 분석하고 사교육 이용패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14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14차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2021년에 수행된 14차 조사 데이터는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우선 제공되어 활용되었으며 학술대회 후 일정의 검증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였다.

넷째, 1~14차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사용자 편의작업을 수행하였다. 1~14차까지의 조사 데이터, 설문지, 도구프로파일 및 변인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며 이외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구상, 실행하였다.

[그림 Ⅰ-2-1] 2023년도 한국아동패널 주요 사업

16차 조사진행	15차 자료 기초분석 및 종단자료 심층분석	14차 학술대회 개최	1~14차 자료관리 및 사용자 편의작업
►2023년 16차 조사 실시 • 중학교 3학년 과정 • 아동, 부모, 교사 조사 ►패널유지를 위한 방안 모색	►2022년 15차 자료에 대한 기초 분석 수행 • 영역별 분석 ►종단자료를 이용한 심층분석 • 삶의 만족도 궤적 분석 • 사교육 이용패턴 분석	►14차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논문공모 및 발표 • 2021년 14차 조사 데이터 제공	►조사 데이터, 설문지, 도구프로파일 및 변인지도 점검 관리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실행

〈표 Ⅰ-2-1〉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조사 실시 개요

구분	일반조사							심층 조사	학술 대회
시기	0~2세	3~6세	7~9세 (초등 1~3)	11~12세 (초등 4~6)	13-15세 (중등 1~3)	16-18세 (고등 1~3)	19세 (대학교 1)		
	영아기	유아기	아동초기	아동후기	청소년초기	청소년후기	성년기		
2008년	1차								
2009년	2차							1차	
2010년	3차							부가조사*	1회
2011년		4차							2회
2012년		5차							3회
2013년		6차						2차	4회
2014년		7차							5회
2015년			8차						6회
2016년			9차					3차**	7회
2017년			10차						8회
2018년				11차					9회
2019년				12차					10회
2020년				13차				4차	11회
2021년					14차				12회
2022년					15차				13회
2023년					16차				14회
2024년						17차		5차	-
2025년						18차			-
2026년						19차			-
2027년							20차	6차	-

주: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크게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됨. '일반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본조사로서 매년 실시함. '심층조사'는 2~4년에 한 번씩 시행되며, 문항내용 및 검사방법이 일반조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을 실행함.

* 한국아동패널의 표본과 별도로 2010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 1,000사례를 추출하여 부가조사를 진행함. 조사내용은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기초하여 이를 비교·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심층 3차: 8차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5년~2016년까지 질병관리본부 R&D 과제로 아산병원과 각 지역별 거점 병원에서 혈액, 소변, 폐기능 검사 등의 심층조사가 실시됨.

3. 주요 방법

가. 문헌연구

청소년기 유사 조사 검토를 통해 한국아동패널 조사가 청소년기에 맞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아동패널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패널조사에서의 표본이탈과 유지 등을 주제로 한 문헌들을 검토하고 본 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나. 16차 조사 수행

1) 조사대상 및 규모

한국아동패널의 2023년 16차 조사는 패널아동, 아동의 주양육자, 아동의 부모, 아동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에 2008년 출생아동가구 2,078가구(원표본)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완료하고 3차년도까지 예비표본의 합류를 허용하여 2,150가구를 전체표본으로 구축해 조사해 왔다. 2022년 15차 조사에는 이 중 4년 이상 연속미참여자, 아동사망, 연락처유실, 강력거절 가구를 제외한 1,521가구를 유효표본으로 설정해 패널가구(주양육자) 응답기준으로 1,304가구가 조사를 완료하였다. 2023년 16차 조사는 전체표본 2,150가구 중 2018~2022년 5년 연속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630가구, 강력 거절 11가구, 아동사망 등으로 조사불가한 1가구를 제외하고 1,508가구를 유효표본으로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또한, 15차의 조사가 완료되고 2022년 전체패널 대비 60.7%(원패널 대비 62.8%)가 조사된 시점에서, 2023년 16차년도 조사에서는 원패널 기준 아동사망 등의 조사불가 가구를 제외하고 최초표본가구(2,150가구) 전수 최소 1회 이상 컨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내용은 변인특성에 따라 ‘아동’, ‘부모’, ‘가구’, ‘교육 및 돌봄(영유아기)’, ‘학교 및 사교육(아동기)’, ‘지역사회’, ‘정책’의 7개 영역으로 구분

된다. 이중 교육 및 돌봄 영역은 영유아기 시기의 조사이므로 16차 조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영역의 조사를 진행한다. 2023년 16차년도 조사의 대상별 조사방법과 주요한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Ⅰ-3-1〉 2023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및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도구)	주요 조사내용	비고 (설문지)
아동	측정	- 신체 측정: 신장, 체중, 허리둘레	아동용 설문지
	대면 면접조사 (TAPI) (대면 면접 어려울시 온라인 조사)	- 아동 특성: 생활시간, 미디어 이용시간, 취미, 신체 특성, 실내외 활동, 인지 발달, 학습스트레스, 자아 발달, 사회성 발달, 사회 관련 의식, 미래/진로, 학교 환경 및 사교육 인식 등 - 부모 특성: 성취압력, 부모애착, 아동학대 등	
주양육자	대면 면접조사 (TAPI)	-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 및 치료 등 - 부모 특성: 부부 특성, 질환 및 장애 등 -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소득, 지출 등), 가정환경 특성 등 - 학교·사교육 특성: 학교 이용, 사교육 특성,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등 -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양육환경 등 - 정책 특성: 국가적 지원,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등	보호자용 설문지
어머니	지필식 조사 (우편발송)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양육 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	어머니 설문지
아버지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양육 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	아버지 설문지
담임교사	온라인 조사 (CAWI)	- 아동 특성: 학업 수행 능력, 교사와의 관계 -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 운영, 가정 협력 등	교사용 설문지

자료: 김지현 외(202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57~58. 〈표 Ⅲ-1-1〉 재구성

3) 조사절차

한국아동패널의 2023년 16차 조사는 조사준비 단계로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조사업체를 선정하였다. 조사업체 선정 후에는 16차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아동, 보호자, 부모, 교사 대상 설문지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조사내용과 설문지 확정 후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조사원 선발 및 교육, TAPI 조사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진행의 단계에서는 패널 참여가구를 방문하여 아동과 보호자,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모와 아동을 통해 컨택된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종료 후에는 조사자료를 수합하고 자료 클리닝, 종단 및 횡단 가중치 개발 작업을 실시한다. 한편 조사원 대상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조사 개선방안을 모색 하였다.

4) 패널유지 방안

2023년에는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도하였다. 우선, 패널가구의 조사거절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컨택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즉, 조사거절 유형을 거절의 강도(강력거절-응답없음 등, 단순거절-시간없음 등), 거절의 이유(학업, 유학 및 예체능 전공으로 인한 아동의 주거지로부터의 분리 등), 거절의 주체(보호자 거절, 아동 거절 등)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을 나누어 유형별로 조사로 유인하는 데에 효과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해 적용하고 모니터하고자 했다.

조사대상 관련해서는 조사의 무게가 주양육자, 부모에서 아동으로 옮겨진 상황이므로 아동을 포인트로 컨택과 조사 관련 안내를 제공하고 패널아동과의 SNS 채널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참여동기 제고를 꾀하고자 했다. 담임교사 조사의 경우 패널가구의 동의와 정보제공으로 컨택되어 조사하게 되는데 부모 승인, 교사정보 제공, 교사컨택, 조사완료 등 단계별 이행·참여율 조사를 통해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고자 했다.

그간 제공해 왔던 조사완료 사례쿠폰 지급, 명절·기념일(가정의 달, 설 선물 등) 및 거주지 이전 변경고지에 대한 선물 제공, 조사참여자 경품 추첨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때 사례 방식 변경(사례비 현금지급 병행), 조정(가구조사-주양육자, 부, 모 모두 완료시 추가 사례비 지급, 아동 생일달 선물 지급 등), 추가 지급(15년 연속 조사참여 패널 감사품 증정) 등을 시행하였다.

이외 2023년의 패널 대상 이벤트로 상반기 중 패널아동과 부모대상으로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현재 중3 과정으로 상급학교 진입을 앞둔 패널아동 및 양육자의 진로계획을 돕고, 16차 조사실시에 앞서 개최함으로써 조사참여와 패널유지를 독려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실시

2023년 한국아동패널은 주요 사안별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우선 16차 조사내용의 구성을 위해 설문지의 조사문항 검토를 주제로 하여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조사업체 관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사원 관리 및 패널가구 사례방식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16차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조사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영유아기와 초등시기의 13차까지의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어 비교적 긴 기간의 종단데이터가 구축된 상태이므로 이용자 확대와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아동패널 유저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료관리와 사용자 편의제공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였다.

〈표 Ⅰ-3-2〉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실시 계획

구분	안건	개최일	자문자/참여자
조사 내용	청소년기 특화 주제 검토-정서 문항 등	2023. 4. 18.	사회복지 전공자
	식생활 진단 등 수정 검토	2023. 5. 4.	영양학 전공자
조사 관리	조사원 관리 및 패널가구 사례방식에 대한 논의	2023. 6. 19.	조사업체 관리자
	자료 관리 및 사용자 편의제공 강화 논의	2023. 8. 7.	패널 관리 및 연구자/ 아동패널 유저
	조사 개선방안 논의-조사원 간담회	2023. 11. 16. ~ 22.	조사원

라. 15차 자료 에디팅 및 기초분석

2022년에 조사한 15차 자료는 2022년 말부터 데이터 클리닝과 에디팅 작업을 수행하였다. 즉, 이상치와 논리적 오류 등을 수정하고 무응답 조정 등의 사후 보정을 실시하며 종단변수 생성과 횡단 및 종단 가중치 개발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15차 자료의 클리닝 및 에디팅 작업 후에는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15차 자료로 횡단면 기술분석을 실시하며 ‘아동’, ‘부모’, ‘가구’, ‘학교 및 사교육(아동기)’, ‘지역사회’, ‘정책’ 영역별 주요 변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 1~14차 자료관리 및 사용자 편의 작업

1차부터 13차 조사의 조사 데이터, 질문지, 코드북, 사용자 지침서, 변인지도 및 도구프로파일을 관리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 업데이트하였다.

2021년의 14차 조사자료는 2023년 14차 학술대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 통과된 이들에게 우선 제공되었다. 이때 14차 데이터뿐 아니라 업데이트된 질문지, 코드북, 변인지도 및 도구프로파일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14차 조사자료들은 이후의 보정작업을 거쳐 2023년 12월 말에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외 아동패널 유저와의 간담회, 패널 관리 및 연구자와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자료의 제공방식 및 형태, 변인지도 및 도구프로파일, 사용자 지침서 등의 안내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용자 편의 증진을 꾀하고자 했다.

바. 14차 학술대회 개최

2023년 제14차 학술대회는 연구자들에게 14차 자료를 우선 제공하는 자리로 1~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을 공모·발표하였다.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는 성장·발달, 미디어, 부모, 학교생활 및 적응의 4개 주제로 총 16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내외 대학원생의 연구논문 공모 심사결과로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1개 팀에 대해 시상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영유아기, 아동기에 이어 청소년 시기의 자료까지 활용할 수 있으므로 종단연구 활용 제고를 꾀하는 기획세션을 마련하였다. 기획세션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자료의 분석'을 주제로 종단연구 방법론 워크숍을 포함하여, 주요 요인 종단분석 인포그래픽 전시 등의 세션을 마련하였다.

제14차 학술대회는 홍보 등에 있어 8월 말의 육아정책연구소의 신규 패널사업(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3)과 연계함으로써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총 10개 학회가 협력하였다.

제14차 학술대회는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월 8일(금)에 개최되었다.

〈표 Ⅰ-3-3〉 14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요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주제/기획</td><td>○ 주제: ‘한국아동패널로 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since 2008’
○ 논문공모 및 발표: 1~14차 자료 활용 연구 공모 및 발표, 14차 자료 우선 제공
- 성장발달, 미디어, 부모, 학교생활 및 적응의 4개 주제로 총 16개의 연구논문 발표
-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1개 팀 시상
○ 종단연구 활용제고 방안으로 기획
- 종단연구 방법론 워크숍: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자료의 분석’
- 주요 종단분석 인포그래픽 전시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과거, 현재, 미래’
○ 신규패널과의 연계 홍보, 10개 학회 협력 등</td></tr>
<tr><td>장소/일정</td><td>○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 중구 소재)
○ 주요 일정 :
<table><tr><td>공고 및 연구계획서 공모</td><td>2023. 4. 3. (월)</td></tr><tr><td>연구계획서 마감</td><td>2023. 5. 4. (목)</td></tr><tr><td>원고 마감</td><td>2023. 7. 21. (금)</td></tr><tr><td>학술대회 개최</td><td>2023. 9. 8. (금)</td></tr></table></td></tr>
</table>

Ⅱ

16차년도(2023년) 조사 사업 보고

01 16차년도 조사과정
02 16차년도 조사내용
03 패널유지를 위한 사업

Ⅱ. 16차년도(2023년) 조사 사업 보고

1. 16차년도 조사과정

16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의 조사과정은 크게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조사준비 과정, 7월 이후부터의 조사진행 과정 그리고 조사가 완료된 이후의 처리의 3개 과정으로 구분된다.

[그림 Ⅱ-1-1] 16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 조사과정

조사준비 (1~6월)	조사진행 (7~12월)	조사종료 후
▸ 질문지 작성 ▸ IRB 심의 ▸ 조사프로그램 구축 ▸ 조사원 교육	▸ 유효패널 설정 및 접촉 ▸ 조사진행 - 조사안내문, 우편질문지발송 - 가구방문조사 - 담임교사 접촉 및 온라인조사 ▸ 조사 모니터링	▸ 조사원 간담회 ▸ 조사자료 수합 ▸ 자료 관리 - 자료 클리닝 - 가중치 개발

가. 조사준비

1) 설문지 작성

한국아동패널 사업의 조사 설문지는 패널아동용 설문지, 패널아동의 보호자 설문지, 패널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설문지와 패널아동의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5종의 설문지로 구성된다.

2023년 16차년도의 설문지는 14차년도 패널아동이 중학생이 되던 해에 청소년기 조사로 수정한 설문의 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되, 고교진학을 앞두고 진로탐색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진로진학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을 추가함과 동시에 활용도가 낮은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또한 일부 문항을 중3의 시기에 맞는 문항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16차년도에는 5종 설문지의 흐름

을 검토하고 문항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설문구성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상의 과정으로 결정된 구체적인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 절의 조사내용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2)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확정된 16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의 설문지와 조사준비 내용을 토대로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신청하여 2023년 6월 14일 심의를 통해 '수정후 승인' 판정을 받고 지적받은 사항을 수정하여 최종승인 받았다.

한국아동패널의 주된 연구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로 분류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보호대책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자발성 확보, 예측되는 부작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등을 계획하였고 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3)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조사원은 조사뿐 아니라 사업 전의 패널 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즉, 패널가구 컨택, 방문, 변동현황에 대한 추적 등 패널가구 전반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사원 1인이 일괄 관리하여 혼선과 오류를 최소화하며 전담조사원이 해당 가구와 지속적으로 컨택하여 패널과 조사원 간 라포(rapport) 형성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처럼 패널조사의 수행에서는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의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16차년도에도 경험 조사원을 재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난 조사에서 성실성 등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조사원 2명은 교체하였다. 16차 조사에 투입된 조사원은 총 53명이다.

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실사 시작 전 지역별 집체교육을 진행하고 조사진행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16차년도 집체교육은 2023년 6월 28일부터 6월 30일 3일간 5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집체교육은 실사업체의 담당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진이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 및 모니터하였다. 교육내용으로

는 패널 관리방안(조사대상자 접촉방법, 협조체계 구축 등), 조사내용 설명 및 문항별 주의사항(조사 보조자료 활용방안), TAPI 시스템 진행절차와 활용법 등이 포함되었다.

〈표 Ⅱ-1-1〉 2023년 16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교육일시	교육장소	담당지역	참여예정 조사원 수
2023. 6. 28. (수) 10시~15시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0
2023. 6. 29. (목) 10시~15시	대전	대전, 충남, 충북	8
	대구	대구, 경북	9
2023. 6. 30. (금) 10시~15시	광주	광주, 전남, 전북	7
	부산	부산, 울산, 경남	10
계			55

나. 16차년도 조사진행

1) 유효표본 설정 및 접촉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1차년도에 구축된 2,078가구를 원표본으로 보고 예비표본 중에서[1] 2차년도에 52가구, 3차년도에 20가구를 추가 표집하여 2,150가구를 전체표본으로 구축하여 조사해 왔다. 16차 조사의 유효표본은 전체표본 2,150가구 중 2018~2022년 5년 연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630가구, 강력 거절 11가구, 아동사망 등으로 조사불가한 1가구를 제외하고 1,508가구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2023년 16차 조사는 유효가구 1,508가구를 중점적으로 접촉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Ⅱ-1-2〉 2023년 16차년도 조사의 유효표본

단위: 가구

전체표본 (a)	제외 가구			16차년도 유효표본 a-(b+c+d)
	5년 연속(18~22년) 미참여 (b)	강력거절 등 (c)	아동사망 등 조사불가[1] (d)	
2,150	630	11	1	**1,508**

주: 아동사망 등의 조사불가 사유는 2021~2022년 확인된 수치로, 사망으로 인한 조사불가 사례는 '연속 미참여자수'에 더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1) 한국아동패널의 모집단은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로 모집단은 2006년 기준 연간 분만 건수가 500건 이상인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2008년 4~7월 동안 출생한 신생아 가구로 설정하였으며, 총 2,562가구의 예비표본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16차 조사에서는 전체표본 2,150가구의 전체 패널가구을 대상으로[2] 1회 이상 컨택을 시도하여 패널 복원과 유지를 꾀하고자 했다. 즉, 지난 3년간(2020~2022년) 응답하지 않다가 올해 16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복원패널'로 지칭하고 패널아동의 학교재학 상황 중심으로 한 회고 문항과 조사참여 중단 이유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지난 최근년도(2021~2022년)에 강력 거절한 가구(2023년 6월 기준 11가구)는 패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유예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진행

16차년도 조사는 2023년 상반기 준비 연락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2023년 4~5월 실사 담당기관에서 전화번호, 주소 등 사전정보 확인 조사 연락을 취하고 6월 조사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가구의 담당조사원이 전화연락을 통해 조사일정을 안내하며 방문조사일을 정하였다. 실제의 가구 방문조사는 7월부터 시작하였다.

아동, 주양육자 조사는 담당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TAPI(Tablet Aided Personal Interviewing) 면접을 통해 진행하였다. 담당조사원은 주양육자 조사와 아동 조사를 각각 따로 진행하며 순서는 가정의 환경과 선호에 따라 정하였다. 아동 조사의 경우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대면조사에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 온라인 조사를 권하고 이행함으로써 패널유지를 꾀하고자 했다. 아동대상 온라인 조사는 조사 참여링크가 있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진행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조사는 질문지에 지필로 기입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때의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는 가구방문 조사 이전에 각 가구로 우편 송부하여 미리 응답토록 한 뒤, 담당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수거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담임교사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우선, 가구 방문하여 아동, 주양육자 조사를 실시하면서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주양육자(부모), 아동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동의 시 학교명, 담임교사명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협조 공문을 비롯해 패널조사 소개, 조사 참여안내문이 동봉된 우편봉투를 아동

2) 아동사망 등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2023년 6월 기준 1개 가구)는 이때의 컨택에서 제외하였다.

에게 주어 담임교사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을 통한 안내와 요청을 통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기간(가구조사 완료일 1개월)이 지나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의 대표번호로 연락해 조사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이메일을 통한 담임교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Ⅱ-1-3〉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구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진행 시간
아동 조사	패널아동 전체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테블릿 PC용 설문(TAPI)을 이용한 대인면접 대인면접 어려울 시 온라인 조사	약 40분
주양육자 조사	패널아동의 주양육자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테블릿 PC용 설문(TAPI)을 이용한 대인면접	약 60분 (문제행동검사지-CBCL 20분 포함)
어머니/아버지 조사	패널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지필식 조사(우편 발송)	어머니 15분 아버지 15분
담임교사 조사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온라인 조사(CAWI)	약 30분 (문제행동검사지-TRF 20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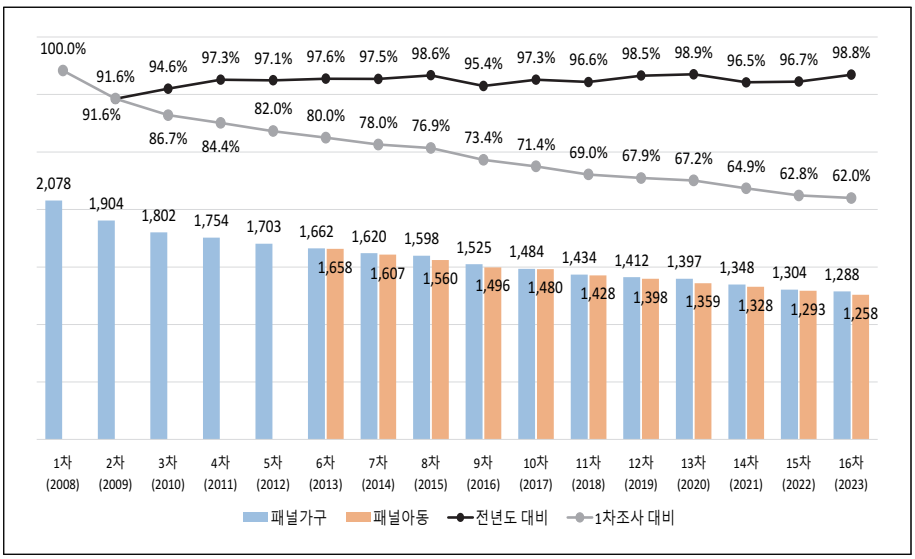
이상의 조사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23년 8월 26일, 8월 31일, 2개 지역의 2개 가구에 실사기관의 담당자와 연구진이 함께 방문하여 조사수행과정에 참여하며 조사원의 현장 조사과정을 점검하였으며, 조사원 및 조사가구를 독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다. 조사종료

1) 조사참여율 및 표본유지율

2008년 1차년도 조사부터 2023년 16차년도 조사까지의 연도별 조사참여율 및 표본 유지율은 다음 [그림 Ⅱ-1-2]와 같다. 2023년 16차년도 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패널가구는 1,288가구(아동 1,258명)이다. 이는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 2,078가구의 62.0%이며, 2023년 조사에 설정했던 유효표본 1,508가구 대비 85.4%, 작년조사 수인 1,304명 대비 98.8%로 제시된다.

[그림 Ⅱ-1-2] 2008~2023년 조사참여율



주: 전년도 대비 조사 참여율 및 전체 패널 대비 조사 참여율 수치는 패널가구수(주양육자 응답)를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김지현 외(202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77. 그림에서 16차년도 수치를 추가한 자료임.

〈표 Ⅱ-1-4〉를 통해 조사대상별 조사참여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양육자는 1,288명이 참여하였고 아동은 1,258명으로 주양육자 대비 97.7%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아동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방문면접조사 방식을 고수하되 방문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어려울 시 온라인 조사를 시도한 결과, 온라인 조사로는 4명이 참여하였다. 어머니 조사에는 1,198명(주양육자의 93.0%), 아버지 조사에는 1,106명(주양육자의 85.9%)이 참여하였으며, 교사 조사에는 526명(주양육자의 40.8%)이 참여하였다.

〈표 Ⅱ-1-4〉 2023년 조사대상별 조사참여율

단위: 명, %

구분	주양육자	아동			모	부	교사
조사방법	대인면접 (TAPI)	대인면접 + 온라인	대인면접 (TAPI)	온라인	지필식 기입 (우편전달, 방문수거)		온라인 조사
조사참여자수	1,288	1,258	1,254	4	1,198	1,106	526
조사참여율 (주양육자 대비)	(100.0)	(97.7)	(97.4)	(0.3)	(93.0)	(85.9)	(40.8)

조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정규조사 외에 2023년에는 강력 거절한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유예조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하지만 복원패널(2020~2022년의 지난 3년간 응답하지 않다가 2023년 조사에 참여한 가구)로서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없었다.

〈표 Ⅱ-1-5〉 2023년 조사유형별 조사참여율

단위: 명

정규조사	유예조사	복원패널	전체
1,288	40	0	1,328

주: 정규 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행된 조사를 의미하며 주양육자(가구) 응답 기준으로 산출함.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서울·지역은 166가구(아동 157명)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인천·경기지역은 404가구(아동 383명), 대전·충청·강원지역은 178가구(179명)가 참석하였다. 대구·경북은 137가구(아동 137명), 부산·울산·경남은 229가구(아동 227명)가 참여하였으며, 광주·전라·제주에서는 174가구(아동 175명)가 참여하였다.

〈표 Ⅱ-1-6〉 2008~2023년 지역별 조사 참여가구수

단위: 가구수(아동수)

패널 현황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계
전체 패널	335	683	281	248	371	232	2,150
1차(2008년)	328	662	272	242	348	226	2,078
2차(2009년)	280	604	275	221	315	209	1,904
3차(2010년)	260	580	251	209	308	194	1,802
4차(2011년)	246	562	243	211	299	193	1,754
5차(2012년)	231	553	234	199	291	195	1,703
6차(2013년)	226(224)	532(531)	223(222)	196(196)	287(287)	198(198)	1,662(1,658)
7차(2014년)	223(221)	508(502)	227(224)	188(188)	281(279)	193(193)	1,620(1,607)
8차(2015년)	209(192)	512(492)	226(226)	179(178)	283(283)	189(189)	1,598(1,560)
9차(2016년)	182(177)	481(265)	222(220)	178(176)	277(274)	185(184)	1,525(1,496)
10차(2017년)	175(174)	480(475)	212(212)	170(172)	261(262)	186(185)	1,484(1,480)
11차(2018년)	166(164)	454(450)	211(211)	163(163)	253(253)	187(187)	1,434(1,428)
12차(2019년)	169(163)	438(431)	208(207)	159(158)	251(251)	187(188)	1,412(1,398)
13차(2020년)	172(158)	443(418)	197(199)	157(157)	247(246)	181(181)	1,397(1,359)
14차(2021년)	166(158)	434(425)	184(183)	147(147)	236(234)	181(181)	1,348(1,328)

패널 현황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계
15차(2022년)	167(162)	403(399)	184(183)	140(140)	231(229)	179(180)	1,304(1,293)
16차(2023년)	166(157)	404(383)	178(179)	137(137)	229(227)	174(175)	1,288(1,258)

주: 패널가구수(주양육자 응답)를 기준으로 계산함. 괄호 안은 아동 응답수임.
자료: 김지현 외(202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77~78. 표에서 16차년도 수치를 추가한 자료임.

2) 조사원 간담회 개최

2023년 16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진과 조사회사 연구진, 각 지역별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이 참여하였으며, 전국을 권역별로 묶어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서울에서 총 5회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당해 연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과 특이점, 차년도 조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일정과 논의내용은 〈표 Ⅱ-1-7〉, 〈표 Ⅱ-1-8〉과 같다.

〈표 Ⅱ-1-7〉 16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일시	장소	대상자	
		지역	조사원(슈퍼바이저 포함)
2023. 11. 16.	대전	대전, 충남, 충북	9
2023. 11. 17.	광주	광주, 전남, 전북	8
2023. 11. 20.	부산	부산, 울산, 경남	11
2023. 11. 21.	대구	대구, 경북	9
2023. 11. 22.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0

〈표 Ⅱ-1-8〉 16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구분	내용
2023년 진행현황	- 진행률 공유 - 올해 특이사항 - 잔여 할당 확인 및 진행 독려
패널 컨택	- 컨택 관련 애로사항 - 거절 아동에 대한 응대 방식 - 업무비(다과비) 지원 도입에 대한 의견
패널 유지활동	- 가정의 달 선물 관련 - 15차 연속참여자 선물 관련 - 카카오톡 채널 참여 독려(퀴즈, 열공간식 등)
조사진행	- 진행 방식 관련 의견(주양육자, 아동의 진행방식 및 순서, 아동 온라인조사 도입 등) - 부모이혼 등 예민할 수 있는 문항들 대처 방식 - 담임교사 조사협조 관련 - 유예조사/ 복원패널의 진행 현황 -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분위기 - TAPI 사용 불편사항
기타	- 애로사항 -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2. 16차년도 조사내용

가. 조사내용 개괄과 설문지 구성

2023년의 16차년도 조사는 패널아동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2021년, 2022년 중학교 1, 2학년에 실시하였던 조사와 연속성을 가지도록 내용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진학에 대한 준비와 관심이 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진학 준비와 직업선택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문항을 보완하였다. 또한 아동 대상 설문비중이 커져 패널아동들의 피로도와 불만감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활용도가 적은 문항을 삭제하고 아동성장에 따라 일부 문항을 청소년 시기에 맞는 문항으로 교체하였다.

특히, 16차조사에서는 아동, 주양육자(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교사 대상의 5종 설문지를 살펴 설문지의 구성과 흐름을 검토하고 문항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여 응답자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일례로 아동 조사 시 신생아기부터 시작한 조사의 특성에 따라 신체계측이 전면에 배치해 있었으나 아동성장에 따라 현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가장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이상의 작업으로 구성된 설문지별 조사의 체계와 내용을 개괄한 것이다.

〈표 Ⅱ-2-1〉 16차년도 설문지별 구성

구분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도구)
아동용 설문지	1) 일상생활과 경험	- 식생활 및 음주, 흡연 - 미디어, 생활시간, 취미/신체활동 - 가사참여 및 비속어 사용	대면 면접 (TAPI)
	2) 학업	- 학업성취도, 스트레스, 자기조절학습 - 사교육 경험 및 인식	
	3) 정서 및 관련경험	-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율성, 행복감, 우울 - 이성관계, 또래애착, 학교적응, 공감 - 폭력피해/가해, 사이버비행인식	
	4) 진로진학 및 가치관	- 진학유형, 진로성숙도, 진로진학활동 - 희망직업, 직업선택조건 - 경제적 인식 및 용돈사용/결혼 및 자녀관	
	5) 부모님	- 부모의 성취압력 및 부모애착 -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감독 및 합리적 설명, 학대	
	6) 신체 발달	- 신체적 자아상, 체형 인식, 체중조절 경험 - 2차 성징/체중/키/허리둘레	
주양육자 (보호자)용 설문지	1) 가구 및 가구원	- 가구구성원, 동거 여부, 비동거사유, 장애 여부 - 이사, 반려동물 - 가구소득, 지출, 주관적 사회적경제적 지위	대면 면접 (TAPI) (대면 면접 어려울시 온라인 조사)
	2) 아동	- 건강상태, 치료, 장애, 질환 등 - 식사 및 참여활동, 미디어중독 - 부모 감독, 부모지원 - 문제행동(CBCL)	
	3) 아동의 학교	- 학교재학 및 이용기관, 학교참여 및 만족도 - 아동의 학업성취도	
	4) 아동의 사교육	- 교육서비스 이용경험, 부담 정도, 만족도	
	5) 지역사회 및 정책	- 환경안전, 편의성, 만족도 - 국민기초생활 및 지원사업 수급경험 - 공교육내실화, 한국사회교육 인식	
부모용 설문지	1) 평소 느낌과 생각	- 행복감, 만족도, 스트레스, 우울, 결혼 만족도 - 부모-자녀 의사소통, 양육 스트레스	지필식 조사 (우편발송)
	2) 일상생활과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흡연, 신체활동 - 스마트폰 중독	
	3) 취업 및 직업	- 취업 상태 및 특성, 일자리만족도 - 근무일수/시간/출퇴근/근로(사업)소득 - 일가정 양립 인식	
교사용 설문지	1) 학교	- 학교 특성 및 학교풍토, 학교환경	온라인 조사 (CAWI)
	2) 교사	- 교사특성, 업무 스트레스/교사효능감	
	3) 아동	- 교사아동 관계, 부모님의 학교참여 - 문제행동(TRF), 아동 체력평가 결과(PAPS)	

나. 주제별 조사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 주양육자(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총 5종의 설문지로 조사되고 설문지에 따라 조사내용이 대체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지만, 동일한 조사내용, 문항이라도 아동성장에 따라 응답주체가 변경되어 설문지 간에 조사문항의 이동이 잦았다. 이런 이유로 변경된 조사내용을 주로 다루는 본 파트에서는 주제별로 조사내용을 기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의 4개 주제별로 조사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중학교 시기인 14, 15, 16차년도의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되, 16차년도 변화된 내용을 중심적으로 기술하였다.

1) 아동 특성

가) 일상생활 영역

패널아동의 일상생활 영역은 인구학적 특성, 식생활 진단, 미디어, 생활시간, 실내외 활동 등에 대해 조사한다. 식생활과 관련된 문항은 기존 식품과 식습관 등 식생활 전반을 7개 세부문항으로 묻는 '식생활 진단', 그리고 '탄산음료 섭취', '인스턴트 섭취'의 총 3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기의 식습관을 고려하고 항목별로 재구분하여 '식생활 진단_식품', '식생활 진단_음료', '식생활 진단_기타'로 수정하였다. 즉, 기존 식생활 진단 문항의 식품 관련 문항과 인스턴트 섭취 문항을 조합하여 7개 문항의 '식생활 진단_식품' 문항을 구성하고, 특히 청소년기 섭취량의 증가로 문제로 지적되는 탄산음료 섭취와 기존 식생활 문항의 음료를 조합하여 '식생활 진단_음료'를 구성하였다(김동욱·이혜진, 2019; 김아영·김진희·계승희, 2018). 그리고 기존 식생활 문항 중 식습관 등에 해당하는 일부 문항을 선정하여 '식생활 진단_기타'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탄산음료 섭취 등 청소년기 식생활의 특성을 새로 추가하되 기본적으로 전년도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가능한 기존문항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국민영양조사 제8기(2019-2021)[3]의 음료 섭취 문항 등을 참고하였으며 영양학 전공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일과활동시간과 관련해서 학습 부문에 청소년기의 학습패턴을 반영하여 '방과 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수행평가, 조별과제, 시험공부, 동아리 활동 등)'을 추가하였으며, 여가 및 교제 문항의 문구 수정과 예시 추가를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취미생활 관련 문항의 예시 추가 등)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였다(비대면 교제 문항의 '통신기기' 삭제). 또한, 가족 및 휴식시간의 충분성 등 시간사용의 만족도를 묻던 문항은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관련 문항으로 18개 활동별 주중/주말 24시간의 구체적인 시간사용을 묻고 있어 응답자 피로도가 큰데다, 사회, 정서 발달 부문에서 아동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어 유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미 관련 문항도 통합하였다. 그간 '악기연주', '스포츠활동'의 경험과 '취미활동'의 3개 문항이 있었는데 청소년기에는 악기연주와 스포츠활동을 발달측면의 경험이나 학습보다는 취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연구진의 논의에 근거하여 '악기연주', '스포츠활동' 문항을 따로 묻지 않고 '취미활동'으로 통합해 묻기로 하였다. 이때 전공으로 하는 활동이나 킬링타임용 활동은 제외하도록 설명을 추가하여 취미로서의 활동임을 명확히 하였다.

〈표 Ⅱ-2-2〉 14~16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일상생활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인구학적 특성		성별*, 출생월*, 월령*, 출생순위	○	○	○
일상생활	식생활	식생활 진단	◉	◉	-
		탄산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	◉	-
		식생활 진단_식품	-	-	◉(신규)
		식생활 진단_음료	-	-	◉(신규)
		식생활 진단_기타	-	-	◉(신규)
		가족과의 식사 횟수	○	○	○
	미디어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미디어 이용 시간 총합	◉	◉	◉
		미디어 이용시간 항목별 세부시간(시간으로 응답)	◉	◉	◉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진단)	-	○	○
		스마트폰 중독(자가진단)	◉	◉	◉
		컴퓨터 사용 능력(격년)	-	◉	-

3)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제8기(2019-2021).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3/sub03_06_02.do (2023년 5월 3일 인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생활 시간	(주중, 주말) 기상 및 취침 시각, 수면시간	◉	◉	◉
		(주중, 주말) 일과활동시간	◉	◉	◉
		활동별 참여 빈도	○	○	○
		시간사용 만족도	◉	◉	삭제
	실내/외 활동	독서량	◉	◉	◉
		실내외 신체 활동	◉	◉	◉
		비대면/대면등교 여부	◉	◉	삭제
		취미(악기연주, 스포츠경험) 여부	◉	◉	삭제
		취미 여부 및 종류	◉	◉	◉
	참여	가사 참여 여부	◉	◉	◉

주: 약호설명(○: 보호자응답, ◉: 아동응답)
*: TAPI 면담 시 종단값 구현

나)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에서는 아동의 기본적인 신체계측이 이루어지고 보호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교사 대상의 아동 체력검사 결과 조사가 포함되며 2차 성징, 체중조절, 신체적 자아상 등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장애 및 질환 조사와 음주, 흡연 조사가 포함된다.

16차년도에는 청소년들의 경험 특성 및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음주, 흡연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고 신체계측 및 체중조절 정보를 추가 조사하기로 하였다(이탄·이민우·신문수·김성준, 2021; 서수인·오진경·임민경, 2017). 구체적으로 음주 및 흡연 관련해서는 제17차(2021) 청소년건강행태조사[4]를 참고하여 음주 장소와 주류 구입 시 어려움 정도, 담배 입수경로와 구입 시 어려움 정도를 묻는 음주와 흡연 관련 2개 문항을 각각 추가하였다.

체중, 신장, 허리둘레에 대한 계측방식 문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치확인용 비공개 문항에서 16차년도부터는 본 설문에 포함시키고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체중조절방법에 대해서는 보기 문항을 추가하고(병원 등에서 처방받은 약(한약포함)) 예시를 넣어(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 보조식품 등)) 조사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조사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장애, 만성질환, 심리사회적 질환과 관련된 문항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4)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설문지 https://www.kdca.go.kr/yhs/home.jsp (2023년 5월 3일 인출)

〈표 Ⅱ-2-3〉 14~16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체중/신장/허리둘레*	◉	◉	◉
		신체계측방법	비공개	비공개	◉
		주관적 건강상태_보호자 인식	○	○	○
		시력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	○
		체력검사 결과(PAPS)	■	■	■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 시기	◉	◉	◉
		신체적 자아상	◉	◉	◉
		체중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	◉	◉
		체중조절 방법	◉	◉	◉
	질환 및 치료	장애 유형별 판정 여부 및 정도*	○	○	○
		만성질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	○
		응급실/입원치료 여부 및 이유	○	○	○
	음주 흡연	음주경험 여부, 횟수	-	◉	◉
		음주장소	-	-	◉(신규)
		주류 구매 시 어려움	-	-	◉(신규)
		흡연경험 여부, 횟수	-	◉	◉
		담배 입수경로	-	-	◉(신규)
		담배 구매 시 어려움	-	-	◉(신규)

주: 약호설명(○: 보호자응답, ◉: 아동응답, ■: 교사응답)
*: TAPI 면담 시 종단값 구현

다) 인지 발달 및 학습

인지 발달 및 학습 영역에서는 집행기능 등 인지 발달영역의 척도 문항과 학업 성취정도, 학업 스트레스, 자기조절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우선, 16차년도에는 ‘학업성취도’ 항목을 추가하여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준 아동의 과목별 성적표에 기재된 결과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간은 아동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가 수행되기 전이라 교사 관점의 학업 수행 능력 문항과 아동의 주관적 이해도로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자 했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과목별 패널아동의 수행 정도를 또래학생 대비 상대평가(부진, 보통이하, 보통, 보통이상, 매우잘함)로 응답하도록 했던 ‘학업 수행 능력’ 문항과 아동 대상으로 과목별 이해정도를 5점 척도로 묻던 ‘학업 이해도’ 문항은 삭제하였다.

이때 새롭게 추가된 ‘학업성취도’ 조사에서는 현행 평가체제의 점수를 그대로 기재하되,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응답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도록 설계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대상자별(아동과 보호자) 응답을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5차년도에 조사하였던 집행기능은 격년문항으로 16차년도에는 조사하지 않는다.

〈표 Ⅱ-2-4〉 14~16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인지 발달 및 학습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인지 발달 및 학습	인지 발달	집행기능(격년)	-	◉	-
	학습 관련	학업 수행 능력(중등)	■	■	삭제
		학업 이해도	◉	◉	삭제
		학업성취도	-	-	◉○ (신규)
		과목 선호도	◉	◉	◉
		학업 스트레스	◉	◉	◉
		자기조절학습	◉	◉	◉
	언어 발달	비속어 사용	◉	◉	◉

주: 약호설명(○: 보호자응답, ◉: 아동응답, ■: 교사응답)

라) 사회 및 정서 발달영역

사회 및 정서 발달영역에서는 자아 발달과 관련해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자율성의 문항이 포함되고 정서와 관련된 행복감, 우울 관련 조사가 포함된다.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선 학교적응, 또래애착, 공감의 척도문항들과 문제행동 조사가 실시되며, 집단괴롭힘과 폭력피해 및 가해 경험 등을 묻는다. 또한 미래진로와 관련된 문항들과 결혼 및 자녀관, 공동체 의식 등의 사회인식 문항들이 포함된다.

16차년도의 변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5차년도에는 빠져있었던 ‘자아탄력성’과 ‘자율성’ 문항은 격년문항으로 14차년도에 이어 올해 16차년도 조사에 포함된다. 역시 격년문항으로 14차년도에 실시되었던 자아정체감 문항의 경우 16차년도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간 타당도 및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김지현 외, 2022: 61) 자아탄력성 문항과의 내용 유사성 등으로 16차년도부터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반적 행복감’의 1번 문항 ‘학교공부를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공부를 생각하면 행복하다’로 수정하였다. 이는 5번 문항에서 다니는 학교에 대한 만족감을 묻고 있어 1번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전반적 공부와 학업이라는 연구진의 해석에 근거해 포괄범위를 넓힌 것으로,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문항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5번 문항은 ‘다니는 학교’에 대한 문항이므로 학교 재학 중이 아니라고 응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5번 문항에는 응답하지 못하도록 로직 설정하였다. ‘삶의 만족도’ 문항은 타변인과 중복되고 청소년기 문항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16차년도 조사부터 삭제하기로 하였다.

미래진로와 관련해서는 패널아동들의 상위학급 진학을 앞두고 진로에 따라 진학유형이 달라지는 시기에 있고 이 시기의 진로진학활동과 참여정도가 진로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김주후·정소미, 2022; 이휘인·김현철, 2015). ‘진로진학활동’ 문항을 추가하고 기존의 ‘미래희망모습’ 문항을 ‘직업선택조건’ 문항으로 교체하여 조사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진로진학활동’ 문항은 학교담임교사/진로상담교사, 사교육종사자, 부모님과의 대화, 진로적성검사, 상급학교 방문, 입시설명회 참석 등에 대한 경험과 도움정도를 묻는 문항이며, ‘직업선택조건’ 문항은 희망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을 제시한 문항으로서 기존의 ‘미래희망모습’보다 구체적인 직업관을 담고 있다. 이상의 두 개 문항은 서울교육종단 3차년도[5] 중학생 설문지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진로진학에 대한 문항 추가와 연동하여, 미래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5점 척도로 조사했던 ‘미래에 대한 인식’ 문항은 16차년도부터 제외하기로 하였다.

문제행동은 격년 조사로 14차년도에 이어 16차년도 조사에 포함된다. 문제행동 조사는 보호자 대상으로 ‘부모용 아동·청소년행동평가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 아동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용 아동·청소년행동평가 TRF(Teacher‘s Report Form)’를 실시한다. 보호자와 교사 대상 조사 모두 총 120문항(3점 리커트 척도)으로 되어 있으며,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으로 분류되어 9개의 하위 척도(증후군 척도 8개, 기타 척도 1개)로 구성된다. 이는 저작권 있는 유료 도구로 설문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5) 3차년도(2012년)설문지-학생용(초,중,고) https://www.serii.re.kr/fus/MI000000000000000495/board/BO00000362/ctgynone/view0010v.do (2023년 5월 17일 인출)

경제 관련하여 15차년도 자문진들이 경제관념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문항 추가의 의견을 주었으나(김지현 외, 2022: 62), 2017년 한국아동패널 중장기 계획에도 고등시기부터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도남희·배윤진·이예진·이윤진·김문정·임준범·김희수, 2017: 156) 17차년도 조사로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16차년도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표 Ⅱ-2-5〉 14~16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 발달	자아존중감	◉	◉	◉
		자아탄력성(격년)	◉	-	◉
		자아정체감(격년)	◉	-	삭제
		전반적 행복감	◉	◉	◉
		삶의 만족도	◉	◉	삭제
		우울	◉	◉	◉
		GRIT(끈기)(격년)	-	◉	-
		자율성(격년)	◉	-	◉
	사회성 발달	또래애착(의사소통, 신뢰, 소외)	◉	◉	◉
		학교적응 (중·고등학교)	◉	◉	◉
		공감	◉	◉	◉
		사이버 비행(인식)	◉	◉	◉
		문제행동(격년)	○■	-	○■
		폭력피해(온/오프)	◉	◉	◉
		폭력가해(온/오프)	◉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_아동	◉	◉	◉
		이성관계	◉	◉	◉
	미래/진로	미래희망모습	◉	◉	삭제
		직업선택조건	-	-	◉(신규)
		미래희망직업	◉	◉	◉
		진로성숙도	◉	◉	◉
		진로진학활동	-	-	◉(신규)
		미래에 대한 인식	◉	◉	삭제
		결혼관/자녀관	◉	◉	◉
	경제사회 관련	저축 여부	◉	◉	삭제
		저축금 출처	◉	삭제	삭제
		저축금 방법	◉	◉	삭제
		용돈 지급 여부, 지급액	◉	◉	◉
		용돈 사용처	◉	◉	◉
		공동체 의식(격년)	-	◉	-
		안전에 대한 인식	◉	◉	삭제

주: 약호설명(○: 보호자응답, ◉: 아동응답, ■: 교사응답)

2) 부모 특성

부모 특성 부문에서는 부모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 외에 개인적인 특성으로 우울, 행복감, 스트레스 등 심리특성, 건강과 장애, 음주와 흡연 등의 신체·건강 특성과 부모의 취업특성이 포함된다. 또한 부부 관계와 관련하여 결혼 만족도나 부부 갈등 등의 조사가 포함되며,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성취압력, 부모 애착, 부모 감독,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학업 및 교육적 지원 문항들이 포함된다.

이중 우울 문항은 격년 조사 문항으로 14차년도에 이어 16차년도에 조사된다. 우울 문항은 유저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기에 기존의 우울 척도보다 심층적이고 널리 쓰이는 Kroenke, Spitzer, and Williams의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로 대체하였다. 또한 부모의 신체 및 건강상태와 관련된 문항들이 음주, 흡연 등 부정항목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에다,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부모의 신체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주익현·채철균, 2020) 아동조사의 실내외 신체활동 문항을 성인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부모 각각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였다.

부모의 취업특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종사상지위', '직업', '일자리만족도' 문항은 주된 일자리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여 조사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주된 일자리의 '주당 근로시간'을 추가조사하기로 하였다. 반면 기존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왕복출퇴근 시간' 문항은 주된 일자리 자체에 초점을 맞춘 문항이 아니라 '일 관련한 시간 전반(주된 일자리를 비롯한 노동시간, 일 중 휴게 및 식사시간 포함)'을 묻는 문항으로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묻는 위의 문항들과는 다름을 분명히 하고, 이 내용을 조사원 교육 등을 통해 전달하기로 하였다.

아동학대 문항에서는 4번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가 방임을 묻는 문항으로 쓰였으나, 청소년 시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리커트 척도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삭제하였다. 또한, 이전의 데이터에서도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하였다.

'부모 감독'은 아동과 부모 각각 다른 문항으로 조사해 왔는데, 16차년도부터는 아동이 응답하는 부모 감독 문항을 보호자에게도 똑같이 응답하도록 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간 보호자에게 실시되던 부모 감독 문항은 초등시기(8

차년도)부터 조사해 오던 것으로 성인 부재시의 행동와 연락 여부 등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기의 생활패턴과 다소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 문항을 삭제하고 아동에게 중등시기(14차년도)부터 조사한 부모 감독 문항의 내용을 보호자 입장으로 표현을 수정하여 일관되게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호자에게 '사회적 지원 정도'를 묻는 문항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현 시점에서는 유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표 Ⅱ-2-6〉 14~16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	○	○
	심리적 특성	우울(전기)	◑	-	삭제
		우울(후기)	-	-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	◑	◑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	◑
		자아존중감(격년)	-	◑	-
		행동유형	◑	삭제	삭제
		부모 스마트폰 중독	◑	◑	◑
	부부 특성	결혼 상태, 결혼 상태 유지 기간*	○	○	○
		결혼 만족도(격년)	◑	-	◑
		부부 갈등(격년)	-	◑	-
부모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	◑	◑
	질환/장애	1·2급 장애 유무 및 정도	○	○	○
	운동	실내외 신체활동	-	-	◑(신규)
	음주 및 흡연	음주 여부, 횟수, 양, 과음 횟수	◑	◑	◑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	◑	◑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취/학업 상태*	○◑	○◑	◑
	취업 특성	재직 상태, 지위, 직업분류*	○◑	○◑	◑
		직장 변동 여부	○◑	○◑	삭제
		종사상 지위	○◑	○◑	◑
		주당 근로시간	-	-	◑(신규)
		근무일수, 근무시간, 출퇴근 소요시간	○◑	○◑	◑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	○◑	◑
양육 특성	양육 실제	양육방식(성취압력)	◉	◉	◉
		부모애착척도(IPPA)	◉	◉	◉
		양육행동(합리적 설명)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부모 감독(전기)	○	○	삭제
		부모 감독(후기)	◉	◉	◉○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	삭제	삭제
		아동학대	◉	◉	◉
		양육 스트레스	◑	◑	◑
		부모-자녀 의사소통	-	◉◑	◉◑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수	○	○	삭제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	○	○
	지원 특성	사회적 지원 정도	○	○	삭제

주: 약호설명(○: 보호자응답, ◑: 어머니/아버지응답, ◉: 아동응답, ■: 교사응답)
*: TAPI 면담 시 종단값 구현

3) 가구 특성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구성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환경, 반려동물 여부 등 물리적 환경 특성에 대해 조사하며, 경제적 특성으로 가구 및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가구지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표 Ⅱ-2-7〉 14~16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패널아동-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	○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수	○	○	○
	구성원 특성	성별, 생년월일*	○	○	○
		결혼 여부, 합가 사유*	○	○	삭제
		패널아동 다둥이 여부	-	-	○ (신규)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이) 개별 방 여부*	○	○	○
	생활환경	애완동물(반려동물) 여부	○	○	○
경제적 특성	소득	가구소득	○	○	○
		취업 모/부 근로소득	○◑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빈도	◉	◉	◉
	지출	가구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삭제	삭제
		자녀교육비용	○	삭제	삭제
	자산 및 부채	부동산, 금융자산*	○	삭제	삭제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액*	○	삭제	삭제

주: 약호설명(○: 보호자응답, ◑: 어머니/아버지응답, ◉: 아동응답, ■: 교사응답)
*: TAPI 면담 시 종단값 구현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학교 및 사교육 특성에서는 아동의 학교 재학 특성(재학 여부 및 미진학 시 사유, 대체이용기관)과 학교담임교사에게 조사하는 학교 유형이나 학교풍토, 학생비행 등의 학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며, 교사에 대한 기본적 사항(경력 및 근무시간)과 업무 스트레스, 교사효능감 등도 포함해 조사한다. 또한 부모의 학교참여와 관심에 대해서도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다.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보호자 대상으로 이용기관, 종류, 시간, 만족도, 비용, 부담정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며 아동에게도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사교육 효과에 대해 조사한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청소년기 학교 특성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중2 시기인 15차년도에 교사, 학생, 부모님의 풍토를 묻는 학교풍토 문항과 학교비행 문항이 추가되는 등 조사범위가 확대된 바 있어, 16차년도에는 이러한 조사범위와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들의 사교육 경험과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김현철·황수진·박혜랑, 2019; 김현진·김미혜, 2014)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경우 부담스러운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하였다.

〈표 Ⅱ-2-8〉 14~16차년도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학교	이용 특성	학교 재학 여부	○	○	○◉
		대체 이용기관	○	○	○
		미진학 사유	○	○	○
		전학 여부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학교 특성	학교 유형_중학교	○■	○■	○■
		남녀공학 여부	■	■	○■
		시범학교 유형	■	■	○■
		학교 서비스 만족도	○	○	○
		학교풍토	-	■	■
		학생비행	-	■	■
	물리적 특성	학급수, 학급 학생수	■	■	■
		학교 환경	■	■	■
	교사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 시간	■	■	■
		교사 담당 과목	■	■	■
		업무 스트레스	■	■	■
		교사효능감_중고등	-	■	■
	학급 운영	교사-아동 관계	■	■	■
		창의적 학교 환경	◉	삭제	삭제
	가정 협력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부모)	○	○	○
		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정도	■	■	■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	■	■
		부모의 학교 상담 참여 정도	-	■	■
		학교생활 연락 정도	■	삭제	삭제
		진학계획	○	-	-
		고교 진학유형	○	-	◉○
사교육 특성	이용 특성	이용 종류 및 기관, 시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만족도	○	○	○
		사교육 교재비	○	○	○
		사교육 이용 이유	○	○	○
	사교육 인식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사교육 부담, 사교육 개수 적당, 부담 정도 및 부담 이유)	◉	◉	◉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사교육 효과 인식)	◉	◉	◉

주: 약호설명(○: 보호자응답, ◉: 아동응답, ■: 교사응답)

5) 지역 및 정책 특성

지역 및 정책 특성 부문에서는 주거지역, 이사횟수 및 사유, 양육환경 등의 지역 특성과 정책이용 및 정책에 대한 인식 관련한 정책 특성을 조사한다. 지역 특성과 관련해서는 영유아기에 양육환경과 관련된 조사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나 패널아동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하여 간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16차년도에는 작년 15차년도 조사 시 간소화하여 새로이 제시한 '지역시설 편의성 및 이용만족도'와 기존의 '양육환경 안전성' 문항을 그대로 포함하였다.

정책 특성 부문의 정책 수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여부를 묻는 문항에 더해 청소년가구 또는 청소년대상의 '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경험 여부'를 추가하고, 이와 연동하여 기존의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문항은 삭제하였다. 취약계층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지자체의 교육비 지원사업과 저소득가구 등에게 제공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의 4개 사업을 포함하였다[6].

정책인식과 관련해서는 14, 15차년도부터 조사한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문항을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의견'과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의 2개 문항으로 교체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에 포함된 개별정책들 중 일부가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한데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서 시기별 교체해야 하는 개별정책에 대한 조사보다는 공교육 전반과 보편적인 정책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패널조사에 적합할 것이라는 연구진의 판단에 근거하였다. 추가된 2개 문항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2022)의 문6번과 12번을 발췌한 것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의견'은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 '대입 선발 방식 개선', '교원의 전문성 제고', '학습자의 기초학력 보장',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 '진로교육 강화', '수업방식의 다양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의 8개 보기 중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은 '5년 전에 비해 교육의 질이 좋아졌다', '5년 후에는 현재보다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의 2개 세부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보호자의 인식 및 기대에 대한 생각을 응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6)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서비스찾기〉 서비스목록〉 생애주기 내 '청소년'으로 검색하여 사업 발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2023년 6월 30일 인출)

〈표 Ⅱ-2-9〉 14~16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16차 (중3)
지역 특성	가구 특성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	○
			이사사유	○	○	○
			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시/군/구, 17개 시/도 구분	○	○	○
	양육 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교육·의료·복지 시설, 공공 여가공간·시설,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지역시설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에 포함)	○	삭제	삭제
			지역시설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	-	○	○
		사회 안전	양육환경 안전성	○	○	○
정책 특성	정책지원 수급경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구분	○	○	○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	○	삭제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급 경험	-	-	○(신규)
	정책인식 및 의견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	○	삭제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의견	-	-	○(신규)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	-	-	○(신규)
			코로나19 대응 정책만족도	○	삭제	삭제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	삭제	삭제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	삭제	삭제

주: 약호설명(○: 보호자응답)
*: TAPI 면담 시 종단값 구현

3. 패널유지를 위한 사업

가. 진로진학설명회 개최

2023년 패널아동이 중학교 3학년으로 고교진학을 앞두고 있기에 패널가구에 진로진학과 주요 과목 학습법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고 아동패널 사업 참여의 만족도와 패널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 조사업체인 한국갤럽과 한국교육방송(EBS)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 대상의 영어, 수학 학습법과 진로진학 및 대학입시를 주제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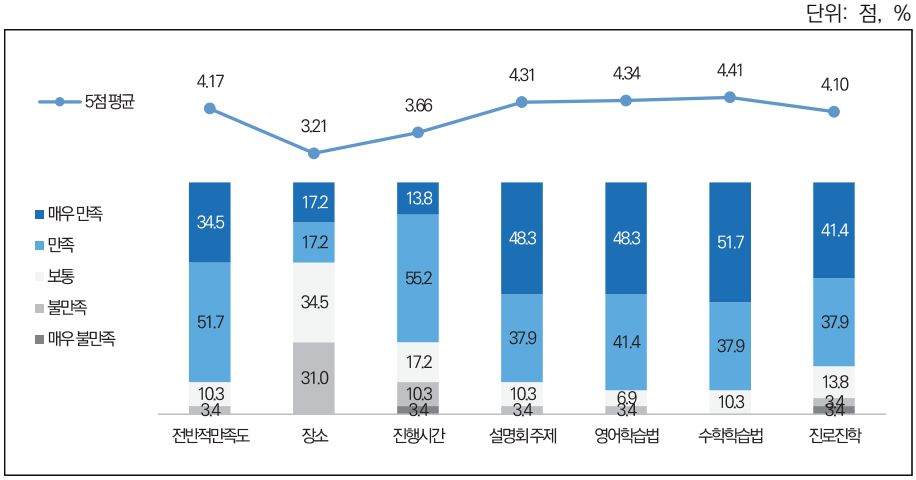
〈표 Ⅱ-3-1〉 패널가구 대상 진로진학설명회 개요

구분	내용
행사명	한국아동패널 중3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한국아동패널-EBS 진로진학설명회
일시	2023년 5월 13일(토) 14:30~17:30
장소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대강당
내용 및 진행	1. 중3을 위한 영어학습법(강사: 현 중학교 교사) 2. 중3을 위한 수학학습법(강사: EBS 수학영역 강사) 3. 진로진학 및 대학입시(강사: 현 고등학교 교사)

행사는 2023년 5월 13일에 패널아동 및 보호자가 참석하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장 설명회에는 32가구 58명이 참석하였다.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의 4.17점으로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각 세션별 만족도 역시 4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모든 패널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서울지역에서 1회 한정적으로 개최하였으므로, 설명회 영상 편집본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현장 미참여 패널가구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림 Ⅱ-3-1] 패널가구 대상 진로진학설명회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



자료: 진로진학설명회 현장 참석자 2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한 결과임.

[그림 II-3-2] 패널가구 대상 진로진학설명회 행사 포스터 등

나. 패널가구 SNS 채널 관리

패널유지의 방안으로 문자, SNS를 통해 조사에 대해 공지하고 퀴즈를 통한 상품권 지급, 레터링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패널조사 예정과 진행중, 조사종료 시 이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아동 대상으로 퀴즈이벤트를 실시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제공하며, 새학기, 명절, 생일에 기념메시지를 전달한다.

관련하여 15차년도부터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오픈하여 활용해 왔다. 가구 방문 시 면접원을 통해 채널 가입을 권유하고 전체 문자 발송 시 채널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여 채널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패널가구 문자 및 SNS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아래의 〈표 II-3-2〉, 〈표 II-3-3〉과 같다.

〈표 II-3-2〉 패널가구 문자, SNS 채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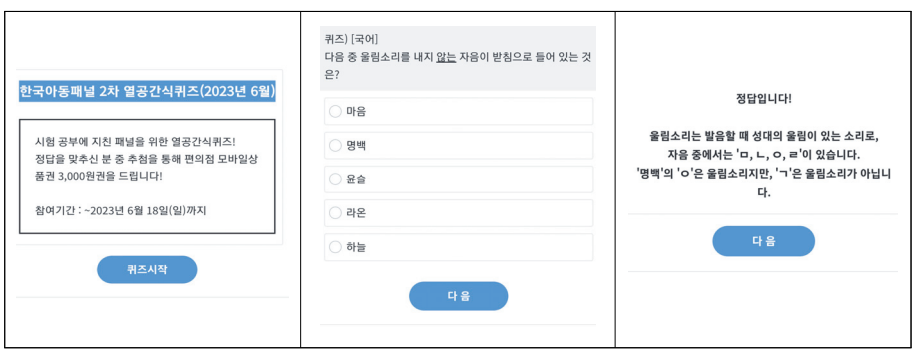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공지	- 16차년도 조사진행에 따른 내용 공지
퀴즈	- 아동패널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아동패널 관련 퀴즈 또는 사회, 역사, 문화 등 일반 상식 문제 - 연6회, 회당 50명 모바일상품권 증정 - 정답을 맞출 때까지 반복가능, 중복당첨 최소화를 위한 리스트 관리

구분	내용
열공퀴즈	- 시험준비기간에 시험범위 고려한 문제 출제 - 연 4회, 회당 50명 모바일상품권 증정 - 정답을 맞출 때까지 반복가능, 중복당첨 최소화를 위한 리스트 관리
레터링/카드뉴스	- 새학기, 명절, 연말 등 기념메시지 전달/ 아동생일 축하메시지 전달 - 청소년기 관련 정보 제공

〈표 Ⅱ-3-3〉 패널가구 문자 및 SNS 채널 관리 일정

연도	구분			
	아동패널 공지	퀴즈	열공퀴즈	레터링
1월	·	·	·	20일(설)
2월	·	·	·	·
3월	·	·	·	2일(개학)
4월	·	·	10일	·
5월	·	15일	·	·
6월	20일	·	12일	·
7월	·	17일, 31일	·	·
8월	16일	14일	·	·
9월	·	·	11일	25일(추석)
10월	17일	16일	·	·
11월	·	13일	·	·
12월	(조사종료 감사인사, 경품)	·	11일	29일(연말)

[그림 Ⅱ-3-3] 문자 발송 링크 퀴즈 이미지 예시



[그림 Ⅱ-3-4]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레터링 이미지 예시

다. 15차 조사 연속참여가구 감사장 및 감사선물 증정

2023년 16차년도 조사에 앞서 2008년도 1차 조사 이후 2022년 15차 조사까지 연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감사장과 함께 감사선물을 증정하였다. 15년 연속 조사참여 가구는 총 929가구이다.

[그림 Ⅱ-3-5] 15차 조사 연속참여가구 감사장 및 감사선물/시계 뒷면 감사인사 문구시안

III

15차년도(2022년) 데이터 기초분석

01 15차년도 조사개요
02 아동 특성
03 부모 및 가구 특성
0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0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06 가중치 산출 및 적용

Ⅲ. 15차년도(2022년) 데이터 기초분석

1. 15차년도 조사개요

가. 조사 특성

2022년에 조사된 14차년도 조사대상자별 참여율은 아래와 같다. 아동은 1,293명이 조사에 응해 주양육자 응답 대비 99.2%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아동의 모는 1,247명(주양육자 응답대비 95.6%), 아동의 부는 1,167명(주양육자 응답 대비 89.5%)가 참여하였다.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는 509명(주양육자 응답 대비 39.0%)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Ⅲ-1-1〉 15차년도 조사대상자별 조사 참여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주양육자	아동	모	부	교사
조사방법	대면 면접조사(TAPI)		지필식 조사(우편전달, 방문수거)		온라인 조사(CAWI)
조사참여자 수	1,304	1,293	1,247	1,167	509
조사 참여율 (주양육자 대비)	(100.0)	(99.2)	(95.6)	(89.5)	(39.0)

나. 조사대상자 특성[7)]

15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조사에 응한 패널 1,304가구 중 남학생은 전체의 51.15%, 여학생은 48.85%였으며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는 36.12%, 둘째 이상은 53.22%, 외동인 경우는 10.66%로 조사되었다. 부모님의 취·학업상태를 살펴보면 모의 경우 취·학업중이라 응답한 경우는 68.10%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1.90%였으며, 부의 경우 취·학업중인 경우는 96.83%, 그렇지 않은

7) 2022년(15차년도) 일반조사 결과 분석은 횡단 가중치로 보정하지 않은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경우는 3.17%로 조사되었다. 이어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대졸 이상이 45.22%, 전문대졸 28.83%, 고졸 이하는 25.95%였으며, 아버지의 경우는 대졸 이상 53.60%, 전문대졸 21.04%, 고졸 이하는 25.36%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6.10세, 아버지는 48.61세로 나타났다.

패널가구의 가구 구성 형태를 보면, 부모+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84.5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조부모+부모+자녀 등으로 구성된 경우는 11.04%이고, 한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99%, 조부모+한부모+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구는 0.92%였다. 패널가구의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60.2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명인 경우 29.06%이고 1명인 경우는 10.66%로 조사되었다. 총 가구원수는 평균 4.60명이었으며, 총 자녀수는 2.23명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 약 616.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50만원 이하인 경우는 13.86%, 350만원 초과 550만원 이하 34.22%, 55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28.35%, 750만원 초과인 경우는 23.57%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규모를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69.71%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 거주가구는 17.71%였으며, 읍면 거주가구는 12.58%로 나타났다.

〈표 Ⅲ-1-2〉 15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아동	구분	어머니	아버지
성별		취·학업 상태		
남	51.15(667)	취·학업 중	68.10(871)	96.83(1130)
여	48.85(637)	미취·미학업 중	31.90(408)	3.17(37)
출생순위		최종학력		
첫째	36.12(471)	대졸 이상	45.22(582)	53.60(670)
둘째 이상	53.22(694)	전문대 졸	28.83(371)	21.04(263)
외동아	10.66(139)	고졸 이하	25.95(334)	25.36(317)
계(수)	100.00(1304)	계(수)	100.00(1297)	100.00(1296)
		연령		
		평균(표준편차)	46.10(3.60)	48.61(3.95)

구분	가구	구분	가구	
가구 구성 형태			평균	표준편차
부모+자녀	84.51(1102)	가구		
조부모+부모+자녀(+친인척+기타)	11.04(114)	총 가구원수(명)	4.60	1.78
한부모+자녀	2.99(39)	총 자녀수(명)	2.23	0.71
조부모+한부모+자녀(+친인척+기타)	0.92(12)	가구소득(만원)	616.76	285.57

구분	가구	구분	가구
조부모+자녀	-		
기타	0.54(7)		
자녀수			
1명	10.66(139)		
2명	60.28(786)		
3명 이상	29.06(37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86(117)		
350 초과~550만원	34.22(437)		
550 초과~750만원	28.35(362)		
750만원 초과	23.57(301)		
지역 규모			
대도시	69.71(909)		
중소도시	17.71(231)		
읍면	12.58(164)		
계(수)	100.00(1304)		

2. 아동 특성

가. 아동 특성 관련 변인 구성

2022년도에 실시된 15차년도 조사에서 아동 관련 변인은 인구학적 특성, 일상생활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언어 및 학습 특성, 사회 및 정서 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구분된 주제별 구체적인 변인들은 아래의 〈표 Ⅲ-2-1〉와 같다.

〈표 Ⅲ-2-1〉 15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월령) • 출생순위
일상생활 특성	식생활	• 식생활 진단 • 탄산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생활시간	• (주중, 주말) 기상 및 취침 시각, 수면시간 • (주중, 주말) 일과활동시간, 활동별 참여 빈도 • 시간사용 만족도(대화시간, 식사시간, 여가활동시간, 숙제시간 등) • 가족과의 식사 횟수 • 가사 참여 여부
	실내/외 활동	• 독서량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실내외 운동 정도 • 취미(악기연주, 스포츠 경험 등) • 취미 여부 및 종류
	미디어	• 미디어 이용(휴대폰 소유, 미디어 이용시간) • 스마트폰 중독(아동 진단), 미디어기기 중독(부모 진단) • 컴퓨터 사용 능력
	외출/활동 참여	• 여행·연수 빈도 • 문화체험, 예술감상, 종교활동 •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 장보기, 친척 방문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건강상태	• 체중, 신장, 허리둘레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주관적 건강상태(보호자 인식) •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 시기 • 신체적 자아상 • 체중조절 경험 및 방법 • 체력검사 결과(PAPS)
	질환 및 치료	• 장애 판정 여부, 유형 및 급수 • 만성질환별 진단 여부, 병원 치료 여부 • 심리사회적 질환별 진단, 치료 여부 • 응급실 치료 여부, 이유, 입원 치료 여부
언어 및 학습 특성	인지	• 집행기능
	학습	• 학업 수행 능력_중등 • 학업 스트레스 • 학업 이해도 • 과목 선호도 • 자기조절학습
사회 및 정서 특성	자아개념	• 자아존중감 •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우울 • GRIT, 공감 • 사이버비행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	• 학교적응_중고등 • 또래애착 • 이성관계
	비행행동	• 폭력피해(온/오프) • 폭력가해(온/오프) • 음주 및 흡연경험 및 여부 • 비속어 사용
	경제활동	• 저축 여부, 저축방법 • 용돈 지급 여부, 액수, 사용처 •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미래/진로	• 미래희망모습, 미래희망직업 • 진로성숙도
	사회관련 의식	• 결혼관/자녀관 • 공동체 의식 • 안전에 대한 인식

주: 15차 신규문항 밑줄로 표시

나. 일상생활 특성

1) 식생활

가) 식생활 진단

식생활 진단의 섭취 권장 항목으로는 ‘우유나 유제품(요거트, 요플레 등)을 매일 2병 이상 마신다’,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끼니마다 먹는다’, ‘김치 이외의 채소를 끼니마다 먹는다’, ‘과일(1개)이나 과일주스(1잔)를 매일 먹는다’의 4가지 문항에 대해 아동을 대상으로 3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우유/유제품의 경우 평균 1.78점으로 나타났으며, 단백질류 2.44점, 채소 2.23점, 과일 2.22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우유/유제품, 단백질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는 월평균 550만원 초과인 고소득가구보다 과일 섭취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아동의 식생활 진단: 섭취 권장 항목

단위: (명), 점

구분	(수)	우유/유제품		단백질류		채소		과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1.78	0.76	2.44	0.66	2.23	0.72	2.22	0.78
아동 성별		·	·	·	·	·	·	·	·
남	(664)	1.88	0.78	2.51	0.63	2.24	0.71	2.19	0.77
여	(629)	1.67	0.72	2.37	0.68	2.23	0.74	2.25	0.78
t		4.91***		3.90***		0.34		−1.53	
가구소득		·	·	·	·	·	·	·	·
350만원 이하	(176)	1.72	0.73	2.34	0.67	2.19	0.71	2.03[a]	0.79

구분	(수)	우유/유제품		단백질류		채소		과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50 초과~550만원	(433)	1.73	0.74	2.45	0.64	2.22	0.71	2.20[ab]	0.75
550 초과~750만원	(361)	1.86	0.79	2.49	0.65	2.30	0.73	2.27[b]	0.78
750만원 초과	(296)	1.78	0.77	2.46	0.67	2.22	0.75	2.30[b]	0.78
F		2.15		2.05		1.23		5.25**	
지역 규모									
대도시	(901)	1.76	0.76	2.46	0.65	2.22	0.72	2.23	0.77
중소도시	(230)	1.78	0.75	2.37	0.66	2.23	0.72	2.24	0.77
읍면	(162)	1.87	0.77	2.49	0.65	2.31	0.76	2.10	0.80
F		1.45		2.08		1.01		2.2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 $p < .01$, *** $p < .001$.

아동의 식생활 진단 중 과잉섭취 자제 권장과 관련하여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지방이 많은 육류 및 생선류(삼겹살, 갈비, 장어 등)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등를 간식으로 주2회 이상 먹는다'의 4개 문항에 대해 아동을 대상으로 3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튀김/볶음요리의 점수는 2.50점, 지방 많은 담백질 2.33점, 짠음식 1.53점, 단순당류 2.45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단순당류는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는 월평균 750만원 초과의 고소득가구에 비해 튀김/볶음요리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 섭취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아동의 식생활 진단: 과잉섭취 자제 권장 항목

단위: (명), 점

구분	(수)	튀김/볶음요리		지방 많은 단백질		짠 음식		단순당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2.50	0.62	2.33	0.70	1.53	0.69	2.45	0.70
아동 성별									
남	(664)	2.54	0.61	2.46	0.66	1.60	0.70	2.45	0.72
여	(629)	2.46	0.64	2.19	0.71	1.46	0.66	2.46	0.69
t		2.35*		6.97***		3.68***		-0.3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2.39[a]	0.68	2.20	0.74	1.51	0.67	2.39	0.71

구분	(수)	튀김/볶음요리		지방 많은 단백질		짠 음식		단순당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50 초과~550만원	(433)	2.48[ab]	0.63	2.34	0.72	1.56	0.68	2.43	0.71
550 초과~750만원	(361)	2.52[ab]	0.60	2.36	0.66	1.56	0.72	2.47	0.70
750만원 초과	(296)	2.56[b]	0.60	2.35	0.70	1.48	0.66	2.49	0.69
F		3.05*		2.25		1.00		1.05	
지역 규모									
대도시	(901)	2.52	0.62	2.35	0.69	1.54	0.69	2.47	0.70
중소도시	(230)	2.44	0.64	2.29	0.72	1.52	0.66	2.44	0.72
읍면	(162)	2.49	0.61	2.25	0.70	1.54	0.68	2.41	0.70
F		1.28		1.69		0.06		0.5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 $p < .05$, *** $p < .001$.

이어 아동의 식생활 진단 중 균형 잡힌 식생활과 관련해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편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 아동대상으로 3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칙적인 식사의 평균점수는 2.05점, 다양한 식품의 섭취의 평균점수는 2.26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식습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아동의 식생활 진단: 균형 잡힌 식생활

단위: (명), 점

구분	(수)	규칙적인 식사		다양한 식품의 섭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2.05	0.83	2.26	0.73
아동 성별					
남	(664)	2.18	0.82	2.31	0.71
여	(629)	1.92	0.83	2.21	0.74
t		5.61***		2.5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2.01	0.84	2.22	0.76
350 초과~550만원	(433)	2.05	0.84	2.24	0.72
550 초과~750만원	(361)	2.06	0.84	2.30	0.75
750만원 초과	(296)	2.09	0.82	2.27	0.70
F		0.31		0.68	

구분	(수)	규칙적인 식사		다양한 식품의 섭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901)	2.05	0.84	2.25	0.72
중소도시	(230)	2.02	0.83	2.24	0.72
읍면	(162)	2.09	0.83	2.35	0.74
F		0.39		1.4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 $p < .05$, *** $p < .001$.

나) 탄산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식생활과 관련하여 최근 1주일 동안 탄산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분석한 결과, 주 1~2회 마셨다는 비중이 53.25%로 가장 높고 최근 일주일간 마시지 않았다는 응답이 21.33%, 주 3~4회 20.71%, 주 5회 이상 4.7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주 3~4회의 응답비중이 23.64%로 여학생 17.65%에 비해 높았으며, 여학생은 마시지 않았다는 응답비중이 25.76%로 남학생 17.1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5〉 최근 7일간 아동의 탄산음료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이상
전체	100.00(1294)	21.33	53.25	20.71	4.71
아동 성별					
남	100.00(664)	17.17	52.56	23.64	6.63
여	100.00(629)	25.76	53.90	17.65	2.70
$\chi^2(df)$			27.41(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6)	21.59	52.27	20.45	5.68
350 초과~550만원	100.00(433)	19.86	55.89	20.32	3.93
550 초과~750만원	100.00(361)	21.33	50.42	21.88	6.37
750만원 초과	100.00(296)	24.66	51.35	20.61	3.38
$\chi^2(df)$			7.58(9)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1)	20.98	51.94	22.42	4.66
중소도시	100.00(230)	23.48	57.39	13.91	5.22
읍면	100.00(162)	20.37	54.32	20.99	4.32
$\chi^2(df)$			8.27(6)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이어 최근 1주일 동안 인스턴트식 섭취빈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 1~2회에 60.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주 3~4회 28.98%, 최근 7일간 먹지 않았다는 응답비중은 5.95%였으며 주 5회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4.17%였다. 이는 아동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인스턴트식 섭취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6〉 최근 7일간 아동의 인스턴트식(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이상
전체	100.00(1294)	5.95	60.90	28.98	4.17
아동 성별					
남	100.00(664)	4.07	57.98	32.53	5.42
여	100.00(629)	7.95	63.91	25.28	2.86
$x^2(df)$			20.97(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6)	7.39	60.23	27.84	4.55
350 초과~550만원	100.00(433)	4.85	61.43	30.02	3.70
550 초과~750만원	100.00(361)	4.99	60.11	30.47	4.43
750만원 초과	100.00(296)	8.11	60.81	26.35	4.73
$x^2(df)$			6.15(9)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1)	5.22	60.60	29.74	4.44
중소도시	100.00(230)	8.26	59.57	28.70	3.48
읍면	100.00(162)	6.79	64.20	25.31	3.70
$x^2(df)$			4.88(6)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2) 일과활동시간

가) 수면

중학교 2학년인 아동들에게 방학이 아닌 학기 중 주중, 주말의 평균 취침시각 및 기상시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중 평균 취침시각은 오후 11시 56분으로 14차년도 중 1시기의 오후 11시 34분(김지현 외, 2022: 91)보다 20여분 더 늦춰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상시각은 오전 7시 24분으로 14차년도 중1시기의 오전 7시

22분(김지현 외, 2022: 91)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말의 평균 취침시각은 24시 38분으로 주중보다 1시간 가량 늦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의 평균 기상시각은 오전 9시 28분으로 주중보다 2시간 가량 늦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주중과 주말 취침시각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늦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의 주중 취침시각이 월평균 750만원 초과 고소득가구보다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아동의 주중 취침시각이 대도시, 중소도시의 패널아동보다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7〉 아동의 기상 및 취침시각

단위: (명), 시:분

구분	(수)	주중				주말			
		취침시각		기상시각		취침시각		기상시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23:56	1:12	7:24	0:50	24:38	1:23	9:28	1:27
아동 성별									
남	(664)	23:44	1:06	7:27	0:42	24:28	1:20	9:15	1:25
여	(629)	24:09	1:16	7:21	0:58	24:49	1:26	9:41	1:27
t		−6.37***		2.22*		−4.58***		−5.4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23:46[a]	1:11	7:16[ab]	0:47	24:31	1:28	9:29	1:34
350 초과~550만원	(433)	23:49[ab]	1:13	7:22[ab]	0:48	24:35	1:25	9:29	1:26
550 초과~750만원	(361)	24:03[ab]	1:13	7:29[b]	0:57	24:45	1:26	9:32	1:28
750만원 초과	(296)	24:05[b]	1:09	7:25[ab]	0:47	24:40	1:15	9:22	1:23
F		5.14**		3.02*		1.39		0.74	
지역 규모									
대도시	(901)	23:59[b]	1:14	7:25	0:50	24:40	1:24	9:26	1:25
중소도시	(230)	24:01[b]	1:06	7:25	0:50	24:39	1:20	9:32	1:28
읍면	(162)	23:32[a]	1:04	7:16	0:50	24:25	1:27	9:30	1:34
F		10.38***		2.48		2.37		0.39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아동의 주중-주말의 수면시간과 주중-주말의 수면시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7.46시간(약 7시간 28분), 주말은 8.82시간(약 8시간 49분)으로 조사되어 주중-주말 수면시간의 편차는 1.36시간(약 1시간 22분)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주중 수면시간은 7.72시간(약 7시간 43분)인데 비해 여학생은 7.20시간(약 7시간 12분)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도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주중 수면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주말 수면시간도 대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8〉 아동의 수면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수)	주중		주말		주중-주말 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7.46	1.29	8.82	1.41	1.36	1.52
아동 성별							
남	(664)	7.72	1.17	8.78	1.40	1.06	1.44
여	(629)	7.20	1.36	8.87	1.43	1.67	1.54
t		7.42***		-1.11		-7.3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7.49	1.22	8.96	1.45	1.47	1.70
350 초과~550만원	(433)	7.54	1.36	8.89	1.50	1.34	1.56
550 초과~750만원	(361)	7.44	1.31	8.78	1.34	1.34	1.40
750만원 초과	(296)	7.33	1.20	8.69	1.35	1.36	1.51
F		1.66		1.88		0.33	
지역 규모							
대도시	(901)	7.43[a]	1.32	8.76[a]	1.43	1.33	1.53
중소도시	(230)	7.39[a]	1.25	8.89[ab]	1.32	1.49	1.46
읍면	(162)	7.73[b]	1.14	9.07[b]	1.43	1.35	1.57
F		3.93*		3.53*		1.07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나) 공·사교육 기관 이용시간

다음은 아동의 일과시간을 주중, 주말로 구분하여 활동별 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우선 학교 및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보내는 교육시간(학원, 과외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학교 2학년 시기 패널아동들이 주중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6.83시간(약 6시간 50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에는 3.80시간(약 3시간 48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00.00%, 주말 3.40%이며, 평균시간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원, 과외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시간은 주중, 주말 각각 2.43시간(약 2시간 26분), 2.67시간(약 2시간 40분)으로 주말이 다소 길게 나타났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0.60%, 주말 31.99%이며, 여기서도 평균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학생이 주중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남학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단위: (명), 시간

구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6.83	1.06	(44)	3.80	2.59	(1043)	2.43	0.93	(414)	2.67	1.50
아동 성별												
남	(664)	6.75	1.07	(23)	4.20	2.52	(526)	2.44	0.95	(207)	2.71	1.56
여	(629)	6.92	1.03	(21)	3.36	2.67	(517)	2.42	0.92	(207)	2.63	1.44
t		-2.80**			1.07			0.50			0.5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6.84	1.11	(5)	4.60	2.30	(103)	2.36	0.99	(26)	2.50	1.50
350 초과~550만원	(433)	6.83	1.07	(16)	4.03	2.64	(337)	2.40	0.94	(124)	2.48	1.43
550 초과~750만원	(361)	6.87	0.99	(11)	3.73	2.98	(320)	2.42	0.92	(123)	2.74	1.36
750만원 초과	(296)	6.77	1.11	(12)	3.21	2.46	(262)	2.51	0.91	(133)	2.84	1.68
F		0.52			0.39			0.94			1.43	
지역 규모												
대도시	(901)	6.77[a]	1.03	(31)	2.97[a]	2.21	(745)	2.45	0.94	(302)	2.68	1.52
중소도시	(230)	6.99[b]	0.88	(5)	6.00[b]	2.35	(187)	2.44	0.92	(67)	2.76	1.56
읍면	(162)	6.97[ab]	1.34	(8)	5.63[ab]	2.63	(111)	2.27	0.90	(45)	2.46	1.25
F		5.90**			6.84**			1.74			0.58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00.00%, 주말 3.40%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0.60%, 주말 31.99%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 $p < .01$.

다) 독서, 숙제 및 학습 관련

이어서 아동의 일과시간 중 독서, 숙제 및 학습 관련 시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책 읽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8.3%, 주말은 35.2%로 나타났으며, 해당 사례를 대상으로 평균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중 평균 0.71시간(약 43분), 주말 평균 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의 경우 주중 책읽기 평균시간이 중소도시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Ⅲ-2-10〉 아동의 책읽기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책읽기 시간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6)	0.71	0.37	(456)	1.00	0.60
아동 성별						
남	(166)	0.71	0.36	(216)	1.00	0.58
여	(200)	0.72	0.39	(240)	0.99	0.61
t		-0.17			0.3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4)	0.74	0.39	(60)	1.07	0.77
350 초과~550만원	(119)	0.72	0.40	(147)	1.04	0.64
550 초과~750만원	(90)	0.71	0.33	(112)	1.00	0.50
750만원 초과	(98)	0.70	0.38	(127)	0.93	0.54
F		0.15			1.00	
지역 규모						
대도시	(267)	0.69[ab]	0.35	(327)	0.97	0.54
중소도시	(52)	0.69[a]	0.30	(76)	1.01	0.49
읍면	(47)	0.85[b]	0.52	(53)	1.14	0.97
F		3.66*			1.98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책 읽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8.3%, 주말 35.2%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응답임.
* $p < .05$.

아동에게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는지 조사한 결과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9.92%로 절반에 달했으며 1~2권의 응답비중도 43.20%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3~4권의 응답비중은 4.25%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독서량은 1.61권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독서량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11〉 아동의 독서량(주당) 빈도표

단위: %, (명), 권

구분	계(수)	읽지 않음	읽음							
			1~2권	3~4권	5~6권	7~10권	10권 초과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294)	49.92	43.20	4.25	1.55	0.54	0.54	(648)	1.61	2.90
아동 성별										
남	100.00(664)	51.81	40.81	4.07	1.96	0.60	0.75	(320)	1.67	2.09
여	100.00(629)	47.85	45.79	4.45	1.11	0.48	0.32	(328)	1.55	3.51
$x^2(df)/t$		5.69(5)							0.5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6)	55.11	39.77	2.84	1.14	0.57	0.57	(79)	1.50	1.94
350 초과~550만원	100.00(433)	51.27	41.57	3.93	1.85	0.92	0.46	(211)	1.57	1.86
550 초과~750만원	100.00(361)	50.42	43.49	3.32	1.66	0.28	0.83	(179)	1.81	4.74
750만원 초과	100.00(296)	42.57	48.65	7.09	1.01	0.34	0.34	(170)	1.49	1.47
$x^2(df)/F$		17.84(15)							0.42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1)	47.84	44.51	4.66	1.66	0.67	0.67	(470)	1.69	3.27
중소도시	100.00(230)	56.96	38.26	3.48	1.30	-	-	(99)	1.31	1.04
읍면	100.00(162)	51.23	43.21	3.09	1.23	0.62	0.62	(79)	1.47	1.95
$x^2(df)/F$		9.28(10)							0.7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평균과 표준편차는 1권 이상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아동의 빈도를 계산함.

이어 아동의 일과시간 조사를 통해 숙제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과 인터넷 수업 등 비대면교육 시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숙제 및 학습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9.4%, 주말 75.7%이며, 해당 사례로 평균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중 평균 1.29시간(약 1시간 17분), 주말 평균 1.86시간(약 1시간 52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인터넷 수업 등 비대면교육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4.9%, 주말 22.0%이며, 해당 사례의 평균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중에는 1.04시간(약 1시간 2분), 주말에는 1.27시간(약 1시간 16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숙제 및 학습시간이 주중과 주말 모두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7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월평균 350만원 초과 5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보다 주말 아동의 숙제 및 학습시간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읍면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주중, 주말 모두 숙제 등 학습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2〉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아동의 숙제 및 학습시간						인터넷 수업 등 비대면교육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27)	1.29	0.76	(979)	1.86	1.23	(322)	1.04	0.60	(285)	1.27	0.72
아동 성별	·	·	·	·	·	·	·	·	·	·	·	·
남	(494)	1.17	0.68	(475)	1.73	1.12	(156)	1.10	0.68	(136)	1.34	0.81
여	(532)	1.40	0.80	(503)	1.99	1.32	(166)	0.99	0.51	(149)	1.21	0.63
t	·	-4.80***			-3.29**			1.63			1.48	
가구소득	·	·	·	·	·	·	·	·	·	·	·	·
350만원 이하	(118)	1.25	0.80	(118)	1.75[ab]	1.06	(46)	1.22	0.84	(38)	1.38	1.04
350 초과~550만원	(334)	1.25	0.74	(325)	1.68[a]	1.06	(115)	1.05	0.62	(96)	1.21	0.58
550 초과~750만원	(298)	1.29	0.78	(275)	1.98[ab]	1.36	(84)	0.98	0.52	(69)	1.34	0.75
750만원 초과	(256)	1.37	0.75	(238)	2.04[b]	1.36	(68)	1.01	0.46	(70)	1.27	0.70
F	·	1.30		·	5.10**		·	1.63		·	0.71	
지역 규모	·	·	·	·	·	·	·	·	·	·	·	·
대도시	(732)	1.32[b]	0.79	(698)	1.92[b]	1.29	(225)	1.05	0.58	(203)	1.29	0.70
중소도시	(178)	1.27[ab]	0.72	(167)	1.81[ab]	1.17	(57)	0.99	0.55	(48)	1.26	0.73
읍면	(116)	1.11[a]	0.59	(113)	1.60[a]	0.94	(40)	1.09	0.77	(34)	1.21	0.84
F	·	3.96*		·	3.43*		·	0.33		·	0.18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숙제 및 학습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9.4%, 주말 75.7%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4.9%, 주말 22.0%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라) 미디어 이용

다음으로 아동의 일과시간 조사를 통해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시청, 게임시간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영상시청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8.9%, 주말 95.2%이며, 해당 사례만을 분석한 결과, 주중 평균 영상시청시간은 1.45시간, 주말은 2.57시간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게임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59.2%, 주말 71.9%이며, 해당 사례만을 분석한 결과 주중 평균시간은 1.35시간, 주말 평균시간은 2.41시간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한 결과, 영상시청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긴 반면, 게임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길게 갖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주중 영상시청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주중 게임시간에서도 월평균 35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의 평균시간이 550만원 초과 가구보다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게임시간은 월평균 55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의 평균시간이 750만원 초과 가구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

〈표 Ⅲ-2-13〉 아동의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시청, 게임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영상시청시간						게임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50)	1.45	0.89	(1232)	2.57	1.49	(766)	1.35	0.90	(931)	2.41	1.65
아동 성별												
남	(592)	1.34	0.79	(631)	2.47	1.46	(511)	1.47	0.96	(603)	2.78	1.75
여	(558)	1.56	0.97	(600)	2.67	1.52	(254)	1.09	0.70	(327)	1.74	1.19
t		−4.30***			−2.35*			5.68***			9.6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60)	1.66[b]	1.02	(169)	2.76	1.66	(111)	1.58[b]	1.05	(132)	2.68[b]	1.74
350 초과~550만원	(386)	1.41[a]	0.81	(413)	2.53	1.39	(271)	1.36[ab]	0.98	(321)	2.48[b]	1.73
550 초과~750만원	(317)	1.43[a]	0.88	(344)	2.60	1.44	(212)	1.26[a]	0.79	(267)	2.40[ab]	1.79
750만원 초과	(264)	1.42[a]	0.91	(281)	2.47	1.57	(151)	1.29[a]	0.78	(189)	2.17[a]	1.22
F		3.36*			1.52			3.28*			2.74*	
지역 규모												
대도시	(799)	1.42	0.88	(859)	2.55	1.52	(529)	1.34	0.93	(639)	2.40	1.72
중소도시	(210)	1.53	0.86	(220)	2.63	1.39	(133)	1.37	0.89	(165)	2.44	1.56
읍면	(141)	1.50	0.95	(152)	2.60	1.47	(103)	1.35	0.75	(126)	2.45	1.40
F		1.56			0.33			0.08			0.08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영상시청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8.9%, 주말 95.2%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게임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59.2%, 주말 71.9%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아동의 휴대폰 소지 여부와 스마트폰, PC(인터넷)의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의 99.3%가 휴대폰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아동의 100%가 스마트폰, PC(인터넷)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폰, PC(인터넷)의 이용시간은 1일 평균 5.93시간(약 5시간 56분)으로 나타났다. 성별, 지역 규모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550만원 이하 가구는 750만원 초과 가구보다 아동의 스마트폰, PC 이용시간이 긴 경향을 보였다.

〈표 Ⅲ-2-14〉 아동의 휴대폰 소지 여부 및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휴대폰 소지			스마트폰, PC 이용 여부 및 시간					
	소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시간(1일)		
	계(수)	있음	없음	계(수)	미이용	이용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294)	99.30	0.70	100.0(1294)	-	100.00	(1294)	5.93	3.12
아동 성별									
남	100.0(664)	99.10	0.90	100.0(664)	-	100.00	(664)	6.07	3.13
여	100.0(629)	99.52	0.48	100.0(629)	-	100.00	(629)	5.79	3.12
$x^2(df)/t$		3.81(2)			-			1.6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176)	98.86	1.14	100.0(176)	-	100.00	(176)	6.26^{b}	2.80
350 초과~550만원	100.0(433)	99.54	0.46	100.0(433)	-	100.00	(433)	6.19^{b}	3.36
550 초과~750만원	100.0(361)	99.45	0.55	100.0(361)	-	100.00	(361)	5.92^{ab}	3.12
750만원 초과	100.0(296)	98.99	1.01	100.0(296)	-	100.00	(296)	5.36^{a}	2.95
$x^2(df)/F$		2.39(6)			-			4.89^{**}	
지역 규모									
대도시	100.0(901)	99.33	0.67	100.0(901)	-	100.00	(901)	5.85	3.13
중소도시	100.0(230)	99.57	0.43	100.0(230)	-	100.00	(230)	6.10	3.15
읍면	100.0(162)	98.77	1.23	100.0(162)	-	100.00	(162)	6.13	3.07
$x^2(df)/F$		3.02(4)			-			0.94	

주: 1) 스마트폰, PC 이용시간(1일 평균)은 스마트폰, PC를 이용하는 아동 100.0%에 해당하는 수치임.
2) 아동의 응답임.
** $p < .01$.

아래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시간을 학습, 정보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표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 PC(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5.93시간 중 동영상 감상, 웹툰 감상 등 엔터테인먼트(게임, SNS 제외) 시간이 평균 1.61시간(약 1시간 37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이어 게임과 학습시간이 1.35시간(1시간 21분)으로 동일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시간은 평균 1.19시간(약 1시간 11분)으로 나타났으며, 맛집, 쇼핑, 뉴스 검색 등에 사용하는 시간은 0.41시간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게임시간이 긴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SNS, 엔터테인먼트, 정보 검색 시간이 긴 경향을 보였다. 게임시간에서 가구소득별로 차이를 보여 월평균 550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750만원 초과 가구의 경우 게임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2-15〉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정도

단위: (명), 시간

구분	(수)	학습		정보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1.35	1.85	0.41	0.48	1.35	1.46	1.61	1.31	1.19	1.18
아동 성별											
남	(664)	1.36	1.85	0.34	0.42	1.99	1.55	1.46	1.27	0.90	0.98
여	(629)	1.34	1.84	0.50	0.53	0.67	0.97	1.77	1.34	1.49	1.29
t		0.12		−5.98***		18.30***		−4.25***		−9.3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1.29	1.75	0.43	0.53	1.58[b]	1.54	1.73	1.47	1.22	1.22
350 초과~550만원	(433)	1.42	1.91	0.40	0.46	1.56[b]	1.66	1.63	1.36	1.16	1.17
550 초과~750만원	(361)	1.28	1.83	0.43	0.50	1.27[ab]	1.34	1.67	1.29	1.24	1.26
750만원 초과	(296)	1.38	1.90	0.40	0.48	0.99[a]	1.12	1.47	1.19	1.13	1.09
F		0.43		0.42		10.99***		1.92		0.56	
지역 규모											
대도시	(901)	1.31	1.73	0.41	0.49	1.33	1.48	1.61	1.33	1.18	1.20
중소도시	(230)	1.43	2.16	0.40	0.45	1.40	1.45	1.66	1.26	1.21	1.09
읍면	(162)	1.47	2.00	0.46	0.51	1.38	1.33	1.56	1.28	1.19	1.18
F		0.74		0.99		0.22		0.28		0.06	

주: 1) 아동의 스마트폰, PC 이용 정도는 스마트폰, PC를 이용하는 아동 100.0%에 해당하는 수치임.
2) 아동의 응답임.
3) 항목별 구체적인 의미
- 학습: 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학교/학원 숙제 등
- 정보 검색: 맛집, 쇼핑, 뉴스 검색 등
-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감상, 웹툰 감상 등(단, 게임과 SNS 제외)
-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 $p < .001$.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는 보호자 대상의 조사와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조사 2가지로 시행되었다. 두 가지 모두 15개 세부문항으로 구성된 척도 문항이나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은 상이하다.

먼저, 보호자가 응답하는 아동의 PC와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고위험 사용자군은 전체의 44.94%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8.82%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학생의 고위험 사용자군 비중은 52.77%로 여학생 36.73%에 비해 16%p가 높게 나타나고 여학생의 경우 일반 사용자군의 비중이 54.47%인데 비해 남학생은 38.38%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도 차이를 보여 월평균 소득 350만원 이하, 350~550만원 구간에서는 고위험사용자군이 각각 46.89%, 50.34%인데 비해 550~750만원,

75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41.44%, 40.20%로 10%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의 고위험군 비중이 중소도시, 읍면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2-16〉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계(수)	미디어기기 중독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304)	46.24	8.82	44.94	28.16	7.11
아동 성별						
남	100.00(667)	38.38	8.85	52.77	29.37	7.25
여	100.00(637)	54.47	8.79	36.73	26.90	6.74
$\chi^2(df)/t$			36.90(2)***		6.3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7)	47.46	5.65	46.89	28.56	8.15
350 초과~550만원	100.00(437)	42.11	7.55	50.34	28.61	7.10
550 초과~750만원	100.00(362)	49.45	9.12	41.44	28.00	6.76
750만원 초과	100.00(301)	48.17	11.63	40.20	27.50	6.94
$\chi^2(df)/F$			13.79(6)*		1.69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9)	43.23	9.90	46.86	28.72[b]	6.96
중소도시	100.00(231)	51.08	7.36	41.56	27.12[a]	7.35
읍면	100.00(164)	56.10	4.88	39.02	26.57[a]	7.27
$\chi^2(df)/F$			13.66(4)**		9.47***	

주: 1) 10번, 11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이 27점 이하이고,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요인: 12점 이하, 3요인: 10점 이하, 4요인: 9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28~29점이거나, 각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3점 이상, 3요인: 11점 이상, 4요인: 10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30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1점 이상)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에 중복 해당될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보호자의 응답임.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16.46%로 분석되었다.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일반사용자군의 비중이 고소득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2-17〉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아동응답)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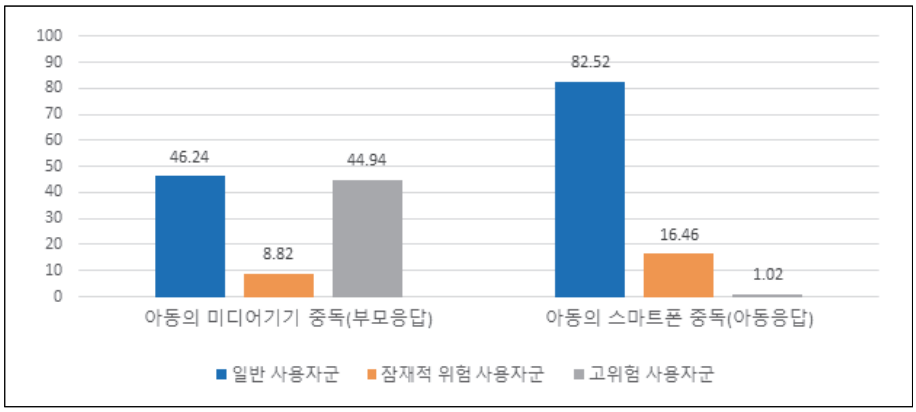
구분	계(수)	스마트폰 중독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270)	82.52	16.46	1.02	30.25	6.31
아동 성별						
남	100.00(647)	81.92	17.00	1.08	30.10	6.50
여	100.00(622)	83.12	15.92	0.96	30.42	6.11
$\chi^2(df)/t$			0.32(2)		-0.9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2)	76.74	21.51	1.74	30.42	6.56
350 초과~550만원	100.00(426)	80.75	18.78	0.47	30.31	6.25
550 초과~750만원	100.00(356)	83.43	14.89	1.69	30.45	6.44
750만원 초과	100.00(288)	87.85	11.46	0.69	29.81	6.22
$\chi^2(df)/F$			14.79(6)*		0.63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882)	82.65	16.33	1.02	30.31	6.29
중소도시	100.00(228)	84.65	14.47	0.88	30.03	6.25
읍면	100.00(159)	78.62	20.13	1.26	30.26	6.53
$\chi^2(df)/F$			2.41(4)		0.18	

주: 1) 8번, 10번, 13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이 41점 이하이고,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요인: 13점 이하, 3요인: 11점 이하, 4요인: 12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42~44점이거나, 각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3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45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6점 이상, 3요인: 13점 이상, 4요인: 14점 이상)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에 중복 해당될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스마트폰이 있는 아동의 응답임.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부모가 응답하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결과와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스마트폰 중독 결과를 비교해보면 결과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 물론 문항구성과 사용자군 분류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부모응답의 미디어기기 중독 조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중이 44.94%로 나타난데 비해 아동응답의 스마트폰 중독 조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 비중이 1.02%에 불과하였다.

[그림 Ⅲ-2-1]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응답) vs.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아동응답)

단위: %



마) 여가 및 교제

패널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중 스포츠, 집 밖 레저활동 및 취미생활에 대해 주중과 주말 참여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패널아동의 주중 하루일과 중에 스포츠, 집 밖 레저활동이 포함된 경우는 전체의 25.97%, 주말의 경우는 전체의 39.03%로 나타났다. 해당 경험이 있는 사례만을 분석에 포함한 결과, 패널아동은 주중에는 평균 1.06시간(약 1시간 4분)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을 즐기며, 주말에는 평균 1.51시간(약 1시간 31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말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용시간에 차이가 두드러졌다. 남학생은 1.60시간(1시간 36분), 여학생은 1.35시간(1시간 21분)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말 하루에 평균 15분 정도 더 많은 시간 스포츠나 집 밖 레저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주중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활동시간은 평균 1.26시간(약 1시간 16분)으로 월평균 55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가구의 활동시간 0.90시간(54분)에 비해 약 22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아동의 주중 하루일과 중에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이 포함된 경우는 전체의 20.48%, 주말은 전체의 39.26%로 조사되었다,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과 동일하게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하였는데, 패널아동은 주중에는 평균 0.89시간(약 53분), 주말에는 평균 1.41시간(약 1시간 25분) 동

호회 등 취미생활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동호회 등 취미활동 시간에는 성별 차이가 있었는데,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과 유사하게 동호회 등 취미생활 역시 남학생(약 58분)이 여학생(약 49분)보다 약 9분 가량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표 Ⅲ-2-18〉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스포츠, 집 밖 레저활동 및 취미생활

단위: (명), 시간

구분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6)	1.06	0.67	(505)	1.51	1.09	(265)	0.89	0.47	(508)	1.41	0.90
아동 성별												
남	(213)	1.10	0.70	(324)	1.60	1.06	(130)	0.97	0.47	(235)	1.42	0.88
여	(122)	0.98	0.63	(180)	1.35	1.13	(135)	0.82	0.47	(273)	1.40	0.92
t		1.56			2.50*			2.55*			0.2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7)	1.26[b]	0.83	(70)	1.69	1.41	(29)	0.91	0.33	(70)	1.49	0.72
350 초과~550만원	(116)	1.13[ab]	0.74	(179)	1.55	1.10	(105)	0.89	0.50	(174)	1.45	0.99
550 초과~750만원	(93)	0.90[a]	0.32	(135)	1.42	0.91	(75)	0.94	0.51	(148)	1.34	0.86
750만원 초과	(73)	0.98[ab]	0.67	(113)	1.40	0.98	(50)	0.81	0.45	(105)	1.46	0.95
F		4.02**			1.38			0.76			0.59	
지역 규모												
대도시	(231)	1.03	0.69	(353)	1.46[a]	1.10	(185)	0.90	0.51	(359)	1.37	0.92
중소도시	(64)	1.06	0.69	(87)	1.47[a]	0.96	(42)	0.80	0.35	(81)	1.52	0.88
읍면	(40)	1.18	0.56	(64)	1.84[a]	1.18	(38)	0.93	0.42	(68)	1.49	0.83
F		0.77			3.33*			1.03			1.22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5.97%, 주말 39.03%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취미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0.48%, 주말 39.26%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다음으로 패널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중 사교활동을 대면과 비대면 교제로 나누어 주중/주말 시간을 살펴보았다. 패널아동의 주중 하루일과 중에 대면 사교활동이 포함된 경우, 주중은 전체의 39.18%, 주말은 68.39%이며, 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교제시간이 포함된 경우, 주중은 전체의 68.39%, 주말은 77.43%로 나타났다. 대면/비대면 교제 모두 주중보다는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았다.

패널아동은 대면으로 이뤄지는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사교활동은 주중에는 하루 평균 1.06시간(약 1시간 4분), 주말에는 하루 평균 2.61시간(약 2시간 37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중과 주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거주지의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의 패널아동이 대도시 패널아동보다 대면 사교활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 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교제는 주중에는 하루 평균 0.90시간(54분), 주말은 하루 평균 1.36시간(약 1시간 22분) 참여하고 있었고, 대면 교제와 마찬가지로, 주중/주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Ⅲ-2-19〉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사교활동 대면 및 비대면 교제

단위: (명), 시간

구분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사교활동(대면)						SNS 등 통신기기를 활용한 교제(비대면)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07)	1.06	0.65	(885)	2.61	1.64	(885)	0.90	0.55	(1002)	1.36	0.95
아동 성별												
남	(228)	0.97	0.52	(445)	2.37	1.55	(415)	0.81	0.51	(490)	1.19	0.78
여	(279)	1.13	0.74	(440)	2.85	1.70	(469)	0.98	0.57	(511)	1.53	1.06
t		-2.83**			-4.46***			-4.61***			-5.8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72)	1.10	0.60	(115)	2.44	1.49	(123)	0.93	0.51	(139)	1.41	0.87
350 초과~550만원	(183)	1.08	0.65	(294)	2.70	1.62	(294)	0.88	0.59	(329)	1.40	1.03
550 초과~750만원	(136)	1.08	0.67	(247)	2.61	1.73	(240)	0.92	0.57	(276)	1.36	0.98
750만원 초과	(102)	0.97	0.67	(209)	2.55	1.62	(210)	0.90	0.49	(236)	1.31	0.86
F		0.86			0.78			0.32			0.46	
지역 규모												
대도시	(358)	1.01[a]	0.63	(622)	2.58	1.65	(617)	0.91	0.56	(701)	1.35	0.96
중소도시	(82)	1.10[ab]	0.68	(154)	2.70	1.68	(160)	0.89	0.53	(178)	1.43	0.97
읍면	(67)	1.25[b]	0.68	(109)	2.62	1.54	(107)	0.89	0.53	(122)	1.35	0.86
F		4.15*			0.31			0.06			0.49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사교활동(대면)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39.18%, 주말 68.39%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통신기기를 활용한 교제(비대면)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68.39%, 주말 77.43%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중학교 2학년 시기를 맞이한 패널아동의 하루 일과활동시간 중 종교활동과 애완(반려)동물 돌보기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패널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종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4.48%로 58명, 주말은 13.99%, 181명이었다. 해당 사례만을 분석한 결과, 주중 종교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0.95시간(57분), 주말은 하루 평균 1.87시간(약 1시간 52분)인 것으로 나왔다. 아동 성별, 가구소득, 지역 규모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없었다.

애완(반려)동물 돌보기에 시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주중 15.69%, 203명, 주말은 19.01%로 246명이었는데, 주중에 응답한 203명의 패널아동은 하루 평균 0.65시간(39분) 애완(반려)동물을 돌보고 있었고, 주말에 활동한다고 응답한 246명의 패널아동은 하루 평균 0.93시간(약 56분) 애완(반려)동물 돌보기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종교활동과 마찬가지로, 애완(반려)동물 돌보기도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지역 규모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20〉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종교활동,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단위: (명), 시간

구분	종교활동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8)	0.95	0.51	(181)	1.87	1.28	(203)	0.65	0.31	(246)	0.93	0.59
아동 성별												
남	(27)	0.91	0.42	(101)	1.86	1.20	(85)	0.62	0.29	(108)	0.89	0.50
여	(31)	0.98	0.58	(80)	1.89	1.39	(118)	0.67	0.33	(138)	0.96	0.65
t		-0.57			-0.19			-1.04			-0.9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	0.95	0.50	(31)	2.10	1.46	(26)	0.71	0.35	(30)	0.97	0.61
350 초과~550만원	(18)	1.06	0.51	(63)	1.94	1.17	(57)	0.66	0.33	(68)	0.93	0.63
550 초과~750만원	(15)	0.80	0.25	(47)	1.44	0.82	(53)	0.62	0.28	(74)	0.91	0.54
750만원 초과	(13)	0.81	0.43	(36)	1.90	1.51	(61)	0.64	0.32	(67)	0.91	0.56
F		1.26			2.30			0.50			0.08	
지역 규모												
대도시	(44)	0.97	0.54	(133)	1.88	1.31	(139)	0.67	0.33	(169)	0.92	0.57
중소도시	(8)	0.94	0.50	(25)	1.80	1.40	(37)	0.59	0.20	(42)	0.92	0.48
읍면	(6)	0.83	0.26	(23)	1.93	1.05	(27)	0.65	0.33	(35)	0.99	0.77
F		0.18			0.07			0.75			0.19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종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4.48%, 주말 13.99%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5.69%, 주말 19.01%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등·하교 시 걷는 것을 제외하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7일 간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중증도의 신체활동한 일수를 조사한 결과, 3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34%, 5일 이상 22.18%, 2일 16.07% 4일 11.75% 순으로 나왔고,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6.15%에 달했다.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5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30.27%, 여학생 13.67%였고,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11.60%, 여학생 20.99%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신체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2-21〉 아동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단위: %, (명)

구분	계(수)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전체	100.00(1294)	16.15	10.51	16.07	23.34	11.75	22.18
아동 성별							
남	100.00(664)	11.60	8.89	14.91	22.44	11.90	30.27
여	100.00(629)	20.99	12.24	17.33	24.17	11.61	13.67
$x^2(df)$		62.78(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6)	19.32	11.93	17.61	19.89	9.09	22.16
350 초과~550만원	100.00(433)	16.17	11.32	14.32	21.94	13.39	22.86
550 초과~750만원	100.00(361)	16.90	9.42	18.01	22.99	10.80	21.88
750만원 초과	100.00(296)	13.51	9.46	15.88	26.69	12.16	22.30
$x^2(df)$		10.88(15)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1)	15.65	10.10	15.65	24.31	11.65	22.64
중소도시	100.00(230)	16.09	11.30	16.52	21.74	12.61	21.74
읍면	100.00(162)	19.14	11.73	17.90	19.75	11.11	20.37
$x^2(df)$		4.07(10)					

주: 1) 신체 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 활동(등·하교 시 걷는 것은 제외)
2) 아동의 응답임.
*** $p < .001$.

다음으로 악기, 운동을 포함하는 취미의 유무와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운동/스포츠/댄스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이 38.72%, 노래/악기 연주 18.69%, 음악 및 영화 감상 17.81%, 웹툰을 포함한 그림 그리기 8.74%, 독서 3.43%, 영상 제작 1.88% 순이었고,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도 10.73%에 달했다. 특별히 남학생이 운동/스포츠/댄스를 1순위 취미로 응답한 비율은 52.56%로 여학생 응답의 2배 이상이었다.

〈표 Ⅲ-2-22〉 취미(악기, 운동 포함) 유무 및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순위

단위: %, (명)

구분	취미		종류							
	계(수)	있음	계(수)	노래/악기 연주	운동/스포츠/댄스	그림 그리기 (웹툰 포함)	영상 제작 (유튜브 포함)	독서 (e-book 포함)	음악 및 영화 감상	기타
전체	100.0(1294)	69.86	100.0(904)	18.69	38.72	8.74	1.88	3.43	17.81	10.73
아동 성별										
남	100.0(664)	70.48	100.0(468)	13.25	52.56	2.35	2.56	1.92	12.82	14.53
여	100.0(629)	69.32	100.0(436)	24.54	23.85	15.60	1.15	5.05	23.17	6.65

주: 아동의 응답임.

활동하고 있는 취미의 종류를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여 살펴본 결과, 음악 및 영화 감상이 60.07%, 운동/스포츠/댄스 53.10%, 노래/악기 연주 34.73%, 그림 그리기 14.60%, 독서 9.96%, 영상 제작 5.42% 순이었고,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은 22.12%였다. 1순위 응답 경향과 비교 시 음악 및 영화 감상이 제일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표 Ⅲ-2-23〉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2순위

단위: (명), %

구분	(수)	노래/악기연주	운동/스포츠/댄스	그림그리기 (웹툰 포함)	영상 제작 (유튜브 포함)	독서 (e-book 포함)	음악 및 영화 감상	기타
전체	(904)	34.73	53.10	14.60	5.42	9.96	60.07	22.12
아동 성별								
남	(468)	25.64	67.95	5.56	6.41	9.19	57.91	27.35
여	(436)	44.50	37.16	24.31	4.36	10.78	62.39	16.51

주: 아동의 응답임.

여러 가지 취미활동 중 특별히 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악기와 운동만을 뽑아 취미 유무를 조사하였다. 악기를 취미로 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8.75%였고, 성별로는 남학생은 21.99%, 여학생은 35.93%로 여학생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운동을 취미로 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1.85%로 과반이 넘었으며, 악기를 취미로 둔 경우와 반대로 남학생의 응답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표 Ⅲ-2-24〉 아동의 취미 유무(악기, 운동)

단위: %, (명)

구분	계(수)	악기		운동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00.00(1294)	28.75	71.25	51.85	48.15
아동 성별					
남	100.00(664)	21.99	78.01	62.50	37.50
여	100.00(629)	35.93	64.07	40.54	59.46
$x^2(df)$		30.64(1)***		62.39(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6)	28.98	71.02	50.00	50.00
350 초과~550만원	100.00(433)	27.94	72.06	52.42	47.58
550 초과~750만원	100.00(361)	29.09	70.91	49.58	50.42
750만원 초과	100.00(296)	30.07	69.93	55.74	44.26
$x^2(df)$		0.40(3)		2.82(3)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1)	28.75	71.25	52.39	47.61
중소도시	100.00(230)	28.26	71.74	49.13	50.87
읍면	100.00(162)	29.63	70.37	52.47	47.53
$x^2(df)$		0.09(2)		0.81(2)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바) 기본생활 및 가사 돕기

중학교 2학년 패널아동들의 하루일과 중 식사, 씻기, 옷 입기 등 생활필수 행동에 사용하는 시간과 음식준비, 청소, 정리 등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패널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가사 돕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40.26%로 521명, 주말 56.65%, 733명이었고, 시간 산출시 해당 사례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패널아동이 주중 하루에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1.31시간(약 1시간 19분)이고, 주말은 평균 1.58시간(약 1시간 35분)으로 나타났고, 주중과 주말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기본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음식준비, 청소, 정리 등의 가사를 돕는 활동에 대해서 전체 패널아동은 주중 평균 0.65시간(39분), 주말에는 평균 0.84시간(약 50분)으로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사 돕기 시간에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

구의 아동이 월평균 가구소득 55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보다 가사 돕기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5〉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기본생활 시간, 가사 돕기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음식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 돕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1.31	0.63	(1294)	1.58	0.79	(521)	0.65	0.30	(733)	0.84	0.45
아동 성별												
남	(664)	1.26	0.61	(664)	1.52	0.76	(244)	0.65	0.27	(340)	0.82	0.38
여	(629)	1.35	0.65	(629)	1.64	0.82	(276)	0.65	0.32	(392)	0.86	0.50
t		−2.62**			−2.68**			0.12			−1.2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1.27	0.60	(176)	1.55	0.78	(86)	0.73[b]	0.40	(95)	0.87	0.49
350 초과~550만원	(433)	1.28	0.60	(433)	1.53	0.76	(176)	0.65[ab]	0.27	(259)	0.86	0.46
550 초과~750만원	(361)	1.32	0.70	(361)	1.61	0.85	(145)	0.61[a]	0.23	(207)	0.80	0.41
750만원 초과	(296)	1.35	0.62	(296)	1.62	0.77	(104)	0.64[ab]	0.33	(155)	0.85	0.46
F		0.94			1.11			3.26*			0.76	
지역 규모												
대도시	(901)	1.32	0.64	(901)	1.60[a]	0.81	(365)	0.65	0.29	(507)	0.82	0.42
중소도시	(230)	1.28	0.63	(230)	1.58[a]	0.77	(79)	0.62	0.32	(121)	0.88	0.51
읍면	(162)	1.26	0.59	(162)	1.44[a]	0.70	(76)	0.68	0.32	(104)	0.87	0.50
F		0.72			3.10*			0.89			1.14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음식 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일 돕기가 포함된 경우는 주중 40.26%, 주말 56.65%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응답임.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다음으로 패널아동의 가사참여 정도를 의생활/식생활/주생활/돌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항목에 따라 평균 2.32점에서 평균 2.60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패널아동은 가사참여에 대해 스스로 가끔 하거나 때에 따라 자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식생활 가사활동 평균 2.60점, 가족이 아플 때 돕기 등의 돌봄 가사활동은 평균 2.49점, 의생활과 주생활 가사활동은 모두 평균 2.32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참여 정도는 돌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서 모두 남녀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모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활 가사활동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초과 55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이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의 아동보다 식생활 가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Ⅲ-2-26〉 아동의 가사참여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돌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294)	2.32	0.77	2.60	0.80	2.32	0.74	2.49	0.81
아동 성별									
남	100.00(664)	2.25	0.76	2.54	0.80	2.25	0.73	2.45	0.81
여	100.00(629)	2.39	0.78	2.67	0.79	2.40	0.75	2.53	0.80
t		−3.25**		−2.94**		−3.48***		−1.9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6)	2.26	0.74	2.44[a]	0.79	2.28	0.67	2.42	0.80
350 초과~550만원	100.00(433)	2.38	0.77	2.65[b]	0.78	2.35	0.75	2.55	0.82
550 초과~750만원	100.00(361)	2.30	0.80	2.61[ab]	0.81	2.38	0.74	2.48	0.83
750만원 초과	100.00(296)	2.26	0.76	2.61[ab]	0.80	2.25	0.77	2.45	0.78
F		1.84		2.99*		2.07		1.52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1)	2.33	0.75	2.61	0.80	2.32	0.74	2.50	0.81
중소도시	100.00(230)	2.24	0.82	2.59	0.76	2.30	0.71	2.48	0.83
읍면	100.00(162)	2.34	0.84	2.56	0.83	2.37	0.77	2.41	0.74
F		1.25		0.34		0.48		0.8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하지 않는다~4.항상 한다).
3) 각 하위영역별 해당 가사일
- 의생활: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기, 빨랫감 모으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거나 개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 식생활: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밥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 주생활: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
- 돌봄: 부모님 심부름, 동생 돌보기, 가족이 아플 때 돕기, 우편물 챙기기, 집안행사(명절, 생일 등) 준비 등

* $p < .05$, ** $p < .01$, *** $p < .001$.

3) 외출/활동 참여 빈도

패널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지난 1년간 장보기 활동에 대해서는 패널아동의 78.30%가 한 번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참여한 적이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27.52회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은 연간 장보기 및 쇼핑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방문의 경우, 전체 패널아동의 95.17% 참여한다고 하였고, 연간 14.30회 정도 친인척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다소 높았고,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친인척 방문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친인척 방문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Ⅲ-2-27〉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단위: %, (명), 회

구분	계(수)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304)	78.30	21.70	27.52	29.80	95.17	4.83	14.30	21.70
아동 성별									
남	100.00(667)	70.16	29.84	23.84	28.70	94.00	6.00	13.41	18.06
여	100.00(637)	86.81	13.19	30.63	30.37	96.39	3.61	15.21	24.85
$x^2(df)/t$		53.15(1)***		-3.65***		4.04(1)*		-1.4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7)	75.14	24.86	32.25	31.70	89.27	10.73	14.30	19.92
350 초과~550만원	100.00(437)	79.86	20.14	28.56	29.99	95.88	4.12	14.86	21.64
550 초과~750만원	100.00(362)	76.24	23.76	25.49	32.02	95.58	4.42	13.24	19.69
750만원 초과	100.00(301)	79.73	20.27	25.63	24.94	97.01	2.99	14.62	25.17
$x^2(df)/F$		2.90(3)		2.02		16.17(3)**		0.38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9)	77.45	22.55	26.55	28.04	96.59	3.41	13.95	19.97
중소도시	100.00(231)	80.52	19.48	28.77	32.77	93.07	6.93	13.27	16.48
읍면	100.00(164)	79.88	20.12	30.97	34.15	90.24	9.76	17.84	34.36
$x^2(df)/F$		1.30(2)		1.42		14.85(2)**		2.33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1$, *** $p < .001$.

당일여행 및 나들이에 대한 지난 1년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패널아동의 대다수인 91.87%가 참여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연 11.38회 정도 당일로 나들이를 다니고 있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참여 여부 비율과 연간 참여횟수 모두 높았고,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당일여행 및 나들이를 한 번 이상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하루 이상 자고 오는 국내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패널아동은 전체의 78.68%였으며, 연간 3.21회 정도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일여행 및 나들이 조사경향과 유사하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참여 여부 비율이 다소 높았고,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1박 이상의 국내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1박 이상의 국내여행 참여비율도 높았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및 연수 경험의 참여 여부는 3.37%로 앞서 살펴본 다른 유형의 여행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조사시점인 2022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다녀온 적 있는 패널아동은 지난 1년 동안 평균 1.73회 정도 참여하였다고 조사되었다.

〈표 Ⅲ-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단위: %, (명), 회

구분	계(수)	당일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의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304)	91.87	8.13	11.38	12.95	78.68	21.32	3.21	4.41	3.37	96.63	1.73	3.48
아동 성별													
남	100.00(667)	90.10	9.90	10.55	13.26	76.46	23.54	3.27	4.65	3.15	96.85	2.43	5.00
여	100.00(637)	93.72	6.28	12.22	12.58	81.00	19.00	3.16	4.16	3.61	96.39	1.09	0.29
$x^2(df)/t$		5.70(1)*		-2.23*		4.01(1)*		0.41		0.21(1)		1.2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7)	85.31	14.69	11.15	12.39	55.37	44.63	3.14	6.09	1.13	98.87	1.00	-
350 초과~550만원	100.00(437)	90.39	9.61	12.53	15.35	78.26	21.74	3.41	5.70	2.97	97.03	3.00	6.36
550 초과~750만원	100.00(362)	95.30	4.70	10.17	11.18	84.53	15.47	2.85	2.39	3.59	96.41	1.00	-
750만원 초과	100.00(301)	94.02	5.98	11.51	11.55	85.71	14.29	3.48	3.58	4.98	95.02	1.33	0.49
$x^2(df)/F$		19.19(3)***		2.08		73.51(3)***		1.21		5.40(3)		0.83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9)	92.63	7.37	11.83	13.05	80.42	19.58	3.16	4.08	3.74	96.26	1.88	3.95
중소도시	100.00(231)	91.34	8.66	11.15	13.86	79.65	20.35	3.57	5.26	3.03	96.97	1.14	0.38
읍면	100.00(164)	88.41	11.59	9.15	10.62	67.68	32.32	2.95	4.91	1.83	98.17	1.33	0.58
$x^2(df)/F$		3.41(2)		2.69		13.59(2)**		0.83		1.66(2)		0.15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1$, *** $p < .001$.

지난 1년간 아동의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견학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의 54.83%가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분석해보니, 평균 5.67회였으나 개인 간 편차가 큰 편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견학활동 참여경험 여부 비율이 높았다.

종교활동은 전체 아동 중 22.32%가 참여한다고 하였고, 연간 참여횟수는 50.96회였지만,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견학활동과 마찬가지로 개인 간 편차가 큰 편으로 보인다. 지역 규모가 클수록 종교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Ⅲ-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종교활동

단위: %, (명), 회

구분	계(수)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종교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304)	54.83	45.17	5.67	7.03	22.32	77.68	50.96	48.09
아동 성별									
남	100.00(667)	50.67	49.33	5.70	6.93	22.34	77.66	50.88	48.68
여	100.00(637)	59.18	40.82	5.65	7.12	22.29	77.71	51.05	47.64
$x^2(df)/t$		9.53(1)**		0.10		0.00(1)		-0.0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7)	51.41	48.59	4.87	5.12	20.90	79.10	53.24	42.56
350 초과~550만원	100.00(437)	52.40	47.60	6.08	7.63	22.20	77.80	59.66	47.04
550 초과~750만원	100.00(362)	53.31	46.69	5.06	6.13	20.72	79.28	43.95	46.46
750만원 초과	100.00(301)	62.13	37.87	6.04	7.30	24.25	75.75	43.23	39.71
$x^2(df)/F$		8.68(3)*		1.37		1.36(3)		2.61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9)	57.43	42.57	5.71	7.28	24.20	75.80	49.11	44.25
중소도시	100.00(231)	52.38	47.62	5.69	6.81	19.91	80.09	49.37	45.44
읍면	100.00(164)	43.90	56.10	5.33	5.40	15.24	84.76	70.16	76.10
$x^2(df)/F$		10.94(2)**		0.09		7.37(2)*		2.20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1$.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중 마지막으로 연간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 비율과 횟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난 1년 간 봉사활동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

이 있는 경우는 전체 패널아동의 19.48%였고,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는 연간 18.38회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 중 24.31%가 경험이 있었으며. 해당 사례 아동의 경우는 연 평균 47.15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간 편차가 컸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경험 여부 비율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 아동이 550만원 초과인 집단의 아동에 비해 연간 참여횟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2-30〉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단위: %, (명), 회

구분	계(수)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304)	19.48	80.52	18.38	35.21	24.31	75.69	47.15	48.95
아동 성별									
남	100.00(667)	17.54	82.46	22.11	39.69	20.39	79.61	46.68	49.78
여	100.00(637)	21.51	78.49	15.20	30.67	28.41	71.59	47.51	48.45
$x^2(df)/t$		3.27(1)		1.56		11.40(1)**		-0.1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7)	15.82	84.18	13.21	16.05	18.64	81.36	66.91[b]	60.46
350 초과~550만원	100.00(437)	20.37	79.63	18.91	34.01	23.80	76.20	52.06[ab]	49.50
550 초과~750만원	100.00(362)	18.23	81.77	20.35	39.03	24.59	75.41	41.46[a]	50.07
750만원 초과	100.00(301)	21.59	78.41	14.94	26.49	28.57	71.43	40.50[a]	40.87
$x^2(df)/F$		2.95(3)		0.53		6.10(3)		3.09*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9)	18.26	81.74	19.51	40.87	24.53	75.47	44.00	46.84
중소도시	100.00(231)	25.54	74.46	16.07	21.26	25.54	74.46	52.51	55.54
읍면	100.00(164)	17.68	82.32	16.66	20.04	21.34	78.66	58.23	49.37
$x^2(df)/F$		6.61(2)*		0.25		1.00(2)		1.72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1$.

4) 컴퓨터 사용 능력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패널아동의 컴퓨터 사용 능력을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악성코드 검사/치료 능력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

수인 2.66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점대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문서/자료 작성 3.85점,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에 대해서는 3.77점, 파일 전송 3.74점, 유튜브 동영상 탑재 3.5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8개의 항목 중 파일 전송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항목별로 양상은 달랐다.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능력, 유선/무선인터넷 연결, 웹브라우저 환경 설정, 외장기기 연결, 악성코드 검사/치료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잘하고, 문서/자료 작성과 유튜브 동영상 탑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집단 차이는 항목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의 능력이 높은 경향이 우세하였다. 거주하는 지역 규모별 차이도 존재했는데, 가구소득별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항목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패널아동의 컴퓨터 사용 능력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Ⅲ-2-31〉 컴퓨터 사용 능력

단위: (명), 점

구분	(수)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능력		유선/무선인터넷 연결 능력		웹브라우저 환경 설정 능력		외장기기 연결 능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3.77	1.16	3.50	1.25	3.55	1.24	3.31	1.27
아동 성별									
남	(664)	3.93	1.12	3.66	1.21	3.70	1.18	3.45	1.27
여	(629)	3.61	1.19	3.34	1.28	3.40	1.28	3.17	1.26
t		4.93***		4.62***		4.33***		3.8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3.50[a]	1.28	3.16[a]	1.27	3.38	1.34	3.11	1.30
350 초과~550만원	(433)	3.84[b]	1.09	3.56[b]	1.20	3.58	1.20	3.35	1.24
550 초과~750만원	(361)	3.83[b]	1.16	3.57[b]	1.29	3.63	1.24	3.39	1.27
750만원 초과	(296)	3.79[b]	1.17	3.56[b]	1.24	3.55	1.22	3.32	1.27
F		4.08**		5.32**		1.70		2.08	
지역 규모									
대도시	(901)	3.83[b]	1.12	3.59[b]	1.21	3.66[b]	1.18	3.39[b]	1.25
중소도시	(230)	3.75[ab]	1.20	3.40[ab]	1.27	3.46[b]	1.27	3.21[ab]	1.27
읍면	(162)	3.52[a]	1.31	3.15[a]	1.38	3.09[a]	1.39	3.02[a]	1.32
F		4.71**		9.55***		15.76***		7.03***	

구분	(수)	파일 전송 능력		악성코드 검사/치료 능력		문서/자료 작성 능력		유튜브 동영상 탑재 능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3.74	1.21	2.66	1.30	3.85	1.14	3.59	1.32
아동 성별									
남	(664)	3.79	1.19	2.95	1.32	3.74	1.17	3.50	1.38
여	(629)	3.70	1.22	2.35	1.20	3.97	1.08	3.69	1.25
t		1.38		8.59^{***}		-3.65^{***}		-2.4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3.51^{a}	1.31	2.60^{ab}	1.31	3.59^{a}	1.24	3.49	1.41
350 초과~550만원	(433)	3.79^{ab}	1.15	2.76^{b}	1.33	3.90^{b}	1.09	3.61	1.27
550 초과~750만원	(361)	3.76^{ab}	1.24	2.73^{ab}	1.30	3.91^{b}	1.14	3.64	1.34
750만원 초과	(296)	3.85^{b}	1.15	2.45^{a}	1.22	3.91^{b}	1.08	3.62	1.31
F		3.15^{*}		3.92^{**}		4.06^{**}		0.55	
지역 규모									
대도시	(901)	3.83^{b}	1.17	2.71	1.32	3.94^{b}	1.10	3.66^{a}	1.30
중소도시	(230)	3.58^{ab}	1.26	2.57	1.17	3.78^{b}	1.18	3.47^{a}	1.34
읍면	(162)	3.52^{a}	1.25	2.51	1.31	3.49^{a}	1.20	3.39^{a}	1.36
F		7.45^{***}		2.26		11.21^{***}		4.2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5) 시간사용 충분성 인식 및 가족 식사

패널아동이 생각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친구/휴식/여가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 숙제/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에 대하여 충분한지 8개의 세부 문항으로 나누어 부족한 경우 1점, 충분하면 2점,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3점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에 대한 패널아동의 충분성 인식은 평균 1.95점, 가족과의 식사하는 시간에 대한 충분성 인식은 평균 1.92점, 가족과 보내는 여가 활동 시간에 대한 충분성 인식은 평균 1.72점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여기는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가족과의 식사 시간에 대한 충분성에서는 남학생(평균 1.94점)이 여학생(평균 1.88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2-32〉 아동의 시간사용 충분성 인식: 가족과의 시간

단위: (명), 점

구분	(수)	가족과 대화 시간		가족과의 식사 시간		가족과의 여가 활동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1.95	0.37	1.92	0.39	1.72	0.49
아동 성별							
남	(664)	1.94	0.36	1.95	0.35	1.74	0.48
여	(629)	1.95	0.38	1.88	0.42	1.69	0.50
t		-0.38		2.88**		1.8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1.93	0.39	1.94	0.39	1.73	0.49
350 초과~550만원	(433)	1.95	0.38	1.91	0.40	1.73	0.48
550 초과~750만원	(361)	1.94	0.33	1.91	0.35	1.72	0.48
750만원 초과	(296)	1.96	0.40	1.92	0.42	1.71	0.52
F		0.41		0.24		0.10	
지역 규모							
대도시	(901)	1.95	0.36	1.92	0.38	1.71	0.49
중소도시	(230)	1.92	0.41	1.88	0.38	1.72	0.48
읍면	(162)	1.94	0.36	1.94	0.41	1.77	0.51
F		0.80		1.32		0.8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부족함. 2.충분함. 3.지나치게 많음).
** $p < .01$.

친구/휴식/여가 활동에 대한 아동의 시간 사용 충분성 인식은 각각 평균 1.94점, 2.02점, 1.90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과 여가 활동 시간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패널아동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아동보다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Ⅲ-2-33〉 아동의 시간사용 충분성 인식: 친구, 휴식, 여가활동 시간

단위: (명), 점

구분	(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휴식시간		여가 활동 (취미, 운동 등)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1.94	0.47	2.02	0.47	1.90	0.45
아동 성별							
남	(664)	1.92	0.49	2.02	0.46	1.91	0.42
여	(629)	1.97	0.46	2.02	0.48	1.89	0.49
t		-1.88		-0.04		0.5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1.93	0.50	2.06	0.48	1.95	0.46
350 초과~550만원	(433)	1.94	0.46	2.03	0.46	1.91	0.46
550 초과~750만원	(361)	1.94	0.50	2.01	0.47	1.88	0.44

구분	(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휴식시간		여가 활동 (취미, 운동 등)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750만원 초과	(296)	1.96	0.44	1.99	0.48	1.89	0.44
F		0.11		1.06		1.16	
지역 규모							
대도시	(901)	1.93[a]	0.48	2.01	0.48	1.89[a]	0.47
중소도시	(230)	1.91[a]	0.43	2.02	0.44	1.88[a]	0.43
읍면	(162)	2.06[b]	0.48	2.10	0.49	2.01[b]	0.39
F		5.87**		2.51		5.6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부족함, 2.충분함, 3.지나치게 많음).
** $p < .01$.

패널아동의 숙제에 할애하는 시간과 집에서 가족을 돕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숙제하는 시간에 대한 충분성 인식은 평균 1.93점이고,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에 대한 충분성 인식은 평균 1.80점였다. 특별히,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에 대해 도시지역의 아동들보다 읍면지역 아동의 시간에 대한 충분성 인식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Ⅲ-2-34〉 아동의 시간사용 충분성 인식: 숙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단위: (명), 점

구분	(수)	숙제하는 시간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1.93	0.43	1.80	0.48
아동 성별					
남	(664)	1.95	0.43	1.81	0.47
여	(629)	1.91	0.43	1.78	0.49
t		1.53		1.1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1.94	0.43	1.82	0.48
350 초과~550만원	(433)	1.93	0.43	1.80	0.49
550 초과~750만원	(361)	1.93	0.41	1.81	0.44
750만원 초과	(296)	1.91	0.44	1.77	0.52
F		0.19		0.62	
지역 규모					
대도시	(901)	1.93	0.45	1.79[a]	0.48
중소도시	(230)	1.90	0.40	1.75[a]	0.50
읍면	(162)	1.98	0.34	1.90[b]	0.44
F		1.92		4.6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부족함, 2.충분함, 3.지나치게 많음).
** $p < .01$.

패널아동의 일주일 평균 가족과 몇 번의 식사를 같이하는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주 8회 이상 응답한 비율이 41.87%로 가장 높았으며, 주 3~5회 23.77%, 주 6~7회 22.70%, 주 1~2회 10.35%, 거의 안 함 1.30%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과의 식사 횟수에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패널아동이 대도시에 비해 주 8회 이상 식사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2-35〉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단위: %, (명)

구분	계(수)	거의 안 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전체	100.00(1304)	1.30	10.35	23.77	22.70	41.87
아동 성별						
남	100.00(667)	1.95	10.34	22.04	23.09	42.58
여	100.00(637)	0.63	10.36	25.59	22.29	41.13
$x^2(df)$				6.34(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7)	3.39	9.60	22.03	24.29	40.68
350 초과~550만원	100.00(437)	1.37	10.07	22.88	22.65	43.02
550 초과~750만원	100.00(362)	0.55	11.33	22.93	22.38	42.82
750만원 초과	100.00(301)	1.00	9.97	27.24	20.93	40.86
$x^2(df)$				10.96(12)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9)	1.21	10.56	25.74	25.19	37.29
중소도시	100.00(231)	1.73	9.09	18.61	18.18	52.38
읍면	100.00(164)	1.22	10.98	20.12	15.24	52.44
$x^2(df)$				29.44(8)***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다. 신체 및 건강 특성

1) 신체 특성 및 주관적 건강상태

패널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를 조사하였다. 신장은 평균 165.36cm(전년도 평균 161.63cm, 김지현 외, 2022: 118), 허리둘레는 평균 74.79cm(전년도 평균 75.79cm, 김지현 외, 2022: 118), 체중은 평균 58.40kg(전년도 55.15kg, 김지현 외, 2022: 118), BMI는 평균 21.25kg/m^2(전년도 평균 21.00kg/m^2, 김지현 외, 2022: 118)로 측정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체중

과 신장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체질량지수인 BMI는 정상범위(18.5~22.9) 안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36〉 아동의 신체치수: 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단위: cm, kg, kg/m^2, (명)

구분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신장	142.00	198.10	165.00	165.36	7.20	(1268)
허리둘레	47.00	118.00	73.00	74.79	10.27	(1044)
체중	32.00	163.00	56.00	58.40	13.05	(1261)
BMI	14.09	61.35	20.50	21.25	3.93	(1244)

패널아동의 특성별 신체치수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 남녀 신체치수 격차가 뚜렷하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신장은 평균 169.39cm, 허리둘레는 평균 78.22cm, 체중은 63.30kg, BMI는 평균 22.01kg/m^{2}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신장은 평균 161.14cm, 허리둘레는 평균 71.07cm, 체중은 평균 53.11kg, BMI는 평균 20.44kg/m^{2}로 나타났다.

〈표 Ⅲ-2-37〉 아동의 특성별 신체치수

단위: (명). cm, kg, kg/m^2

구분	(수)	신장		(수)	허리둘레		(수)	체중		(수)	BM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68)	165.36	7.20	(1044)	74.79	10.27	(1261)	58.40	13.05	(1244)	21.25	3.93
아동 성별												
남	(648)	169.39	6.51	(542)	78.22	10.86	(652)	63.30	14.13	(641)	22.01	4.41
여	(619)	161.14	5.22	(501)	71.07	8.10	(608)	53.11	9.23	(602)	20.44	3.15
t		24.82***			11.98***			15.05***			7.1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4)	164.58	7.73	(149)	74.55	10.42	(175)	57.67	12.94	(173)	21.18	3.89
350 초과~550만원	(423)	165.54	7.17	(358)	75.66	10.98	(423)	59.21	13.59	(416)	21.48	4.08
550 초과~750만원	(355)	165.55	7.40	(286)	75.10	9.85	(357)	58.67	13.40	(353)	21.31	4.11
750만원 초과	(289)	165.32	6.85	(229)	73.36	9.50	(280)	57.45	12.12	(276)	20.92	3.54
F		0.83			2.43			1.26			1.17	
지역 규모												
대도시	(883)	165.35	7.18	(740)	74.28[a]	10.40	(881)	58.16	13.09	(869)	21.21	3.98
중소도시	(227)	165.25	7.07	(181)	75.73[a]	10.14	(221)	57.68	12.68	(220)	21.02	3.85
읍면	(157)	165.57	7.61	(122)	76.43[a]	9.42	(158)	60.66	13.14	(154)	21.80	3.68
F		0.10			3.23*			2.86			1.94	

주: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다음은 패널아동에게 자신의 신체적 자아상에 대해 4점 척도로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패널아동이 생각하는 본인의 신체적 자아상 점수는 평균 2.68점으로 나타났다. 외모 만족, 거울 속 모습 만족 항목은 각각 평균 2.85점, 2.83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신장의 경우 평균 2.51점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특히,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신장 만족을 제외한 남은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항목에서 대도시지역 거주 패널아동보다 읍면지역 패널아동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8〉 신체적 자아상

단위: (명), 점

구분	(수)	전체		외모 만족		체중 만족		거울 속 모습 만족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신장 만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2.68	0.52	2.85	0.63	2.58	0.88	2.83	0.65	2.64	0.84	2.51	0.90
아동 성별													
남	(664)	2.79	0.50	2.96	0.59	2.71	0.89	2.94	0.62	2.81	0.82	2.55	0.92
여	(629)	2.57	0.51	2.73	0.65	2.44	0.84	2.72	0.66	2.46	0.83	2.47	0.88
t		8.14***		6.50***		5.52***		6.37***		7.54***		1.6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2.68	0.57	2.82	0.67	2.60	0.91	2.83	0.72	2.68	0.90	2.48	0.96
350 초과~550만원	(433)	2.68	0.50	2.87	0.61	2.55	0.88	2.83	0.65	2.65	0.82	2.48	0.88
550 초과~750만원	(361)	2.69	0.50	2.85	0.62	2.57	0.87	2.84	0.62	2.63	0.83	2.55	0.86
750만원 초과	(296)	2.69	0.55	2.83	0.66	2.61	0.88	2.83	0.66	2.63	0.88	2.53	0.94
F		0.05		0.31		0.31		0.05		0.21		0.47	
지역 규모													
대도시	(901)	2.66[a]	0.53	2.83	0.63	2.56	0.88	2.82	0.65	2.60[a]	0.82	2.48	0.91
중소도시	(230)	2.72[a]	0.48	2.87	0.62	2.67	0.84	2.87	0.67	2.69[ab]	0.85	2.53	0.86
읍면	(162)	2.77[a]	0.51	2.91	0.62	2.57	0.94	2.88	0.65	2.82[b]	0.91	2.65	0.90
F		4.06*		1.16		1.50		1.00		5.36**		2.67	

주: 1) 아동 응답임.
2) 체중 만족(나는 내 체중에 불만스럽다), 외모교체 욕구(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문항은 역코딩
3)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에게 본인이 인식한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널아동의 43.8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비만 25.89%, 약간 마른 편 19.32%, 매우 비만 6.26%, 매우 마른 편 4.64%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고, 반대로 매우 마련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2-39〉 아동이 인식한 아동의 체형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마른 편	약간 마른 편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64	19.32	43.89	25.89	6.26	100.00(1294)	3.10	0.94
아동 성별	·	·	·	·	·		·	·
남	8.13	24.25	34.79	25.60	7.23	100.00(664)	3.00	1.06
여	0.95	14.15	53.42	26.23	5.25	100.00(629)	3.21	0.78
$x^2(df)/t$			80.54(4)***			·	-4.07***	
가구소득	·	·	·	·	·		·	·
350만원 이하	6.25	23.86	38.64	25.57	5.68	100.00(176)	3.01	0.99
350 초과~550만원	5.08	17.09	42.49	29.10	6.24	100.00(433)	3.14	0.95
550 초과~750만원	3.88	17.17	47.65	25.21	6.09	100.00(361)	3.12	0.90
750만원 초과	4.39	21.96	44.26	22.64	6.76	100.00(296)	3.05	0.94
$x^2(df)/F$			12.23(12)			·	1.21	
지역 규모	·	·	·	·	·		·	·
대도시	5.33	19.87	42.62	25.86	6.33	100.00(901)	3.08	0.96
중소도시	3.04	20.00	48.26	22.17	6.52	100.00(230)	3.09	0.89
읍면	3.09	15.43	44.44	31.48	5.56	100.00(162)	3.21	0.88
$x^2(df)/F$			9.17(8)			·	1.3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마른 편이다~5.매우 비만이다).
*** $p < .001$.

다음은 패널아동에게 체중조절 경험 노력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패널아동의 34.31%가 체중 감량에 노력하였으며, 노력 안함 32.46%, 유지 노력 22.72%, 증량 노력 10.5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성별에 따라 체중조절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증량 노력 17.62%와 노력 안함 34.94%, 유지 노력이 23.64%로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과반에 가까운 45.47%가 감량 노력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40〉 체중조절 경험

단위: %, (명)

구분	감량 노력	유지 노력	증량 노력	노력 안함	계(수)
전체	34.31	22.72	10.51	32.46	100.00(1294)
아동 성별					
남	23.80	23.64	17.62	34.94	100.00(664)
여	45.47	21.62	3.02	29.89	100.00(629)
$x^2(df)$	112.77(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3.52	19.89	13.64	32.95	100.00(176)
350 초과~550만원	33.95	24.02	11.78	30.25	100.00(433)
550 초과~750만원	36.01	24.65	8.31	31.02	100.00(361)
750만원 초과	33.45	19.59	9.46	37.50	100.00(296)
$x^2(df)$	10.70(9)				
지역 규모					
대도시	34.30	21.31	10.77	33.63	100.00(901)
중소도시	30.87	26.96	11.30	30.87	100.00(230)
읍면	39.51	24.07	8.02	28.40	100.00(162)
$x^2(df)$	7.34(6)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체중조절 경험 중 감량 및 유지 노력을 한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체중조절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널아동 중 79.67%가 운동을 통해 체중 조절 방법으로 선택하였으며, 식사량 감량 60.57%, 결식 19.24%, 건강기능식품 5.96%, 원푸드 다이어트 2.03%, 기타 2.7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Ⅲ-2-41〉 체중조절 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운동	식사량 감량	결식	건강기능 식품	원푸드 다이어트	기타	(수)
전체	79.67	60.57	19.24	5.96	2.03	2.71	(738)
아동 성별							
남	83.49	48.57	10.79	6.03	1.27	2.86	(315)
여	76.78	69.67	25.59	5.92	2.61	2.61	(42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82.98	51.06	11.70	8.51	-	5.32	(94)
350 초과~550만원	79.68	56.97	21.51	4.38	2.79	2.79	(251)
550 초과~750만원	79.00	66.21	20.09	5.48	0.91	0.46	(219)
750만원 초과	78.98	64.33	20.38	7.64	3.82	4.46	(157)

구분	운동	식사량 감량	결식	건강기능 식품	원푸드 다이어트	기타	(수)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80.24	60.48	20.56	6.59	2.79	2.00	(501)
중소도시	78.20	57.89	21.05	4.51	0.75	4.51	(133)
읍면	78.64	65.05	10.68	4.85	-	3.88	(103)

주: 아동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57.73%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전년도 51.34%, 김지현 외, 2022: 122), 시력 교정 도구를 사용하는 패널아동은 전체 6.96%(전년도 4.15%, 김지현 외, 2022: 122)로 전년도에 비해 안경과 시력 교정 도구 사용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처음 안경 착용 평균 연령은 9.95세이며, 시력 교정 도구 첫 사용 평균 연령은 12.10세로 나타났다.

〈표 Ⅲ-2-42〉 아동의 시력 보정 도구 착용 시기

단위: 세, (명)

구분	안경		(수)	시력 교정 도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95	2.34	(747)	12.10	1.91	(90)
아동 성별	·	·	·	·	·	·
남	9.91	2.33	(364)	11.50	1.96	(26)
여	9.98	2.34	(383)	12.34	1.85	(64)
t	-0.39		·	-1.92		·
가구소득	·	·	·	·	·	·
350만원 이하	10.11	2.28	(96)	13.60	0.89	(5)
350 초과~550만원	10.01	2.43	(245)	12.40	1.52	(30)
550 초과~750만원	9.82	2.20	(222)	12.27	1.51	(26)
750만원 초과	9.94	2.45	(170)	11.61	2.17	(28)
F	0.46		·	2.33		·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9.90	2.37	(529)	12.04	2.01	(74)
중소도시	10.07	2.11	(135)	12.62	1.45	(13)
읍면	10.05	2.45	(83)	11.33	0.58	(3)
F	0.46		·	2.33		·

주: 1) 전체 참여 아동의 57.73%는 안경, 6.96%는 시력 교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2) 보호자의 응답임.

2차 성징의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몽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44.43%로 중학교 2학년을 기점으로 과반수가 2차 성징이 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첫 2차 성징(몽정)이 발현된 시기를 보면, 2022년(중학교 1학년) 7.98%, 2021(초등 6학년) 21.08%, 2020년(초등 5학년) 18.07%, 2019년(초등 4학년) 4.07%, 2018년 0.60%, 2017년 이전(초등 3학년 이전) 3.77%로 나타났다.

〈표 Ⅲ-2-43〉 남학생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 (명)

구분	계(수)	몽정 발현 여부						
		나타남 (처음 나타난 시기)						나타나지 않음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전체	100.00(664)	7.98	21.08	18.07	4.07	0.60	3.77	44.43

주: 아동의 응답임.

여학생의 경우 2차 성징(초경) 발현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1.76%로 중2 패널아동 여학생들은 대부분 2차 성징(초경)이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차 성징(초경)이 처음 발현된 시기로는 2020년(초등 6학년) 4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Ⅲ-2-44〉 여학생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 (명)

구분	계(수)	초경 발현 여부						
		나타남 (처음 나타난 시기)						나타나지 않음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전체	100.00(625)	3.84	18.72	43.52	25.12	4.96	2.08	1.76

주: 1) 여학생 629명 중 2차 성징(초경) 발현했다에 응답하였지만 처음 발현 시기에 대해 '모름/무응답' 4개 사례를 뺀 수치
2) 아동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한 편임에 패널아동의 63.88%가 응답하였으며, 매우 건강하다 19.79%, 보통에 14.80%, 건강하지 않은 편임에 1.53% 순으로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역 규모에 있어서 지역별 패널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의 패널아동이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패널아동보다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Ⅲ-2-45〉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	1.53	14.80	63.88	19.79	100.00(1304)	4.02	0.64
아동 성별								
남	-	1.20	15.14	62.67	20.99	100.00(667)	4.03	0.64
여	-	1.88	14.44	65.15	18.52	100.00(637)	4.00	0.64
$\chi^2(df)/t$			2.42(3)				0.8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	3.95	15.25	57.63	23.16	100.00(177)	4.00	0.74
350 초과~550만원	-	0.92	17.16	63.84	18.08	100.00(437)	3.99	0.62
550 초과~750만원	-	1.38	13.81	63.81	20.99	100.00(362)	4.04	0.63
750만원 초과	-	1.33	12.29	67.11	19.27	100.00(301)	4.04	0.61
$\chi^2(df)/F$			14.54(9)				0.66	
지역 규모								
대도시	-	1.43	15.84	64.36	18.37	100.00(909)	4.00^{a}	0.63
중소도시	-	0.87	16.45	62.34	20.35	100.00(231)	4.02^{ab}	0.64
읍면	-	3.05	6.71	63.41	26.83	100.00(164)	4.14^{b}	0.66
$\chi^2(df)/F$			16.73(6)*				3.53*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건강하지 않음~5.매우 건강함).
* $p < .05$.

패널아동의 담임교사가 응답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은 학생의 건강체력평가 단계는 총 5단계로 나누고, 1등급이 가장 점수가 높은 그룹을 의미한다. 3등급이 34.79%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2등급 32.95%, 1등급 14.98%, 4등급 11.06%, 5등급 6.22%를 순이다(전년도, 2등급 33.41%, 3등급 35.62%, 4등급 13.94%, 5등급 8.63%, 1등급 8.41% 순, 김지현 외, 2022: 125). 전년도에 비해 4, 5등급의 비중이 줄어들고 1등급의 비중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46〉 아동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결과

단위: %, (명), 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98	32.95	34.79	11.06	6.22	100.00(434)	2.61	1.07
아동 성별								
남	15.93	28.32	34.96	14.16	6.64	100.00(226)	2.67	1.11
여	13.94	37.98	34.62	7.69	5.77	100.00(208)	2.53	1.02
$\chi^2(df)/t$			7.58(4)				1.36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	·	·	·	·	·	·	·
350만원 이하	8.11	39.19	33.78	10.81	8.11	100.00(74)	2.72	1.04
350 초과~550만원	17.33	28.00	35.33	12.67	6.67	100.00(150)	2.63	1.11
550 초과~750만원	15.00	32.50	37.50	10.83	4.17	100.00(120)	2.57	1.01
750만원 초과	16.67	36.67	31.11	8.89	6.67	100.00(90)	2.52	1.08
$x^2(df)/F$			8.13(12)			·	0.54	
지역 규모	·	·	·	·	·	·	·	·
대도시	16.84	33.68	32.30	10.65	6.53	100.00(291)	2.56	1.09
중소도시	10.13	36.71	34.18	12.66	6.33	100.00(79)	2.68	1.03
읍면	12.50	25.00	46.88	10.94	4.69	100.00(64)	2.70	0.99
$x^2(df)/F$			7.52(8)			·	0.70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0-19점: 5등급, 20-39점: 4등급, 40-59점: 3등급, 60-79점: 2등급, 80-100.0점: 1등급

2) 질환 및 치료

패널아동의 보호자에게 지난 1년간 자녀의 응급실 치료 경험 및 입원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 응급실 치료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5.78%, 입원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7.93%로 대부분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치료 및 입원 경험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 성별, 가구소득, 지역 규모에 따른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47〉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단위: %, (명)

구분	응급실 치료 경험		입원 경험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4.22	95.78	2.07	97.93	100.00(1304)
아동 성별	·	·	·	·	
남	4.50	95.50	2.25	97.75	100.00(667)
여	3.92	96.08	1.88	98.12	100.00(637)
$x^2(df)$	0.26(1)		0.21(1)		·
가구소득	·	·	·	·	
350만원 이하	2.26	97.74	-	100.00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4.81	95.19	2.97	97.03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3.59	96.41	1.38	98.62	100.00(362)
750만원 초과	5.32	94.68	2.99	97.01	100.00(301)
$x^2(df)$	3.29(3)		7.44(3)		·
지역 규모	·	·	·	·	
대도시	3.85	96.15	1.54	98.46	100.00(909)
중소도시	3.90	96.10	2.60	97.40	100.00(231)
읍면	6.71	93.29	4.27	95.73	100.00(164)
$x^2(df)$	2.88(2)		5.48(2)		·

주: 보호자의 응답임.

보호자가 응답한 패널아동의 장애 여부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지체 장애 3명,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간질장애 각 1명, 신장장애, 심장장애 각 2명, 자폐성장애와 기타 장애 각 3명, 지적장애 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48〉 아동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100.00(3)	66.67	33.33
뇌병변장애	100.00(1)	100.00	-
시각장애	100.00(1)	-	100.00
청각장애	100.00(1)	-	100.00
언어장애	100.00(1)	-	100.00
안면장애	-	-	-
신장장애	100.00(2)	-	100.00
심장장애	100.00(2)	-	100.00
간장애	-	-	-
호흡기장애	-	-	-
장루, 요루장애	-	-	-
간질장애	100.00(1)	-	100.00
지적장애	100.00(8)	87.50	12.50
정신장애	-	-	-
자폐성장애	100.00(3)	100.00	-
기타 장애	100.00(3)	-	100.00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패널아동의 18.71%가 만성 비염으로, 진단받은 만성질환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며, 선천성 심장질환, 뇌전증(간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진단 받은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가 간헐적으로 받거나 받지 않음에 과반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49〉 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단위: %, (명)

구분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계(수)	치료 여부		
			정기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선천성 심장질환	0.54	100.00(7)	57.14	28.57	14.29
뇌전증(간질)	0.23	100.00(3)	66.67	33.33	-
당뇨	0.15	100.00(2)	50.00	-	50.00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1.92	100.00(25)	-	60.00	40.00

구분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계(수)	치료 여부		
			정기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만성 중이염	0.46	100.00(6)	33.33	33.33	33.33
만성 요로감염	-	-	-	-	-
천식	1.99	100.00(26)	11.54	38.46	50.00
만성 비염	18.71	100.00(233)	6.01	65.67	28.33
아토피 피부염	6.67	100.00(87)	10.34	49.43	40.23
식품 알레르기	2.15	100.00(28)	-	32.14	67.86
알레르기 결막염	2.84	100.00(37)	-	72.97	27.03
기타 질환	0.84	100.00(11)	27.27	36.36	36.36

주: 1) 진단받은 비율은 응답한 보호자를 전체로 산출됨.
2) 치료 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3) 보호자의 응답임.

보호자에게 패널아동이 심리·사회적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심리·사회적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는 대부분 1% 미만이었고, 의사소통장애가 0.69%, 운동장애 0.5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0.46%, 자폐 스펙트럼장애 0.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질환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속 또는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는 의사소통장애 33.33%, 운동장애 42.86%를 제외하고는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Ⅲ-2-50〉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수)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상담 및 치료 여부		
			지속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의사소통 장애	0.69	100.00(9)	33.33	-	66.67
자폐 스펙트럼장애	0.31	100.00(4)	75.00	25.00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0.46	100.00(6)	66.67	-	33.33
특정 학습장애	-	-	-	-	-
운동장애	0.54	100.00(7)	28.57	14.29	57.14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	0.08	100.00(1)	100.00	-	-
배설장애	-	-	-	-	-
급식 및 섭식장애	-	-	-	-	-
불안 장애	0.08	100.00(1)	100.00	-	-
기타 장애	0.23	100.00(3)	66.67	-	33.33

주: 1) 치료 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2) 보호자의 응답임.

라. 언어 및 학습 관련 특성

1) 인지 관련

패널아동의 집행기능은 11차년도부터 격년조사로 변경되었고, 13차년도부터는 보호자 응답에서 아동 직접 응답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집행기능은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를 3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집행기능 중 계획-조직화 곤란은 평균 1.72점, 행동통제 곤란은 1.30점, 정서통제는 1.47점, 주의집중이 어려운 부주의는 1.51점으로 나타났다. 4개 영역 모두 2점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집행기능 수행의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행동통제 곤란 평균점수가 더 높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은 반대로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아동이 대도시 아동에 비해 부주의 평균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에 따른 평균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51〉 집행기능

단위: (명), 점

구분	(수)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1.72	0.44	1.30	0.30	1.47	0.45	1.51	0.45
아동 성별									
남	(664)	1.73	0.43	1.35	0.32	1.43	0.44	1.52	0.44
여	(629)	1.72	0.45	1.24	0.27	1.52	0.47	1.51	0.46
t		0.26		6.68***		-3.65***		0.2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1.74	0.47	1.29	0.29	1.50	0.47	1.49	0.43
350 초과~550만원	(433)	1.75	0.43	1.32	0.31	1.47	0.45	1.52	0.45
550 초과~750만원	(361)	1.69	0.43	1.30	0.31	1.46	0.47	1.52	0.48
750만원 초과	(296)	1.70	0.45	1.26	0.29	1.45	0.44	1.51	0.45
F		1.75		2.35		0.55		0.26	
지역 규모									
대도시	(901)	1.74	0.44	1.31	0.30	1.48	0.46	1.53[b]	0.46
중소도시	(230)	1.67	0.42	1.26	0.29	1.45	0.43	1.50[ab]	0.44
읍면	(162)	1.70	0.49	1.27	0.30	1.44	0.43	1.43[a]	0.43
F		2.70		2.87		1.01		3.4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3.자주 그렇다).
* $p < .05$, *** $p < .001$.

2) 학습 관련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교사의 평가 결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두 상위권(80~100%)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응답 아동의 약 60%는 상위 6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이하의 아동비율은 5~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Ⅲ-2-52〉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단위: %, (명)

구분	하위 20% 이하	하위 20-40%	중간 40-60%	상위 60-80%	상위 80-100%	계(수)
국어	5.24	10.89	19.56	26.81	37.50	100.00(496)
영어	8.87	13.51	17.34	19.56	40.73	100.00(496)
수학	6.65	14.11	20.16	20.36	38.71	100.00(496)
사회	6.85	13.71	19.15	24.40	35.89	100.00(496)
과학	7.06	13.91	20.16	25.00	33.87	100.00(496)

주: 담임교사의 응답으로, 아동이 재학 중인 중학교 해당교과목 담당교사가 평가한 결과를 담임교사가 입력한 결과임.

패널아동 스스로가 평가한 본인의 학업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서 잘 이해하고 있다(60~80% 미만)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고, 사회 과목은 보통(40~60%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다.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사회와 과학 과목을 잘 이해한다는 비율(60~100%)이 다소 낮았다.

〈표 Ⅲ-2-53〉 아동의 학업 이해도

단위: %, (명)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계(수)
국어	1.16	7.19	27.74	43.35	20.56	100.00(1294)
영어	4.87	14.22	21.56	31.07	28.28	100.00(1294)
수학	4.48	13.21	19.78	32.07	30.45	100.00(1294)
사회	3.32	13.83	34.70	30.53	17.62	100.00(1294)
과학	3.94	15.77	28.52	30.76	21.02	100.00(129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20% 이하: 거의 이해하지 못함, 20-40% 미만: 잘 이해하지 못함, 40-60% 미만: 보통, 60-80% 미만: 잘 이해함, 80-100%: 매우 잘 이해함.

패널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전체 평균은 5점 중 2.67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성적 스트레스는 2.48점, 숙제/시험 스트레스는 2.97점, 공부 스트레스는 2.80점,

대인/취업스트레스는 2.45점으로 나타나, 13차(전체 평균 2.28점, 김지현 외, 2021: 142)와 14차 응답결과(전체 평균 2.42점, 김지현 외, 2022: 132)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다소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 거주 아동이 읍면지역 아동에 비해 숙제/시험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2-54〉 학업 스트레스

단위: (명), 점

구분	(수)	전체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대입/취업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2.67	0.88	2.48	1.05	2.97	1.10	2.80	1.08	2.45	1.12
아동 성별											
남	(664)	2.58	0.88	2.41	1.02	2.85	1.11	2.73	1.10	2.33	1.10
여	(629)	2.77	0.87	2.56	1.07	3.09	1.07	2.87	1.07	2.57	1.13
t		−3.99***		−2.63**		−3.98***		−2.39*		−3.8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2.60	0.90	2.43	1.07	2.80	1.14	2.76	1.12	2.43	1.14
350 초과~550만원	(433)	2.72	0.88	2.54	1.04	3.01	1.09	2.85	1.09	2.47	1.10
550 초과~750만원	(361)	2.66	0.87	2.46	1.03	2.99	1.08	2.78	1.08	2.43	1.12
750만원 초과	(296)	2.67	0.91	2.44	1.09	3.00	1.13	2.78	1.07	2.45	1.16
F		0.75		0.82		1.69		0.50		0.10	
지역 규모											
대도시	(901)	2.72[a]	0.88	2.50	1.06	3.03[b]	1.10	2.84	1.09	2.50	1.14
중소도시	(230)	2.59[a]	0.83	2.41	1.01	2.86[ab]	1.04	2.70	1.02	2.37	1.07
읍면	(162)	2.56[a]	0.92	2.48	1.03	2.78[a]	1.11	2.70	1.13	2.30	1.08
F		3.38*		0.59		4.91**		2.16		2.8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이 선호하는 과목선호도 1순위를 보면 체육이 42.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 11.82%, 과학 8.66%, 사회 7.81%, 미술 7.65%, 국어 7.19%, 영어 6.6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체육이 52.11%, 수학 12.95%, 사회 8.43%, 과학 7.53%, 영어 5.27% 순이었고, 여학생은 체육 31.48%, 미술 12.24%, 수학 10.65%, 국어 10.02%, 과학 9.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55〉 아동의 과목선호도: 1순위

단위: %, (명)

구분	계(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기술 가정	음악	미술	체육	정보	진로
전체	100.00(1294)	7.19	6.65	11.82	7.81	8.66	0.93	1.24	3.79	7.65	42.12	1.16	1.00
아동 성별													
남	100.00(664)	4.52	5.27	12.95	8.43	7.53	0.45	0.90	2.56	3.31	52.11	1.51	0.45
여	100.00(629)	10.02	8.11	10.65	7.15	9.86	1.43	1.59	5.09	12.24	31.48	0.79	1.59

주: 아동의 응답임.

선호하는 과목선호도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여 살펴보면, 체육이 57.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 24.19%, 과학 21.17%, 사회 18.70%, 영어 17.31%, 미술 16.69%, 음악 14.99%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로는 남학생은 체육이 66.72%, 수학 27.11%, 과학 21.84%, 사회 19.88%, 영어 16.11% 순이었고, 여학생은 체육 47.06%, 미술 21.78%, 수학 21.14%, 과학 20.51%, 음악 19.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56〉 아동의 과목선호도: 1+2순위

단위: (명), %

구분	(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기술 가정	음악	미술	체육	정보	진로
전체	(1294)	13.52	17.31	24.19	18.70	21.17	4.64	5.02	14.99	16.69	57.19	3.25	3.32
아동 성별													
남	(664)	9.34	16.11	27.11	19.88	21.84	4.07	4.97	10.84	11.90	66.72	4.37	2.86
여	(629)	17.97	18.60	21.14	17.33	20.51	5.25	5.09	19.40	21.78	47.06	2.07	3.82

주: 아동의 응답임.

자기조절학습은 14차년도에 처음으로 추가한 내용으로 5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패널아동의 자기조절학습 응답 결과 전체 평균은 2.69점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2.61점, 여학생은 2.77점으로 여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월평균 750만원 초과 고소득가구 아동의 자기조절학습 점수가 높았으며, 지역 규모에 따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2-57〉 자기조절학습

단위: (명), 점

구분	(수)	자기조절학습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2.69	0.53
아동 성별			
남	(664)	2.61	0.53
여	(629)	2.77	0.51
t		-5.4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2.55[a]	0.56
350 초과~550만원	(433)	2.65[ab]	0.47
550 초과~750만원	(361)	2.71[bc]	0.53
750만원 초과	(296)	2.79[c]	0.57
F		8.71***	
지역 규모			
대도시	(901)	2.70	0.52
중소도시	(230)	2.71	0.54
읍면	(162)	2.59	0.52
F		2.9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01$.

마. 사회성 및 정서적 특성

1) 자아 발달

가)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우울

아동에게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등 5개 문항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4점 중 3.13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3.19점, 여학생은 3.06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고, 이외 가구소득이나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2-58〉 아동의 자아존중감

단위: (명), 점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3.13	0.54
아동 성별			
남	(664)	3.19	0.54
여	(629)	3.06	0.54
t		4.5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3.07	0.57
350 초과~550만원	(433)	3.12	0.53
550 초과~750만원	(361)	3.16	0.52
750만원 초과	(296)	3.13	0.58
F		1.13	
지역 규모			
대도시	(901)	3.11	0.55
중소도시	(230)	3.16	0.53
읍면	(162)	3.15	0.55
F		0.6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01$.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4점 중 2.8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2.88점, 여학생 2.80점으로 남학생이 생각하는 전반적 행복감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아동의 삶의 만족감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4점 중 2.96점이었고, 아동 성별, 가구소득별, 지역 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2-59〉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수)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2.84	0.48	2.96	0.41
아동 성별					
남	(664)	2.88	0.48	2.97	0.43
여	(629)	2.80	0.47	2.96	0.38
t		2.96**		0.2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2.78	0.47	2.95	0.46
350 초과~550만원	(433)	2.85	0.46	2.97	0.39
550 초과~750만원	(361)	2.84	0.48	2.97	0.40

구분	(수)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750만원 초과	(296)	2.86	0.49	2.97	0.41
F		0.98		0.15	
지역 규모					
대도시	(901)	2.83	0.49	2.97	0.41
중소도시	(230)	2.86	0.46	2.99	0.41
읍면	(162)	2.87	0.41	2.91	0.41
F		0.89		2.1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전반적 행복감: 4점 척도임(1.전혀 행복하지 않다~4.매우 행복하다).
3) 삶의 만족도: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1$.

아동의 우울은 14차년도부터 자아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추가되었으며, ‘기분이 우울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힘겹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등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1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 ‘가끔 있었다(1~2일)’, ‘자주 있었다(3~4일)’, ‘거의 대부분(5~7일)’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우울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점 중 1.51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성별로는 남학생이 1.49점, 여학생 1.54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았고, 지역 규모가 클수록 우울수준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우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2-60〉 아동의 우울

단위: (명), 점

구분	(수)	우울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1.51	0.43
아동 성별			
남	(664)	1.49	0.42
여	(629)	1.54	0.44
t		-2.3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1.56	0.46
350 초과~550만원	(433)	1.51	0.43
550 초과~750만원	(361)	1.47	0.40
750만원 초과	(296)	1.54	0.46
F		2.18	

구분	(수)	우울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901)	1.53[a]	0.43
중소도시	(230)	1.49[a]	0.40
읍면	(162)	1.44[a]	0.45
F		3.1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 2.가끔 있었다(1~2일), 3.자주 있었다(3~4일), 4.거의 대부분(5~7일).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나) GRIT (끈기)

아동의 끈기는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등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동의 끈기는 전체적으로 5점 중 평균 3.06점이었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3.11점으로 여학생 3.0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소재 아동이 3.16점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아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2-61〉 아동의 GRIT(끈기)

단위: (명), 점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3.06	0.57
아동 성별			
남	(664)	3.11	0.54
여	(629)	3.00	0.60
t		3.4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3.02	0.57
350 초과~550만원	(433)	3.06	0.54
550 초과~750만원	(361)	3.06	0.59
750만원 초과	(296)	3.06	0.59
F		0.23	
지역 규모			
대도시	(901)	3.03[a]	0.57
중소도시	(230)	3.16[b]	0.59
읍면	(162)	3.03[a]	0.56
F		4.6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다) 공감

공감척도는 14차년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변인으로 하위에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등 총 17개 문항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적 공감은 ‘나는 친구의 힘든 일을 함께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등 7개 문항, 인지적 공감은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내게는 쉬운 일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등 5개 문항,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친구가 슬퍼할 때면 나도 기분이 슬퍼진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공감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감척도 전체 평균은 6점 척도에서 4.21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을 보였다. 공감척도 전체에서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이 높았다. 세부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표현적 공감은 6점 중 평균 4.10점, 인지적 공감은 평균 4.44점, 정서적 공감은 평균 4.17점으로 인지적 공감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감의 3개 하위영역 모두 전체 공감점수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공감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현적 공감점수는 읍면지역 아동이 대도시 아동보다 더 낮았고,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점수는 지역 규모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외 3개 하위영역 모두 가구소득에 따른 공감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2-62〉 아동의 공감

단위: (명), 점

구분	(수)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총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4.10	0.91	4.44	0.96	4.17	1.05	4.21	0.82
아동 성별									
남	(664)	4.01	0.96	4.31	0.95	3.97	1.02	4.08	0.83
여	(629)	4.19	0.85	4.58	0.95	4.39	1.03	4.35	0.79
t		−3.60***		−4.96***		−7.37***		−5.9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4.01	0.97	4.36	1.04	4.09	1.12	4.12	0.89
350 초과~550만원	(433)	4.08	0.91	4.38	0.95	4.16	1.02	4.18	0.81
550 초과~750만원	(361)	4.10	0.90	4.49	0.95	4.15	1.03	4.22	0.81
750만원 초과	(296)	4.16	0.90	4.53	0.92	4.27	1.09	4.29	0.83
F		1.09		2.21		1.32		1.73	

구분	(수)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총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대도시	(901)	4.13[b]	0.90	4.46	0.95	4.19	1.04	4.24	0.82
중소도시	(230)	4.08[ab]	0.91	4.43	0.93	4.12	1.03	4.18	0.81
읍면	(162)	3.92[a]	0.95	4.32	1.02	4.14	1.11	4.09	0.87
F		3.80*		1.50		0.60		2.4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6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6.항상 그렇다).
* $p < .05$, *** $p < .001$.

2) 사회성 발달

가)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14차 조사(중1)부터 청소년용 학교적응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공부 8문항, 학교친구 10문항, 학교교사 10문항, 학교생활 10문항 등 4개 영역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영역은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적응 각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학교공부는 3.57점, 학교친구는 4.08점, 학교교사는 3.61점, 학교생활은 3.9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학교친구 영역과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적응점수가 더 높은 반면, 학교교사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학교공부 영역에서 월평균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550만원 초과 가구 아동의 점수가 더 높았고, 학교친구 영역에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750만원 초과 고소득가구 아동의 점수가 높았다.

〈표 Ⅲ-2-63〉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단위: (명), 점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3.57	0.66	4.08	0.64	3.61	0.74	3.99	0.59
아동 성별									
남	(664)	3.57	0.69	4.05	0.65	3.65	0.75	3.95	0.60
여	(629)	3.57	0.62	4.12	0.62	3.57	0.73	4.03	0.57
t		0.03		−2.03*		2.09*		−2.50*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3.40[a]	0.66	3.99[a]	0.68	3.59	0.72	3.93	0.58
350 초과~550만원	(433)	3.55[ab]	0.65	4.07[ab]	0.61	3.65	0.77	4.00	0.57
550 초과~750만원	(361)	3.60[b]	0.63	4.09[ab]	0.62	3.57	0.71	3.97	0.60
750만원 초과	(296)	3.67[b]	0.69	4.16[b]	0.65	3.60	0.74	4.04	0.59
F		6.58***		2.67*		0.78		1.45	
지역 규모									
대도시	(901)	3.57	0.67	4.08	0.66	3.60	0.75	3.98	0.60
중소도시	(230)	3.61	0.66	4.11	0.59	3.59	0.72	3.97	0.59
읍면	(162)	3.51	0.63	4.09	0.59	3.71	0.71	4.03	0.51
F		1.03		0.33		1.63		0.6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학교적응 4개 영역별로 하위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공부 영역의 하위요인인 학업유능감(문항 예시: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과 학업가치(문항 예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는 각각 3.61점, 3.49점이었고, 학업유능감은 가구소득 월평균 350만원 이하 집단이 타집단에 비해 낮았고, 읍면지역 아동이 중소도시 아동에 비해 점수가 더 낮았다.

학교친구 영역의 친구관계(문항 예시: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와 상호협조성(문항 예시: 우리 반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용한다)은 각각 4.14점, 4.03점이었으며, 상호협조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표 Ⅲ-2-64〉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공부 및 학교친구

단위: (명), 점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업유능감		학업가치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3.61	0.71	3.49	0.86	4.14	0.72	4.03	0.65
아동 성별									
남	(664)	3.61	0.75	3.49	0.90	4.14	0.71	3.95	0.68
여	(629)	3.61	0.67	3.49	0.81	4.13	0.73	4.11	0.59
t		-0.01		0.08		0.35		-4.43***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업유능감		학업가치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3.39[a]	0.72	3.42	0.86	4.04	0.76	3.95	0.69
350 초과~550만원	(433)	3.58[b]	0.67	3.49	0.86	4.13	0.69	4.02	0.64
550 초과~750만원	(361)	3.66[b]	0.68	3.49	0.88	4.15	0.71	4.03	0.63
750만원 초과	(296)	3.74[b]	0.77	3.54	0.85	4.22	0.74	4.10	0.64
F		10.34***		0.75		2.46		2.19	
지역 규모									
대도시	(901)	3.62[ab]	0.70	3.48	0.88	4.13	0.75	4.02	0.65
중소도시	(230)	3.69[b]	0.74	3.48	0.86	4.16	0.64	4.07	0.62
읍면	(162)	3.49[a]	0.70	3.56	0.76	4.15	0.64	4.02	0.63
F		3.79*		0.56		0.12		0.5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학교교사 영역에서는 교사호감(문항 예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과 교사친밀감(문항 예시: 나는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이 각각 평균 3.88점, 3.34점이었으며, 교사친밀감은 남학생이 3.42점으로 여학생 3.2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영역에서 질서/규칙 준수(문항 예시: 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 한다)와 학교생활만족(문항 예시: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이 각각 3.98점, 3.99점이었다. 하위요인 중 질서/규칙 준수는 남학생이 3.93점, 여학생 4.03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2-65〉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

단위: (명), 점

구분	(수)	학교교사				학교생활			
		교사호감		교사친밀감		질서/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3.88	0.72	3.34	0.91	3.98	0.65	3.99	0.65
아동 성별									
남	(664)	3.89	0.74	3.42	0.89	3.93	0.67	3.96	0.65
여	(629)	3.87	0.70	3.26	0.93	4.03	0.62	4.02	0.65
t		0.44		3.06**		−2.86**		−1.6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3.82	0.74	3.36	0.86	3.96	0.60	3.90	0.68

구분	(수)	학교교사				학교생활			
		교사호감		교사친밀감		질서/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50 초과~550만원	(433)	3.91	0.73	3.39	0.94	3.99	0.63	4.00	0.64
550 초과~750만원	(361)	3.84	0.70	3.31	0.88	3.93	0.68	4.00	0.65
750만원 초과	(296)	3.92	0.72	3.29	0.93	4.04	0.66	4.04	0.64
F		1.30		0.92		1.51		1.57	
지역 규모									
대도시	(901)	3.88	0.72	3.32	0.93	3.99	0.66	3.98	0.67
중소도시	(230)	3.83	0.72	3.35	0.88	3.93	0.66	4.00	0.63
읍면	(162)	3.96	0.73	3.46	0.85	4.03	0.55	4.03	0.58
F		1.41		1.72		1.24		0.4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1$.

Ⅲ

나) 친구관계

아동의 친구관계를 나타내는 이성친구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이성친구가 있다는 8.27%, 없다는 91.73%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지역 규모에 따른 이성친구 유무 비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66〉 아동의 이성친구 유무

단위: %, (명)

구분	계(수)	이성친구(%)	
		있음	없음
전체	100.00(1294)	8.27	91.73
아동 성별			
남	100.00(664)	7.53	92.47
여	100.00(629)	9.06	90.94
$x^2(df)$		1.00(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6)	10.23	89.77
350 초과~550만원	100.00(433)	8.78	91.22
550 초과~750만원	100.00(361)	8.59	91.41
750만원 초과	100.00(296)	5.74	94.26
$x^2(df)$		3.59(3)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1)	8.10	91.90
중소도시	100.00(230)	8.26	91.74
읍면	100.00(162)	9.26	90.74
$x^2(df)$		0.24(2)	

주: 아동의 응답임.

아동의 또래애착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아동의 또래애착 조사 결과, 의사소통은 4점 척도에 평균 3.15점, 신뢰는 평균 3.15점, 소외는 평균 1.86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또래애착의 의사소통 영역만 남학생 3.08점, 여학생 3.2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이외 신뢰와 소외 영역에서는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외 가구소득과 지역 규모별로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2-67〉 아동의 또래애착

단위: (명), 점

구분	(수)	의사소통		신뢰		소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3.15	0.52	3.15	0.59	1.86	0.63
아동 성별							
남	(664)	3.08	0.51	3.13	0.57	1.88	0.65
여	(629)	3.21	0.53	3.17	0.61	1.84	0.60
t		−4.33***		−1.21		1.1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3.13	0.48	3.14	0.58	1.88	0.65
350 초과~550만원	(433)	3.12	0.53	3.13	0.60	1.85	0.61
550 초과~750만원	(361)	3.14	0.51	3.15	0.56	1.90	0.63
750만원 초과	(296)	3.22	0.55	3.21	0.62	1.81	0.64
F		2.40		1.06		1.22	
지역 규모							
대도시	(901)	3.14	0.54	3.14	0.60	1.86	0.64
중소도시	(230)	3.15	0.49	3.15	0.56	1.81	0.54
읍면	(162)	3.19	0.49	3.20	0.56	1.91	0.68
F		0.63		0.73		1.3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01$.

다) 비행행동

폭력피해를 경험한 비중은 전반적으로 약 10% 미만으로 많지 않지만, 험담, 심한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경우가 16.6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약 10%로 높았다. 험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연 1~2회 경험했다는 응답이 9.58%로 가장 많았고, 월 1회가 2.78%였다.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연 1~2회였다는 응답이 6.34%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다른 폭력 경험은 1~2%로 비교적 높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표 Ⅲ-2-68〉 폭력피해 경험: 전체

단위: %,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	0.23	0.46	0.85	2.09	6.34	90.03	100.00(1294)
왕따, 따돌림 경험	0.31	0.08	0.23	0.08	2.16	97.14	100.00(1294)
험담, 심한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	1.31	1.47	1.55	2.78	9.58	83.31	100.00(1294)
고의적으로 툭툭침, 심부름, 숙제를 해오라는 등의 괴롭힘	0.08	0.15	0.23	0.15	1.08	98.30	100.00(1294)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	-	0.08	0.23	0.93	98.76	100.00(1294)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	0.08	-	0.15	-	0.77	99.00	100.00(1294)
온라인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한 경험	0.08	-	0.08	0.08	0.85	98.92	100.00(1294)
온라인상에서 헛소문으로 괴롭힘 당한 경험	0.08	-	0.15	0.31	1.39	98.07	100.00(1294)
신원미상의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 당한 경험	-	0.08	-	0.15	1.00	98.76	100.00(1294)
학교 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 당한 경험	-	-	-	0.08	1.24	98.69	100.00(1294)
학교 밖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 당한 경험	-	0.08	-	0.23	0.31	99.38	100.00(1294)
촬영된 사진, 영상을 통해 위협받거나 괴롭힘 당한 경험	-	0.08	-	-	0.77	99.15	100.00(1294)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경험	0.23	0.15	0.46	0.23	2.55	96.37	100.00(1294)

주: 아동의 응답임.

폭력피해 모든 항목에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75.97%였으며, 1개 항목 이상에서 폭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4.03%였다. 앞서 항목별 폭력피해 경험 있다는 응답은 '험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가장 높은 비중(16.69%)을 보였는데, 폭력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4.03%로, 동일 아동이 여러 개의 폭력 유형에 노출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명의 아동이 다양한 종류의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Ⅲ-2-69〉 폭력피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폭력피해 경험 모든 항목에서 없음	폭력피해 경험 1개 항목 이상 있음	계(수)
전체	75.97	24.03	100.00(1294)
아동 성별			
남	70.33	29.67	100.00(664)
여	81.88	18.12	100.00(629)
$x^2(df)$	23.57(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80.11	19.89	100.00(176)
350 초과~550만원	74.36	25.64	100.00(433)
550 초과~750만원	75.62	24.38	100.00(361)
750만원 초과	76.01	23.99	100.00(296)
$x^2(df)$	2.28(3)		
지역 규모			
대도시	74.47	25.53	100.00(901)
중소도시	81.74	18.26	100.00(230)
읍면	75.93	24.07	100.00(162)
$x^2(df)$	5.30(2)		

주: 아동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 $p < .001$.

한편, 폭력가해 경험의 경우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친 경험이 있다고는 응답한 경우가 26.6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다른 문항의 경우에는 1~2% 내외의 그다지 높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빈도는 연 1~2회가 14.84%고 가장 많았으며, 1회 4.64%, 2~3회 3.55% 등이었다.

〈표 Ⅲ-2-70〉 폭력가해 경험: 전체

단위: %,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2~3회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친 경험	0.70	2.94	3.55	4.64	14.84	73.34	100.00(1294)
의도적으로 따돌린 경험	0.08	0.08	0.15	0.31	1.78	97.60	100.00(1294)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둔 경험	0.15	0.31	0.15	0.39	2.24	96.75	100.00(1294)
나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쪽지 등을 돌린 경험	-	0.08	-	0.23	0.54	99.15	100.00(1294)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	-	0.15	0.15	0.77	98.92	100.00(1294)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경험	-	0.08	0.08	0.39	0.93	98.53	100.00(1294)
온라인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한 경험	-	0.15	0.08	0.08	0.77	98.92	100.00(1294)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2~3회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온라인상에서 친구에 대해 헛소문을 낸 경험	-	0.08	-	0.15	0.31	99.46	100.00(1294)
누군지 모르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	0.08	-	0.08	0.54	99.30	100.00(1294)
학교 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	0.08	-	0.08	0.23	99.61	100.00(1294)
학교 밖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	-	0.08	0.15	0.23	99.54	100.00(1294)
사진, 영상 등을 촬영 후 상대를 위협하거나 괴롭힌 경험	-	-	-	0.23	0.23	99.54	100.00(1294)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괴롭힘을 가한 경험	-	0.08	-	-	0.15	99.77	100.00(1294)

주: 아동의 응답임.

하나의 항목이라도 폭력가해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28.44%가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폭력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7.05%로, 여학생의 폭력가해 경험 19.4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Ⅲ-2-71〉 폭력가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폭력가해 경험 모든 항목에서 없음	폭력가해 경험 1개 항목 이상 있음	계(수)
전체	71.56	28.44	100.00(1294)
아동 성별			
남	62.95	37.05	100.00(664)
여	80.60	19.40	100.00(629)
$x^2(df)$	49.43(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74.43	25.57	100.00(176)
350 초과~550만원	72.52	27.48	100.00(433)
550 초과~750만원	71.47	28.53	100.00(361)
750만원 초과	68.24	31.76	100.00(296)
$x^2(df)$	2.50(3)		
지역 규모			
대도시	70.14	29.86	100.00(901)
중소도시	75.22	24.78	100.00(230)
읍면	74.07	25.93	100.00(162)
$x^2(df)$	2.90(2)		

주: 아동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 $p < .001$.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응답은 91.96%였으며, 술이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2 때 처음 마셨다는 응답이 3.25%, 중1 때 처음 마셨다는 응답이 2.40%였다.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고 응답한 연령은 12.53세였다.

〈표 Ⅲ-2-72〉 아동의 음주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단위: %, (명), 세

구분	계(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첫 경험 시기)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수)	평균 연령	표준 편차
전체	100.00(1294)	91.96	0.31	0.23	0.31	0.46	0.31	0.77	2.40	3.25	(104)	12.53	1.93
아동 성별													
남	100.00(664)	91.27	0.45	0.15	0.30	0.60	0.15	0.90	2.56	3.61	(58)	12.53	1.98
여	100.00(629)	92.69	0.16	0.32	0.32	0.32	0.48	0.64	2.23	2.86	(46)	12.52	1.88
$\chi^2(df)/t$						4.05(8)						0.0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6)	93.18	-	1.14	-	0.57	-	1.70	0.57	2.84	(12)	12.08	2.27
350 초과~550만원	100.00(433)	90.07	0.69	-	0.46	0.23	0.23	0.92	2.54	4.85	(43)	12.67	2.03
550 초과~750만원	100.00(361)	93.35	-	-	0.28	0.55	0.55	0.28	2.49	2.49	(24)	12.75	1.48
750만원 초과	100.00(296)	91.55	0.34	0.34	0.34	0.68	0.34	0.68	3.38	2.36	(25)	12.28	1.99
$\chi^2(df)/F$						26.54(24)						0.53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1)	93.67	0.11	0.11	0.22	0.55	0.22	0.44	2.11	2.55	(57)	12.67	1.73
중소도시	100.00(230)	89.13	0.87	-	0.43	-	0.87	1.30	3.04	4.35	(25)	12.48	2.06
읍면	100.00(162)	86.42	0.62	1.23	0.62	0.62	-	1.85	3.09	5.56	(22)	12.23	2.29
$\chi^2(df)/F$						28.75(16)*						0.4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평균과 표준편차는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의 8.04% 아동의 학년을 만나이로 환산하여 산출함.
* $p < .05$.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4명에게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를 질문한 결과, 한 달에 1회 미만이 51.92%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응답도 40.38%에 달했다. 반면, 한 달에 1회 정도 마신다는 응답이 3.85%, 한 달에 2~4회 마신다는 응답도 3.85% 있었다.

〈표 Ⅲ-2-73〉 아동의 음주 빈도

단위: %, (명)

구분	계(수)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회 정도	한 달에 2-4회	주 2-3회 정도	주 4회 이상
전체	100.00(104)	40.38	51.92	3.85	3.85	-	-
아동 성별							
남	100.00(58)	43.10	46.55	6.90	3.45	-	-

구분	계(수)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회 정도	한 달에 2-4회	주 2-3회 정도	주 4회 이상
여	100.00(46)	36.96	58.70	-	4.35	-	-
$x^2(df)$				4.20(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2)	58.33	41.67	-	-	-	-
350 초과~550만원	100.00(43)	34.88	58.14	4.65	2.33	-	-
550 초과~750만원	100.00(24)	50.00	41.67	-	8.33	-	-
750만원 초과	100.00(25)	32.00	56.00	8.00	4.00	-	-
$x^2(df)$				7.95(9)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57)	43.86	47.37	3.51	5.26	-	-
중소도시	100.00(25)	40.00	56.00	-	4.00	-	-
읍면	100.00(22)	31.82	59.09	9.09	-	-	-
$x^2(df)$				4.79(6)			

주: 아동의 응답임.

흡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명으로, 전체 응답 아동의 1.55%였다. 담배를 처음 피운 시기는 중1이 0.9%, 중2가 0.6%였으며, 평균 13.40세였다. 흡연경험은 음주경험에 비해 비중이 낮고, 시작시기가 다소 늦은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74〉 아동의 흡연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단위: %, (명), 세

구분	계(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첫 경험 시기)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수)	평균 연령	표준 편차
전체	100.00(1294)	98.45	-	-	-	-	-	-	0.9	0.6	(20)	13.40	0.50
아동 성별													
남	100.00(664)	97.89	-	-	-	-	-	-	1.4	0.8	(14)	13.36	0.50
여	100.00(629)	99.05	-	-	-	-	-	-	0.5	0.5	(6)	13.50	0.55
$x^2(df)/t$							3.13(2)					-0.5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176)	98.30	-	-	-	-	-	-	1.1	0.6	(3)	13.33	0.58
350 초과~550만원	100.00(433)	98.15	-	-	-	-	-	-	0.9	0.9	(8)	13.50	0.53
550 초과~750만원	100.00(361)	98.89	-	-	-	-	-	-	0.8	0.3	(4)	13.25	0.50
750만원 초과	100.00(296)	98.31	-	-	-	-	-	-	1.0	0.7	(5)	13.40	0.55
$x^2(df)/F$							1.47(6)					0.21	
지역 규모													
대도시	100.00(901)	98.78	-	-	-	-	-	-	0.8	0.4	(11)	13.36	0.50
중소도시	100.00(230)	97.83	-	-	-	-	-	-	1.3	0.9	(5)	13.40	0.55
읍면	100.00(162)	97.53	-	-	-	-	-	-	1.2	1.2	(4)	13.50	0.58
$x^2(df)/F$							2.44(4)					0.1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평균과 표준편차는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의 1.55% 아동의 학년을 만나이로 환산하여 산출함.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월평균 흡연일수는 8.45일로, 흡연을 경험한 아동의 빈도는 높지 않으나, 일단 흡연을 하는 경우 지속적인 흡연습관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75〉 아동의 흡연일수

단위: (명), 일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	8.45	12.99
아동 성별			
남	(14)	5.93	11.49
여	(6)	14.33	15.45
t		-1.3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	0.33	0.58
350 초과~550만원	(8)	10.38	13.88
550 초과~750만원	(4)	-	-
750만원 초과	(5)	17.00	15.65
F		2.01	
지역 규모			
대도시	(11)	13.45	14.98
중소도시	(5)	0.20	0.45
읍면	(4)	5.00	10.00
F		2.2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 날에 대한 보고이며,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0, 매일 담배를 피웠다면 30을 입력하도록 함.

사이버 비행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살펴본 문항은 각 문항별로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4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은 사이버상에서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가 4.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 4.48점, 불건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4.47점 순이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가 4.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게 응답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2-76〉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1

단위: (명), 점

구분	(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4.48	1.04	4.26	1.04	4.33	1.08
아동 성별							
남	(664)	4.41	1.09	4.13	1.09	4.25	1.13
여	(629)	4.55	0.98	4.40	0.97	4.42	1.00
t		−2.46*		−4.69***		−2.9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4.35	1.19	4.15[a]	1.20	4.31	1.15
350 초과~550만원	(433)	4.49	1.06	4.26[a]	1.05	4.35	1.09
550 초과~750만원	(361)	4.45	1.05	4.19[a]	1.08	4.25	1.11
750만원 초과	(296)	4.56	0.92	4.40[a]	0.88	4.39	0.97
F		1.60		2.96*		1.01	
지역 규모							
대도시	(901)	4.54[b]	0.93	4.31[b]	0.96	4.39[b]	0.97
중소도시	(230)	4.49[b]	1.07	4.27[b]	1.08	4.33[b]	1.14
읍면	(162)	4.14[a]	1.43	3.94[a]	1.34	4.03[a]	1.42
F		10.45***		8.94***		7.6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5.매우 문제 된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2-77〉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2

단위: (명), 점

구분	(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불건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4.41	1.06	4.47	1.07	4.55	1.07
아동 성별							
남	(664)	4.29	1.10	4.38	1.13	4.46	1.14
여	(629)	4.53	0.99	4.58	0.99	4.66	0.98
t		−4.10***		−3.31***		−3.3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4.33	1.16	4.41	1.21	4.51	1.17
350 초과~550만원	(433)	4.37	1.09	4.47	1.10	4.53	1.10
550 초과~750만원	(361)	4.39	1.05	4.43	1.08	4.54	1.07
750만원 초과	(296)	4.50	0.96	4.57	0.94	4.64	0.97
F		1.29		1.25		0.80	
지역 규모							
대도시	(901)	4.48[b]	0.94	4.55[b]	0.95	4.63[b]	0.95

구분	(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불건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소도시	(230)	4.39[b]	1.13	4.45[b]	1.14	4.51[b]	1.11
읍면	(162)	4.02[a]	1.40	4.09[a]	1.43	4.19[a]	1.46
F		13.72***		13.50***		12.6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5.매우 문제 된다).
*** $p < .001$.

비속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14%에 그쳤으며,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이 51.16%,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이 24.81%,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은 9.89%로, 평균 2.30점이었다. 비속어 사용 빈도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다소 높아, 남학생은 평균 2.39점, 여학생은 평균 2.21점이었다.

〈표 Ⅲ-2-78〉 비속어 사용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사용하지 않음	가끔 사용함	자주 사용함	매일 사용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4.14	51.16	24.81	9.89	100.00(1294)	2.30	0.83
아동 성별							
남	12.05	48.34	28.01	11.60	100.00(664)	2.39	0.84
여	16.38	54.05	21.46	8.11	100.00(629)	2.21	0.81
$x^2(df)/t$		15.89(3)**				3.8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6.48	49.43	22.73	11.36	100.00(176)	2.29	0.88
350 초과~550만원	13.39	51.96	24.48	10.16	100.00(433)	2.31	0.83
550 초과~750만원	13.30	50.97	27.42	8.31	100.00(361)	2.31	0.80
750만원 초과	15.54	50.34	22.64	11.49	100.00(296)	2.30	0.87
$x^2(df)/F$		5.46(9)				0.04	
지역 규모							
대도시	13.43	52.16	24.31	10.10	100.00(901)	2.31	0.83
중소도시	17.39	47.39	25.22	10.00	100.00(230)	2.28	0.87
읍면	13.58	50.62	27.16	8.64	100.00(162)	2.31	0.81
$x^2(df)/F$		3.67(6)				0.1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사용하지 않는다~4.매일 사용한다).
** $p < .01$, *** $p < .001$.

3) 미래 의식

가) 진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50.08%로 가장 많았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21.87%로 다음을 이었다. 그 다음으로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10.59%,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7.34%,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은 7.19%였으며,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은 2.94%에 그쳐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아동의 성별이나 가구소득, 지역 규모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2-79〉 아동의 미래기대(장래희망)

단위: %, (명)

구분	돈을 잘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	계(수)
전체	50.08	7.34	2.94	7.19	21.87	10.59	100.00(1294)
아동 성별							
남	49.40	7.53	2.26	6.93	22.44	11.45	100.00(664)
여	50.72	7.15	3.66	7.47	21.30	9.70	100.00(629)
$\chi^2(df)$				3.58(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4.32	9.66	1.70	9.66	25.00	9.66	100.00(176)
350 초과~550만원	49.19	6.00	3.46	6.47	23.09	11.78	100.00(433)
550 초과~750만원	53.19	8.59	3.32	5.82	18.84	10.25	100.00(361)
750만원 초과	51.69	5.74	2.03	8.45	21.96	10.14	100.00(296)
$\chi^2(df)$				15.44(15)			
지역 규모							
대도시	48.95	7.66	2.44	7.88	21.42	11.65	100.00(901)
중소도시	51.30	6.09	4.35	6.96	23.91	7.39	100.00(230)
읍면	54.32	7.41	3.70	3.70	21.60	9.26	100.00(162)
$\chi^2(df)$				11.47(10)			

주: 아동의 응답임.

아동의 진로성숙도는 4점 척도에 전체 평균 2.92점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2.89점, 여학생은 2.95점으로 여학생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Ⅲ-2-80〉 아동의 진로성숙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2.92	0.51
아동 성별			
남	(664)	2.89	0.53
여	(629)	2.95	0.48
t		-2.0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2.94	0.55
350 초과~550만원	(433)	2.89	0.50
550 초과~750만원	(361)	2.91	0.52
750만원 초과	(296)	2.96	0.48
F		1.27	
지역 규모			
대도시	(901)	2.91	0.49
중소도시	(230)	2.93	0.52
읍면	(162)	2.92	0.58
F		0.0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 $p < .05$.

진로성숙도는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는 응답이 3.27점으로 높았다. 반면,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2.47점으로 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지만, 해당 진로가 아동의 부모님들 생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Ⅲ-2-81〉 아동의 진로성숙도: 세부문항별

단위: (명), 점

구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2.47	0.85	2.64	0.81	2.87	0.85	2.81	0.85	3.34	0.75	3.02	0.84	3.27	0.73
아동 성별															
남	(664)	2.50	0.83	2.62	0.81	2.88	0.83	2.81	0.87	3.27	0.77	2.97	0.85	3.17	0.75
여	(629)	2.44	0.85	2.65	0.81	2.87	0.87	2.80	0.84	3.42	0.72	3.08	0.82	3.37	0.69
t		1.43		-0.66		0.21		0.15		-3.54***		-2.33*		-5.1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2.56	0.89	2.69	0.83	2.86	0.85	2.80	0.85	3.29	0.79	3.09	0.81	3.28	0.74
350 초과~550만원	(433)	2.43	0.84	2.59	0.80	2.82	0.84	2.76	0.87	3.33	0.74	3.00	0.86	3.28	0.71
550 초과~750만원	(361)	2.49	0.84	2.62	0.79	2.89	0.86	2.82	0.85	3.31	0.74	2.99	0.84	3.27	0.72
750만원 초과	(296)	2.47	0.84	2.71	0.84	2.95	0.83	2.87	0.84	3.42	0.74	3.07	0.81	3.23	0.75
F		1.07		1.69		1.37		1.00		1.54		0.98		0.41	
지역 규모															
대도시	(901)	2.46	0.84	2.65	0.80	2.86	0.84	2.79	0.84	3.36	0.75	3.02	0.83	3.26	0.74
중소도시	(230)	2.47	0.84	2.58	0.80	2.88	0.83	2.90	0.84	3.36	0.71	3.02	0.85	3.28	0.69
읍면	(162)	2.52	0.90	2.62	0.89	2.96	0.87	2.75	0.93	3.25	0.81	3.07	0.84	3.26	0.74
F		0.30		0.77		1.00		1.78		1.32		0.34		0.0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3) ①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②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③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④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⑤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⑥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⑦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 $p < .05$. *** $p < .001$.

나) 결혼 및 양육 의향

나중에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52.55%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이 36.55%, 없다는 응답도 10.90% 있었다. 한편, 자녀를 낳아 양육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있다는 응답이 42.19%, 모르겠다는 응답이 42.04%, 없다는 응답이 15.77%로, 결혼 의향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결혼 의향과 자녀양육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13.51%로 남학생에 비해 5.08%p 높았으며, 자녀양육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20.35%로 남학생에 비해 8.9%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Ⅲ-2-82〉 아동의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단위: %, (명)

구분	결혼 의사				자녀양육 의사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전체	52.55	10.90	36.55	100.00(1294)	42.19	15.77	42.04	100.00(1294)
아동 성별								
남	52.86	8.43	38.70	100.00(664)	46.54	11.45	42.02	100.00(664)
여	52.15	13.51	34.34	100.00(629)	37.52	20.35	42.13	100.00(629)
$x^2(df)$	9.36(2)**				22.46(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6.59	17.61	35.80	100.00(176)	36.93	23.86	39.20	100.00(176)
350 초과~550만원	54.50	9.47	36.03	100.00(433)	42.96	14.32	42.73	100.00(433)
550 초과~750만원	54.02	9.42	36.57	100.00(361)	43.21	13.85	42.94	100.00(361)
750만원 초과	51.69	10.47	37.84	100.00(296)	42.23	15.88	41.89	100.00(296)
$x^2(df)$	10.81(6)				10.42(6)			
지역 규모								
대도시	51.28	11.54	37.18	100.00(901)	40.29	16.20	43.51	100.00(901)
중소도시	54.35	10.00	35.65	100.00(230)	44.78	15.22	40.00	100.00(230)
읍면	56.79	8.64	34.57	100.00(162)	48.77	14.20	37.04	100.00(162)
$x^2(df)$	2.57(4)				4.86(4)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1$, *** $p < .001$.

4) 경제활동

우리 집의 가정형편에 대해서 10점 척도에 평균 6.15점으로, 6점에 응답한 아동이 25.12%로 가장 많고, 5점이라는 응답이 23.42%, 7점이라는 응답이 23.26% 순이었다.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잘 사는 편이라는 응답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긴 하나, 가구소득이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매우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도 2.84% 있었다.

〈표 Ⅲ-2-83〉 아동의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단위: %, (명), 점

구분	점 수										계(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15	0.39	2.47	8.11	23.42	25.12	23.26	12.06	3.25	1.78	100(1294)	6.15	1.47
아동 성별													
남	0.30	0.30	3.01	6.48	21.39	25.75	24.40	12.95	3.01	2.41	100(664)	6.23	1.50
여	-	0.48	1.91	9.86	25.44	24.48	22.10	11.13	3.50	1.11	100(629)	6.07	1.43
$x^2(df)/t$					15.68(9)							2.0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14	0.57	6.82	13.07	34.09	19.32	15.34	5.68	1.14	2.84	100(176)	5.53[a]	1.61
350 초과~550만원	-	0.46	2.77	9.24	28.64	25.40	18.94	9.70	3.70	1.15	100(433)	5.97[b]	1.44
550 초과~750만원	-	0.28	1.11	6.93	20.22	27.42	27.98	12.74	2.77	0.55	100(361)	6.25[b]	1.30
750만원 초과	-	0.34	1.01	4.39	12.50	25.68	29.39	18.58	4.39	3.72	100(296)	6.69[c]	1.42
$x^2(df)/F$					127.27(27)***							28.44***	
지역 규모													
대도시	0.22	0.22	2.33	8.21	22.86	25.31	23.75	13.21	2.44	1.44	100(901)	6.15	1.43
중소도시	-	0.43	2.61	7.39	19.57	29.13	22.61	10.43	5.65	2.17	100(230)	6.25	1.50
읍면	-	1.23	3.09	8.64	31.48	18.52	21.60	8.02	4.32	3.09	100(162)	6.00	1.60
$x^2(df)/F$					28.26(18)							1.4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매우 못 산다~10.매우 잘 산다).
* $p < .05$, *** $p < .001$.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응답이 55.80%로 절반 이상이었고, 필요할 때마다 받는다는 응답이 34.54%, 용돈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9.66%였다. 용돈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일주일에 받는 용돈은 평균 16,630원이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다는 응답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약간 높았으며, 평균 주당 용돈액수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Ⅲ-2-84〉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단위: %, (명), 천원

구분	용돈 지급 여부				일주일 용돈 지급액		
	받지않음	필요시 받음	정기적으로 받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9.66	34.54	55.80	100.00(1294)	16.63	15.42	(1169)
아동 성별							
남	11.60	34.49	53.92	100.00(664)	15.43	15.33	(587)
여	7.63	34.66	57.71	100.00(629)	17.84	15.44	(581)
$x^2(df)/t$		6.09(2)*			-2.6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3.64	40.91	45.45	100.00(176)	15.43	14.91	(152)
350 초과~550만원	8.78	31.64	59.58	100.00(433)	16.36	15.58	(395)

구분	용돈 지급 여부				일주일 용돈 지급액		
	받지않음	필요시 받음	정기적으로 받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550 초과~750만원	9.97	35.46	54.57	100.00(361)	15.95	14.91	(325)
750만원 초과	8.45	32.43	59.12	100.00(296)	18.26	15.99	(271)
$x^2(df)/F$		12.40(6)			1.57		
지역 규모							
대도시	10.88	34.18	54.94	100.00(901)	16.20	15.59	(803)
중소도시	7.83	35.65	56.52	100.00(230)	16.92	14.05	(212)
읍면	5.56	35.19	59.26	100.00(162)	18.50	16.29	(153)
$x^2(df)/F$		5.63(4)			1.48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용돈의 사용처로는 식사를 포함한 간식 및 군것질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49.62%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음악이나 게임 등의 문화생활을 위해 사용한다는 응답과 저축한다는 응답이 각 14.29%, 14.97%, 교통비로 쓴다는 응답이 7.96%, 의류나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응답이 7.19%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간식 및 군것질에 사용한다는 응답비중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남학생은 저축한다는 응답과 문화생활에 쓴다는 응답비중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의류나 화장품 구매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남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은 간식 및 군것질에 용돈을 쓴다는 응답이 57.08%로,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에 용돈을 쓴다는 응답비중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의류 및 화장품 구매에 쓴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Ⅲ-2-85〉 아동의 용돈 사용처

단위: %, (명)

구분	학습자료 (학용품, 준비물 등)	저축	간식 및 군것질 (식사포함)	교통비	문화생활 (음악, 게임)	의류, 화장품	기타	계(수)
전체	2.57	14.97	49.62	7.96	14.29	7.19	3.42	100.00(1169)
아동 성별								
남	2.39	17.04	49.57	9.20	16.01	2.56	3.24	100.00(587)
여	2.75	12.91	49.57	6.71	12.56	11.88	3.61	100.00(581)
$x^2(df)$				43.56(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97	15.13	43.42	11.84	17.11	5.26	5.26	100.00(152)

구분	학습자료 (학용품, 준비물 등)	저축	간식 및 군것질 (식사포함)	교통비	문화생활 (음악, 게임)	의류, 화장품	기타	계(수)
350 초과~550만원	2.53	17.22	51.14	5.82	12.41	7.59	3.29	100.00(395)
550 초과~750만원	2.46	13.54	53.54	5.85	14.15	8.00	2.46	100.00(325)
750만원 초과	2.95	13.28	46.49	11.07	15.50	6.64	4.06	100.00(271)
$\chi^2(df)$				21.97(18)				
지역 규모								
대도시	2.99	15.69	47.45	7.85	16.44	5.98	3.61	100.00(803)
중소도시	1.42	12.74	57.08	10.38	7.55	8.02	2.83	100.00(212)
읍면	1.96	14.38	50.33	5.23	12.42	12.42	3.27	100.00(153)
$\chi^2(df)$				26.73(12)**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1$, *** $p < .001$.

평소 저축을 한다는 응답은 63.83%였으며, 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 방식은 저금통/지갑에 모은다는 응답이 55.57%로 가장 많고, 부모님이 은행에 저축한다는 응답이 43.83%로 다음이었다.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한다는 응답은 28.57%였으며, 내가 직접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응답도 1.69% 있었다. 한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저축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관측되어, 가구소득이 월평균 750만원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경우 70.27%가 저축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86〉 아동의 저축 실태

단위: %, (명)

구분	평소 저축 실태			저축방식(중복응답)						
	저축함	저축 안함	계(수)	저금통/지갑에 모은다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	부모님이 은행에 저축	내가 직접 금융상품 가입	부모님이 금융상품 가입	기타	(수)
전체	63.83	36.17	100.00(1294)	55.57	28.57	43.83	1.69	4.96	0.97	(826)
아동 성별										
남	61.90	38.10	100.00(664)	51.34	29.93	43.55	1.95	5.35	0.97	(411)
여	65.98	34.02	100.00(629)	59.76	27.23	44.10	1.45	4.58	0.96	(415)
$\chi^2(df)$	2.33(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3.98	46.02	100.00(176)	57.89	26.32	41.05	1.05	2.11	2.11	(95)
350 초과~550만원	60.51	39.49	100.00(433)	56.11	30.92	47.33	1.15	4.20	1.15	(262)
550 초과~750만원	67.59	32.41	100.00(361)	51.64	27.87	41.39	2.05	6.97	0.82	(244)
750만원 초과	70.27	29.73	100.00(296)	59.13	27.40	43.75	2.40	5.29	0.48	(208)
$\chi^2(df)$	17.01(3)**									

구분	평소 저축 실태			저축방식(중복응답)						
	저축함	저축 안함	계(수)	저금통/지갑에 모은다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	부모님이 은행에 저축	내가 직접 금융상품 가입	부모님이 금융상품 가입	기타	(수)
지역 규모										
대도시	64.26	35.74	100.00(901)	53.89	29.71	44.04	2.07	5.87	1.04	(579)
중소도시	66.96	33.04	100.00(230)	57.14	25.97	45.45	0.65	3.90	0.65	(154)
읍면	57.41	42.59	100.00(162)	63.44	25.81	39.78	1.08	1.08	1.08	(93)
$\chi^2(df)$	3.94(2)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1$.

5) 사회 관련 인식

아동의 공동체 의식은 5점 척도에 3.75점으로, 아동의 성별이나 가구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Ⅲ-2-87〉 아동의 공동체 의식 1

단위: (명), 점

구분	(수)	공동체 의식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3.75	0.65
아동 성별			
남	(664)	3.72	0.66
여	(629)	3.77	0.63
t		-1.4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3.65	0.68
350 초과~550만원	(433)	3.77	0.66
550 초과~750만원	(361)	3.72	0.66
750만원 초과	(296)	3.80	0.61
F		2.24	
지역 규모			
대도시	(901)	3.74	0.65
중소도시	(230)	3.76	0.65
읍면	(162)	3.76	0.67
F		0.0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공동체 의식은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아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5점 척도에 4.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나는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8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 점수는 문항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3.5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해당 문항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2-88〉 아동의 공동체 의식 2

단위: (명), 점

구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3.59	0.89	3.84	0.88	3.62	0.90	4.10	0.79	3.80	0.80	3.52	0.91
아동 성별													
남	(664)	3.57	0.90	3.86	0.91	3.62	0.90	4.04	0.82	3.76	0.82	3.46	0.93
여	(629)	3.61	0.89	3.83	0.85	3.62	0.91	4.15	0.75	3.83	0.78	3.58	0.89
t		−0.83		0.58		0.04		−2.53*		−1.60		−2.4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3.47	0.93	3.77	0.91	3.58	0.93	4.00	0.87	3.68	0.85	3.42	0.89
350 초과~550만원	(433)	3.63	0.87	3.85	0.91	3.65	0.89	4.12	0.76	3.82	0.81	3.55	0.92
550 초과~750만원	(361)	3.55	0.92	3.81	0.86	3.59	0.93	4.08	0.81	3.77	0.82	3.51	0.90
750만원 초과	(296)	3.64	0.88	3.93	0.86	3.66	0.88	4.15	0.74	3.88	0.75	3.55	0.93
F		2.08		1.42		0.61		1.37		2.36		0.95	
지역 규모													
대도시	(901)	3.58	0.90	3.84	0.90	3.63	0.90	4.10	0.80	3.78	0.79	3.51	0.90
중소도시	(230)	3.63	0.88	3.85	0.85	3.58	0.91	4.09	0.74	3.83	0.80	3.55	0.92
읍면	(162)	3.60	0.86	3.85	0.84	3.66	0.90	4.09	0.78	3.83	0.83	3.51	0.94
F		0.25		0.03		0.37		0.00		0.49		0.1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① 나는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② 나는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나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④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⑤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⑥ 나는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다

* $p < .05$.

아동들이 자신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안전 체감도는 4점 척도 기준 집은 평균 3.45점, 학교 3.30점, 지역사회(우리 동네) 3.19점 순이었다. 그런데, 국가(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2.88점으로 상대적으로 안전도를 매우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과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보다 높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특히 지역사회와 국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안전교육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4점 척도에 2.92점으로, 낮지는 않지만 높지도 않은 수준을 보였다. 안전교육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동의 성별이나 가구 특성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Ⅲ-2-89〉 아동의 안전 체감도 및 대처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수)	안전 체감도								대처인식	
		집		학교		지역사회		국가		안전교육 유용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94)	3.45	0.55	3.30	0.62	3.19	0.64	2.88	0.80	2.92	0.75
아동 성별											
남	(664)	3.46	0.55	3.34	0.63	3.26	0.66	3.01	0.79	2.93	0.77
여	(629)	3.44	0.56	3.26	0.61	3.12	0.62	2.75	0.79	2.90	0.73
t		0.46		2.12*		3.90***		5.77***		0.8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76)	3.32[a]	0.60	3.22[a]	0.63	3.10[a]	0.63	2.77	0.79	2.97	0.74
350 초과~550만원	(433)	3.43[ab]	0.56	3.27[a]	0.62	3.18[ab]	0.65	2.89	0.79	2.94	0.76
550 초과~750만원	(361)	3.46[b]	0.54	3.34[a]	0.60	3.19[ab]	0.62	2.88	0.82	2.88	0.78
750만원 초과	(296)	3.55[b]	0.53	3.36[a]	0.63	3.28[b]	0.66	2.95	0.82	2.89	0.72
F		6.56***		2.62*		2.92*		1.97		0.80	
지역 규모											
대도시	(901)	3.44	0.57	3.29	0.63	3.17	0.65	2.88	0.81	2.93	0.75
중소도시	(230)	3.47	0.53	3.30	0.61	3.20	0.62	2.87	0.76	2.84	0.76
읍면	(162)	3.48	0.53	3.36	0.58	3.30	0.62	2.94	0.81	2.96	0.73
F		0.58		0.76		2.95		0.57		1.6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3. 부모 및 가구 특성

15차년도에 조사된 부모 특성은 크게 개인 및 부부, 신체 및 건강, 직업, 양육 특성으로 나눠지며, 가구 특성의 경우 인구학적, 물리적, 경제적 특성으로 나눠서 조사 및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특성 중 개인 및 부부 특성은 연령과, 최종학력 등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리적 특성에는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일-가정 양립 시 이점 과 갈등 변인과 부부 특성에서는 결혼 상태 및 유지 기간, 부부 갈등 변인을 조사하였다. 그 외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신체 특성과 장애 유무 및 정도를 나타내는 질환/장애 특성, 음주 및 흡연 사항에 대한 신체 및 건강 특성, 취업 및 학업 상태 등에 대한 직업 특성, 부모애착과 같은 양육 실제에 대해 주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사 항목들은 부모 모두 각각 직접 질문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일부 성취압력, 아동학대 등과 같은 변인의 경우에는 아동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해 아동으로부터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구 특성으로는 패널가구의 가구 구성 형태 및 가구원수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 패널아동 개별 방 및 반려동물 여부와 같은 주거환경 특성, 가구소득 및 경제적 지위, (비)소비성 지출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대부분 보호자용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Ⅲ-3-1〉 15차년도 부모 및 가구 특성 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 연령, 최종학력
			• ○○(이)와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심리적 특성	• 자아존중감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부부 특성	• 결혼 상태 및 유지 기간
			• 부부 갈등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장애	• 장애 유무 및 정도
		음주 및 흡연	• 음주 여부 및 횟수, 양, 과음 횟수
			•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 취/학업 상태
		취업 특성	•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종사상 지위
			• 취업모/부의 (주중, 주말) 근무 일/시간
			• 취업모/부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양육 특성	양육 실제	• 성취압력
			• 부모애착
			• 합리적 설명
			• 양육 스트레스
			• 아동학대
		부모 감독 및 참여	•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수
			• 부모 감독
			• 부모-자녀 의사소통
			•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 사회적 지원 정도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수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 패널아동 개별 방 여부, 반려동물 여부
	경제적 특성	소득	• 가구소득, 취업모/부의 근로소득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지출	• 가구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가. 부모 특성

1) 개인 및 부부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먼저 패널아동 부모님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 나이는 평균 45.10세, 아버지 나이는 평균 47.62세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50대 이상이 51.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40대 44.65%, 30대 이하 37.72%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 동일하게 50대 이상아 52.2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45.83%, 30대 37.73%로 조사되었다.

〈표 Ⅲ-3-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세,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5.10	3.60	(1297)	47.62	3.95	(1296)
30대 이하	37.72	1.66	(61)	37.73	1.71	(15)
40대	44.65	2.43	(1092)	45.83	2.39	(902)
50대 이상	51.59	1.97	(144)	52.26	2.61	(379)

패널아동과 부모의 동거 여부 및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을 중심으로 비동거 이유를 알아보았다. 대부분 어머니 및 아버지 모두 패널아동과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머니의 경우 2.08%, 아버지 경우 8.76%로 조사되었다.

〈표 Ⅲ-3-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동거	비동거	계(수)	타지역 근무 (학업)	아동의 국내외 유학중	장기 입원, 요양중	군 복무 중	기타	계(수)
어머니	97.92	2.08	100.00(1301)	25.93	18.52	-	-	55.56	100.00(27)
아버지	91.24	8.76	100.00(1301)	57.89	5.26	-	-	36.84	100.00(114)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부부특성

패널아동 부모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의 응답 비율을 제외한 결과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동일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유배우-초혼 93.62%, 유배우-재혼 0.92%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경우 유배우-초혼 93.47%, 유배우-재혼 1.08%로 조사되었다.

〈표 Ⅲ-3-4〉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단위: %, (명), 년

구분	결혼 상태								결혼 기간		
	미혼	유배우 -초혼	유배우 -재혼	동거 (사실혼)	사별	이혼	별거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어머니	-	93.62	0.92	0.08	0.77	4.23	0.38	100.00(1301)	17.94	3.26	(1263)
아버지	-	93.47	1.08	0.08	0.77	4.23	0.38	100.00(1301)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 부모의 부부 갈등 척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5차년도 조사에서 어머니의 부부 갈등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10점, 아버지는 평균 2.03점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부부 간의 갈등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부 갈등은 학력과 가구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마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일수록 어머니의 부부 갈등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 750만원 초과인 집단보다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가구의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부부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 부모의 부부 갈등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10	0.79	(1247)	2.03	0.74	(1167)
모/부 학력						
고졸 이하	2.23[b]	0.86	(324)	2.06	0.77	(296)
전문대졸	2.06[a]	0.78	(358)	2.08	0.73	(248)
대졸 이상	2.04[a]	0.75	(565)	2.00	0.72	(618)
F	6.40**		·	1.36		·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22[b]	0.91	(163)	2.03	0.79	(135)
350 초과~550만원	2.16[ab]	0.79	(425)	2.08	0.74	(403)
550 초과~750만원	2.04[ab]	0.77	(351)	2.05	0.71	(340)
750만원 초과	2.02[a]	0.73	(289)	1.96	0.71	(281)
F	3.83**		·	1.58		·
지역 규모						
대도시	2.10	0.79	(861)	2.05	0.72	(806)
중소도시	2.08	0.76	(227)	1.98	0.73	(211)
읍면	2.13	0.85	(159)	2.03	0.82	(150)
F	0.23		·	0.80		·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1$.

다) 심리적 특성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시로는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

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이 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81점, 아버지는 평균 3.87점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각각의 자아존중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학력,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월평균 750만원 초과인 가구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경우 학력, 가구소득, 지역 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보다 대졸 이상일수록, 가구소득이 월평균 350만원 이하보다 월평균 750만원 초과 가구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3-6〉 부모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1	0.55	(1247)	3.87	0.52	(1167)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66[a]	0.60	(324)	3.75[a]	0.51	(296)
전문대졸	3.80[b]	0.50	(358)	3.78[a]	0.48	(248)
대졸 이상	3.90[c]	0.53	(565)	3.97[b]	0.51	(618)
F	20.57***			22.9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66[a]	0.58	(163)	3.71[a]	0.52	(135)
350 초과~550만원	3.76[ab]	0.57	(425)	3.83[ab]	0.54	(403)
550 초과~750만원	3.84[bc]	0.52	(351)	3.89[bc]	0.48	(340)
750만원 초과	3.94[c]	0.49	(289)	3.99[c]	0.50	(281)
F	11.49***			10.87***		
지역 규모						
대도시	3.81	0.54	(861)	3.85[a]	0.52	(806)
중소도시	3.86	0.57	(227)	3.96[a]	0.48	(211)
읍면	3.73	0.56	(159)	3.84[a]	0.51	(150)
F	2.80			3.68*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3번, 5번, 8번, 9번, 10번 문항은 역코딩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다음은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관적 행복감은 7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5.26점,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5.36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학력,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경우 학력에 있어 고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대졸 이상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에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보다 월평균 550만원 초과인 가구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학력에 있어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보다 대졸 이상이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은 가구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3-7〉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26	0.91	(1247)	5.36	0.94	(1167)
모/부 학력						
고졸 이하	5.03[a]	0.98	(324)	5.19[a]	0.90	(296)
전문대졸	5.30[b]	0.87	(358)	5.29[a]	0.96	(248)
대졸 이상	5.36[b]	0.88	(565)	5.48[b]	0.92	(618)
F	14.45***			10.9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05[a]	1.03	(163)	4.98[a]	1.01	(135)
350 초과~550만원	5.20[ab]	0.93	(425)	5.29[b]	0.95	(403)
550 초과~750만원	5.30[b]	0.84	(351)	5.46[bc]	0.86	(340)
750만원 초과	5.42[b]	0.85	(289)	5.54[c]	0.90	(281)
F	6.78***			12.90***		
지역 규모						
대도시	5.25	0.90	(861)	5.34	0.95	(806)
중소도시	5.31	0.95	(227)	5.43	0.88	(211)
읍면	5.22	0.94	(159)	5.38	0.96	(150)
F	0.53			0.90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7점 척도임(1.매우 행복하지 않다~7.매우 행복하다,).
3)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
*** $p < .001$.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소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1개의 항목에 대해서 4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90점,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92점으로 나타났다.

〈표 Ⅲ-3-8〉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90	0.57	(1247)	2.92	0.59	(1167)
모/부 학력	·	·	·	·	·	·
고졸 이하	2.95	0.61	(324)	2.92	0.60	(296)
전문대졸	2.89	0.55	(358)	2.93	0.62	(248)
대졸 이상	2.88	0.56	(565)	2.92	0.58	(618)
F	1.72		·	0.02		·
가구소득	·	·	·	·	·	·
350만원 이하	2.91	0.60	(163)	2.88	0.65	(135)
350 초과~550만원	2.93	0.58	(425)	2.91	0.60	(403)
550 초과~750만원	2.88	0.55	(351)	2.98	0.55	(340)
750만원 초과	2.87	0.56	(289)	2.89	0.61	(281)
F	0.91		·	1.66		·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2.91	0.56	(861)	2.93	0.58	(806)
중소도시	2.85	0.61	(227)	2.93	0.60	(211)
읍면	2.94	0.54	(159)	2.86	0.63	(150)
F	1.38		·	0.98		·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받지 않음~4.많이 받음).

다음은 패널아동의 부모가 평소에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1개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평균 3.70점, 아버지는 3.77점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본인의 삶의 조금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학력, 가구소득, 지역 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인 집단이,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가구보다 750만원 초과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 규모에 있어서는 읍면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학력과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보다 대졸 이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에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보다 월평균 350만원 초과인 가구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3-9〉 부모의 삶의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0	0.70	(1247)	3.77	0.68	(1167)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57[a]	0.72	(324)	3.63[a]	0.71	(296)
전문대졸	3.68[ab]	0.66	(358)	3.73[a]	0.65	(248)
대졸 이상	3.78[b]	0.70	(565)	3.85[b]	0.66	(618)
F	10.21***			11.6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53[a]	0.79	(163)	3.50[a]	0.73	(135)
350 초과~550만원	3.62[ab]	0.71	(425)	3.72[b]	0.73	(403)
550 초과~750만원	3.74[bc]	0.65	(351)	3.83[b]	0.60	(340)
750만원 초과	3.87[c]	0.63	(289)	3.89[b]	0.62	(281)
F	11.23***			11.92***		
지역 규모						
대도시	3.72[b]	0.69	(861)	3.74	0.67	(806)
중소도시	3.73[b]	0.70	(227)	3.83	0.66	(211)
읍면	3.55[a]	0.74	(159)	3.81	0.73	(150)
F	3.87*			1.68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못함~5.매우 만족함).
* $p < .05$, *** $p < .001$.

취업 중인 패널아동 어머니 및 아버지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양육을 병행 시 본인이 느끼는 이점과 갈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일과 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문항은 각각 7문항, 9문항, 일과 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은 각각 4문항,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가정/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있어 이점이 많다고 느끼거나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패널아동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을 살펴보면, 일-가정 이점은 평균 3.79점, 갈등은 평균 2.17점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 시 갈등보다 이점을 더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시

갈등에서는 지역 규모에서 통계적 유의마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거주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가정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3-10〉 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9	0.60	(866)	2.17	0.72	(866)
모 학력	·	·	·	·	·	·
고졸 이하	3.73[a]	0.63	(212)	2.19	0.76	(212)
전문대졸	3.75[a]	0.61	(249)	2.16	0.75	(249)
대졸 이상	3.85[a]	0.57	(405)	2.15	0.69	(405)
F	3.51*		·	0.22		·
가구소득	·	·	·	·	·	·
350만원 이하	3.77[a]	0.60	(95)	2.29	0.81	(95)
350 초과~550만원	3.73[a]	0.62	(249)	2.15	0.71	(249)
550 초과~750만원	3.78[a]	0.57	(264)	2.12	0.73	(264)
750만원 초과	3.89[a]	0.59	(244)	2.18	0.70	(244)
F	3.34*		·	1.36		·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3.77	0.59	(612)	2.23[b]	0.70	(612)
중소도시	3.82	0.58	(143)	2.00[a]	0.72	(143)
읍면	3.86	0.66	(111)	2.04[ab]	0.80	(111)
F	1.20		·	7.39***		·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이어서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을 살펴보면, 일-양육 이점은 평균 3.65점, 일-양육 갈등은 평균 2.21점으로 일-가정 양립 시의 결과와 유사하게 일-양육 양립 시 갈등보다 이점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일-양육 이점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양육 갈등에서는 지역 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3-11〉 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 (명)

구분	일-양육 양립: 일-양육 이점			일-양육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65	0.73	(866)	2.21	0.74	(866)
모 학력	·	·	·	·	·	·
고졸 이하	3.63	0.73	(212)	2.26	0.76	(212)
전문대졸	3.62	0.72	(249)	2.17	0.76	(249)
대졸 이상	3.68	0.73	(405)	2.20	0.72	(405)
F	0.63		·	0.88		·
가구소득	·	·	·	·	·	·
350만원 이하	3.66	0.71	(95)	2.30	0.88	(95)
350 초과~550만원	3.61	0.71	(249)	2.20	0.72	(249)
550 초과~750만원	3.65	0.76	(264)	2.18	0.74	(264)
750만원 초과	3.69	0.73	(244)	2.19	0.73	(244)
F	0.49		·	0.58		·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3.65	0.69	(612)	2.25^{b}	0.71	(612)
중소도시	3.68	0.77	(143)	2.02^{a}	0.79	(143)
읍면	3.64	0.88	(111)	2.17^{ab}	0.82	(111)
F	0.15		·	5.82^{**}		·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1$.

다음은 취업 중인 아버지가 느끼는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결과이다. 아버지의 일-가정 이점 점수는 평균 3.89점, 일-가정 갈등 점수는 평균 2.15점으로 패널아동의 아버지 또한 어머니와 유사하게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갈등보다 이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일-가정 이점에서는 아버지의 학력과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보다 대졸 이상일수록 이점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에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보다 월평균 750만원 초과인 가구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이 높게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의 경우 지역 규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표 Ⅲ-3-12〉 부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 (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9	0.61	(1130)	2.15	0.64	(1130)
부 학력	·	·	·	·	·	·
고졸 이하	3.79[a]	0.64	(280)	2.17	0.66	(280)
전문대졸	3.79[a]	0.63	(241)	2.16	0.62	(241)
대졸 이상	3.98[b]	0.58	(605)	2.13	0.65	(605)
F	12.83***		·	0.62		·
가구소득	·	·	·	·	·	·
350만원 이하	3.74[a]	0.64	(125)	2.14	0.69	(125)
350 초과~550만원	3.87[ab]	0.61	(388)	2.19	0.64	(388)
550 초과~750만원	3.88[ab]	0.62	(335)	2.15	0.65	(335)
750만원 초과	4.00[b]	0.59	(279)	2.08	0.63	(279)
F	5.86***		·	1.66		·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3.88	0.61	(778)	2.18[b]	0.65	(778)
중소도시	3.93	0.62	(209)	2.09[ab]	0.60	(209)
읍면	3.89	0.62	(143)	2.02[a]	0.66	(143)
F	0.65		·	5.03**		·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이어서 패널아동의 아버지가 인식하는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결과이다.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 시 이점 점수는 평균 3.95점, 갈등은 평균 1.98점으로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점수와 유사하게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느끼는 갈등보다 이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양육 이점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과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보다 대졸 이상일수록 일-양육 이점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보다 월평균 550만원 초과인 가구 아버지가 느끼는 이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3-13〉 부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 (명)

구분	일-양육 양립: 일-양육 이점			일-양육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95	0.66	(1130)	1.98	0.69	(1130)
부 학력	·	·	·	·	·	·
고졸 이하	3.84[a]	0.67	(280)	2.04	0.73	(280)
전문대졸	3.90[a]	0.69	(241)	2.00	0.69	(241)
대졸 이상	4.03[b]	0.62	(605)	1.93	0.67	(605)
F	9.40***		·	2.84		·
가구소득	·	·	·	·	·	·
350만원 이하	3.78[a]	0.67	(125)	2.03	0.69	(125)
350 초과~550만원	3.94[ab]	0.68	(388)	1.98	0.68	(388)
550 초과~750만원	3.99[b]	0.63	(335)	2.01	0.68	(335)
750만원 초과	4.01[b]	0.64	(279)	1.89	0.71	(279)
F	4.37**		·	1.87		·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3.96	0.64	(778)	2.00	0.69	(778)
중소도시	3.99	0.64	(209)	1.91	0.68	(209)
읍면	3.88	0.72	(143)	1.91	0.73	(143)
F	1.42		·	2.32		·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2) 신체 및 건강 특성

가) 신체 건강 및 장애

패널아동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1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40점, 아버지는 평균 3.47점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주관적 느끼는 건강상태가 좋음을 알 수 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동일하게 학력과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가 높았으며,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일수록, 가구소득이 월평균 350만원 이하보다 월평균 750만원 초과인 가구 아버지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3-14〉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40	0.74	(1247)	3.47	0.72	(1167)
모/부 학력	·	·	·	·	·	·
고졸 이하	3.24[a]	0.77	(324)	3.35[a]	0.70	(296)
전문대졸	3.48[b]	0.71	(358)	3.44[ab]	0.73	(248)
대졸 이상	3.44[b]	0.73	(565)	3.54[b]	0.71	(618)
F	10.82***		·	7.44***		·
가구소득	·	·	·	·	·	·
350만원 이하	3.20[a]	0.83	(163)	3.33[a]	0.72	(135)
350 초과~550만원	3.36[ab]	0.76	(425)	3.46[ab]	0.71	(403)
550 초과~750만원	3.41[bc]	0.74	(351)	3.48[ab]	0.71	(340)
750만원 초과	3.55[c]	0.62	(289)	3.54[b]	0.73	(281)
F	8.25***		·	2.69*		·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3.41	0.71	(861)	3.45	0.71	(806)
중소도시	3.37	0.80	(227)	3.55	0.71	(211)
읍면	3.36	0.84	(159)	3.47	0.75	(150)
F	0.59		·	1.57		·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건강하지 않음~5.매우 건강함).
* $p < .05$, *** $p < .001$.

부모의 장애 1·2급 장애 유무를 조사한 결과, 각각의 응답 대상 중 어머니의 경우 1.01%, 아버지의 경우 1.76%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5〉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어머니	1.01	98.99	100.00(1287)
아버지	1.76	98.24	100.00(1249)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음주 및 흡연

패널아동 부모의 음주 전반(음주 횟수, 음주량, 과음 횟수)을 알아본 결과, 음주 횟수에 있어 어머니의 경우 월 1회 이하가 31.52%로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의 경

우 월 2~4회가 33.50%로 가장 높았다. 음주량은 음주 횟수에서 최근 1년간 안 마신다고 응답한 대상을 제외한 대상을 조사한 결과로, 어머니의 경우 1잔 또는 2잔이 52.21%로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의 경우 5잔 또는 6잔, 7잔 또는 9잔이 21.39%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과음[8] 횟수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전혀 없음이 37.83%로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는 일주일에 1번 정도가 30.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3-16〉 부모의 음주 실태

단위: %, (명)

음주 횟수			음주량			과음 횟수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최근 1년간 안 마심	27.51	12.68	1잔 또는 2잔	52.21	19.14	전혀 없음	37.83	16.19
1회 이하	31.52	17.91	3잔 또는 4잔	28.87	21.20	한 달에 1번 미만	32.52	25.61
2~4회	29.75	33.50	5잔 또는 6잔	11.06	21.39	한 달에 1번 정도	17.37	20.80
주 2~3회	9.06	24.42	7잔에서 9잔	4.87	21.39	일주일에 1번 정도	10.62	30.62
주 4회 이상	2.17	11.48	10잔 이상	2.99	16.88	거의 매일	1.66	6.77
계 (수)	100.00 (1247)	100.00 (1167)	계 (수)	100.00 (904)	100.00 (1019)	계 (수)	100.00 (904)	100.00 (1019)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패널아동 어머니 및 아버지의 흡연 실태를 결과를 살펴보면, 각각의 응답 대상 중 어머니는 2.09%, 아버지는 42.16%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7〉 부모의 흡연 실태

단위: %, (명)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어머니	2.09	97.91	100.00(1247)
아버지	42.16	57.84	100.00(1167)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8) 과음 기준은 어머니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경우이며, 아버지는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이상)을 기준으로 응답하게 함.

3) 직업 특성

가) 취업/학업 여부

15차년도 패널아동 어머니 및 아버지의 취·학업 상태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 취업(휴직 포함)이 65.36%로 가장 높았으며, 미취업·미학업이 31.90%, 취업·학업 병행 1.80%, 학업(휴학 포함) 0.94%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취업(휴직 포함)이 95.97%로 가장 높았으며, 미취업·미학업이 3.17%, 취업·학업 병행 0.77%, 학업(휴학 포함) 0.09%로 나타났다.

〈표 Ⅲ-3-18〉 부모 취·학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업·미학업	계(수)
어머니	65.36	0.94	1.80	31.90	100.00(1279)
아버지	95.97	0.09	0.77	3.17	100.00(1167)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패널아동 어머니의 취·학업 상태를 집단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패널아동 어머니의 취업 중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3-19〉 모의 취·학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전체	65.36	0.94	1.80	31.90	100.00(1279)
모 학력					
고졸 이하	61.93	0.30	2.42	35.35	100.00(331)
전문대졸	64.05	1.35	2.16	32.43	100.00(370)
대졸 이상	68.17	1.04	1.21	29.58	100.00(578)
$\chi^2(df)$		7.87(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5.15	0.61	2.42	41.82	100.00(165)
350 초과~550만원	54.86	1.39	1.62	42.13	100.00(432)
550 초과~750만원	71.19	0.83	1.39	26.59	100.00(361)
750만원 초과	79.87	0.34	2.35	17.45	100.00(298)
$\chi^2(df)$		67.14(9)***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전체	65.36	0.94	1.80	31.90	100.00(1279)
지역 규모					
대도시	66.29	1.24	1.57	30.90	100.00(890)
중소도시	62.17	-	0.87	36.96	100.00(230)
읍면	64.78	0.63	4.40	30.19	100.00(159)
$\chi^2(df)$	13.26(6)*				

주: 어머니의 응답임.
* $p < .05$, *** $p < .001$.

패널아동 아버지의 취·학업 상태를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패널아동의 아버지가 취업 중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3-20〉 부의 취·학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전체	95.97	0.09	0.77	3.17	100.00(1167)
부 학력					
고졸 이하	93.24	-	1.35	5.41	100.00(296)
전문대졸	96.77	-	0.40	2.82	100.00(248)
대졸 이상	97.09	0.16	0.65	2.10	100.00(618)
$\chi^2(df)$	10.17(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91.11	-	1.48	7.41	100.00(135)
350 초과~550만원	95.04	0.25	0.99	3.72	100.00(403)
550 초과~750만원	97.65	-	0.88	1.47	100.00(340)
750만원 초과	99.29	-	-	0.71	100.00(281)
$\chi^2(df)$	24.21(9)**				
지역 규모					
대도시	95.66	0.12	0.74	3.47	100.00(806)
중소도시	98.58	-	0.47	0.95	100.00(211)
읍면	94.00	-	1.33	4.67	100.00(150)
$\chi^2(df)$	6.11(6)				

주: 아버지의 응답임.
** $p < .01$.

나) 취업 특성 및 직업 만족도

패널아동 어머니 및 아버지의 재직 상태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재직 중 98.14%, 아버지의 경우 재직 중 99.38%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대부분 직장/지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21〉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재직상태		직장/직위 변동 여부					
	재직	휴직	변동 없음	직장이 바뀜	직위가 바뀜	지난조사 시 미취/미학	2021 조사불참	계(수)
어머니	98.14	1.86	86.54	9.63	3.71	0.12	-	100.00(862)
아버지	99.38	0.62	92.03	5.40		1.51	1.06	100.00(1129)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패널아동 부모님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상용직이 67.05%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직 11.37%,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상용직이 69.88%로 가장 높았으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4.35%, 종업원을 둔 고용주 11.7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22〉 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어머니	67.05	11.37	1.62	6.50	10.67	2.78	100.00(862)
아버지	69.88	1.15	2.21	11.78	14.35	0.62	100.00(1129)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다음은 취업 중인 부모님의 근무일(주중 평균, 주말 평균, 1주일 전체) 및 근무시간을 살펴본 결과이다. 주중과 주말을 포함한 1주일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일주일 평균 5.16일, 일주일 평균 39.36시간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학력과 지역 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인 경우 평균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많았으며, 지역 규모에 있어서는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근무일이 많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일주일 평균 5.34일, 일주일 평균 46.57

시간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학력과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 일수록 평균 근무일이 길게 나타났다.

〈표 Ⅲ-3-23〉 취업부모 근무일 및 시간

단위: 일, 시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근무일		근로시간		(수)	근무일		근로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중 평균	4.86	0.53	7.59	1.92	(846)	4.92	0.39	8.78	1.69	(1129)
주말 평균	0.30	0.54	2.08	3.50	(846)	0.42	0.60	3.24	4.32	(1129)
1주일 전체	5.16	0.72	39.36	12.17	(846)	5.34	0.66	46.57	10.94	(1129)
모/부 학력										
고졸 이하	5.36[b]	0.69	42.91[b]	13.01	(211)	5.48[b]	0.76	48.80[b]	11.86	(280)
전문대졸	5.18[a]	0.76	39.51[a]	11.46	(240)	5.40[b]	0.62	46.83[ab]	10.72	(241)
대졸 이상	5.04[a]	0.68	37.37[a]	11.70	(395)	5.25[a]	0.62	45.45[a]	10.44	(604)
F	14.07***		14.74***			12.51***		9.2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5.22	0.78	39.62	12.70	(94)	5.39[a]	0.82	45.95[a]	11.42	(125)
350 초과~550만원	5.20	0.72	38.67	12.94	(241)	5.41[a]	0.70	47.89[a]	11.97	(387)
550 초과~750만원	5.13	0.73	39.23	12.06	(261)	5.27[a]	0.56	45.92[a]	9.69	(335)
750만원 초과	5.13	0.69	39.71	11.24	(237)	5.31[a]	0.63	45.65[a]	10.29	(279)
F	0.87		0.33			3.05*		3.09*		
지역 규모										
대도시	5.12[a]	0.73	38.72[a]	12.14	(592)	5.32	0.64	46.19	10.37	(777)
중소도시	5.21[ab]	0.71	40.32[a]	11.45	(144)	5.35	0.67	47.92	13.26	(209)
읍면	5.33[b]	0.61	41.58[a]	12.96	(110)	5.46	0.74	46.70	10.03	(143)
F	4.23*		3.13*			2.86		2.10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취업 중인 패널아동 부모의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는 평균 3.82점, 아버지는 평균 3.70점으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 아버지 모두 학력과 가구소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경우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일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다. 아버지의 경우 학력에 있어서 전문대졸보다 대졸 이상일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3-24〉 취업부모 일자리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2	0.63	(862)	3.70	0.72	(1129)
모/부 학력	·	·	·	·	·	·
고졸 이하	3.70[a]	0.71	(444)	3.61[ab]	0.70	(575)
전문대졸	3.83[ab]	0.60	(246)	3.60[a]	0.78	(241)
대졸 이상	3.88[b]	0.60	(403)	3.78[b]	0.69	(604)
F	5.83**		·	8.95***		·
가구소득	·	·	·	·	·	·
350만원 이하	3.77[a]	0.66	(95)	3.50[a]	0.68	(125)
350 초과~550만원	3.74[a]	0.67	(245)	3.61[ab]	0.77	(387)
550 초과~750만원	3.86[a]	0.58	(264)	3.75[bc]	0.63	(335)
750만원 초과	3.89[a]	0.62	(245)	3.86[c]	0.72	(279)
F	2.90*		·	10.76***		·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3.79	0.64	(607)	3.69	0.72	(777)
중소도시	3.84	0.60	(145)	3.76	0.74	(209)
읍면	3.94	0.59	(110)	3.70	0.67	(143)
F	2.47		·	0.78		·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4) 양육 특성

가) 양육 실제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을 의미하며,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 ‘부모님은 내 공부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신다’ 등의 15문항으로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15차년도 중학교 2학년의 부모의 성취압력 평균은 2.37점으로 남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성취압력(2.50점)은 여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성취압력(2.24)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에서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월평균 550만원 초과인 집단일수록 아동이 느끼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Ⅲ-3-25〉 부모의 성취압력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37	0.84	(1294)
아동 성별			
남	2.50	0.83	(664)
여	2.24	0.83	(629)
t	5.7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17[a]	0.85	(176)
350 초과~550만원	2.37[ab]	0.80	(433)
550 초과~750만원	2.44[b]	0.83	(361)
750만원 초과	2.41[b]	0.89	(296)
F	4.44**		
지역 규모			
대도시	2.40	0.84	(901)
중소도시	2.36	0.85	(230)
읍면	2.25	0.83	(162)
F	2.19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부모애착은 패널아동이 부모와 밀접하게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게 대해서 5점 척도로 패널아동에게 직접 조사하였다. 부모애착은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의 하위영역으로 나눠지며, 각각 6문항, 3문항,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뤄졌다. 부모애착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하위영역 중 소외감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R)이 낮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패널아동이 생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부모애착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평균 3.87점, 소외감 평균 3.30점, 신뢰감 평균 4.00점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 의사소통 영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패널아동의 성별에 있어 남학생보다 여학생일수록 소외감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낮게 나타났고 이는 소외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표 Ⅲ-3-26〉 부모애착: 어머니

단위: 점, (명)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7	0.82	3.30	0.85	4.00	0.82	(1294)
아동 성별							
남	3.87	0.81	3.23	0.86	3.97	0.83	(664)
여	3.88	0.82	3.37	0.83	4.03	0.81	(629)
t	−0.16		−3.00**		−1.14		
모 학력							
고졸 이하	3.76[a]	0.78	3.23	0.72	3.91	0.78	(331)
전문대졸	3.83[ab]	0.72	3.26	0.77	3.98	0.75	(368)
대졸 이상	3.92[b]	0.71	3.31	0.76	4.01	0.72	(577)
F	5.75**		1.19		2.0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86	1.04	3.32	1.05	3.98	1.01	(176)
350 초과~550만원	3.87	0.77	3.27	0.84	3.97	0.76	(433)
550 초과~750만원	3.80	0.72	3.24	0.72	3.98	0.75	(361)
750만원 초과	3.94	0.80	3.35	0.82	4.07	0.82	(296)
F	1.68		1.12		0.90		

주: 1) 아동 응답임(의사소통 6문항, 소외감 3문항, 신뢰감 3문항. 총 12문항).
2) 5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5.항상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음: '소외감' 항목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음을 의미함.
** $p < .01$.

패널아동이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부모애착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평균 3.58점, 소외감 평균 3.25점, 신뢰감 평균 3.89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별 자세히 살펴보면,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영역 모두 가구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월평균 350만원 초과보다 월평균 350만원 이하일수록 의사소통이 높고, 소외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이는 소외감이 낮음을 의미). 신뢰감 영역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신뢰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3-27〉 부모애착: 아버지

단위: 점, (명)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8	1.08	3.25	1.00	3.89	1.01	(1294)
아동 성별							
남	3.63	1.09	3.24	1.03	3.90	1.03	(664)
여	3.53	1.06	3.26	0.96	3.88	0.99	(629)
t	1.79		−0.37		0.41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 학력							
고졸 이하	3.43	0.86	3.14	0.69	3.79	0.78	(315)
전문대졸	3.47	0.86	3.14	0.74	3.82	0.80	(262)
대졸 이상	3.56	0.86	3.19	0.73	3.84	0.81	(663)
F	2.70		0.63		0.3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82[b]	1.72	3.52[b]	1.70	4.11[b]	1.63	(176)
350 초과~550만원	3.52[a]	0.97	3.18[a]	0.88	3.79[a]	0.89	(433)
550 초과~750만원	3.50[a]	0.81	3.20[a]	0.70	3.87[a]	0.75	(361)
750만원 초과	3.57[a]	0.85	3.20[a]	0.68	3.90[ab]	0.82	(296)
F	4.11**		6.14***		4.28**		

주: 1) 아동 응답임(의사소통 6문항, 소외감 3문항, 신뢰감 3문항. 총 12문항).
2) 5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5.항상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음: '소외감' 항목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음을 의미함.
** $p < .01$, *** $p < .001$.

합리적 설명은 부모님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해 해주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총 5문항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한 패널아동 평균 3.02점으로 보통(3점)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표 Ⅲ-3-28〉 합리적 설명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02	0.57	(1294)
아동 성별			
남	3.03	0.58	(664)
여	3.01	0.57	(629)
t	0.6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00	0.60	(176)
350 초과~550만원	3.04	0.56	(433)
550 초과~750만원	2.98	0.55	(361)
750만원 초과	3.05	0.61	(296)
F	1.20		
지역 규모			
대도시	3.03	0.57	(901)
중소도시	2.98	0.60	(230)
읍면	3.04	0.57	(162)
F	0.58		

주: 1) 아동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다음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결과이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 등의 문항으로 총 17문항,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경우 평균 2.50점, 아버지는 평균 2.44점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세부항목별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패널아동 성별,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패널아동이 남학생일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지역 규모에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지역 규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 규모가 읍면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3-29〉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50	0.69	(1247)	2.44	0.74	(1167)
아동 성별	·	·	·	·	·	·
남	2.56	0.69	(636)	2.45	0.74	(599)
여	2.44	0.69	(611)	2.43	0.73	(568)
t	3.06**			0.44		·
모/부 학력	·	·	·	·	·	·
고졸 이하	2.53	0.72	(324)	2.46	0.77	(296)
전문대졸	2.54	0.71	(358)	2.47	0.75	(248)
대졸 이상	2.46	0.67	(565)	2.42	0.71	(618)
F	1.60		·	0.57		·
가구소득	·	·	·	·	·	·
350만원 이하	2.51	0.77	(163)	2.39	0.82	(135)
350 초과~550만원	2.51	0.68	(425)	2.46	0.72	(403)
550 초과~750만원	2.50	0.68	(351)	2.49	0.75	(340)
750만원 초과	2.48	0.70	(289)	2.36	0.70	(281)
F	0.18		·	2.05		·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2.55[b]	0.66	(861)	2.48[b]	0.71	(806)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중소도시	2.39[a]	0.71	(227)	2.38[ab]	0.73	(211)
읍면	2.40[ab]	0.82	(159)	2.29[a]	0.84	(150)
F	6.48**			5.02**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p < .01$.

다음은 패널아동이 인식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이다. 신체적 학대는 '전혀 없음'이 94.36%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3-30〉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94.36	4.25	0.93	0.31	0.15	100.0(1294)
아동 성별						
남	92.77	5.42	1.05	0.60	0.15	100.0(664)
여	96.03	3.02	0.79	-	0.16	100.0(629)
$\chi^2(df)$			8.76(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93.75	3.41	1.70	0.57	0.57	100.0(176)
350 초과~550만원	93.53	4.85	1.15	0.46	-	100.0(433)
550 초과~750만원	96.12	3.32	0.55	-	-	100.0(361)
750만원 초과	93.24	5.41	0.68	0.34	0.34	100.0(296)
$\chi^2(df)$			10.04(12)			
지역 규모						
대도시	93.34	5.22	0.89	0.33	0.22	100.0(901)
중소도시	97.39	1.74	0.87	-	-	100.0(230)
읍면	95.68	2.47	1.23	0.62	-	100.0(162)
$\chi^2(df)$			9.23(8)			

주: 아동 응답임.

언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없음' 80.60%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6개월간 한두 번'이 13.14%로 '전혀 없음'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언어적 학대 경험 또한 신체적 학대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3-31〉 아동학대: 언어적 학대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80.60	13.14	3.32	2.55	0.39	100.0(1294)
아동 성별						
남	78.77	15.06	3.01	2.71	0.45	100.0(664)
여	82.51	11.13	3.66	2.38	0.32	100.0(629)
$\chi^2(df)$			5.05(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86.36	10.23	2.27	0.57	0.57	100.0(176)
350 초과~550만원	79.91	12.01	3.93	3.70	0.46	100.0(433)
550 초과~750만원	81.44	13.30	3.05	1.94	0.28	100.0(361)
750만원 초과	77.03	16.89	3.38	2.36	0.34	100.0(296)
$\chi^2(df)$			13.09(12)			
지역 규모						
대도시	79.13	13.76	3.77	3.00	0.33	100.0(901)
중소도시	84.35	12.61	1.30	1.74	-	100.0(230)
읍면	83.33	10.49	3.70	1.23	1.23	100.0(162)
$\chi^2(df)$			11.77(8)			

주: 아동 응답임.

패널아동이 느끼는 정서적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없음’ 89.18%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6개월간 한두 번’이 7.50%로 ‘전혀 없음’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서적 학대 경험 또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3-32〉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89.18	7.50	1.62	1.47	0.23	100.0(1294)
아동 성별						
남	88.40	7.68	1.51	2.11	0.30	100.0(664)
여	89.98	7.31	1.75	0.79	0.16	100.0(629)
$\chi^2(df)$			4.34(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91.48	5.11	1.70	1.70	-	100.0(176)
350 초과~550만원	89.84	6.47	1.39	1.85	0.46	100.0(433)
550 초과~750만원	89.75	8.03	1.39	0.83	-	100.0(361)
750만원 초과	85.81	10.14	2.03	1.69	0.34	100.0(296)
$\chi^2(df)$			9.73(12)			
지역 규모						
대도시	88.24	8.10	1.89	1.44	0.33	100.0(901)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계(수)
중소도시	90.00	7.39	1.30	1.30	-	100.0(230)
읍면	93.21	4.32	0.62	1.85	-	100.0(162)
$x^2(df)$			6.08(8)			

주: 아동 응답임.

패널아동이 느끼는 방임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없음' 97.53%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6개월간 한두 번'이 1.47%로 '전혀 없음'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방임 경험 또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3-33〉 아동학대: 방임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97.53	1.47	0.62	0.23	0.15	100.0(1294)
아동 성별						
남	96.54	1.81	1.05	0.45	0.15	100.0(664)
여	98.57	1.11	0.16	-	0.16	100.0(629)
$x^2(df)$			8.22(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97.73	1.14	0.57	-	0.57	100.0(176)
350 초과~550만원	97.46	0.92	1.15	0.46	-	100.0(433)
550 초과~750만원	97.23	2.22	0.28	0.28	-	100.0(361)
750만원 초과	97.64	1.69	0.34	-	0.34	100.0(296)
$x^2(df)$			11.23(12)			
지역 규모						
대도시	97.34	1.44	0.67	0.33	0.22	100.0(901)
중소도시	98.26	1.30	0.43	-	-	100.0(230)
읍면	97.53	1.85	0.62	-	-	100.0(162)
$x^2(df)$			2.56(8)			

주: 아동 응답임.

나) 부모 감독, 소통 및 지원

다음은 평소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는 패널아동의 친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수는 평균 6.17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3-34〉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수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17	5.15	(1304)
아동 성별	·	·	·
남	5.92	5.11	(667)
여	6.44	5.18	(637)
t	−1.85		·
가구소득	·	·	·
350만원 이하	5.88	6.36	(177)
350 초과~550만원	6.03	4.85	(437)
550 초과~750만원	6.06	4.39	(362)
750만원 초과	6.77	5.68	(301)
F	1.71		·
지역 규모	·	·	·
대도시	6.34	5.42	(909)
중소도시	5.58	3.93	(231)
읍면	6.09	5.09	(164)
F	2.06		·

주: 보호자의 응답임.

부모 감독은 패널아동의 생활에 대해서 보호자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와 아동에게 각각 측정하였으며, 부모 감독에 대한 보호자 응답은 5점 척도로, 아동 응답은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먼저, 보호자가 응답한 부모 감독은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음’ 평균 4.45점, ‘몇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음’ 평균 4.56점,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음’ 평균 4.26점,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연락 주고받음’ 평균 4.43점으로 모든 문항에서 4점 이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패널아동 성별에 있어 남학생보다 여학생일수록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음’, ‘몇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음’,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연락 주고받음’에 응답한 점수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에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 가구에서 월평균 350만원 초과 가구보다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알고 있음’에 응답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있어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음’의 응답 점수가 높았으며,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연락 주고받음’ 응답의 경우 대도시보다 읍면에 거주하는 가구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3-35〉 부모 감독: 보호자 응답

단위: 점, (명)

구분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음		몇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음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음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연락 주고받음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45	0.64	4.56	0.56	4.26	0.65	4.43	0.72	(1304)
아동 성별									
남	4.38	0.70	4.52	0.58	4.25	0.69	4.38	0.74	(667)
여	4.52	0.57	4.61	0.54	4.28	0.61	4.49	0.69	(637)
t	-3.48***		-2.66**		-0.39		-2.6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43	0.74	4.50	0.66	4.37[b]	0.71	4.40	0.77	(177)
350 초과~550만원	4.46	0.58	4.58	0.55	4.26[a]	0.62	4.45	0.66	(437)
550 초과~750만원	4.48	0.62	4.57	0.53	4.27[a]	0.63	4.45	0.75	(362)
750만원 초과	4.41	0.68	4.59	0.55	4.19[a]	0.69	4.41	0.74	(301)
F	0.67		1.11		6.64***		0.26		
지역 규모									
대도시	4.44	0.65	4.57	0.56	4.24[a]	0.66	4.40[a]	0.74	(909)
중소도시	4.48	0.61	4.55	0.59	4.35[b]	0.58	4.50[ab]	0.67	(231)
읍면	4.45	0.67	4.52	0.55	4.28[ab]	0.70	4.51[b]	0.66	(164)
F	0.63		0.39		6.72**		5.6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항상 그렇다).
** $p < .01$, *** $p < .001$.

이어서 아동이 응답한 부모 감독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방과후 어디 가는지 알고계심’ 평균 3.47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계심’ 평균 3.37점,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계심’ 평균 3.48점,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심’ 3.18점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패널아동의 성별에 있어서 여학생일수록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계심’에 응답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3-36〉 부모 감독: 아동 응답

단위: 점, (명)

구분	방과후 어디 가는지 알고계심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계심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계심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계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7	0.64	3.37	0.63	3.48	0.64	3.18	0.74	(1294)
아동 성별	·	·	·	·	·	·	·	·	·
남	3.44	0.66	3.37	0.64	3.43	0.67	3.15	0.76	(664)
여	3.49	0.61	3.37	0.62	3.53	0.61	3.23	0.71	(629)
t	-1.46		0.00		-2.95**		-1.94		·
가구소득	·	·	·	·	·	·	·	·	·
350만원 이하	3.38	0.71	3.31	0.67	3.39	0.67	3.11	0.77	(176)
350 초과~550만원	3.50	0.62	3.37	0.63	3.49	0.60	3.21	0.71	(433)
550 초과~750만원	3.48	0.61	3.40	0.62	3.47	0.68	3.15	0.75	(361)
750만원 초과	3.47	0.64	3.39	0.63	3.54	0.62	3.22	0.74	(296)
F	1.70		0.90		2.01		1.22		·
지역 규모	·	·	·	·	·	·	·	·	·
대도시	3.46	0.64	3.38	0.63	3.48	0.65	3.17	0.74	(901)
중소도시	3.52	0.57	3.35	0.61	3.47	0.61	3.22	0.76	(230)
읍면	3.46	0.68	3.38	0.66	3.48	0.64	3.23	0.71	(162)
F	0.85		0.15		0.01		0.84		·

주: 1) 아동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 $p < .01$.

다음은 패널가구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학업적/교육적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 총 7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전체 7개 항목에 대해 평균 2.97점에서 3.56점 정도로, 대체로 보통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부모는 자녀의 성적관리에 신경쓴다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3.56점), 평소 생활 확인 및 일정 관리 문항이 평균 3.54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학부모들 모임에 나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항목은 평균 2.97점으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별히, 패널가구소득별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이 많았는데, 집안 공부 분위기 조성과 공부방법 조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 모두에서 가구소득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평소 자녀의 생활 확인 및 일정 관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7〉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단위: 점, (명)

구분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학교공부 및 숙제 확인		공부방법 조언		성적관리에 신경 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7	0.83	3.08	0.95	3.46	0.84	3.56	0.81	(1304)
아동 성별									
남	3.36	0.84	3.11	0.95	3.50	0.85	3.56	0.82	(667)
여	3.38	0.81	3.05	0.95	3.41	0.83	3.57	0.80	(637)
t	-0.40		1.22		1.89		-0.20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25	0.89	3.08^{ab}	0.99	3.33	0.94	3.33^{a}	0.90	(177)
350 초과~550만원	3.34	0.81	3.10^{ab}	0.93	3.47	0.84	3.58^{bc}	0.77	(437)
550 초과~750만원	3.44	0.79	3.19^{b}	0.92	3.52	0.77	3.72^{c}	0.74	(362)
750만원 초과	3.40	0.86	2.96^{a}	0.96	3.44	0.86	3.50^{ab}	0.87	(301)
F	2.31		3.31^{*}		2.10		10.15^{***}		
지역 규모									
대도시	3.35	0.81	3.06	0.91	3.45	0.82	3.56	0.82	(909)
중소도시	3.46	0.88	3.14	1.03	3.53	0.86	3.65	0.76	(231)
읍면	3.32	0.84	3.13	1.02	3.42	0.93	3.46	0.85	(164)
F	1.81		1.01		1.17		2.55		

구분	진로진학 정보 수집		평소 생활 확인 및 일정 관리		학부모 모임 및 인터넷 정보 수집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6	0.83	3.54	0.84	2.97	1.01	(1304)
아동 성별							
남	3.39	0.82	3.60	0.81	3.01	1.02	(667)
여	3.34	0.85	3.49	0.86	2.92	1.00	(637)
t	1.13		2.35^{*}		1.5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22^{a}	0.90	3.39^{a}	0.95	2.82^{a}	1.01	(177)
350 초과~550만원	3.35^{ab}	0.81	3.53^{ab}	0.80	2.95^{ab}	0.98	(437)
550 초과~750만원	3.48^{b}	0.80	3.59^{b}	0.80	3.14^{b}	0.99	(362)
750만원 초과	3.35^{ab}	0.85	3.62^{b}	0.85	2.90^{a}	1.05	(301)
F	4.09^{**}		3.25^{*}		5.56^{***}		
지역 규모							
대도시	3.34	0.82	3.53	0.81	2.96	0.99	(909)
중소도시	3.48	0.80	3.65	0.87	3.00	1.02	(231)
읍면	3.35	0.95	3.47	0.92	2.96	1.11	(164)
F	2.96		2.62		0.20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패널가정이 외부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총 12개 항목,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고, 이를 정서적/정보적/사교적/도구적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4개 영역에서 유사한 점수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항목별 평균 최저 3.78점에서 최고 3.92점 분포를 보였고, 이는 대체로 그러한 수준이다.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도구적 지원의 경우 3.9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패널가구소득별 집단에 따라 4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3-38〉 사회적 지원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정서적		정보적		사교적		도구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9	0.67	3.78	0.67	3.82	0.64	3.92	0.67	(1304)
아동 성별									
남	3.91	0.67	3.78	0.67	3.83	0.65	3.93	0.67	(667)
여	3.87	0.66	3.78	0.68	3.80	0.63	3.90	0.68	(637)
t	1.15		-0.11		0.64		0.8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70^{a}	0.75	3.64^{a}	0.78	3.61^{a}	0.74	3.73^{a}	0.79	(177)
350 초과~550만원	3.90^{b}	0.63	3.82^{b}	0.64	3.84^{b}	0.63	3.92^{b}	0.65	(437)
550 초과~750만원	3.95^{b}	0.59	3.83^{b}	0.61	3.86^{b}	0.58	4.00^{b}	0.59	(362)
750만원 초과	3.94^{b}	0.71	3.76^{ab}	0.71	3.86^{b}	0.64	3.95^{b}	0.69	(301)
F	6.81^{***}		3.71^{*}		7.30^{***}		6.75^{***}		
지역 규모									
대도시	3.88	0.69	3.77	0.67	3.81	0.64	3.91	0.69	(909)
중소도시	3.94	0.60	3.79	0.68	3.83	0.61	3.91	0.65	(231)
읍면	3.91	0.65	3.83	0.69	3.80	0.69	3.98	0.64	(164)
F	0.93		0.74		0.09		0.73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15차 조사 때 처음 조사한 변인으로 패널아동과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우리 가족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된 전체 10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아동은 전체 문항 평균이 3.91점, 아버지는 평균

3.74점, 어머니는 평균 3.76점으로 아동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아동,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가족 내 의사소통이 대체로 잘 이뤄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의 성별이나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구소득별 집단 차이는 아동과 어머니 응답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특별히 어머니 응답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월평균 750만원 초과 가구의 어머니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가구 어머니보다 가정 내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3-39〉 부모-자녀 의사소통

단위: 점, (명)

구분	아동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91	0.67	(1294)	3.74	0.59	(1167)	3.76	0.54	(1247)
아동 성별	·	·	·	·	·	·	·	·	·
남	3.93	0.66	(664)	3.75	0.59	(599)	3.74	0.54	(636)
여	3.90	0.68	(629)	3.73	0.58	(568)	3.78	0.53	(611)
t	0.79		·	0.42		·	-1.26		·
가구소득	·	·	·	·	·	·	·	·	·
350만원 이하	3.77^{a}	0.72	(176)	3.65	0.64	(135)	3.70^{a}	0.60	(163)
350 초과~550만원	3.95^{b}	0.67	(433)	3.73	0.60	(403)	3.71^{ab}	0.56	(425)
550 초과~750만원	3.90^{ab}	0.62	(361)	3.75	0.53	(340)	3.77^{ab}	0.51	(351)
750만원 초과	3.97^{b}	0.69	(296)	3.79	0.58	(281)	3.84^{b}	0.49	(289)
F	3.96^{**}		·	2.00		·	4.00^{**}		·
지역 규모	·	·	·	·	·	·	·	·	·
대도시	3.90	0.68	(901)	3.72	0.58	(806)	3.75	0.53	(861)
중소도시	3.93	0.66	(230)	3.82	0.56	(211)	3.80	0.56	(227)
읍면	3.94	0.65	(162)	3.75	0.64	(150)	3.74	0.54	(159)
F	0.39		·	2.19		·	0.67		·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의미함.
** $p < .01$.

나. 가구 특성

1) 가구 구성 및 방 여부

패널가구 구성 및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87.50%)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구성은 조부모+부모+자녀(8.82%)였다. 평균 가구원수는 4.60명이었다.

〈표 Ⅲ-3-40〉 가구 구성 및 가구원수

단위: %, (명)

가구 구성						가구원수	
부모+자녀	조부모+부모+자녀	부모+자녀+친척	조부모+부모+자녀+친척	기타	계(수)	평균	표준편차
87.50	8.82	0.54	3.14	-	100.00(1304)	4.60	1.78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단독 방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이 있는 경우가 85.28%였다.

〈표 Ⅲ-3-41〉 아동의 단독 방 여부

단위: %, (명)

있음	없음	계(수)
85.28	14.72	100.00(1304)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가구의 경제적 특성

가) 객관적 경제적 상황(소득, 지출, 부채)

다음은 패널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월평균 가구소득 및 어머니/아버지 근로소득을 조사한 결과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실수령액 기준 월평균 약 617만원이었으며, 중위값은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머니 근로소득은 월평균 약 257만원이고, 아버지 근로소득은 월평균 약 49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42〉 월평균 가구소득 및 어머니/아버지 근로소득

단위: 만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월평균 가구소득	616.76	285.57	600.00	100.00	4120.00	(1277)
월평균 어머니 근로소득	257.42	162.02	227.50	0.00	3000.00	(860)
월평균 아버지 근로소득	495.03	304.28	450.00	0.00	5000.00	(1128)

주: 보호자, 어머니, 아버지의 응답임.

이어서 패널가구 월평균 지출에 대해 소비성 지출과 비소비성 지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소비성 지출은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용품, 보건(의료), 교통, 통신, 교

육, 문화, 외식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월평균 약 289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성 지출은 세금, 연금, 적금, 보험료, 대출이자, 다른 가구(부모, 친척)에 지출하는 금액, 종교단체 기부금 등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것인데, 평균 약 21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43〉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소비성 지출	288.74	149.35	280.00	20.00	1500.00	(1302)
비소비성 지출	214.11	122.58	200.00	0.00	900.00	(1302)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0점 척도로 구성된 사다리 질문을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정도,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패널가구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평균 5.36점 정도로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위치 역시 중간 수준인 5.51점 정도라고 인식하였다. 패널아동의 성별이 여자인 가구가 남자인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패널가구가 읍면지역에 사는 패널가구보다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지역사회/공동체에서의 지위 모두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Ⅲ-3-44〉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점, (명)

구분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36	1.35	(1304)	5.51	1.38	(1304)
아동 성별	·	·	·	·	·	·
남	5.28	1.31	(667)	5.42	1.35	(667)
여	5.44	1.39	(637)	5.59	1.39	(637)
t	−2.17*		·	−2.24*		·

구분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51[a]	1.18	(177)	4.75[a]	1.17	(177)
350 초과~550만원	5.09[b]	1.18	(437)	5.27[b]	1.22	(437)
550 초과~750만원	5.62[c]	1.28	(362)	5.77[c]	1.29	(362)
750만원 초과	5.96[d]	1.41	(301)	6.01[c]	1.49	(301)
F	61.18***			45.15***		
지역 규모						
대도시	5.42[b]	1.36	(909)	5.56[b]	1.37	(909)
중소도시	5.34[ab]	1.24	(231)	5.49[ab]	1.31	(231)
읍면	5.05[a]	1.43	(164)	5.26[a]	1.48	(164)
F	5.02**			3.33*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가장 낮은 수준~10.매우 높은 수준).
* $p < .05$, ** $p < .01$, *** $p < .001$.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에 대해 패널아동은 가족들이 가끔 걱정한다고 인식한 경우가 54.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도 34.47%에 달했다. 또한 패널아동 성별에 따라,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인 경우, 또 가구소득이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가구의 패널아동이 월평균 550만원 초과인 가구의 패널아동보다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걱정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표 Ⅲ-3-45〉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걱정하지 않음	가끔 걱정함	자주 걱정함	항상 걱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47	54.56	8.81	2.16	100.00(1294)	1.79	0.69
아동 성별							
남	40.21	52.56	5.87	1.36	100.00(664)	1.68	0.64
여	28.46	56.60	11.92	3.02	100.00(629)	1.90	0.72
$x^2(df)/t$	31.45(3)***					−5.5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5.00	56.82	15.34	2.84	100.00(176)	1.96[b]	0.72
350 초과~550만원	32.79	55.89	8.78	2.54	100.00(433)	1.81[ab]	0.69
550 초과~750만원	36.01	54.85	7.48	1.66	100.00(361)	1.75[a]	0.66
750만원 초과	41.89	49.66	7.09	1.35	100.00(296)	1.68[a]	0.67
$x^2(df)/F$	23.49(9)**					6.80***	

구분	전혀 걱정하지 않음	가끔 걱정함	자주 걱정함	항상 걱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 규모	·	·	·	·	·	·	·
대도시	35.18	53.39	8.99	2.44	100.00(901)	1.79	0.70
중소도시	33.91	56.96	8.26	0.87	100.00(230)	1.76	0.63
읍면	31.48	57.41	8.64	2.47	100.00(162)	1.82	0.69
$x^2(df)/F$		3.57(6)			·	0.3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걱정하지 않음~4.항상 걱정함).
** $p < .01$, *** $p < .001$.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다음 절에서는 패널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및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학교 특성으로 이용 특성, 학교 특성, 물리적 환경, 교사 특성, 가정협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사교육 관련해서는 현재 패널아동이 받고 있는 사교육 여부, 종류, 비용 등 이용 특성과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 중 학교풍토, 학생비행, 교사효능감 및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는 15차년도에 처음으로 조사한 문항이다.

〈표 Ⅲ-4-1〉 15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교	이용 특성	• 학교 재학 여부, 미진학 사유, 대체 이용기관
		• 전학 여부
	학교 특성	• 학교 유형, 남녀공학 여부
		• 시범학교 유형
		• 학교풍토, 학생비행
	물리적 특성	• 학급수, 학급 학생수, 학교 환경
	교사 특성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 시간, 담당과목
		• 업무 스트레스, 일평균 근무시간
		• 교사효능감
	학급운영	• 교사-아동 관계(친밀, 갈등)
	가정협력	•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및 횟수,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 학교생활 관심 정도
		• 학교서비스 만족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교육	이용 특성	• 사교육 여부, 이용 유형, 시간, 만족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이용 이유, 교재비
	사교육 인식	•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부담 정도, 효과인식

가. 학교 특성

1) 이용 특성

현재 중학교 2학년 시기를 맞이한 패널아동의 학교 재학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약 99.7%)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나,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0.31% 있었다.

〈표 Ⅲ-4-2〉 학교 재학 여부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재학 중(대안학교 포함)	다니고 있지 않음	계(수)
전체	99.69	0.31	100.00(1304)
아동 성별	·	·	·
남	99.40	0.60	100.00(667)
여	100.00	-	100.00(637)
$x^2(df)$	3.83(1)		·
가구소득	·	·	·
350만원 이하	99.44	0.56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99.77	0.23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100.00	-	100.00(362)
750만원 초과	99.34	0.66	100.00(301)
$x^2(df)$	2.79(3)		·
지역 규모	·	·	·
대도시	99.56	0.44	100.00(909)
중소도시	100.00	-	100.00(231)
읍면	100.00	-	100.00(164)
$x^2(df)$	1.74(2)		·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중학교 진학 이후에 전학을 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학한 적 없는 경우가 94.31%로 대부분이었으나, 전학한 적 있는 경우도 5.69% 있었다.

〈표 Ⅲ-4-3〉 전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학 경험 없음	전학 경험 있음	계(수)
전체	94.31	5.69	100.00(1300)
아동 성별			
남	94.27	5.73	100.00(663)
여	94.35	5.65	100.00(637)
$x^2(df)$	0.00(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97.73	2.27	100.00(176)
350 초과~550만원	91.97	8.03	100.00(436)
550 초과~750만원	95.30	4.70	100.00(362)
750만원 초과	94.65	5.35	100.00(299)
$x^2(df)$	9.05(3)*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2) 학교 특성

패널아동의 대다수는 일반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98.69%), 대안학교, 국제중학교, 예술 및 체육중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도 소수 있었다.

〈표 Ⅲ-4-4〉 학교 유형

단위: %, (명)

구분	일반중	예술중	체육중	국제중	대안학교	기타	계(수)
전체	98.69	0.08	0.08	0.38	0.46	0.31	100.00(1300)
아동 성별							
남	98.79	-	0.15	0.45	0.15	0.45	100.00(663)
여	98.59	0.16	-	0.31	0.78	0.16	100.00(637)
$x^2(df)$	5.92(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00.00	-	-	-	-	-	100.00(176)
350 초과~550만원	98.85	-	-	0.23	0.69	0.23	100.00(436)
550 초과~750만원	99.17	-	-	-	0.55	0.28	100.00(362)
750만원 초과	97.32	0.33	0.33	1.00	0.33	0.67	100.00(299)
$x^2(df)$	16.22(15)						
지역 규모							
대도시	98.56	0.11	0.11	0.44	0.44	0.33	100.00(905)
중소도시	99.57	-	-	0.43	-	-	100.00(231)
읍면	98.17	-	-	-	1.22	0.61	100.00(164)
$x^2(df)$	5.95(10)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남녀공학 여부에 대해서 담임교사가 응답하였는데, 대부분(81.53%) 남녀공학이었고, 여학교 10.02%, 남학교 8.45%로 조사되었다.

〈표 Ⅲ-4-5〉 남녀공학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계(수)
전체	81.53	10.02	8.45	100.00(509)
지역 규모				
대도시	86.09	7.83	6.09	100.00(345)
중소도시	70.33	15.38	14.29	100.00(91)
읍면	73.97	13.70	12.33	100.00(73)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재학 중인 학교의 시범학교 유형에 대해서도 담임교사가 응답하였는데, 76.62%는 일반학교였고, 혁신학교 14.73%, 연구학교 5.50%, 기타 2.95%, 시범학교 0.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6〉 시범학교 유형

단위: %, (명)

구분	일반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	기타	계(수)
전체	76.62	5.50	0.20	14.73	2.95	100.00(509)
지역 규모						
대도시	73.33	6.96	0.29	16.52	2.90	100.00(345)
중소도시	81.32	3.30	-	10.99	4.40	100.00(91)
읍면	86.30	1.37	-	10.96	1.37	100.00(73)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기타에는 다행복학교(2사례), (에듀테크)선도학교(2사례), 자율학교(2사례), 행복(맞이)학교(2사례) 등이 포함됨.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분위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15차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풍토를 교사풍토, 학생풍토, 학부모풍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해보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풍토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담임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학교풍토는 4개 항목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는데, 3.21점에서 3.66점 수준으로 4개 항목 모두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가 3.6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항목은 3.21점으로 그 중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 규모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4-7〉 학교풍토: 교사풍토

단위: 점, (명)

구분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		교사 간 신뢰와 협력		학교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학생생활 지도를 위한 노력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6	0.50	3.55	0.57	3.21	0.76	3.61	0.56	(509)
지역 규모	·	·	·	·	·	·	·	·	·
대도시	3.67	0.50	3.54	0.58	3.19	0.76	3.61	0.57	(345)
중소도시	3.62	0.51	3.62	0.51	3.26	0.77	3.66	0.54	(91)
읍면	3.64	0.48	3.51	0.60	3.27	0.73	3.56	0.50	(73)
F	0.51		0.90		0.67		0.63		·

주: 1) 담임교사 응답임.
2) 4점 척도임(1.매우 낮다~4.매우 높다).

학생풍토에 대해서는 5개 항목, 동일하게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평균 2.94점에서 평균 3.33점의 분포를 보였다. 학생들의 학교 시설을 아끼려는 마음 항목은 평균 2.94점으로 5개 항목 중 가장 낮았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는 평균 3.33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교생활을 잘 하려는 의지도 평균 3.31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생풍토 역시 교사풍토와 동일하게 지역 규모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4-8〉 학교풍토: 학생풍토

단위: 점, (명)

구분	학교에 대한 자부심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		학교생활을 잘 하려는 의지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		학교 시설을 아끼려는 마음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7	0.65	3.33	0.66	3.31	0.61	3.16	0.72	2.94	0.74	(509)
지역 규모	·	·	·	·	·	·	·	·	·	·	·
대도시	3.07	0.64	3.35	0.66	3.34	0.60	3.19	0.71	2.95	0.73	(345)
중소도시	3.08	0.72	3.30	0.71	3.26	0.61	3.13	0.72	3.00	0.76	(91)
읍면	3.08	0.64	3.29	0.59	3.21	0.62	3.05	0.72	2.85	0.74	(73)
F	0.01		0.43		1.93		1.19		0.88		·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매우 낮음~4.매우 높음).

마지막으로 학부모풍토도 교사풍토, 학생풍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3개 항목 중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항목이 가장 낮았고(2.97점),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항목이 평균 3.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4-9〉 학교풍토: 학부모풍토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1	0.68	3.12	0.70	2.97	0.74	(509)
지역 규모							
대도시	3.12	0.69	3.14	0.70	2.97	0.75	(345)
중소도시	3.11	0.71	3.12	0.74	3.00	0.73	(91)
읍면	3.03	0.58	3.01	0.63	2.93	0.69	(73)
F	0.62		0.97		0.18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매우 낮음~4.매우 높음).

다음은 패널아동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내 학생비행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2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이다. 학생비행 변인 역시 15차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측정하였는데, 첫 번째 항목인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한다'에 대해 평균 2.47점, 두 번째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항목은 평균 2.90점으로 두 문항 모두 보통 이하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특별히, 두 번째 항목(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은 지역 규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아동 학교 내 학생비행 수준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패널아동 학교 내 학생비행 수준보다 낮았다.

〈표 Ⅲ-4-10〉 학생비행

단위: 점, (명)

구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47	0.92	2.90	1.05	(509)
지역 규모					
대도시	2.51	0.92	2.94[ab]	1.02	(345)
중소도시	2.46	0.93	2.98[b]	1.05	(91)
읍면	2.27	0.92	2.62[a]	1.13	(73)
F	2.03		3.27*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3) 물리적 특성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전체 학급수 및 해당 학급의 학생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평균 학급수는 7.55학급, 학급 내 학생수는 약 27명, 학급 내 남학생 대 여학생 비율이 1:0.95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1〉 전체 학급수 및 해당 학급 학생수

단위: 학급, 명, (명)

구분	학급수		학생수		(수)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55	3.09	26.65	4.87	(509)	0.95	0.38	(393)
지역 규모								
대도시	7.96[b]	2.99	26.70[b]	4.55	(345)	0.94	0.38	(278)
중소도시	7.45[b]	2.71	28.19[b]	3.91	(91)	0.98	0.36	(62)
읍면	5.77[a]	3.38	24.45[a]	6.44	(73)	0.96	0.44	(53)
F	16.09***		12.52***			0.32		

주: 1)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남학생 1명당 여학생수
2)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학교 환경에 대한 담임교사의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건물상태에 대해서는 평균 3.54점, 기자재 및 시설 평균 3.71점, 주변 환경 평균 3.84점, 교통 편의성 등 통학조건에 대해서는 평균 3.71점 수준으로 4개 문항 모두에서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 규모별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4-12〉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주변 환경		통학조건(교통 편의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4	0.90	3.71	0.81	3.84	0.84	3.71	1.00	(509)
지역 규모									
대도시	3.53	0.91	3.72	0.83	3.86	0.85	3.76	1.00	(345)
중소도시	3.51	0.91	3.65	0.78	3.75	0.72	3.63	0.91	(91)
읍면	3.66	0.80	3.75	0.76	3.90	0.90	3.62	1.10	(73)
F	0.72		0.39		0.84		1.00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나쁘다~5.매우 좋다).

4) 교사 특성

담임교사의 특성으로 담당과목, 성별 및 연령, 경력 및 일평균 근무시간, 최종학력,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교사효능감을 조사하였는데, 교사효능감은 15차 조사에 처음으로 조사된 변인이다.

담임교사의 담당과목은 국어 17.09%, 영어 12.97%, 과학 12.77%, 수학 12.18%, 사회(역사) 11.20% 등의 순이었고, 이 외에도 기술가정, 도덕, 음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타 과목으로는 정보, 진로 등도 있었다.

〈표 Ⅲ-4-13〉 교사 담당과목

단위: %, (명)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계(수)
전체	17.09	12.97	12.18	11.20	12.77	4.91	5.30	3.93	3.54	8.84	7.27	100.00(509)
교사 연령												
20대	12.00	12.00	13.33	13.33	14.67	6.67	5.33	1.33	2.67	16.00	2.67	100.00(75)
30대	16.67	11.46	9.38	8.85	15.63	3.65	4.69	7.29	3.13	10.94	8.33	100.00(192)
40대	20.13	15.44	14.77	12.08	10.07	4.03	6.04	2.01	2.68	4.70	8.05	100.00(149)
50대 이상	17.20	12.90	12.90	12.90	9.68	7.53	5.38	2.15	6.45	5.38	7.53	100.00(93)
지역 규모												
대도시	16.52	13.62	13.04	10.43	11.88	4.64	4.93	3.48	3.19	9.28	8.99	100.00(345)
중소도시	20.88	13.19	6.59	10.99	15.38	3.30	9.89	4.40	4.40	6.59	4.40	100.00(91)
읍면	15.07	9.59	15.07	15.07	13.70	8.22	1.37	5.48	4.11	9.59	2.74	100.00(73)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패널아동 담임교사의 약 73%는 여자였으며, 평균연령은 약 40세로 조사되었다. 지역 규모에 따른 교사 성별 및 연령 차이는 없었다.

〈표 Ⅲ-4-14〉 교사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교사 성별		계(수)	교사 연령		(수)
	여	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3.08	26.92	100.00(509)	39.84	9.45	(509)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73.33	26.67	100.00(345)	39.63	9.11	(345)
중소도시	72.53	27.47	100.00(91)	40.64	9.45	(91)
읍면	72.60	27.40	100.00(73)	39.79	10.98	(73)
$x^2(df)/F$	0.03(2)		·	0.41		·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패널아동 담임교사의 경력은 약 12.18년이었고, 일평균 주중 근무시간은 8.48시간(약 8시간 29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4-15〉 교사 경력 및 1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년, 시간, (명)

구분	교사 경력		교사 1일 평균 근무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18	9.37	8.48	1.36	(509)
지역 규모	·	·	·	·	·
대도시	12.10	9.20	8.52	1.39	(345)
중소도시	13.02	9.05	8.47	1.24	(91)
읍면	11.53	10.57	8.30	1.35	(73)
F	0.55		0.77		·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패널아동 담임교사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63.65%로 대부분이었고, 석사졸업 26.92%, 석사과정 6.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 연령에 따른 최종학력에 분포 차이가 있었는데, 교사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Ⅲ-4-16〉 교사 최종학력

단위: %, (명)

	초대졸	대졸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계(수)
전체	0.20	63.65	6.68	26.92	1.38	1.18	100.00(509)
교사 연령							
20대	-	92.00	2.67	5.33	-	-	100.00(75)
30대	0.52	66.15	7.81	23.96	1.04	0.52	100.00(192)
40대	-	51.01	8.05	36.24	3.36	1.34	100.00(149)
50대 이상	-	55.91	5.38	35.48	-	3.23	100.00(193)
$\chi^2(df)$	51.36(15)***						
지역 규모							
대도시	0.29	61.74	6.38	28.41	1.74	1.45	100.00(345)
중소도시	-	68.13	8.79	20.88	1.10	1.10	100.00(91)
읍면	-	67.12	5.48	27.40	-	-	100.00(73)
$\chi^2(df)$	5.90(10)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담임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를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4개 항목으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2.73점에서 3.37점으로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4개 항목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항목은 생활지도 항목이었고(3.37점), 수업지도 항목은 2.73점으로 4개 항목 중에서는 비교적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 연령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30대와 50대 이상 교사보다는 40대 교사가 학부모 관계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40대 교사가 20대 교사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11년~20년 경력의 교사가 31년 이상 고경력 교사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표 Ⅲ-4-17〉 교사 업무 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학부모와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2	1.09	3.37	1.08	2.73	1.03	3.30	1.07	(509)
교사 연령									
20대	2.75^{ab}	1.21	3.39^{a}	1.18	2.73^{a}	1.00	3.01^{a}	1.03	(75)
30대	2.69^{a}	1.07	3.30^{a}	1.08	2.63^{a}	1.05	3.26^{ab}	1.07	(192)
40대	3.13^{b}	1.05	3.57^{a}	0.99	2.93^{a}	1.01	3.57^{b}	1.02	(149)

구분	학부모와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50대 이상	2.65[a]	1.01	3.18[a]	1.10	2.61[a]	1.02	3.20[ab]	1.11	(93)
F	6.10***		2.92*		2.89*		5.45**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2.74[a]	1.11	3.33[ab]	1.08	2.68	1.04	3.21[a]	1.07	(277)
11~20년	3.01[a]	1.07	3.55[b]	1.02	2.81	1.03	3.47[a]	1.03	(139)
21~30년	2.93[a]	0.99	3.38[ab]	1.12	2.88	1.04	3.47[a]	1.08	(60)
31년차 이상	2.55[a]	1.06	2.97[a]	1.16	2.48	0.97	3.03[a]	1.13	(33)
F	2.86*		2.91*		1.51		3.06*		
지역 규모									
대도시	2.81	1.09	3.35	1.11	2.71	1.03	3.33	1.09	(345)
중소도시	3.00	1.09	3.56	0.92	2.90	1.05	3.35	1.05	(91)
읍면	2.64	1.07	3.22	1.10	2.60	1.02	3.12	1.01	(73)
F	2.22		2.17		1.89		1.21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5.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교사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교사효능감을 측정한 결과이다. 교사효능감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왜 그런지 파악할 수 있다', '교과내용에 따라 수업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등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 전체 9개 항목 평균은 4.13점으로, 효능감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교사 연령이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4-18〉 교사효능감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13	0.43	(509)
교사 연령			
20대	4.03[a]	0.52	(75)
30대	4.06[ab]	0.41	(192)
40대	4.21[bc]	0.40	(149)
50대 이상	4.23[c]	0.42	(93)
F	6.36***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4.07[a]	0.43	(27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11~20년	4.19[ab]	0.43	(139)
21~30년	4.15[ab]	0.43	(60)
31년차 이상	4.35[b]	0.38	(33)
F	5.90***		
지역 규모			
대도시	4.13	0.43	(345)
중소도시	4.13	0.48	(91)
읍면	4.11	0.41	(73)
F	0.06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01$.

5) 학급 운영

아동과 교사의 관계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질문하였는데, 아동과 교사 간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항목은 전체 5점 리커트에서 척도 평균 3.76점으로 대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갈등 항목에 대해서는 1.40점으로 대체적으로 갈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Ⅲ-4-19〉 아동과 교사관계

단위: 점, (명)

구분	친밀		갈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6	0.61	1.40	0.61	(509)
교사 연령					
20대	3.66[a]	0.68	1.41	0.58	(75)
30대	3.70[a]	0.65	1.41	0.68	(192)
40대	3.88[a]	0.52	1.34	0.47	(149)
50대 이상	3.78[a]	0.58	1.45	0.68	(93)
F	3.24*		0.75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3.69[a]	0.64	1.41	0.63	(277)
11~20년	3.85[a]	0.57	1.37	0.54	(139)
21~30년	3.84[a]	0.52	1.31	0.56	(60)
31년차 이상	3.83[a]	0.59	1.57	0.79	(33)
F	2.79*		1.38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6) 가정협력

패널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해 가정(부모)의 협력정도를 학교생활 참여 횟수, 학교생활 참여 정도, 학교상담 참여 정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학교생활로는 자녀 관련 상담이었는데, 지난 상반기 내에 학교에서 자녀 관련하여 상담한 횟수를 부모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부모 중 48.08%는 1~2회 정도 상담한 반면, 한 번도 상담하지 않는 경우도 49.38% 정도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교 내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단체 가입 및 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학설명회, 기타 학교방문 등은 전혀 없다고 한 비율이 약 90% 내외 수준이었다. 단, 타부모들과 정보교류 모임을 하는 경우는 이보다 조금 많아서, 전혀 없다는 비율이 81.31%였고, 1~2회 13.46%, 3회 이상 모임을 갖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5.23%(3~4회 3.38%+5회 이상 1.85%)였다.

〈표 Ⅲ-4-20〉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횟수: 부모 응답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상반기 1~2회	상반기 3~4회	상반기 5회 이상	계(수)
자녀 관련 상담	49.38	48.08	2.15	0.38	100.00(1300)
학교 내 자원봉사 활동	90.62	7.00	1.23	1.15	100.00(1300)
학교 내 학부모단체 가입 및 활동	90.38	7.15	1.62	0.85	100.00(1300)
부모교육 프로그램	88.00	11.08	0.85	0.08	100.00(1300)
타부모들과 정보교류 모임	81.31	13.46	3.38	1.85	100.00(1300)
진학설명회	89.54	10.23	0.08	0.15	100.00(1300)
기타 학교방문	88.23	10.38	0.77	0.62	100.00(1300)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를 담임교사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평균 2.84점 보통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학교생할 참여 정도는 가구소득에 따라 집단 차이가 나타났는데,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보다 월평균 750만원 초과 가구가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표 Ⅲ-4-21〉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교사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	보통	대체로 참여함	항상 참여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7	23.38	36.94	21.41	5.70	100.00(509)	2.84	1.08
가구소득	·	·	·	·	·	·	·	·
350만원 이하	16.28	29.07	36.05	15.12	3.49	100.00(86)	2.60[a]	1.04
350 초과~550만원	12.43	22.03	40.11	20.90	4.52	100.00(177)	2.83[ab]	1.04
550 초과~750만원	13.48	24.82	34.75	21.99	4.96	100.00(141)	2.80[ab]	1.08
750만원 초과	8.57	19.05	35.24	26.67	10.48	100.00(105)	3.11[b]	1.10
$x^2(df)/F$	13.93(12)					·	3.78*	
지역 규모	·	·	·	·	·	·	·	·
대도시	12.75	24.93	35.65	21.45	5.22	100.00(345)	2.81	1.07
중소도시	16.48	19.78	31.87	23.08	8.79	100.00(91)	2.88	1.20
읍면	6.85	20.55	49.32	19.18	4.11	100.00(73)	2.93	0.92
$x^2(df)/F$	10.22(8)					·	0.42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참여하지 않음~5.항상 참여함).
* $p < .05$.

이어서 패널아동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를 담임교사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평균 3.33점이었으며 대체로 참여함 33.79%, 보통 28.88%, 참여하지 않는 편 15.91%, 항상 참여함 14.54%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에서 가구소득이나 지역 규모에 따른 집단 차이는 없었다.

〈표 Ⅲ-4-22〉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	보통	대체로 참여함	항상 참여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88	15.91	28.88	33.79	14.54	100.00(509)	3.33	1.12
가구소득	·	·	·	·	·	·	·	·
350만원 이하	5.81	20.93	38.37	25.58	9.30	100.00(86)	3.12	1.03
350 초과~550만원	5.08	13.56	31.07	37.29	12.99	100.00(177)	3.40	1.04
550 초과~750만원	9.22	17.73	21.28	34.75	17.02	100.00(141)	3.33	1.22
750만원 초과	7.62	13.33	27.62	33.33	18.10	100.00(105)	3.41	1.16
$x^2(df)/F$	16.57(12)					·	1.44	
지역 규모	·	·	·	·	·	·	·	·
대도시	7.54	15.36	30.43	33.04	13.62	100.00(345)	3.30	1.12
중소도시	7.69	15.38	23.08	35.16	18.68	100.00(91)	3.42	1.18
읍면	2.74	19.18	28.77	35.62	13.70	100.00(73)	3.38	1.04
$x^2(df)/F$	5.53(8)					·	0.50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참여하지 않음~5.항상 참여함).

담임교사가 인식한 패널아동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는 평균 3.97점으로 대체로 관심을 보이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관심을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45.78%로 가장 많았고, 매우 관심 많음 27.90%, 보통 22.0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와 동일하게 가구소득이나 지역 규모에 따른 집단 차이는 없었다.

〈표 Ⅲ-4-23〉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관심없음	가끔 관심보임	보통	대체로 관심보임	매우 관심많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39	3.93	22.00	45.78	27.90	100.00(509)	3.97	0.83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16	4.65	26.74	46.51	20.93	100.00(86)	3.81	0.86
350 초과~550만원	-	3.39	24.29	46.89	25.42	100.00(177)	3.94	0.80
550 초과~750만원	0.71	4.26	18.44	47.52	29.08	100.00(141)	4.00	0.85
750만원 초과	-	3.81	19.05	40.95	36.19	100.00(105)	4.10	0.84
$\chi^2(df)/F$			10.81(12)				1.93	
지역 규모								
대도시	0.29	4.93	22.90	44.93	26.96	100.00(345)	3.93[a]	0.85
중소도시	-	1.10	20.88	38.46	39.56	100.00(91)	4.16[a]	0.79
읍면	1.37	2.74	19.18	58.90	17.81	100.00(73)	3.89[a]	0.77
$\chi^2(df)/F$			16.74(8)*				3.19*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관심없음~5.매우 관심많음).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이어서 패널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기초능력 향상,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교육,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지도, 학습에 불편함이 없는 학교시설환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의 9가지 항목,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9개 항목에 대해 평균 3.54점에서 가장 높게는 평균 3.68점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가 평균 3.54점으로 가장 낮았고, 안전관리 교육 평균 3.68점,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평균 3.63점, 인성지도 평균 3.6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지역 규모별 집단 차이를 보였는데, 안전관리 교육,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지도 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부모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 부모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4-24〉 학교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기초능력 향상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교육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6	0.63	3.59	0.65	3.63	0.68	3.60	0.85	3.68	0.67	(1300)
아동 성별											
남	3.54	0.63	3.56	0.66	3.64	0.69	3.62	0.85	3.66	0.66	(663)
여	3.58	0.63	3.61	0.65	3.62	0.68	3.58	0.84	3.70	0.67	(637)
t	−1.04		−1.37		0.59		1.00		−0.8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53	0.65	3.60	0.69	3.69	0.63	3.75	0.77	3.73	0.63	(176)
350 초과~550만원	3.53	0.63	3.54	0.61	3.60	0.69	3.56	0.91	3.64	0.68	(436)
550 초과~750만원	3.58	0.62	3.60	0.68	3.65	0.69	3.57	0.81	3.69	0.69	(362)
750만원 초과	3.61	0.63	3.64	0.66	3.64	0.71	3.64	0.85	3.71	0.65	(299)
F	1.19		1.46		0.83		2.50		1.15		
지역 규모											
대도시	3.56	0.61	3.58	0.63	3.63^{ab}	0.67	3.58^{a}	0.87	3.66^{a}	0.67	(905)
중소도시	3.56	0.68	3.56	0.66	3.57^{a}	0.70	3.55^{a}	0.78	3.62^{a}	0.63	(231)
읍면	3.57	0.69	3.65	0.75	3.74^{b}	0.72	3.79^{b}	0.79	3.87^{b}	0.67	(164)
F	0.01		0.88		3.12^{*}		4.99^{**}		7.82^{***}		

구분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지도		학교시설 환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4	0.71	3.61	0.70	3.59	0.71	3.55	0.70	(1300)
아동 성별									
남	3.53	0.71	3.62	0.70	3.59	0.72	3.56	0.71	(663)
여	3.55	0.72	3.59	0.70	3.59	0.70	3.55	0.69	(637)
t	−0.35		0.53		0.14		0.2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66^{b}	0.68	3.71	0.68	3.62	0.69	3.64^{a}	0.71	(176)
350 초과~550만원	3.49^{a}	0.71	3.57	0.68	3.54	0.74	3.48^{a}	0.70	(436)
550 초과~750만원	3.53^{ab}	0.71	3.61	0.70	3.59	0.68	3.57^{a}	0.67	(362)
750만원 초과	3.57^{ab}	0.74	3.61	0.73	3.65	0.73	3.59^{a}	0.75	(299)
F	2.77^{*}		1.72		1.38		2.74^{*}		
지역 규모									
대도시	3.53^{a}	0.70	3.58^{a}	0.67	3.57	0.70	3.52^{a}	0.71	(905)
중소도시	3.45^{a}	0.75	3.60^{a}	0.71	3.60	0.72	3.57^{ab}	0.66	(231)
읍면	3.73^{b}	0.72	3.76^{b}	0.78	3.68	0.76	3.70^{b}	0.72	(164)
F	7.45^{***}		4.85^{**}		1.87		4.4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나. 사교육 특성

1)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종류

다음은 패널가구의 사교육 특성 중 사교육 이용 여부 및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에는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화상강의, 교내 방과후학교, EBS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수강하는 수업 등 학교 정규수업 외 교육을 모두 포함하며, 반면 사교육은 이 중에서 교내 방과후학교, EBS교육방송 강의를 제외한 항목을 사교육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 중 90.80%가 학교 수업 이외 교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패널가구 중 학교 수업 외의 교육을 이용 경우 가구소득이 월평균 550만원 초과 750만원인 경우가 95.30%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750만원 초과의 경우 94.68%, 월평균 350만원 초과 550만원의 경우 91.08%,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경우 74.01% 순으로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지역 규모에 있어서는 대도시 92.41%, 중소도시 92.21%, 읍면 79.88%로 나타났으며, 지역 규모가 클수록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여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 중 88.57%가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수록 사교육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4-25〉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여부

단위: %, (명)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90.80	9.20	100.00(1304)	88.57	11.43	100.00(1304)
아동 성별						
남	89.66	10.34	100.00(667)	86.96	13.04	100.00(667)
여	91.99	8.01	100.00(637)	90.27	9.73	100.00(637)
$\chi^2(df)$	2.13(1)			3.53(1)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74.01	25.99	100.00(177)	69.49	30.51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91.08	8.92	100.00(437)	88.56	11.44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95.30	4.70	100.00(362)	93.65	6.35	100.00(362)
750만원 초과	94.68	5.32	100.00(301)	93.36	6.64	100.00(301)
$\chi^2(df)$	73.70(3)***			79.17(3)***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지역 규모						
대도시	92.41	7.59	100.00(909)	90.54	9.46	100.00(909)
중소도시	92.21	7.79	100.00(231)	90.48	9.52	100.00(231)
읍면	79.88	20.12	100.00(164)	75.00	25.00	100.00(164)
$x^2(df)$	26.78(2)***			34.15(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을 살펴보면, 수학이 1,0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영어 991명, 과학 387명, 국어 386명, 체육 212명, 논술 138명, 음악 99명, 기타 88명, 미술 60명, 컴퓨터, 코딩 등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교 수업 외 교육서비스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원 중에서는 미술이 80.00%로 가장 높았고, 수학 77.24%, 체육 75.94%, 영어 75.18% 등의 순이었다. 학원 외에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의 경우 논술의 비율 29.71%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지(방문교사)경우 기타(17.05%), 인터넷/화상 강의의 경우 과학(33.59%), 교내 방과후 교실의 경우 컴퓨터, 코딩 등(28.57%), EBS 교육방송 강의에서는 과학(11.11%),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체육(5.66%) 과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4-26〉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수)
국어	41.71	9.59	9.33	30.83	2.07	8.29	1.04	(386)
논술	51.45	29.71	5.07	13.04	-	1.45	-	(138)
영어	75.18	13.12	1.92	9.18	1.11	1.61	0.50	(991)
수학	77.24	12.29	2.86	7.05	1.52	2.10	0.48	(1050)
과학	41.09	7.75	5.94	33.59	1.81	11.11	0.52	(387)
음악	62.63	19.19	-	3.03	12.12	-	4.04	(99)
미술	80.00	10.00	-	6.67	1.67	-	1.67	(60)
체육	75.94	5.66	-	0.94	12.26	-	5.66	(212)
컴퓨터, 코딩 등	46.43	14.29	-	7.14	28.57	-	3.57	(28)
기타	51.14	9.09	17.05	18.18	3.41	4.55	3.41	(88)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사교육 이용 특성

학교 외 교육서비스 이용기관 및 매체에 따른 주당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학습지(방문교사)의 주당 평균시간이 14.63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의 경우 평균 10.74시간, 인터넷/화상 강의의 경우 평균 6.15시간,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의 경우 평균 4.84시간,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속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4.73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27〉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1.00	42.00	10.74	5.55	(1024)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1.00	28.00	4.84	3.73	(273)
학습지(방문교사)	2.00	68.50	14.63	13.22	(68)
인터넷/화상 강의	1.00	30.00	6.15	5.31	(191)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0.50	24.00	4.73	4.49	(140)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가구가 이용한 학교 외 교육서비스 기관 및 매체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의 이용 만족도가 평균 3.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과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속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동일하게 평균 3.83점, 학습지(방문교사) 평균 3.71점, 인터넷/화상 강의 평균 3.58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28〉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3.83	0.53	(1024)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96	0.63	(273)
학습지(방문교사)	3.71	0.69	(68)
인터넷/화상 강의	3.58	0.64	(191)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3.83	0.70	(140)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다음은 패널가구가 이용한 학교 외 교육서비스 기관 및 매체별 월평균 이용비용 결과이다. 패널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한 학교 외 교육서비스 기관 및 매체는 학원으로 평균 53.6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가 평균 38.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인터넷/화상 강의 평균 13.41만원, 학습지(방문교사) 평균 11.74만원, 마지막으로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평균 4.5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29〉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0.00	249.00	53.61	29.80	(1024)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0.00	200.00	38.19	29.43	(273)
학습지(방문교사)	1.00	56.00	11.74	10.89	(68)
인터넷/화상 강의	0.00	90.00	13.41	12.64	(191)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0.00	40.00	4.57	7.80	(140)

주: 보호자의 응답임.

이어서 패널가구가 이용한 학교 외 교육비스 기관 및 매체별 월평균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를 알아보았다. 패널가구가 이용한 학교 외 교육서비스 기관 및 매체 중 학원이 평균 3.21점으로 부담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가 평균 3.18점, 학습지(방문교사) 평균 2.70점, 인터넷/화상 강의 평균 2.50점,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평균 1.60점 순으로 부담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4-30〉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3.21	0.86	(1024)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18	0.99	(273)
학습지(방문교사)	2.70	0.85	(68)
인터넷/화상 강의	2.50	0.99	(191)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1.60	0.85	(140)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부담되지 않음~5.매우 부담됨).

3) 아동의 사교육 이용 인식

패널아동이 이용한 사교육 개수의 적절성을 알아보았다. 응답한 패널아동의 81.20%가 '적당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5.57%가 '적은편', 3.23%가 '많은편'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패널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80.42%가 '적당한편', 14.45%가 '적은편', 5.13%가 '많은편'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81.97%가 '적당한편', 16.70%가 '적은편', 1.33%가 '많은편'으로 나타났다.

〈표 Ⅲ-4-31〉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단위: %, (명)

구분	적은편	적당한편	많은편	계(수)
전체	15.57	81.20	3.23	100.00(1053)
아동 성별				
남	14.45	80.42	5.13	100.00(526)
여	16.70	81.97	1.33	100.00(527)
$\chi^2(df)$		12.74(2)**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6.83	83.17	-	100.00(101)
350 초과~550만원	16.91	80.17	2.92	100.00(343)
550 초과~750만원	15.26	80.37	4.36	100.00(321)
750만원 초과	12.83	83.77	3.40	100.00(265)
$\chi^2(df)$		6.81(6)		
지역 규모				
대도시	15.73	80.65	3.63	100.00(744)
중소도시	16.15	82.29	1.56	100.00(192)
읍면	13.68	82.91	3.42	100.00(117)
$\chi^2(df)$		2.45(4)		

주: 아동 응답임.
** $p < .01$.

이어서 현재 패널아동이 이용한 사교육에 대한 부담 정도를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이다. 전체 평균은 2.25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부담 정도를 나타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평균점수에 있어 패널아동의 성별 및 가구소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역 규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보다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사교육 부담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4-32〉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부담스럽지 않은편	보통	부담스러운 편	매우 부담스러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5.36	31.15	37.23	5.60	0.66	100.00(1053)	2.25	0.92
아동 성별	·	·	·	·	·	·	·	·
남	23.57	32.13	36.88	6.46	0.95	100.00(526)	2.29	0.93
여	27.13	30.17	37.57	4.74	0.38	100.00(527)	2.21	0.91
$x^2(df)/t$			4.36(4)			·	1.41	
가구소득	·	·	·	·	·	·	·	·
350만원 이하	27.72	27.72	41.58	1.98	0.99	100.00(101)	2.21	0.91
350 초과~550만원	26.24	27.41	40.23	5.83	0.29	100.00(343)	2.27	0.93
550 초과~750만원	23.36	32.40	37.07	5.92	1.25	100.00(321)	2.29	0.93
750만원 초과	25.66	34.72	32.83	6.42	0.38	100.00(265)	2.21	0.91
$x^2(df)/F$			12.23(12)			·	0.48	
지역 규모	·	·	·	·	·	·	·	·
대도시	22.58	32.39	38.58	5.78	0.67	100.00(744)	2.30^b	0.90
중소도시	25.52	32.29	36.46	5.21	0.52	100.00(192)	2.23^b	0.91
읍면	42.74	21.37	29.91	5.13	0.85	100.00(117)	2.00^a	1.01
$x^2(df)/F$			$22.58(8)^{**}$			·	5.32^{**}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부담되지 않음~5.매우 부담스러움).
** $p < .01$.

패널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효과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02점으로 패널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효과가 보통 이상으로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패널아동 중 사교육 효과에 있어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77.78%로 나타났으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0.62%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은 27.16%로 나타났다. 패널아동 성별과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패널아동 성별의 경우 여학생일수록 사교육 효과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4-33〉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효과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47	2.37	19.37	50.62	27.16	100.00(1053)	4.02	0.78
아동 성별								
남	0.38	3.04	23.00	48.29	25.29	100.00(526)	3.95	0.80
여	0.57	1.71	15.75	52.94	29.03	100.00(527)	4.08	0.75
$x^2(df)/t$	11.81(4)*						-2.75**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	1.98	25.74	48.51	23.76	100.00(101)	3.94	0.76
350 초과~550만원	0.29	1.75	20.41	52.48	25.07	100.00(343)	4.00	0.74
550 초과~750만원	-	3.74	20.87	48.91	26.48	100.00(321)	3.98	0.79
750만원 초과	1.51	1.13	12.45	52.83	32.08	100.00(265)	4.13	0.78
$x^2(df)/F$	26.56(12)**						2.43	
지역 규모								
대도시	0.40	2.28	17.74	52.96	26.61	100.00(744)	4.03	0.76
중소도시	0.52	3.65	21.35	46.88	27.60	100.00(192)	3.97	0.83
읍면	0.85	0.85	26.50	41.88	29.91	100.00(117)	3.99	0.83
$x^2(df)/F$	10.91(8)						0.48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다음은 패널아동의 보호자가 사교육 이용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우선, 1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수업 보충(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이 34.14%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이 26.38%,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23.97%,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7.16%, 취미·교양·재능개발 6.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34〉 사교육 이용 이유: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23.97	7.16	26.38	34.14	0.86	6.81	0.69	100.00(1160)
아동 성별	·	·	·	·	·	·	·	·
남	23.46	6.85	24.32	34.76	1.03	8.73	0.86	100.00(584)
여	24.48	7.47	28.47	33.51	0.69	4.86	0.52	100.00(576)
가구소득	·	·	·	·	·	·	·	·
350만원 이하	18.55	8.06	17.74	45.16	0.81	8.87	0.81	100.00(124)
350 초과~550만원	21.59	6.68	25.19	35.73	1.29	8.74	0.77	100.00(389)
550 초과~750만원	26.18	7.65	29.41	30.59	1.18	4.41	0.59	100.00(340)
750만원 초과	28.37	6.03	26.95	31.91	-	6.38	0.35	100.00(282)
지역 규모	·	·	·	·	·	·	·	·
대도시	23.76	7.52	26.18	34.06	0.73	7.27	0.48	100.00(825)
중소도시	23.44	6.70	28.71	34.45	1.91	3.35	1.44	100.00(209)
읍면	26.19	5.56	23.81	34.13	-	9.52	0.79	100.00(12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③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④ 학교수업 보충(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⑤ 자녀 감독(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⑦ 기타(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이어 보호자가 패널아동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 1순위와 2순위를 살펴보면,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비율이 59.91%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수업 보충(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이 56.29%,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가 39.14%,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는 21.81%, 취미·교양·재능개발 13.5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와 학교수업 보충(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이유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Ⅲ-4-35〉 사교육 이용 이유: 1+2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39.14	21.81	59.91	56.29	4.05	13.53	5.26	(1160)
아동 성별								
남	39.90	20.55	56.16	56.16	4.62	15.24	7.36	(584)
여	38.37	23.09	63.72	56.42	3.47	11.81	3.13	(576)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2.26	28.23	50.00	62.90	4.03	17.74	4.84	(124)
350 초과~550만원	37.79	22.37	53.21	58.61	4.63	16.71	6.68	(389)
550 초과~750만원	40.88	20.88	64.12	56.18	4.41	9.41	4.12	(340)
750만원 초과	42.91	19.15	68.09	49.65	2.48	13.12	4.61	(282)
지역 규모								
대도시	37.70	21.45	60.73	56.85	4.24	13.70	5.33	(825)
중소도시	44.50	22.97	58.85	55.02	3.83	11.48	3.35	(209)
읍면	39.68	22.22	56.35	54.76	3.17	15.87	7.94	(12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③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④ 학교수업 보충(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⑤ 자녀 감독(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⑦ 기타(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다음으로 월평균 사교육 교재로 발생한 비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한 패널가구 중 월평균 사교육 교재 구입비용으로 평균 6.0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에 있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월평균 350만원 이하 가구보다 월평균 750만원 초과 가구의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이 높았다.

〈표 Ⅲ-4-36〉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0.00	150.00	6.08	11.73	(1160)
아동 성별					
남	0.00	150.00	6.48	13.46	(584)
여	0.00	130.00	5.67	9.66	(576)
t		1.18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00	20.00	3.76^{a}	3.81	(124)
350 초과~550만원	0.00	100.00	6.07^{ab}	11.05	(389)
550 초과~750만원	0.00	130.00	5.82^{ab}	9.85	(340)
750만원 초과	0.00	150.00	7.36^{b}	15.98	(282)
F		2.82^{*}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지역 규모					
대도시	0.00	150.00	6.22	11.78	(825)
중소도시	0.00	115.00	5.38	10.94	(209)
읍면	0.00	80.00	6.31	12.69	(126)
F		0.4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 $p < .05$.

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표 Ⅲ-5-1〉 15차년도 지역 규모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역 규모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최근 이사 사유
			• 가구 규모, 6개 권역 구분
	양육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 공간·체육·문화·의료·교육·지역사회복지시설 접근의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사회 안전	• 양육환경 안전성
정책 특성	국가지원	수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기타지원	시행 및 이용	•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가. 지역사회 특성

1) 일반적 특성

패널아동 출생 이후 현재까지 패널가구가 이사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패널가구 평균 1.23회로 나타났다. 0회가 36.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회가 27.99%, 2회가 20.09% 3회가 9.2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2〉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단위: %, (명), 회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36.66	27.99	20.09	9.28	3.76	1.69	0.46	0.08	100.00(1304)	1.23	1.28

주: 보호자의 응답임.

최근 1년 동안 이사한 패널가구 중 이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대상 패널가구의 43.92%가 주거환경(주택, 교통)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타 21.16%, 교육환경 19.05%, 집값부담 7.94%, 안전환경 4.76%, 주변환경(의료, 문화) 3.17%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응답 비율의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주변환경(의료, 문화) 및 집값부담의 이유로 최근 이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5-3〉 최근 이사 사유

단위: %, (명)

구분	주거환경 (주택, 교통)	교육환경	주변환경 (의료, 문화)	안전환경	집값부담	기타	계(수)
전체	43.92	19.05	3.17	4.76	7.94	21.16	100.00(189)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44.44	-	11.11	5.56	16.67	22.22	100.00(18)
350 초과~550만원	31.75	23.81	3.17	11.11	7.94	22.22	100.00(63)
550 초과~750만원	55.74	13.11	1.64	1.64	8.20	19.67	100.00(61)
750만원 초과	47.37	26.32	-	-	2.63	23.68	100.00(38)
$x^2(df)$			27.87(15)*				
지역 규모							
대도시	44.85	19.12	2.94	2.94	8.82	21.32	100.00(136)
중소도시	43.33	23.33	3.33	3.33	6.67	20.00	100.00(30)
읍면	39.13	13.04	4.35	17.39	4.35	21.74	100.00(23)
$x^2(df)$			10.37(10)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다음은 패널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응답대상 패널가구 중 69.71%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에 17.71%, 중소도시에 12.58%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에 따른 응답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5-4〉 지역 규모

단위: %,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수)
전체	69.71	12.58	17.71	100.00(1304)
가구소득	·	·	·	·
350만원 이하	59.89	27.12	12.99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66.82	12.59	20.59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70.72	10.22	19.06	100.00(362)
750만원 초과	77.41	7.64	14.95	100.00(301)
$x^2(df)$		48.12(6)***		·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패널가구의 거주지역을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해보면, 응답한 패널가구 중 30.90%가 경인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7.71%, 대전/충청/강원권 10.74%, 광주/전라권/제주 13.73%, 서울권 12.81%, 대구/경부권 10.74%로 분류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패널가구의 소득에 따라 6개 권역 구분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서울권 및 경인권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부산/울산/경남권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5-5〉 6개 권역 구분

단위: %, (명)

구분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제주	계(수)
전체	12.81	30.90	14.11	10.74	17.71	13.73	100.00(1304)
가구소득	·	·	·	·	·	·	·
350만원 이하	9.04	20.90	15.25	15.25	24.86	14.69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8.47	29.98	14.42	11.90	20.37	14.87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12.15	32.60	15.75	11.05	14.64	13.81	100.00(362)
750만원 초과	21.26	35.55	11.30	6.64	14.62	10.63	100.00(301)
$x^2(df)$			57.85(15)***				·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다음은 패널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편리성을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교육·의료·복지시설 각각 평균 3.65점, 3.63점, 3.2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교육·의료·복지시설 접근이 편리하다고 인신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복지시설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교육·의료·복지시설 모두 읍면보다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교육·의료·복지시설 편리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5-6〉 교육·의료·복지시설 편리성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교육 시설	전체	1.84	6.83	28.53	49.77	13.04	100.00(1304)	3.65	0.86
	대도시	1.32	4.84	26.84	52.15	14.85	100.00(909)	3.74[b]	0.82
	중소도시	0.43	5.63	31.17	50.65	12.12	100.00(231)	3.68[b]	0.77
	읍면	6.71	19.51	34.15	35.37	4.27	100.00(164)	3.11[a]	0.99
	$\chi^2(df)/F$			92.64(8)***				40.49***	
의료 시설	전체	2.68	7.98	25.38	51.69	12.27	100.00(1304)	3.63	0.89
	대도시	1.54	5.39	23.87	55.78	13.42	100.00(909)	3.74[b]	0.81
	중소도시	1.73	7.36	28.14	51.08	11.69	100.00(231)	3.64[b]	0.85
	읍면	10.37	23.17	29.88	29.88	6.71	100.00(164)	2.99[a]	1.10
	$\chi^2(df)/F$			122.52(8)***				52.37***	
공공 복지 시설	전체	4.06	13.19	39.57	38.11	5.06	100.00(1304)	3.27	0.90
	대도시	2.86	11.44	38.61	41.69	5.39	100.00(909)	3.35[b]	0.86
	중소도시	2.16	12.12	45.45	34.63	5.63	100.00(231)	3.29[b]	0.83
	읍면	13.41	24.39	36.59	23.17	2.44	100.00(164)	2.77[a]	1.03
	$\chi^2(df)/F$			77.05(8)***				30.94***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5.매우 편리함).
*** $p < .001$.

이어서 패널가구 거주하는 지역의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 접근 편리성을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 각각 평균 3.85점, 3.44점, 3.26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 접근에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가 공간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모두 유사한 경향을 모였는데, 읍면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 접근 편리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5-7〉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 편리성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여가 공간 시설	전체	1.53	5.37	18.40	56.21	18.48	100.00(1304)	3.85	0.84
	대도시	0.88	4.40	15.84	60.29	18.59	100.00(909)	3.91[b]	0.77
	중소도시	0.43	4.33	22.94	47.19	25.11	100.00(231)	3.92[b]	0.83
	읍면	6.71	12.20	26.22	46.34	8.54	100.00(164)	3.38[a]	1.03
	$\chi^2(df)/F$			83.68(8)***				30.93***	
체육 시설	전체	4.06	13.42	27.38	44.94	10.20	100.00(1304)	3.44	0.98
	대도시	2.42	11.55	27.50	48.07	10.45	100.00(909)	3.53[b]	0.91
	중소도시	3.46	16.02	28.14	41.56	10.82	100.00(231)	3.40[b]	0.99
	읍면	14.02	20.12	25.61	32.32	7.93	100.00(164)	3.00[a]	1.19
	$\chi^2(df)/F$			64.90(8)***				20.74***	
문화 시설	전체	5.37	17.10	30.67	40.18	6.67	100.00(1304)	3.26	0.99
	대도시	3.41	15.07	29.92	44.33	7.26	100.00(909)	3.37[b]	0.94
	중소도시	4.76	16.02	35.06	37.66	6.49	100.00(231)	3.25[b]	0.96
	읍면	17.07	29.88	28.66	20.73	3.66	100.00(164)	2.64[a]	1.10
	$\chi^2(df)/F$			90.77(8)***				39.5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5.매우 편리함).
*** $p < .001$.

다음은 패널가구의 거주지역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를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의료·복지시설 각각 평균 3.55점, 3.56점, 3.27점으로 모두 보통 이상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시설의 경우 지역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의료시설의 경우 읍면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Ⅲ-5-8〉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복지시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5	0.85	3.56	0.86	3.27	0.85	(1304)
지역 규모							
대도시	3.62[a]	0.80	3.67[b]	0.79	3.33	0.82	(909)
중소도시	3.57[a]	0.78	3.51[ab]	0.79	3.28	0.77	(231)
읍면	3.10[a]	1.05	3.01[a]	1.12	2.89	1.02	(164)
F	3.15*		8.31***		1.94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이어서 패널가구의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 이용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 각각 평균 3.74점, 3.45점, 3.35점으로 보통 이상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9〉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여가 공간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4	0.79	3.45	0.91	3.35	0.94	(1304)
지역 규모							
대도시	3.81[a]	0.72	3.51	0.87	3.44	0.91	(909)
중소도시	3.76[a]	0.79	3.44	0.78	3.29	0.83	(231)
읍면	3.34[a]	1.01	3.07	1.19	2.85	1.14	(164)
F	3.43*		0.50		0.8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패널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양육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양육환경 안정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객 및 싸움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평균 4.13점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 평균 3.96점, 범죄로부터 안전 평균 3.78점, 시설 설치로부터의 안전 평균 3.70점, 안전시설 설비로부터 안전 3.67점, 정기 순찰 3.60점, 협조 분위기 3.35점, 행동 바로 잡아주기 3.06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에 있어 정기순찰에서 지역 규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인식하는 정기순찰 안정성 정도가 높았다.

〈표 Ⅲ-5-10〉 양육환경 안전성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취객, 싸움 없음	전체	33.67	50.08	11.89	2.61	1.30	0.46	100.00(1304)	4.13	0.82
	지역 규모									
	대도시	32.56	50.72	12.65	2.42	1.32	0.33	100.00(909)	4.11	0.81
	중소도시	31.60	54.11	9.96	2.60	0.87	0.87	100.00(231)	4.14	0.77
	읍면	42.68	40.85	10.37	3.66	1.83	0.61	100.00(164)	4.20	0.90
	$x^2(df)/F$	12.43(10)							0.36	
범죄로부터 안전	전체	3.76	6.60	19.10	48.47	21.93	0.15	100.00(1304)	3.78	0.98
	지역 규모									
	대도시	3.52	7.26	18.59	48.62	21.89	0.11	100.00(909)	3.78	0.98
	중소도시	2.60	5.19	17.75	53.25	20.78	0.43	100.00(231)	3.85	0.90
	읍면	6.71	4.88	23.78	40.85	23.78	-	100.00(164)	3.70	1.09
	$x^2(df)/F$	14.01(10)							1.38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	전체	3.30	5.98	15.26	42.41	33.05	-	100.00(1304)	3.96	1.01
	지역 규모									
	대도시	2.97	6.38	16.61	43.34	30.69	-	100.00(909)	3.92	1.00
	중소도시	2.16	4.33	11.69	45.89	35.93	-	100.00(231)	4.09	0.92
	읍면	6.71	6.10	12.80	32.32	42.07	-	100.00(164)	3.97	1.18
	$x^2(df)/F$	22.88(8)**							2.53	
정기순찰	전체	2.07	7.29	31.75	41.56	13.73	3.60	100.00(1304)	3.60	0.90
	지역 규모									
	대도시	1.65	6.16	29.81	45.21	12.98	4.18	100.00(909)	3.64[b]	0.86
	중소도시	2.16	6.93	36.80	38.53	12.55	3.03	100.00(231)	3.54[ab]	0.89
	읍면	4.27	14.02	35.37	25.61	19.51	1.22	100.00(164)	3.43[a]	1.09
	$x^2(df)/F$	41.76(10)***							6.06**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편차
협조 분위기	전체	2.07	10.43	43.87	33.21	7.75	2.68	100.00(1304)	3.35	0.85
	지역 규모									
	대도시	2.20	10.45	44.77	33.11	6.49	2.97	100.00(909)	3.32	0.84
	중소도시	2.16	10.82	41.56	35.50	7.36	2.60	100.00(231)	3.36	0.86
	읍면	1.22	9.76	42.07	30.49	15.24	1.22	100.00(164)	3.49	0.91
	$x^2(df)/F$			17.46(10)					0.22	
행동 바로 잡아주기	전체	3.37	19.56	45.25	22.39	4.98	4.45	100.00(1304)	3.06	0.89
	지역 규모									
	대도시	3.19	19.47	45.87	21.67	4.51	5.28	100.00(909)	3.05	0.87
	중소도시	3.90	22.51	44.16	22.08	3.46	3.90	100.00(231)	2.99	0.88
	읍면	3.66	15.85	43.29	26.83	9.76	0.61	100.00(164)	3.23	0.96
	$x^2(df)/F$			20.42(10)*					1.00	
시설물 설치	전체	1.15	4.91	30.90	47.39	14.19	1.46	100.00(1304)	3.70	0.82
	지역 규모									
	대도시	1.21	3.96	30.47	49.39	13.42	1.54	100.00(909)	3.71^{ab}	0.80
	중소도시	0.87	5.19	30.74	43.72	17.32	2.16	100.00(231)	3.73^{b}	0.84
	읍면	1.22	9.76	33.54	41.46	14.02	-	100.00(164)	3.57^{a}	0.89
	$x^2(df)/F$			18.02(10)					3.78^{*}	
안전설비 구비	전체	1.23	5.44	31.60	46.78	13.57	1.38	100.00(1304)	3.67	0.83
	지역 규모									
	대도시	1.21	4.95	31.68	46.64	13.53	1.98	100.00(909)	3.68^{a}	0.82
	중소도시	1.30	4.76	30.74	48.05	15.15	-	100.00(231)	3.71^{a}	0.83
	읍면	1.22	9.15	32.32	45.73	11.59	-	100.00(164)	3.57^{a}	0.86
	$x^2(df)/F$			13.67(10)					3.02^{*}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평균값은 잘모름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취객, 싸움 없음(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함.
4)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음~5.매우 그러함).
5)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나. 정책 특성

1) 국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패널가구 수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한 전체 패널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97.56%였으며, 차상위계층 1.8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55%로 조사되었다.

〈표 Ⅲ-5-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단위: %,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계(수)
전체	0.55	1.89	97.56	100.00(1272)

주: 보호자의 응답임.

다음은 지난 1년간 생활비 지원 여부와 지원에 따른 지원처를 알아본 결과이다. 전체 응답 패널가구 중 9.03%가 생활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으며, 90.97%가 지원받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생활비를 지원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패널가구의 지원처를 살펴본 결과, 정보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4%였으며, 친척, 친지 등 이웃 40.17%, 회사 28.21%, 복지관/종교단체 9.40%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지원 여부를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에 따라 응답 비율의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5-12〉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수)	정부 보조금	친척, 친지 등 이웃	복지관/ 종교단체	회사	(수)
전체	9.03	90.97	(1296)	44.44	40.17	9.40	28.21	(117)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8.86	81.14	(175)	75.76	24.24	15.15	9.09	(33)
350 초과~550만원	8.49	91.51	(436)	45.95	45.95	5.41	21.62	(37)
550 초과~750만원	5.57	94.43	(359)	15.00	50.00	5.00	45.00	(20)
750만원 초과	7.69	92.31	(299)	21.74	34.78	8.70	52.17	(23)
$x^2(df)$	26.92(3)***							
지역 규모								
대도시	9.87	90.13	(902)	40.45	43.82	10.11	30.34	(89)
중소도시	5.65	94.35	(230)	46.15	23.08	7.69	30.77	(13)
읍면	9.15	90.85	(164)	66.67	33.33	6.67	13.33	(15)
$x^2(df)$	3.97(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2) 학교정책

보호자가 생각하는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차 조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각종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을 고려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변인을 추가하여 총 10개의 학교정책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4.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급여 지원 확대 4.03점, 코로나19 대응 3.96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3.85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3.75점 등의 순으로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13〉 교육정책별 추진 동의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2.61	10.35	32.52	43.63	10.89	100.00(1304)	3.50	0.91
자유학년제 운영	7.75	20.09	30.06	32.29	9.82	100.00(1304)	3.16	1.10
고등학교 무상교육	0.15	0.84	5.98	45.78	47.24	100.00(1304)	4.39	0.65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4.22	13.04	28.14	39.49	15.11	100.00(1304)	3.48	1.03
고교학점제	5.44	13.80	38.27	34.28	8.21	100.00(1304)	3.26	0.98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1.46	2.91	24.16	52.38	19.10	100.00(1304)	3.85	0.8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23	3.83	29.52	49.62	15.80	100.00(1304)	3.75	0.81
교육 급여 지원 확대	0.69	2.53	17.33	51.76	27.68	100.00(1304)	4.03	0.78
코로나19 대응	0.54	1.92	22.09	52.15	23.31	100.00(1304)	3.96	0.7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정책에 대한 추진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동의함’에 응답한 패널가구가 43.63%였으며, ‘보통’ 32.52%, ‘매우 동의함’ 10.89%, ‘동의하지 않음’ 10.35%, ‘전혀 동의하지 않음’ 2.61%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별 집단 간 응답 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5-14〉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2.61	10.35	32.52	43.63	10.89	100.00(130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0.56	10.17	35.03	44.07	10.17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2.97	12.13	33.87	40.05	10.98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3.31	9.12	34.53	42.54	10.50	100.00(362)
750만원 초과	2.66	9.30	24.58	51.50	11.96	100.00(301)
$x^2(df)$			18.75(12)			
지역 규모						
대도시	2.97	10.89	33.44	42.68	10.01	100.00(909)
중소도시	1.73	8.23	34.20	45.89	9.96	100.00(231)
읍면	1.83	10.37	25.00	45.73	17.07	100.00(164)
$x^2(df)$			13.28(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동의함’이 32.29%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30.06%, ‘동의하지 않음’ 20.09%, ‘매우 동의함’ 9.82%, ‘전혀 동의하지 않음’ 7.7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자유학년제 운영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 규모의 경우 지역 규모가 클수록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Ⅲ-5-15〉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자유학년제 운영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7.75	20.09	30.06	32.29	9.82	100.00(130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39	16.95	34.46	32.20	12.99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7.32	20.14	28.15	35.93	8.47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8.84	24.03	31.49	25.14	10.50	100.00(362)
750만원 초과	10.30	17.28	27.24	35.55	9.63	100.00(301)
$x^2(df)$			26.16(12)*			
지역 규모						
대도시	8.80	23.10	28.49	31.02	8.58	100.00(909)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중소도시	5.63	15.58	37.66	34.63	6.49	100.00(231)
읍면	4.88	9.76	28.05	35.98	21.34	100.00(164)
$\chi^2(df)$			52.68(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 $p < .05$, *** $p < .001$.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매우 동의함'이 47.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동의함'이 45.78, '보통' 5.98%, '동의하지 않음' 0.84, '전혀 동의하지 않음' 0.1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별 집단 간 응답 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5-16〉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0.15	0.84	5.98	45.78	47.24	100.00(130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	-	6.21	46.89	46.89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	0.23	6.18	43.48	50.11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0.55	1.10	5.80	45.03	47.51	100.00(362)
750만원 초과	-	1.99	4.32	48.50	45.18	100.00(301)
$\chi^2(df)$			16.65(12)			
지역 규모						
대도시	0.22	0.88	6.71	45.54	46.64	100.00(909)
중소도시	-	1.30	3.90	50.65	44.16	100.00(231)
읍면	-	-	4.88	40.24	54.88	100.00(164)
$\chi^2(df)$			10.52(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동의함'이 39.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보통' 28.14%, '매우 동의함' 15.11%, '동의하지 않음' 13.04%, '전혀 동의하지 않음' 4.2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 간 응답 비율의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음' 비율이 높았으

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통'과 '매우 동의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의 경우 지역 규모가 클수록 '동의하지 않음'과 '보통'의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매우 동의함'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5-17〉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4.22	13.04	28.14	39.49	15.11	100.00(130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1.69	10.17	32.77	38.42	16.95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2.75	11.67	27.46	41.65	16.48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4.14	13.26	27.35	40.88	14.36	100.00(362)
750만원 초과	7.97	16.28	26.25	35.55	13.95	100.00(301)
$\chi^2(df)$			24.20(12)*			
지역 규모						
대도시	4.62	14.96	28.82	38.39	13.20	100.00(909)
중소도시	4.76	9.96	28.57	43.29	13.42	100.00(231)
읍면	1.22	6.71	23.78	40.24	28.05	100.00(164)
$\chi^2(df)$			36.53(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 $p < .05$, *** $p < .001$.

고교학점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에 응답한 비율이 38.27%로 가장 높았으며, '동의함' 34.28%, '동의하지 않음' 13.80%, '매우 동의함' 8.21%, '전혀 동의하지 않음' 5.4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 간 응답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지역 규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 규모가 클수록 '전혀 동의하지 않음' 및 '동의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동의함' 및 '매우 동의함'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5-18〉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교학점제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5.44	13.80	38.27	34.28	8.21	100.00(130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82	9.60	41.24	35.59	10.73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4.12	11.90	42.33	33.41	8.24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6.91	16.30	35.08	33.70	8.01	100.00(362)
750만원 초과	6.98	16.94	32.89	35.55	7.64	100.00(301)
$\chi^2(df)$			20.78(12)			
지역 규모						
대도시	6.49	15.62	38.94	32.78	6.16	100.00(909)
중소도시	3.46	12.12	40.26	36.36	7.79	100.00(231)
읍면	2.44	6.10	31.71	39.63	20.12	100.00(164)
$\chi^2(df)$			53.43(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 $p < .00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한 패널가구 중 52.38%가 '동의함'에 응답하였으며, '보통' 24.16%, '매우 동의함' 19.10%, '동의하지 않음' 2.91%, '전혀 동의하지 않음' 1.46%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특히 가구소득에서 집단 간 응답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매우 동의함'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5-19〉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1.46	2.91	24.16	52.38	19.10	100.00(130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26	-	23.16	51.41	23.16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0.69	2.06	24.71	52.17	20.37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0.83	3.87	25.97	50.83	18.51	100.00(362)
750만원 초과	2.66	4.98	22.26	52.82	17.28	100.00(301)
$\chi^2(df)$			21.80(12)*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1.43	3.41	24.97	51.93	18.26	100.00(909)
중소도시	1.73	2.60	25.54	52.38	17.75	100.00(231)
읍면	1.22	0.61	17.68	54.88	25.61	100.00(164)
$x^2(df)$			11.73(8)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 $p < .05$.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동의함'에 응답한 비율이 49.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29.52%, '매우 동의함' 15.80%, '동의하지 않음' 3.83%, '전혀 동의하지 않음' 1.2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고소득 및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특히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 규모가 클수록 '동의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매우 동의함'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5-20〉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1.23	3.83	29.52	49.62	15.80	100.00(1304)
가구소득	·	·	·	·	·	·
350만원 이하	-	3.95	33.90	48.02	14.12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0.46	4.35	26.09	52.40	16.70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1.93	2.76	29.56	51.38	14.36	100.00(362)
750만원 초과	1.99	4.32	30.56	45.18	17.94	100.00(301)
$x^2(df)$			16.07(12)			·
지역 규모	·	·	·	·	·	·
대도시	1.54	4.40	31.35	48.07	14.63	100.00(909)
중소도시	0.87	3.03	27.27	54.98	13.85	100.00(231)
읍면	-	1.83	22.56	50.61	25.00	100.00(164)
$x^2(df)$			21.91(8)**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 $p < .01$.

교육 급여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한 패널가구 중 51.76%가 ‘동의함’에 응답하였으며, ‘매우 동의함’ 27.68%, ‘보통’ 17.33%, ‘동의하지 않음’ 2.53%, ‘전혀 동의하지 않음’ 0.6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 규모별 응답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 규모가 클수록 ‘동의하지 않음’ 및 ‘보통’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5-21〉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교육 급여 지원 확대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0.69	2.53	17.33	51.76	27.68	100.00(130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	1.13	18.08	48.02	32.77	100.00(177)
350 초과~550만원	0.23	2.75	17.85	49.89	29.29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0.83	2.76	16.85	53.04	26.52	100.00(362)
750만원 초과	1.66	2.99	14.62	55.81	24.92	100.00(301)
$\chi^2(df)$			14.51(12)			
지역 규모						
대도시	0.77	3.08	18.04	51.82	26.29	100.00(909)
중소도시	0.87	2.16	17.32	55.84	23.81	100.00(231)
읍면	-	-	13.41	45.73	40.85	100.00(164)
$\chi^2(df)$			22.45(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 $p < .01$.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동의함’이 5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동의함’ 23.31%, ‘보통’ 22.09%, ‘동의하지 않음’ 1.92%, ‘전혀 동의하지 않음’ 0.5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별 집단 간 응답 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Ⅲ-5-22〉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코로나19 대응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0.54	1.92	22.09	52.15	23.31	100.00(1304)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	0.56	22.03	53.67	23.73	100.00(177)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350 초과~550만원	0.46	1.60	21.28	52.63	24.03	100.00(437)
550 초과~750만원	0.28	3.04	21.82	53.04	21.82	100.00(362)
750만원 초과	1.00	1.66	22.59	50.50	24.25	100.00(301)
$\chi^2(df)$			8.37(12)			
지역 규모						
대도시	0.55	2.09	22.00	53.14	22.22	100.00(909)
중소도시	0.43	1.73	26.41	50.22	21.21	100.00(231)
읍면	0.61	1.22	16.46	49.39	32.32	100.00(164)
$\chi^2(df)$			12.15(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Ⅲ

6. 가중치 산출 및 적용

가. 가중치 부여방법

패널조사의 주요 목적은 시점별 모집단 현황 파악과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를 위한 횡·종단면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아동패널과 같이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구축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의 경우, 표본설계와 조사차수별 응답실태를 반영하여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과정을 통해 적절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특정 조사차수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망, 이민, 강력거절 등의 사유로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표본 마모(Sample attrition)가 발생하여 표본 구성에서 조사차수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모집단인 2008년 전국 출생아의 수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 보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표본설계 시 의료기관과 신생아 가구 추출에 따른 추출확률을 결합하여 계산한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표본 마모 등의 무응답 발생에 따른 모수 추정의 편향을 보정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계수와 사후층화변수에 대한 보정승수를 종합한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를 개발하여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9].

한국아동패널 산출된 가중치는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전체의 분포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평균(또는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10]을 사용한다.

$$\bar{y} = \frac{\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y_{hij}}{\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 \frac{\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y_{hij}}{w_{...}}$$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_{...} = \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타당한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가중치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5차년도 조사가 완료된 1,304가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1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1~15차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928가구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반드시 함께 제공된 1~1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나. 15차년도 가중치 보정

가중치 보정을 위해 패널가구의 응답패턴을 분석하고,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패널조사의 가중치 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패널가구의 응답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조사누락으로 인한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하여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특성상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15차년도 패널가구의 응답 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횡·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9) 15차년도 횡·종단면 가중치는 한국갤럽 상근 자문위원인 이계오 박사에 의해 산출됨.
10) h는 지역층, i는 층내 의료기관, j는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임.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15차년도 조사 참여 분포는 〈표 Ⅲ-6-1〉과 같다. 우선 원패널[11] 가구 중에서 15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가구는 928가구로 원패널 기준 표본 유지율은 44.7%로 전년대비 1.8%p 하락하였다. 2~3차 조사에 신규 추가된 가구를 포함한 전체패널[12] 기준 대비 표본 유지율은 43.2%였다. 15차년도 조사에서 단조 결측패턴[13]에 해당하지 않는 무응답가구를 포함한 전체 패널 대비 응답률은 60.1%로, 14차년도 응답률인 62.7%에 비해 2.6%p 낮아졌다.

한국아동패널의 무응답의 일부는 단조 결측패턴을 보이지 않았기에 횡·종단면 가중치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의 1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2022년 조사에 참여한 1,304가구, 종단면 가중치는 2008년부터 2022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928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Ⅲ-6-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참여 여부															(수)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원패널	전체 조사 성공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28)	43.2
	15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39)	1.8
	14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38)	1.8
	13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O	O	O	X	X	X	(20)	0.9
	12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22)	1.0
	11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23)	1.1
	10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X	X	X	X	X	X	(40)	1.9
	9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28)	1.3
	8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22)	1.0
	7차년도 탈락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23)	1.1
	6차년도 탈락	O	O	O	O	O	X	X	X	X	X	X	X	X	X	X	(44)	2.1
	5차년도 탈락	O	O	O	O	X	X	X	X	X	X	X	X	X	X	X	(37)	1.7
	4차년도 탈락	O	O	O	X	X	X	X	X	X	X	X	X	X	X	X	(36)	1.7
	3차년도 탈락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75)	3.5
	2차년도 탈락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89)	4.1
2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9)	0.9

11) 원패널: 한국아동패널 1차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의미함.

12) 전체패널: 한국아동패널는 예비 표본의 합류를 3차년도까지 허용하여, 1차년도(2008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2차년도(52가구), 3차년도(20가구)에 신규로 참여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총 2,150가구를 전체패널로 정의함.

13) 단조 결측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이란 패널참여 시점부터 꾸준히 조사에 참여하다가 특정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함.

구분	참여 여부															(수)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3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O	O	O	O	O	O	O	O	O	O	O	O	O	(8)	0.4
기타; 15차년도 성공	※	※	※	※	※	※	※	※	※	※	※	※	※	※	O	(349)	16.2
기타; 15차년도 탈락	※	※	※	※	※	※	※	※	※	※	※	※	※	※	X	(310)	14.4
전체																(2150)	100.0

주: 1) 15차년도 조사 성공 사례수는 1,304가구임.
2) '○'는 해당 차수에 참여, 'X'는 해당 차수에 비참여, '-'는 해당 차수에는 표본에 속하지 않았음을, '※'는 단조 결측패턴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

가중치 산출은 무응답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보정하는 승수와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변수에 대한 보완 가중치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첫째, 가중치 산출을 위하여 우선, 무응답에 따른 편향 감소 및 가중치 산출 방안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불참 패널에 대한 무응답 보정을 실시하였다. 무응답 보정은 기존 가중치 산출에 적용했던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조사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 가구별로 가장 최근에 조사된 거주지(권역), 어머니 취·학업 여부, 아동의 출생순위를 설명 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응답확률을 계산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는 〈표 Ⅲ-6-2〉와 같다.

종단면 데이터의 무응답패턴에서 3개 설명변수 중에서 아동 출생순위와 어머니 취·학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거주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단면데이터의 무응답패턴에서는 3개 설명변수(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취·학업 여부와 거주지역)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중치 보정 과정에는 패널가구의 거주권역,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등을 사용하여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였다. 거주권역 6개 범주(서울, 경인, 대전·충청·강원·세종,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출생순위 2개 범주(첫째, 둘째 이상), 어머니의 취·학업 2개 범주(취·학업, 미취·학업)을 기준으로 총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 가중 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승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 내의 응답가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Ⅲ-6-2〉 15차년도 횡·종단면 자료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구분	15차년도 횡단면 자료			1~15차년도 종단면 자료		
	df	Wald-x^2	p-value	df	Wald-x^2	p-value
출생순서	1	0.2283	0.6328	1	0.0411	0.8393
모 취업 여부	1	1.4188	0.2336	1	0.6997	0.4029
지역(권역)	5	27.0634	〈0.001	5	5.4801	0.3601

둘째,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고, 패널 마모에 따른 모수추정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7개 시·도별[14] 14세 남·여 아동(주민등록인구 기준)수와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 가중치의 합이 일치하도록 벤치마킹하는 사후 층화 보정[15]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가중치 중에서 이상치(Outlier)는 절사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가중치의 분포관련 기술통계량은 〈표 Ⅲ-6-3〉과 같다.

〈표 Ⅲ-6-3〉 15차년도 최종 횡·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15차 횡단면 가중치	359.62	296.12	203.08	1304	41.57	1,017.41
1~15차 종단면 가중치	505.32	421.50	308.01	928	56.35	1,455.24

14) 세종시는 충청남도, 제주도는 전라남도로 병합하여 계산함.

15) 사후층화 과정에서 가중치의 사분위수와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를 기준으로 Q_3+3IQR을 넘는 수치를 극단(Outlier)로 간주하고 절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값이 포함된 계급 내의 다른 가중치들을 절사된 만큼 부풀리는 방식을 적용해 극단적으로 크게 산출된 가중치를 조정함.

Ⅳ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01 자료 활용 현황
02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0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변수정리 작업

Ⅳ.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1. 자료 활용 현황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공개 이후 그동안 한국아동패널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데이터 활용 논문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간된 논문 현황과 발간 형태, 종단 및 횡단연구 여부에 따라 논문수를 확인하였으며, 각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차수와 분석 변인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2018년 한국아동패널은 공공데이터 선정 이후 기존의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했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함께 제공하게 되면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통해 발간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다운받을 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로 발간된 논문을 패널연구진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3년 3월 15일 기준 '한국아동패널', '아동패널', 'PSKC'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발간된 논문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표 Ⅳ-1-1〉 참조), 2023년 3월 15일 기준 지금까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표된 연구보고서, 세미나, 논문은 총 1,228편이며, 그중 학술논문이 857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연도인 2022년에는 학술논문으로 146편, 학위논문 6편이 발간되었으며, 학술대회에서는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Ⅳ-1-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수

단위: 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전체	39	53	40	52	77	87	131	83	93	69	172	157	175	1228
연구보고서	3	3	2	1	2	2	2	1	-	-	-	-	-	16
세미나 등	-	2	2	1	1	1	-	1	-	-	-	-	-	8
학위논문	-	2	2	5	8	9	12	4	1	16	18	19	6	102
학술대회	36	29	9	18	22	3	12	18	16	11	29	19	23	245
학술논문	-	17	25	27	44	72	105	59	76	42	125	119	146	857

주: 1) 데이터 활용사실을 보고하거나 포털에서 검색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일부 누락된 논문이 있을 수 있음.
2) 2023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재보완하였으므로, 이전 연구보고서의 논문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차년도 데이터 공개 이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간된 학술논문은 총 857편으로 그 중 횡단연구는 523편, 종단연구는 334편이었다(〈표 Ⅳ-1-2〉 참조). 2022년도에 발간된 146편의 논문 중에서는 횡단연구가 75편, 종단연구가 71편이었다. 데이터가 쌓이고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활용이 급증하였다. 전반적으로 횡단연구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매년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종단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종단연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Ⅳ-1-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논문수: 2011-2022년

단위: 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전체	17	25	27	44	72	105	59	76	42	125	119	146	857
횡단연구	17	24	23	36	48	61	40	44	17	69	69	75	523
종단연구	0	1	4	8	24	44	19	32	25	56	50	71	334

주: 1) 원문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발간 논문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각 연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다음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논문의 데이터 차수 현황을 살펴보면(〈표 Ⅳ-1-3〉 참조), 지금까지 261회 활용된 7차 데이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5차 199회, 8차 180회 순으로 활용 빈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최근 3년간의 종단연구 활용 빈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진학 직전인 6차부터 초등학

교 4학년인 11차년도의 자료가 높은 활용 빈도를 보이며, 횡단연구의 경우 최근의 공개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3〉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차수: 2011-2022년

단위: 회, 편

년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논문수
2011	횡단	16	1	-	-	-	-	-	-	-	-	-	-	17
2012	횡단	17	7	-	-	-	-	-	-	-	-	-	-	24
	종단	1	1	-	-	-	-	-	-	-	-	-	-	1
2013	횡단	3	9	11	-	-	-	-	-	-	-	-	-	23
	종단	4	4	3	-	-	-	-	-	-	-	-	-	4
2014	횡단	2	6	9	19	-	-	-	-	-	-	-	-	36
	종단	7	8	6	3	-	-	-	-	-	-	-	-	8
2015	횡단	1	3	7	15	22	-	-	-	-	-	-	-	48
	종단	12	17	21	17	9	-	-	-	-	-	-	-	24
2016	횡단	-	2	1	6	29	22	1	-	-	-	-	-	61
	종단	24	27	31	31	22	10	-	-	-	-	-	-	44
2017	횡단	-	-	2	-	7	14	16	1	-	-	-	-	40
	종단	9	8	10	12	16	14	9	-	-	-	-	-	19
2018	횡단	-	-	1	1	2	4	23	13	-	-	-	-	44
	종단	11	11	9	9	16	19	21	13	-	-	-	-	32
2019	횡단	-	-	-	-	1	-	10	3	1	2	-	-	17
	종단	5	2	4	3	11	15	20	16	4	2	-	-	25
2020	횡단	-	-	1	1	4	1	27	19	2	15	-	-	69
	종단	9	10	11	14	23	21	31	36	20	19	1	-	56
2021	횡단	-	1	-	-	2	1	22	8	4	12	19	-	69
	종단	7	6	6	9	17	22	32	33	19	21	9	-	50
2022	횡단	1	-	1	1	2	-	16	6	2	7	25	17	75
	종단	7	7	9	11	16	22	33	32	30	31	24	11	71
합계		136	130	143	152	199	165	261	180	82	109	78	28	-

주: 1) 원문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발간 논문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각 년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종단연구의 경우 중복 기입

다음으로 2021년과 2022년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2021년 발간된 학술논문에서 활용된 분석 변수들을 살펴보면(〈표 Ⅳ-1-4〉 참조), 아동 특성 변수가 309회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특히 아동 특성은 대부분 논문의 종속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부모 특성은 180회, 영유아기 돌봄/교육 특성 16회, 학교/사교육 특성 20회, 지역사회 특성 7회 순으로 활용되었다.

다음 2022년 발간된 학술논문에서 활용된 분석 변수들을 살펴보면(〈표 Ⅳ-1-4〉 참조), 아동 특성 변수가 408회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 대부분 세부 특성 변수들의 활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전년도에는 사회성 발달 특성 변인을 많이 활용하였지만, 2022년에는 인지·언어·학습 특성 변인과 자아·정서 발달 특성 변인을 많이 활용하였다. 부모 특성은 258회, 가구 특성 77회, 영유아기 돌봄/교육 특성 19회, 학교/사교육 특성 14회, 지역사회 특성은 6회 순으로 활용되었다.

〈표 Ⅳ-1-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21, 2022년 발간 논문 기준

단위: 회

구분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인구학적 특성[1]	일상생활[2]	신체건강[3]	인지언어학습[4]	자아정서발달[5]	사회성발달[6]	인구학적 특성[7]	신체건강[8]	심리특성[9]	부부특성[10]	양육특성[11]	직업특성[12]
2022	전체	53	42	9	103	120	81	65	4	42	20	109	18
	종속변수	-	18	3	43	41	35	1	-	5	-	17	-
	독립변수	53	24	6	60	79	46	64	4	37	20	92	18
2021	전체	24	28	4	80	66	107	24	2	37	9	86	22
	종속변수	-	7	2	30	15	53	-	1	5	1	5	1
	독립변수	24	21	2	50	51	55	24	1	32	8	81	21

구분		가구 특성			(영유아기) 돌봄/교육 특성		(학령기) 학교/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특성	
		인구학적 특성[13]	물리적/경제적 특성[14]	가정환경[15]	보육교육기관[16]	기타[17]	돌봄서비스[18]	학교특성[19]	일반적 특성[20]	양육환경[21]
2022	전체	5	41	31	13	6	2	12	3	3
	종속변수	-	-	-	1	-	1	3	-	-
	독립변수	5	41	31	12	6	1	9	3	3
2021	전체	5	22	15	13	3	4	16	4	3
	종속변수	-	-	2	1	1	2	1	-	-
	독립변수	5	22	13	12	2	2	15	4	3

주1: 독립변수에는 통제변수 등이 포함됨.
주2: 각 영역별 해당 변수는 다음과 같음.
1)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출생순위
2) 일상생활: 수면시간, 놀이시간/영역 식습관, 미디어 이용시간, 미디어 중독 등
3) 신체건강: 건강상태, 체질량지수 등
4) 인지언어학습: 언어 발달(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의사소통, 집행기능곤란, 다요인지능, 학습준비도, 학습태도, 학업능력, 학습스트레스 등
5) 자아정서 발달: 기질,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그릿, 행복감 등
6) 사회성 발달: 또래와의 상호작용, 문제행동, 사회적 유능감, 학교적응 등
7) 인구학적 특성: 학력, 연령
8) 신체건강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9) 심리적 특성: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일-가정(육아)양립 등

10) 부부 특성: 부부 갈등, 결혼 만족도
11) 양육 특성: 양육행동, 부모-자녀상호작용, 양육 스트레스, 성취압력, 사회적 지지 등
12) 직업 특성: 취업 여부, 취업 특성 등
13) 인구학적 특성: 가구형태, 자녀수
14) 물리적/경제적 특성: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 용돈 등
15) 가정환경 특성: 가족상호작용, 가족기능, 가정환경 등
16) 보육교육기관: 교사-유아상호작용, 교사효능감, 교실환경 등
17) 기타: 영아기 보육(양육) 유형, 기관 외 특별활동 등
18) 돌봄서비스: 방과후 이용 서비스 등
19) 학교 특성: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사-아동관계, 교사 특성, 창의적 학교환경 등
20)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지역 규모)
21) 양육환경 특성: 지역사회 안전성, 시설접근성, 기관이용 만족도

2.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가. 학술대회 일정 및 개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와 한국아동 성장·발달에 대한 국내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9월 8월(금)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진행하였으며,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열린부모교육학회, 한국인간발달학회 총 10개의 관련 학회와 협력하여 주최하였다.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주요 일정은 〈표 Ⅳ-2-1〉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 Ⅳ-2-1〉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내용	일정
연구계획서 공모 시작	2023. 4. 3.(월)
연구계획서 공모 마감	2023. 5. 4.(목)
연구계획서 공모 심사결과 발표	2023. 5. 10.(수)
최종 원고 마감	2023. 7. 21.(금)
최종 원고 심사결과 발표	2023. 8. 9.(수)
학술대회 개최	2023. 9. 8.(금)

연구계획서 공모는 마감일 기준으로 39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일반부분 16개, 학생부분 23개의 논문이 공무 심사결과를 통과하였다.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중

단연구 계획서는 총 31편으로 일반부분 12편, 학생부분 19편으로 나타났다. 횡단연구는 총 8편으로 일반부분 4편, 학생부분 4편으로 종단연구 계획서가 공모된 전체 연구계획서 중 약 79%를 차지하였다. 최종원고 마감일인 7월 21일까지 제출된 총 25편(일반부분 13편, 학생부분 12편)을 대상으로 외부 심사자와 아동패널 연구진의 심사를 거쳐 16편의 논문을 최종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으로 선정하였으며, 학생부분의 논문은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상 2개팀, 장려상 1개팀을 선정하여 수상하였다.

나. 학술대회 개최 내용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현장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개최 공지와 함께 참석 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 8월17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3주간 사전접수를 받았다. 사전신청 인원은 142명 중 행사 당일 현장접수를 포함하여 총 140명의 인원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2023년 9월 8일(금)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10개의 관련 학회의 협력을 통해 개최되었으며, 논문 발표는 중회의실 1개와 소회의실 3개로 장소를 나눠 세션별로 좌장의 진행하에 발표자와 토론자가 각각 발표와 토론을 이뤄졌으며, 각 세션별로 참석자들이 참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술대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표 Ⅳ-2-2〉와 같다.

〈표 Ⅳ-2-2〉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일정

시간	프로그램
1부. 개회식 및 논문발표 I	
10:00 ~ 10:30	등록
10:30 ~ 10:40	개회사 및 축사
10:40 ~ 10:50	대학원생 논문시상
10:50 ~ 11:00	한국아동패널 소개
11:00 ~ 11:10	휴식
11:10 ~ 12:10	세션 1: 성장발달 I - 집행기능
	세션 2: 미디어 I - 미디어 기기 중독
	세션 3: 부모 I - 자녀양육
	세션 4: 학교생활 및 적응 I - 교사

시간	프로그램
2부. 통계 워크숍 및 논문발표Ⅱ	
13:10 ~ 14:40	통계워크숍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자료의 분석’
14:40 ~ 14:50	휴식
14:50 – 15:50	세션 5: 성장발달Ⅱ – 장애, 보건
	세션 6: 미디어Ⅱ – 사이버 비행인식/괴롭힘
	세션 7: 부모Ⅱ – 일가정 양립
	세션 8: 학교생활Ⅱ – 전환기
15:50 – 16:00	폐회

[그림 Ⅳ-2-1] 제14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논문공모 및 개최 포스터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세부내용으로 1부 개회식 및 논문발표 Ⅰ에서는 소장님의 개회사와 협력학회의 서면축사와 한국아동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인간발달학회 회장님의 현장축사,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 올해의 연구 책임자의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논문발표 Ⅰ을 진행하였다. 논문발표 Ⅰ은 집행기능, 미디어 기기 중독, 자녀양육, 교사의 4개의 주제로 세션별로 나누어 총 8편의 아동패널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점심식사 이후 진행 된 2부 및 논문발표 Ⅱ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자료 분석’이라는 주제로 통계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잠재성장모형의 통계연구방법

은 그동안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논문에서 많이 사용된 양적연구방법으로서 많은 한국아동패널 유저들의 관심과 필요도에 따라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원리와 이론적 설명과 함께 분석 시 유의사항과 해결방안, 질의응답 순으로 통계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후 논문발표 II에서는 장애, 보건, 사이버 비행인식/괴롭힘, 일가정 양립, 전환기의 4개의 주제로 오전과 동일하게 세션별로 나누어 총 8편의 아동패널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림 Ⅳ-2-2]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모습

주: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개회사, 대학원생 공모 시상, 통계워크숍, 세션 4 발표 및 토론 모습

〈표 Ⅳ-2-3〉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구분	내용
세션1. [성장발달 I] 집행기능	1. 아동의 집행기능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학습자 특성의 영향력 분석
	2. 초기 청소년(8-13세)의 집행기능 잠재프로파일 분류: 성별 차이 분석
세션2. [미디어 I] 미디어 기기 중독	1.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미디어 기기 중독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종단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활용
	2.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조화적합성 잠재집단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 차이

구분	내용
세션3. [부모Ⅰ] 자녀양육	1.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경로분석
	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 시간 변화 유형: 부모-자녀 문해 상호작용과 학업 수행 능력과의 연관성 탐색
세션4. [학교생활 및 적응Ⅰ] 교사	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대한 전학과 교사선호도의 영향: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 효과
	2. 교사-아동 갈등적 관계와 아동 행복감의 관계: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세션5. [성장발달Ⅱ] 장애, 보건	1. 청소년기 정신장애와 집행기능 곤란 발달 관계분석
	2. 한국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증상 환자 추이분석 및 알레르기 비염과 치아우식과의 관련성
세션6. [미디어Ⅱ] 사이버 비행인식/괴롭힘	1.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의 차이 및 공감능력의 영향력 검증
	2. 초기 청소년기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 성과 공감과의 관계
세션7. [부모Ⅱ] 일가정 양립	1.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 및 예측요인
	2. 부와 모가 지각한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이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 적용
세션8. [학교생활 및 적응Ⅱ] 전환기	1. 잠재전이분석을 이용한 아동의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분류 및 전이 영향요인 검증
	2.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변수정리 작업

본 절에서는 2023년 12월에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새롭게 업로드 될 2021년도(14차 데이터)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차수별 설문지 및 변인지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가. 설문지 종류

한국아동패널 설문지는 보호자용, 아동용, 부모(어머니, 아버지)용, 육아지원기관용, 학교용, 건강용, 병원용으로 구분된다.

1-7차년도 조사까지는 ‘보호자용 설문지’ 대신 ‘면접자용 설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첫해인 1차년도 조사에만 ‘병원용 설문지’가 조사되었다. 4-7차 조사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학원에 대한 설문을 통합하여 ‘육아지원기관용 설문지’로 변경하여 조사되었다. 6차년도부터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사

고 및 판단능력 발달에 따라 아동이 직접 설문할 수 있도록 '아동용 설문지'가 추가되었으며, 보호자용 또는 어머니용 설문의 일부 내용을 아동용 설문지로 이동과 함께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적합한 설문 내용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각 차수별 설문지 구성은 〈표 Ⅳ-3-1〉와 같다.

〈표 Ⅳ-3-1〉 1-14차 설문지 종류

설문종류 코드		B	D	E	F	H	J	K	L
차수	년도	병원	면접자/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육아지원기관	아동	건강	학교
1차	2008년	o	o	o	o	-	-	-	-
2차	2009년	-	o	o	o	-	-	-	-
3차	2010년	-	o	o	o	-	-	-	-
4차	2011년	-	o	o	o	o	-	-	-
5차	2012년	-	o	o	o	o	-	-	-
6차	2013년	-	o	o	o	o	o	o	-
7차	2014년	-	o	o	o	o	o	o	-
8차	2015년	-	o	o	o	-	o	o	o
9차	2016년	-	o	o	o	-	o	o	o
10차	2017년	-	o	o	o	-	o	-	o
11차	2018년	-	o	o	o	-	o	-	o
12차	2019년	-	o	o	o	-	o	-	o
13차	2020년	-	o	o	o	-	o	-	o
14차	2021년	-	o	o	o	-	o	-	o

나. 아동 특성

아동 특성은 아동의 성별, 출생월, 출생순위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신체·건강 특성, 인지 및 언어 발달, 사회 및 정서 발달 등의 아동 발달영역을 모두 포함한다(〈표 Ⅳ-3-2〉 참조). 특히, 14차년도(2021년)에는 신규추가된 변인으로 미디어 기기 중독_자가진단, 학업 이해도, 우울, 폭력 피해 및 가해(온/오프), 공감이 있다.

〈표 Ⅳ-3-2〉 아동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인구학적 특성		성별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D1-3-1	D1-3-1
		출생월(생성변수: 월령)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D1-3-1	D1-3-1
		출생순위	D11-2	D11-2	D11-2	D11-2	D11-1	D2-1
		출생순위 변동 사유	-	-	-	D11-2-1	D11-1-1	D2-1-1
일상 생활 특성	수면	기상/취침 시각_주중 (생성변수: 수면시간)	D6-13	D6-13	D6-13	D6-13	D6-12	J2-7
		기상/취침 시각_주말 (생성변수: 수면시간)	D6-13	D6-13	D6-13	D6-13	D6-12	J2-7
	식생활	가족과의 식사 횟수	-	-	D6-16	D6-16	D6-15	D6-8
		식생활 진단	K41~50	E4	E4	E2	D9-10	J2-1
		유산균 복용 여부	K35	-	-	-	-	-
		유산균 복용 기간	K35-1	-	-	-	-	-
		탄산음료 섭취	-	-	J2-15	J2-15	J2-14	J2-2
		인스턴트식 섭취	-	-	J2-16	J2-16	J2-15	J2-3
	실내/외 활동	일과활동시간_주중	D6-14	D6-14	D6-14	D6-14	D6-13	J2-9
		일과활동시간_주말	D6-15	D6-15	D6-15	D6-15	D6-14	J2-10
		실외 신체활동	K37	-	D6-28	D6-28	D6-26	J2-13
		실내 신체활동	-	-	D6-27	D6-27	D6-25	J2-13
		하루 운동 시간	K36	-	-	-	-	-
		독서량	D6-21	D6-21	D6-21	J2-17	J2-16	J2-12
		활동별 참여 빈도/가사참여	D6-22	D6-22	D6-22	D6-22	D6-20 /J2-17	D6-10/ J2-18
	미디어	미디어 이용시간	D6-19	D6-19	D6-19	D6-19	D6-17	J2-5
		미디어 이용 정도	D6-20	D6-20	D6-20	D6-20	D6-18	-
		미디어 이용 순위	J6-1	-	-	-	-	-
		미디어 기기 중독_부모진단	-	E3	E3	E1	D6-19	D6-9
		미디어 기기 중독_자가진단	-	-	-	-	-	J2-6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D6-18	D6-18	D6-18	D6-18	D6-16	J2-4
		컴퓨터 사용능력	-	-	J2-34~40	-	J2-26~31	-
	저축	저축관	-	-	J2-12~14	J2-12~14	J2-4~6	J9-9~11
	취미	취미(악기연주,스포츠 경험) 여부	-	-	D6-23, 25	D6-23,25	D6-21,23	J2-14,15
		취미(악기연주,스포츠 경험) 종류	-	-	D6-24,26	D6-24,26	D6-22,24	-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시력 보정도구 착용 시기	D9-7	D9-7	D9-7	D9-7	D9-7	D6-7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	D9-7	D9-7	D9-7	D9-7	D6-7
		체중	J1-1	J1-1	J1-1	J1-1	J1-1	J1-1
		신장	J1-2	J1-2	J1-2	J1-2	J1-2	J1-2
		허리둘레	J1-3	J1-3	J1-3	J1-3	J1-3	J1-3
		주관적 건강상태	D9-1	D9-1	D9-1	D9-1	D9-1	D6-1
		빠진 유치 개수	D9-8	D9-8	-	-	-	-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	D9-8	D9-8	-	-	-	-
		충치 개수	D9-9	D9-9	-	-	-	-
		2차 성징	-	-	D9-10,11	D9-10,11	D9-8~9	J2-19~20
		신체적 자아상	-	-	-	J3-21~25	J3-6	J2-21
		체중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	-	-	-	J3-7,8	J2-22,23
	질환 및 치료	장애 유형별 판정 여부 및 급수(정도)	D9-4	D9-4	D9-4	D9-4	D9-4	D6-4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여부 및 이유	D9-2	D9-2	D9-2	D9-2	D9-2	D6-2
		입원 치료 여부 및 이유	D9-3	D9-3	D9-3	D9-3	D9-3	D6-2
		항생제, 진통제/해열제 복용 여부 및 횟수, 마지막 복용시기_최근	K33, 34	-	-	-	-	-
		만성 질환 (진단 여부, 최초진단일)	D9-5	D9-5	D9-5	D9-5	D9-5	D6-5
		만성 질환별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D9-5	D9-5	D9-5	D9-5	D9-5	D6-5
		심리사회적 질환 (진단 여부, 최초진단일)	D9-6	D9-6	D9-6	D9-6	D9-6	D6-6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D9-6	D9-6	D9-6	D9-6	D9-6	D6-6
		천식 관련	K1~4-2	-	-	-	E2~5	-
		알레르기 비염 관련	K5~9-1	-	-	-	E6~9	-
		아토피 피부염 관련	K10~13-1	-	-	-	E10~12	-
		식품 알레르기 관련	K14~16-1	-	-	-	-	-
		아나필락시스 또는 쇼크 경험	K17~17-2	-	-	-	E13,13-1	-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수행)창의성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	-	J7	-	-	-	-
		집행기능	E6	E2	E2	-	J3-7	-
		(수행)다요인지능[M-FIT]	D14	-	-	-	-	-
	언어 발달	(수행)수용어휘력[REVT]	-	-	-	-	-	-
		(수행)표현어휘력[REVT]	-	-	-	-	-	-
		의사소통(화용언어)	-	E5	E5	-	-	-
		비속어 사용	-	J6-1	J6-1	J6-1	J6-1	J5-1
	학습 관련	학업 수행 능력_초등	L2-2	L2-2	L2-2	L2-2	L2-1	-
		학업 수행 능력_중등	-	-	-	-	-	L6-1
		학업 이해도	-	-	-	-	-	J3-1
		학업 스트레스	-	-	J3-15~17	J3-26~28	J3-24~26	J3-3
		자기조절학습	-	-	-	-	-	J3-4
		(수행)학업동기[AMT]	-	-	-	J8	-	-
		학습태도	-	-	-	-	J3-27	-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 발달	자아탄력성	-	-	-	J3-7	-	J5-3
		자아정체감	-	-	-	J3-8	-	J5-4
		자아존중감_초등	J3-1~5	J3-7~11	J3-7~11	-	J3-3	J5-2
		GRIT(끈기)	-	-	J3-18~25	-	J3-11	-
		자율성	-	-	-	J3-15~19	-	J6-4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수행)성격[NEO]	-	-	-	J7	-	-
		사이버 비행 인식	-	-	J2-41~46	-	J2-12	J6-5
	정서 발달	전반적 행복감	J2-1~6	J3-1~6	J3-1~6	J3-1~6	J3-1	J6-1
		삶의 만족도	-	-	J3-12~14	J3-12~14	J3-13~15	J6-2
		학교생활느낌	J5-4~7	J5-4~7	J5-4~7	-	J5-2~6	-
		학교 선호도	J5-1	J5-1	J5-1	-	J5-1	-
		교사 선호도	J5-9	J5-9	J5-9	-	J5-7	-
		과목 선호도	J5-2,3	J5-2,3	J5-2,3	J5-1	J5-8	J3-2
		시간사용 만족도	-	J2-2~9	J2-2~9	J2-2~9	J2-1	J2-11
		우울	-	-	-	-	-	J6-3
	사회성 발달	문제행동[CBCL 6-18]	-	D14	-	D14	-	D12
		문제행동[TRF]	-	-	-	D13	-	E7-1
		친구수	J4-1	J4-1	J4-1	J4-1	J4-1	-
		친구와의 싸움 빈도	J4-2	J4-2	J4-2	-	-	-
		친구와의 놀이 빈도_주말	J4-3	J4-4	J4-4	-	-	-
		친구와의 놀이 빈도_학교 밖	J4-4	J4-3	J4-3	-	-	-
		전반적 학교적응_초등	D6-10	D6-10	-	-	-	-
		학교적응_초1-4	L2-1	L2-1	L2-1	-	-	-
		학교적응_초5-6	-	-	-	J5-2	J5-9	-
		학교적응_중고등학교	-	-	-	-	-	J7-2
		강점/난점 (정서증상, 행동문제,과잉행동/부주의, 또래문제, 사회지향)	L2-3~8	L2-3	L2-3~8	-	-	-
		또래애착	-	J4-5~13	J4-5~13	-	J4-3	J7-1
		이성관계	-	-	J4-14	J4-14	J4-2	J9-2
		집단괴롭힘	-	-	J5-20~26	J5-20~26	J5-11	-
		사이버폭력	-	-	-	J5-27,28	J5-12	-
		(심층)인성검사[KEDI]	-	-	-	-	J8	-
		폭력 피해(온/오프)	-	-	-	-	-	J8-1
		폭력 가해(온/오프)	-	-	-	-	-	J8-2
		공감	-	-	-	-	-	J7-4
	미래 /진로	미래희망모습	J6-2	J6-3	J6-3	J6-3	J6-3	J9-4
		미래희망직업	-	J6-2	J6-2	J6-2	J6-2	J9-3
		진로성숙도	-	-	-	-	J6-4	J9-5
		진학기대_초등	-	-	-	-	-	-
		미래에 대한 인식	-	-	-	J3-20	J3-5	J9-6
		진학 계획	-	-	-	-	-	D8-9
		진학 유형	-	-	-	-	-	D8-10
	사회 관련 인식	결혼관	-	-	J6-4	J6-4	J6-5	J9-7
		자녀관	-	-	J6-5	J6-5	J6-6	J9-8
		공동체 의식	-	-	J6-6~11	-	J6-7	-
		안전의식 및 대처	-	-	-	-	J6-8	J9-16

다. 부모 특성

부모 특성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연령 및 학력, 학업 및 취업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특성, 부부 만족도 및 갈등과 같은 부부 특성, 양육 스트레스, 성취압력 및 부모애착 등의 양육 특성 등을 조사한다.

〈표 Ⅳ-3-3〉 부모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인구학적 특성		생년월일(생성변수: 연령)	-	-	-	D2-3, 11-4-5	D2-3, 표지	D4-3
		최종학력	D2-4	D2-4	D2-4	D2-4	D2-4	D4-4
		동거 여부	D2-6	D2-7	D2-7	D2-7	D2-7	D2-4
		비동거 이유	D2-7	D2-8	D2-8	D2-8	D2-8	D2-5
개인 및 부부 특성	심리적 특성	우울	-	F6/E10	-	F5/E7	-	F4/E4
		자아존중감	F9/E11	-	F6/E10	-	F7/E19	-
		(심층)성격[NEO]	-	-	-	-	F20/E27	-
		주관적 행복감	F10/E12	F7/E11	F7/E11	F6/E8	F8/E20	F1/E1
		일상적 스트레스	F6/E8	F3/E7	F3/E7	F2/E4	F4/E16	F3/E3
		삶의 만족도	F7/E9	F4/E8	F4/E8	F3/E5	F5/E17	F2/E2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F18/ D4-1	F16/ D4-1	F16/ D4-1	F15/ D4-1	F17/ D4-1	F18/ D5-10
		(심층)정서조절[K-DERS]	-	-	-	-	F19/E26	-
		행동유형	-	-	-	-	F3/E15	F5/E5
		미디어중독	-	-	-	-	F18/E25	F6/E6
	부부 특성	결혼 상태	D2-1	D2-1	D2-1	D2-1	D2-1	D4-1
		결혼일(생성변수: 결혼상태 유지기간)	-	-	-	D2-2	D2-2	D4-2
		결혼 만족도	-	F2/E6	-	F1/E3	-	F7/E7
		부부 갈등	F5/E7	-	F2/E6	-	F2/E14	-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F8/E10	F5/E9	F5/E9	F4/E6	F6/E18	F8/E8
	질환 및 장애	장애 유무 및 정도	D2-5	D2-5	D2-5	D2-5	D2-5	D4-5
		알레르기질환 병력	K40	D2-6	D2-6	-	-	-
	음주 및 흡연	음주 여부/횟수	F11/E13	F8/E12	F8/E12	F7/E9	F9/E21	F9/E9
		음주 양	F12/E14	F9/E13	F9/E13	F8/E10	F10/E22	F9-1/ E9-1
		과음 횟수	F13/E15	F10/E14	F10/E14	F9/E11	F11/E23	F9-2/ E9-2
		흡연 여부	F14/E16	F11/E15	F11/E15	F10/E12	F12/E24	F10/E10
		하루 흡연량	F14/E16	F11/E15	F11/E15	F10/E12	F12/E24	F10/E10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취/학업상태	F15/ D3-1	F12/ D3-1	F12/ D3-1	F11/ D3-1	F13/ D3-1	F12/ D5-1
		희망 근로 형태	-	-	-	-	-	-
		시간제 희망 이유	-	-	-	-	-	-
		취업 이유	-	-	-	-	-	-
		미취업(학업) 이유	-	-	-	-	-	-
	취업 특성	재직 상태	D3-2	D3-2	D3-2	D3-2	D3-2	F13/ D5-2
		직장 변동 여부	F16/ D3-3	F13/ D3-3	F13/ D3-3	F12/ D3-3	F14/ D3-3	F14/ D5-3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F17-1~4/ D3-4~7	F14-1~4/ D3-4~7	F14-1~4/ D3-4~7	F13-1~4/ D3-4~7	F15-1~4/ D3-4~7	F14-1~4/ D5-4~7
		종사상 지위	F17-5/ D3-8	F14-5/ D3-8	F14-5/ D3-8	F13-5/ D3-8	F15-5/ D3-8	F14-5/ D5-8
		근무 일 수	D3-9	D3-9	D3-9	D3-9	D3-9	F15/ D5-9
		근무 시간	D3-9	D3-9	D3-9	D3-9	D3-9	F15/ D5-9
		왕복 출퇴근 시간	D3-9	D3-9	D3-9	D3-9	D3-9	F15/ D5-9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D3-10	D3-11	D3-11	D3-11	D3-11	F16/ D5-10
양육 특성	양육관	교육열	F3/E3	-	-	-	-	-
	양육 실제	양육 행동(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	F1/E1	1F/1E	-	-	-
		양육 스트레스	-	-	-	-	F1/E1	F11/E11
		양육 효능감	F1/E1	-	-	-	-	-
		성취압력	-	-	J2-19 ~33	J2-19 ~33	J2-13	J1-10
		부모애착	-	-	-	J2-34, 35	-	J11-1,2
		합리적 설명	-	-	-	-	-	J11-4
		아동학대	-	-	-	J2-51, 52	J2-14	J11-5
		부모 공동양육 (가족통합, 훈육, 비난, 갈등)	F4/E4	-	-	-	-	-
		부모-자녀 상호작용	F2/E2	-	-	-	-	-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수	D6-11	D6-11	D6-11	D6-11	D6-11	D6-13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D7-5	D7-5	D7-5	D7-5	D7-5	D6-11
		부모 감독	D7-6	D7-6	D7-6	D7-6	D7-6	D6-12/ J11-3
		부모의 학업 관심도	J5-8	J5-8	J5-8	-	-	-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	-	-	D6-29	D6-27	-
		숙제 시 도움 정도	D6-16	-	-	-	-	-
		숙제 시 도움 제공자	D6-17	-	-	-	-	-
	지원 특성	사회적 지원 정도	D5-1	D5-1	D5-1	-	D5-1	D7-1
		사회적 지원 인원	D5-2	D5-2	D5-2	-	D5-2	-

라. 가구 특성

가구 특성에서는 아동 및 부모 특성에서 조사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에 가구 구성원 특성, 주거환경 특성, 생활환경 특성, 소득, 지출, 가정환경 특성 등이 포함된다.

〈표 Ⅳ-3-4〉 가구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및 구성원 특성	아동과의 관계	D표지	D1-4	D1-4	D1-4	D1-4	D1-4
		가구 구성 형태	D11-2	D11-2	D11-2	D11-2	-	-
		패널아동-부모 동거 여부	D11-1	D11-1	D11-1	D11-1	-	-
		패널아동의 조부모, 친인척, 기타 가구원수(생성변수: 가구원수)	D11-2	D11-2	D11-2	D11-2	D11-1	D2-1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출생년도	D11-3	D11-3	D11-3	D11-3	D11-2	D2-2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성별	D11-3	D11-3	D11-3	D11-3	D11-2	D2-2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결혼 여부	D11-3	D11-3	D11-3	D11-3	D11-2	D2-2
		패널아동의 동생 출생년도	D11-4	D11-4	D11-4	D11-4	D11-3	D2-3
		패널아동의 동생 성별	D11-4	D11-4	D11-4	D11-4	D11-3	D2-3
		패널아동의 동생 입적사유	D11-4	D11-4	D11-4	D11-4	D11-3	D2-3
물리적 특성	주거 환경	패널아동의 개별 방 여부	D6-12	D6-12	-	D11-6	D11-5	D2-7
		습기 여부	K25	-	-	-	-	-
		장소별 습기 정도	K26	-	-	-	-	-
		곰팡이 여부	K27	-	-	-	-	-
		리모델링 여부	K21	-	-	-	-	-
		리모델링 종류	K21-1	-	-	-	-	-
	생활 환경	환기 시간	K19-1	-	-	-	-	-
		환기 횟수	K19	-	-	-	-	-
		공기 청정기 설치 여부	K20	-	-	-	-	-
		공기 청정기 설치 장소	K20-1	-	-	-	-	-
		방향제 또는 디퓨져 사용 여부	K18	-	-	-	-	-
		방향제 또는 디퓨져 사용 횟수	K18-1	-	-	-	-	-
		가습기 사용 여부	K29, 30	-	-	-	-	-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K31, 32	-	-	-	-	-
		가습기 살균제 사용 종류	-	-	-	-	-	-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	-	-	-	-	-	-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빈도	K31-3	-	-	-	-	-
		애완동물(반려동물) 수_개	K38	-	-	-	-	-
		애완동물(반려동물) 수_고양이	K39	-	-	-	-	-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반려동물 여부	-	-	D11-5	D11-5	D11-4	D2-6
경제적 특성	소득	가구소득	D10-1	D10-1	D10-1	D10-1	D10-1	D3-1
		취업 모 근로소득	D10-2	D10-2	D10-2	D10-2	D10-2	D3-2
		취업 부 근로소득	-	-	-	-	-	F1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보호자)	D10-12,13	D10-12,13	D10-12,13	D10-12,13	D10-12,13	D3-3-1,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아동)	-	-	J2-11	J2-11	J2-3	J9-1
		가구의 경제적 걱정 빈도	-	J2-10	J2-10	J2-10	J2-2	J9-15
	지출	가구의 소비성 지출	D10-3	D10-3	D10-3	D10-3	D10-3	D3-4
		가구의 비소비성 지출	D10-3	D10-3	D10-3	D10-3	D10-3	D3-4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D10-3	D10-3	D10-3	D10-3	D10-3	D3-4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D10-3	D10-3	D10-3	D10-3	D10-3	D3-4
		패널아동에 대한 돌봄/양육 비용(초등이후)	D10-3	D10-3	D10-3	D10-3	D10-3	-
		패널아동에 대한 교육 비용(초등이후)	D10-3	-	D10-3	D10-3	D10-3	D3-4
		용돈 지급 여부	D10-4	D10-4	D10-4	D10-4	D10-4	J9-12
		용돈 지급액	D10-5	D10-5	D10-5	D10-5	D10-5	J9-13
		용돈 사용처	-	-	D10-5-1	D10-5-1	D10-5-1	J9-14
	자산 및 부채	부동산	D10-6	D10-6	D10-6	D10-6	D10-6	D3-5
		금융자산	D10-7	D10-7	D10-7	D10-7	D10-7	D3-6
		부채 여부	D10-8	D10-8	D10-8	D10-8	D10-8	D3-7
		부채액/월 상환액	D10-9	D10-9	D10-9	D10-9	D10-9	D3-8
가정 환경 특성	가정 환경의 질	가정환경의 질[HOME_MC]	D13-1~59	D13-1~59	-	-	-	-
	가족 생활	가족 상호작용(균형 있는 응집성, 유연성)	E5	-	-	-	-	-
	유해 환경 노출	간접 흡연	K28	-	-	-	-	-

마. 보육/교육/학교서비스 특성

보육/교육/학교서비스 특성은 영유아기 시기에는 육아지원기관 특성을 중심으로, 학력기 이후부터는 학교 특성 중심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 시기부터는 진학한 학교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학급수, 학급 환경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 학교 유형, 학교 서비스 만족도 등과 같은 학교 특성, 교사의 경력 및 담당과목과 같은 교사 특성 등이 포함된다.

〈표 Ⅳ-3-5〉 보육/교육/학교서비스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돌봄 서비스	이용 특성	(학기 중,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	D7-1	D7-1	D7-1	D7-1	D7-1	-
		(학기 중,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D7-1	D7-1	D7-1	D7-1	D7-1	-
		(학기 중,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빈도	D7-2	D7-2	D7-2	D7-2	D7-2	-
		(학기 중,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D7-3	D7-3	D7-3	D7-3	D7-3	-
		(학기 중,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D7-4	D7-4	D7-4	D7-4	D7-4	-
학교	이용 특성	학교 진학 여부	D6-1	D6-1	D6-1	D6-1	D6-1	D8-1
		대체이용기관	D6-3	D6-3	D6-3	D6-3	D6-3	D8-3
		미진학 이유	-	-	-	D6-2	D6-2	D8-2
		결석 여부	D6-9	D6-9	D6-9	D6-9	D6-9	-
		결석 이유	D6-9	D6-9	D6-9	D6-9	-	-
		전학 여부	D6-7	D6-7	D6-7	D6-7	D6-7	D8-7
	학교 특성	학교 유형_초등	D6-8/ L1-2	D6-8/ L1-2	D6-8/ L1-2	D6-8/ L1-2	D6-8/ L1-2	-
		학교 유형_중학	-	-	-	-	-	D8-8/ L1-1
		남녀공학 여부	-	-	-	-	-	L1-2
		시범학교 유형	-	-	L1-2-1	L1-2-1	L1-2-1	L1-3
		학교폭력발생정도	-	-	L1-5	-	-	-
		학교 서비스 만족도	-	-	-	-	-	D8-11
	물리적 특성	학급수	L1-1	L1-1	L1-1	L1-1	L1-1	L1-4
		학급 학생수	L1-1	L1-1	L1-1	L1-1	L1-1	L1-4
		학교 환경	L1-3	L1-3	L1-3	L1-3	L1-3	L1-5
		리모델링 여부_학교나 학원	K22	-	-	-	-	-
		리모델링 종류_학교나 학원	K22-1	-	-	-	-	-
		교육시설 만족도	-	-	L1-4	-	-	-
	교사 특성	교사 성별	L6-3	L6-1	L6-1	L6-1	L5-1	L2-1
		교사 연령	L6-4	L6-2	L6-2	L6-2	L5-2	L2-2
		교사 경력	L6-5	L6-3	L6-3	L6-3	L5-3	L2-4
		교사 근무 시간/근무 일	L6-6	L6-4	L6-4	L6-4	L5-4	L2-5
		교사 최종학력	L6-8	L6-5	L6-5	L6-5	L5-5	L2-3
		교사 담당과목	-	-	-	-	-	L2-6
		업무 스트레스	L5-1	L5-1	L5-1	L7-1	L6-1	L2-7
		교사효능감_초등	L6-2	-	-	-	-	-
		교사 내적 특성	L6-1	-	-	-	-	-
	학급 운영	교사-아동 관계	L3-1	L3-1	L3-1	L3-1	L3-1	L3-1
		창의적 학교 환경	-	J5-10 ~19	J5-10 ~19	J5-10 ~19	J5-10 ~19	J7-3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가정 협력	학교 행사 참여 여부(부모)	D7-7	D7-7	D7-7	D7-7	D7-7	D8-11
		학교 행사 참여 여부(교사)	L4-1	L4-1	L4-1	L4-1	L4-1	L4-1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L4-2	L4-2	L4-2	L4-2	L4-2	L4-3
		학교생활 연락 정도	-	-	-	-	-	L4-2
사교육 특성	이용 특성	교육서비스 이용기관	D8-1	D8-1	D8-1	D8-1	D8-1	D9-1
		교육서비스 이용 종류	D8-1	D8-1	D8-1	D8-1	D8-1	D9-1
		교육서비스 이용시간	D8-2	D8-2	D8-2	D8-2	D8-2	D9-2~6
		교육서비스 이용 만족도	D8-3	D8-3	D8-3	D8-3	D8-3	D9-2~6
		교육서비스 이용 월평균 교육 비용	D8-4	D8-4	D8-4	D8-4	D8-4	D9-2~6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D8-5	D8-5	D8-5	D8-5	D8-5	D9-2~6
		교육서비스 교재비	-	-	-	-	-	D9-8
	이용/ 미이용 이유	교육서비스 이용 이유	-	-	-	-	-	D9-7
	사교육 인식	아동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	-	-	-	J3-30 ~33	J3-36 ~39	J4-1~4
		아동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 효과 인식	-	-	-	-	-	J4-5

바. 지역사회 특성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성장·발달과 관련하여, 가족의 적극적 참여와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다양화되는지 해당 아동이 생활하는 거주지역의 특성인 지역권, 교통, 산업 특성 등을 조사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공공 여가공간, 문화시설, 교육기관의 이용 만족도와 편리성,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사고 등이 포함된다.

〈표 Ⅳ-3-6〉 지역사회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패널아동 출산 후 이사 횟수	D표지	-	D표지	D표지	D1-8	D1-8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	-	D표지	D1-8	D1-8
		거주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17개 시/도 구분, 시/군/구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D1-7	D1-7
	교통과 산업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의 차선	K24	-	-	-	-	-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의 거리	K23	-	-	-	-	-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양육 환경	교육·복지·의료	교육·의료·복지 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D12-2	D12-2	D12-2	D12-2	D12-2	D11-1
	문화·여가	문화시설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D12-2	D12-2	D12-2	D12-2	D12-2	D11-1
		공공 여가공간·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D12-2	D12-2	D12-2	D12-2	D12-2	D11-1
	사회안전	양육환경 안전성	D12-1	D12-1	D12-1	D12-1	D12-1	D10-1

사. 정책 특성

정책 특성은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직장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로 이용한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현재의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변인들이 포함되었으며, 부모들의 지원에 대한 의견과 정책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 Ⅳ-3-7〉 정책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국가 지원	수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D10-10	D10-10	D10-10	D10-10	D10-10	D11-2
	정책에 대한 의견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	-	-	-	-	D11-4
학교 지원	수혜	학교지원 수혜 여부 및 만족도	-	D10-15	D10-15	D10-15	D10-15	-
직장 지원	시행 및 이용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이용 여부	-	F15/ D3-10	F15/ D3-10	F14/ D3-10	F14 /D3-10	-
기타	기타 지원	국가 및 직장 지원이 출산 및 양육환경 향상에 미치는 영향	D52	-	-	-	-	-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D10-11	D10-11	D10-11	D10-11	D10-11	D11-3
		코로나19 대응 정책 만족도	-	-	-	-	-	D11-5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	-	-	-	-	D11-6~ 11-6-3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	-	-	-	-	D11-7

V

심층분석: 패널아동의 삶의 만족도 궤적과 사교육 특성

01 심층분석 I –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 궤적을 활용한 유형화 분석 및 집단별 특성
02 심층분석 II – 사교육 이용패턴의 종단적 분석과 특성 분석

V. 심층분석: 패널아동의 삶의 만족도 궤적과 사교육 특성

1. 심층분석 I –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 궤적을 활용한 유형화 분석 및 집단별 특성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삶의 만족도 변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a: 119). 삶의 만족도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서, 한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2021년 기준 11점(0~10점) 만점에 6.3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30~39세 연령 구간의 삶의 만족도가 6.5점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a: 9~13, 119). 최근 3년 간(2020~2022년)의 행복지수를 평균하여 발표하는 행복지수는 5.95점으로, 137개국 중 57위에 그쳤다(World Happiness Report, 2023)[16].

그런데, 통계청이 작성하는 국민 삶의 만족도(혹은 삶의 질)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는 성인 대상의 삶의 질 지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주관적 웰빙 지표 중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인 만족에 기반한 변수로, 성인과 아동청소년 간에 별반 개념상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되고 있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b: 116). 국가 수준에서 조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9~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매 3년 주기로 공표되고 있는

16) World Happiness Report (2023). 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3/world-happiness-trust-and-social-connections-in-times-of-crisis/#ranking-of-happiness-2020-2022 (2023년 9월 21일 인출)

데, 2020년 기준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80점이었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b: 91). 연령별로는 9~12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99점으로, 13~18세 청소년 6.67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b: 91). 앞서 성인의 삶의 만족도가 6.3점(2021년 기준)인 것과 비교할 때,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성인에 비해서는 약간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2017년 기준 9~12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7.39점으로, 최근 3년 사이에 9~12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b: 91)[17]. 또한, 15세를 기준으로 한 국가 간 비교(2018년 기준)에서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비교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b: 91).

요컨대,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OECD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인의 삶의 만족도는 아동·청소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하나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씩 더 나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무르는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18].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는 가구 경제적인 상황을 비롯하여, 학업성취 등 학교 관련 변인, 부모 및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 아동의 성향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대체로 청소년기(13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년도 자료를 활용한 횡단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 대상의 패널자료가 장기간 시계열로 구축되고 제공됨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에 집중한 종단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다.

한편, 부모의 양육 태도나 부모-자녀 관계(대화 여부, 학대 혹은 방임 등), 가정환경 등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17) 13~18세 청소년의 2017년 기준 삶의 만족도는 6.77점으로 2020년에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9~12세의 만족도 변화에 비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b: 91).

18) 한국학술정보서비스(RISS)에 청소년+삶의 만족도로 검색되는 학술논문(단행본 및 학위논문 제외)의 수만 668건에 달하며, 여기에 KCI 등재지 기준을 적용하면 506건, 최근 10년(2014~2023년)으로 압축하여도 469건의 학술논문이 검색됨.

특히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성인(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고찰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19] 즉,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행태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가구 특성, 학교, 또래 집단, 아동 성향 등)이 일종의 설명변수로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역으로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이나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사이의 연관성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며,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강윤아·신택수, 2018; 김용희·한창근, 2017; 정지영·정혜원, 2022; 하규영·이민영, 2020),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이들 자녀를 둔 부모(성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초기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율 제고 및 양육비용 절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목표는 전 생애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12: 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통상 성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가구의 상황 및 일·생활 균형 및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부부 관계에서의 만족도 등이 깊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로 인한 요인 또한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부모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본고는 첫째, 아동·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성장 궤적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고찰하고, 둘째, 아동·청소년기(초4~중2)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변화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앞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집단을 활용하여, 모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 11차년도(10세,

19) 성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중고령자(독거노인 포함),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집중된 경향성을 보임.

초4)부터 15차년도(14세, 중2)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모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기타 변인들 사이에는 선후 관계(혹은 종속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회귀모형이 아닌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라 유형화된 집단 간 차이 검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가 높은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때, 학업성취가 높은 아이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인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이들이 학교 적응도가 높아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인지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조사 11차년도(2018년)~15차년도(2022년)까지 총 5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8차년도(2015년)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 온 설문문항이지만,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만족도를 응답할 수 있는 연령인 10세(초등 4학년) 시기인 11차년도(2018년)부터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아동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의 궤적 변화를 각각 살펴볼 뿐 아니라,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궤적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고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응답된 차수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 삶의 만족도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의 변화궤적을 관찰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1차년도~15차년도 모든 연도에 응답된 관측치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즉, 자료를 균형패널 자료 형태로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동일 차수 내에서도 어머니 설문에 응답한 경우와 아동 설문에 응답한 관측치가 다르기 때문에,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은 11차년도~15차년도 어머니 설문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은 11차년도~15차년도 아동 설문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로 인해 모 데이터 셋과 아동 데이터 셋의 관측치가 차이를 보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아동-모의 삶의 만족

도를 연계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 데이터가 존재해야 하므로, 11차년도~15차년도 모든 차수에 어머니 설문과 아동 설문 둘 다를 응답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즉,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 분석은 11차년도~15차년도의 어머니 설문에 모두 응답한 1,03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 궤적 분석은 11차년도~15차년도의 아동 설문에 모두 응답한 1,145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한편, 11차년도~15차년도 모든 차수에 어머니 설문과 아동 설문 모두에 응답한 관측치는 1,006명이었다.

〈표 V-1-1〉 조사차수별 및 설문 유형별 삶의 만족도 응답자 수

단위: 명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1~15차 모두 응답
어머니 설문	1,401	1,308	1,303	1,320	1,247	1,031
아동 설문	1,428	1,398	1,359	1,328	1,294	1,145
어머니+아동설문	1,392	1,295	1,291	1,295	1,236	1,006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한편, 한국아동패널 조사 삶의 만족도 변수는 아동과 어머니 설문이 약간 상이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의 경우에는 어머니용 설문에서 삶의 만족도를 8차년도(2015년) 조사부터 조사하고 있는데,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5점 척도(1.전혀 만족하지 못함~5.매우 만족함)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유형화하기 위해 관측치가 많지 않은 범주를 통합하여 3개 범주(1.불만족, 2.보통, 3.만족)로 변환한 다음, 변화궤적을 살펴보았다.

이때, 부와 모의 삶의 만족도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와 모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20]으로 나타나, 둘 중 한명의 만족도만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어 모의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는 부에 비해 모의 응답률이 높아 모 자료를 활용할 경우 좀 더 많은 관측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11~15차년도 전체 데이터 기준 부와 모의 삶의 만족도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0.36797로, 0.1% 유의수준에 유의한 상관을 보임.

부모의 삶의 만족도 설문문항과 달리 아동 설문에 포함되어 있는 삶의 만족도는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들의 응답 편의성을 고려하여 동일 내용에 대해 설문의 질문 방식이 약간씩 변화하였다. 아동 설문에 삶의 만족도 설문이 최초로 포함된 11차년도(2018년, 초4)에는 "○○(이)는 사는 것이 즐겁니?", "○○(이)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니?", "○○(이)는 ○○(이)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총 3개 문항에 대해 각각 4점 척도(1.그렇지 않은 편이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해당 설문은 12차년도(2019년, 초5)에는 "○○(이)의 생활은 즐겁니?"와 "○○(이)는 걱정거리가 있니?"로 변경되었으며, 13차년도(2020년, 초6) 이후로는 서술형으로 수정되었다. 즉,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11차년도에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고 질문한데 반해, 12차년도부터는 '걱정거리가 있다'로 질문한 후 역코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11차년도와 12차년도 사이에 큰 간극을 보이는데, 이러한 간극이 설문문항의 변경에 따른 것인지, 아동의 연령이 상승에 따라 발생한 변화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삶의 만족도 점수와 유사한 형태로 자료를 변환하기 위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 문항 점수를 전부 합산한 후(총점 12점), 이를 5점 만점으로 다시 환산하였으며,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0~2.99점 은 '1.불만족', 3~3.99점은 '2.보통', 4~5점은 '3.만족'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V-1-2〉 아동의 삶의 만족도 설문문항 내용

11차	12차	13차 이후
○○(이)는 사는 게 즐겁니?	○○(이)의 생활은 즐겁니?	나는 사는 게 즐겁다.
○○(이)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니?	○○(이)는 걱정거리가 있니? (역코딩)	나는 걱정거리가 있다. (역코딩)
○○(이)는 ○○(이)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이)는 ○○(이)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자료: 한국아동패널 아동 설문, 삶의 만족도 도구프로파일

나) 아동 및 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부모의 연령과 학력수준, 거주지역의 특성(규모), 가구원수, 모의 취업 상태, 가구소득, 자녀 양육비용 변수 등을 활용하였다. 단, 삶의 만족도와 이와 같은 특성 변수들 사이에 동시성 문제가 존재할 뿐 아니라,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기 보다는 삶의 만족도의 변화궤적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과성을 설명하는 회귀분석 모형이 아닌 아동 및 가구의 특성이 집단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차이 검정)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아동 및 가구 특성 변수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변수, 즉 아동의 성별, 부모의 연령과 학력수준, 거주지역의 특성(규모), 가구원수 등은[21] 분석 시점 기준 마지막 관측 시점인 15차년도(2022년) 자료의 값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반면, 가구소득과 모 취업 여부, 자녀 양육비용 변수는 해당 차수별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변수의 변화에 따라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차수별로 집단 유형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모 취업 여부는 취업과 미취업 2개 범주로 구분하여 활용하였으며, (전체)자녀 양육비용은 자녀에 대한 지출 총액을 사용하였는데, 15차년도에는 자료가 조사되지 않았다.[22]

다) 학습, 상호관계 및 발달 관련 변인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에는 인적 특성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이 외에도 청소년기 아동들이 느끼는 심리적 요인, 예를 들어 또래애착, 부모애착, 학업 스트레스, 성취압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의 삶의 만족도는 부부 갈등과 같은 변수나 아동의 학업성취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집단별로 이러한 학습 관련 변수 및 아동 발달, 상호관계 등에 관한 변인이 차이를 갖는지를 검증해보았다.

21)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11차(2018년)~15차(2022년) 자료로, 패널아동의 학령이 초4~중2이므로, 이하의 변수들은 차수에 따라 거의 변동하지 않음.

22) 한편, 아동의 경우에는 모와 달리 자녀 양육비용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면 관계상 생략함.

모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부부 갈등과 자녀의 학습시간, 패널아동의 학업 이해도, 부모애착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부 갈등은 11차년도 이후 격년(13차년도, 15차년도)으로 부모 설문지에서 조사하는 문항으로, 총 8개 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자녀의 학습시간은 아동 설문지 중 일과활동시간에 대한 설문 문항 중에서 학습 관련 시간, 즉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대면/비대면 포함),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받는 시간(학원, 과외 등), 숙제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자습), 인터넷 강의 등 학교수업 외 비대면 교육, 총 4개 항목을 합산하여, 주중 하루 학습시간과 주말 하루 학습시간을 산출한 후, 주중 하루 학습시간×5일 + 주말 하루 학습시간×2일로 산출한 값이다. 한편, 패널아동의 학업 이해도 문항은 아동 설문지에서 14차년도(2021년, 중1) 이후 조사가 시작된 문항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총 5개 과목별로 5점 척도(1.거의 이해하지 못함~5.매우 잘 이해함)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후 과목수로 나누어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한편, 부모애착의 경우에는 아동 설문지에서 12차년도(2019년, 초5), 14차년도(2021년, 중1), 15차년도(2022년, 중2)에 조사가 실시된 문항으로 아동이 본인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문항이다. 해당 문항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구분되며, 각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애착 총 12개 문항은 다시 의사소통(6개), 소외감(3개), 신뢰감(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중 소외감 관련 3개 문항과 신뢰감 문항 중 1개 문항(11. 나는 부/모에게 화가 난다)는 역코딩 문항이다. 해당 문항은 부모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질문한 문항이지만 역코딩되어 있어, 총 12개 문항 전부를 합산할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부모애착 관련 12개 문항을 모두 합산한 후 문항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애착은 아동이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으로, 실제 부모가 아동을 어떻게 대하는가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활용한다. 따라서, 모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모에 대한 부모애착만을 살펴보고, 아동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부에 대한 부모애착 변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척도 문항의 경우 응답 값을 모두 합산한 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아동의 학습시간 및 학업 이해도, 부모애착 이외에도 다양한 발달 관련 지표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모에 비해 다양한 변인에 대해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는 아동 설문지 11차~15차년도 모두에서 질문한 문항으로, 총 4개 문항 5점 척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값이 커질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심함을 의미한다. 성취압력도 아동 설문지 11차~15차년도 모두에서 질문한 문항으로, 아동이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문항이다. 즉, 부모님의 성취압력에 대해 아동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관측한 지표로, 총 15개 문항,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또래애착은 친구들에 대해 아동이 느끼는 감정으로 총 9개 문항인데, 3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 관련 3개 문항, 신뢰 3개 문항, 소외 3개 문항으로 구분되며,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문항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의사소통과 신뢰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이며, 소외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은 것으로, 변수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래애착 문항은 10차년도(2017년, 초3)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12차년도(2019년, 초5)에는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한 또래애착은 12차년도(2019년, 초5)를 제외한 11차년도(2018년, 초4)~15차년도(2022년, 중2)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호도는 11차년도(2018년, 초4)와 13차년도(2020년, 초6)에 아동 설문지에서 조사된 문항으로, '나는 학교를 좋아한다' 단일 문항에 대해 4점 척도(1.좋아하지 않는다~4.매우 좋아한다)로 조사된 문항이다.

2) 분석방법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궤적을 보다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건계열분석을 통해 사건계열 그래프를 그리고, 사건계열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형화하였다. 또, 이렇게 유형화된 집단별로 아동 및 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심리적 요인 및 아동 발달 관련 요인들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형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활용된 주요 분석방법인 사건계열분석(event sequence analysis)[23]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계열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의 배열 순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횡단자료나 시계열자료 분석과는 달리 데이터를 각 시점에서의 상태로 구분하지 않고, 연쇄된 사건계열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분석기법이다(Macindoe and Abbott, 2004). 즉, 사건계열분석은 한 시점에서의 상태가 아닌 장기에 걸친 일련의 사건 연쇄들 간에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 A의 상태를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 1 혹은 2로만 보는 것이 아닌 관측 대상 시기(5개 시점이 있다고 가정) 내에서 1-1-1-1-1 혹은 1-2-1-1-1 등과 같이 사건의 연속적인 변화를 개인 A의 상태(하나의 변수)로 취급한다는 의미로, 관측 시점과 변수의 항목수(범주)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건계열이 생성되게 된다. 즉, 사건계열은 변수 자체가 사건의 변화궤적을 지시하는 변수이다. 이때, 1-1-1-1-1 혹은 1-2-1-1-1은 두 번째 시점의 상태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변화궤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1-1-1-1-1과 2-2-2-2-2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건계열분석은 변화궤적을 중심으로 한 사건계열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변화궤적이 유사한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분석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사건계열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여러 시점에서 관찰되는 사건의 연쇄(event sequence)를 하나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 발생 순서를 고려하여 총체적인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장지연·이혜정, 2008).

다. 연구결과

1) 모의 삶의 만족도 궤적과 집단별 특성

가) 모의 삶의 만족도 궤적에 따른 유형화 결과

모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2.45~2.64점으로 해마다 조금씩 변동되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기는 하나, 13차년도(2020년, 초6)에는 삶의 만족도가 11차년도(2018년, 초

23) 사건 계열 분석 모형에 대한 설명은 최효미(2016)의 내용을 참조하여 폭넓게 인용하였음.

4)보다도 약간 낮았다. 이는 13차년도가 코로나19로 인해 휴교 조치가 내려지는 등 가정내 자녀양육시간이 길어지고, 가구 경제 여건 등 가구 상황이 크게 변동함에 따른 결과로 추측된다. 한편, 전반적으로 모의 삶의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10% 이하로 높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통의 비중이 줄어들고 만족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표 V-1-3〉 모의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점

	11차 (2018, 초4)		12차 (2019, 초5)		13차 (2020, 초6)		14차 (2021, 중1)		15차 (2022, 중2)	
불만족	97	(9.4)	81	(7.9)	100	(9.7)	53	(5.1)	75	(7.3)
보통	271	(36.0)	339	(32.9)	373	(36.2)	304	(29.5)	226	(21.9)
만족	563	(54.6)	558	(59.3)	558	(54.1)	674	(65.4)	730	(70.8)
평균점수	2.45		2.51		2.44		2.60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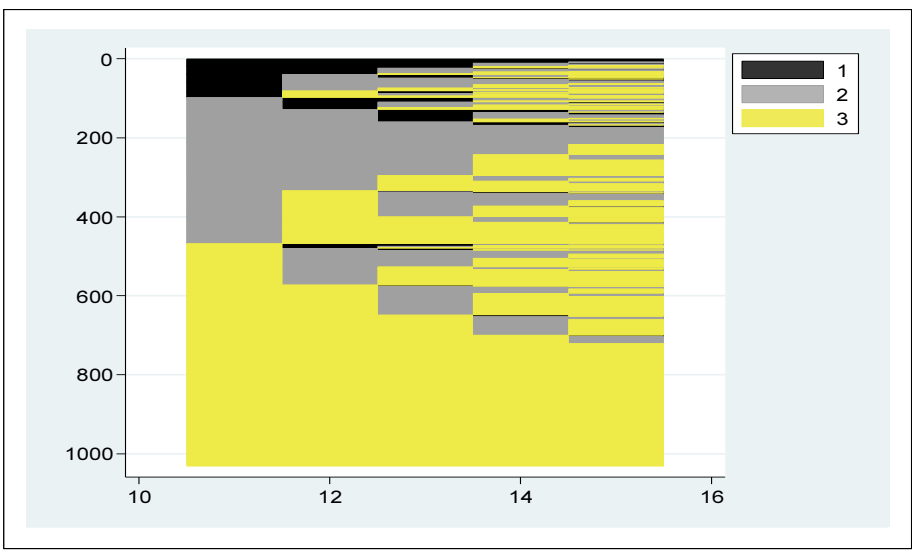
주: 1) 1.불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못함 + 별로 만족하지 못함, 3.만족은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함
2) N = 1,031
3) 학령 표기는 패널아동 기준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모의 삶의 만족도를 보다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건계열분석을 실시한 후 그래프로 그려본 결과는 [그림 V-1-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삶의 만족도는 만족한다(3.노란색)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변화궤적을 살펴보면, 11차년도~1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만족(3.노란색)에서 보통(2.회색)으로 이동했더라도 다시 만족으로 회귀하는 경우 또한 많이 눈에 띄며, 11차년도에는 보통(2.회색)이라고 응답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만족(3.노란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11차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불만족한다(1.검정색)이라고 응답하거나 보통(1.회색)에서 불만족(1.검정색)으로 이동한 경우도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그 빈도가 많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1.만족도가 계속해서 높았던 집단(M1), 2.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만족도가 높아진 집단(M2), 3.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만족도가 낮아진 집단(M3), 4.계속해서 만족도가 낮았던 집단(M4)으로 구분할 수 있다.

M1 집단에 속하는 모들은 11차년도 평균 만족도가 3점 만점에 2.83점이었으며, 15차년도에는 심지어 모두가 3점인 모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031명 중 573명이 이 집단에 속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M2는 11차년도에는 1.8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집단으로, 15차년도에는 평균 2.6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233명이 이 집단에 속하였다. 반대로 M3 집단은 11차년도에 평균 2.53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15차년도 만족도가 1.79점에 그치며 크게 낮아진 집단으로, 117명이 이에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M4 집단은 11차년도에 1.61점으로 4개 유형 중 가장 만족도 평균이 낮았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으로, 108명이 이에 속하였다.

[그림 V-1-1] 모 삶의 만족도 궤적(2018~2022년): 사건계열 그래프



주: 1) 1.매우 불만족 + 불만족(검정), 2.보통(회색), 3.만족+매우 만족(노랑)을 의미함.
2) N = 1,031.
자료: 한국아동패널 11(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표 Ⅴ-1-4〉 모 집단 유형별 삶의 만족도(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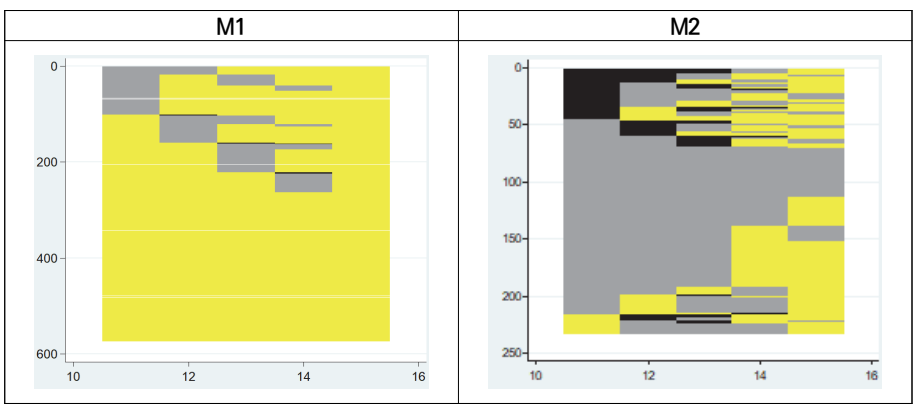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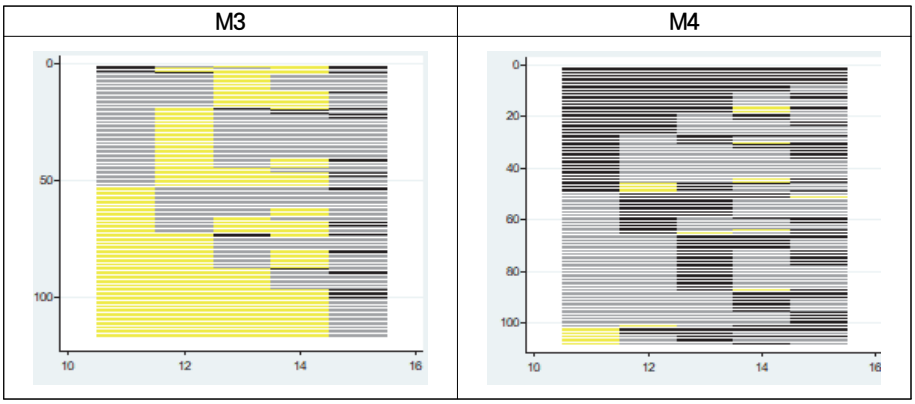
	11차 (2018, 초4)	12차 (2019, 초5)	13차 (2020, 초6)	14차 (2021, 중1)	15차 (2022, 중2)	N
집단_M1	2.83	2.86	2.82	2.87	3.00	573
집단_M2	1.88	1.98	1.96	2.40	2.67	233
집단_M3	2.53	2.68	2.50	2.50	1.79	117
집단_M4	1.61	1.63	1.44	1.71	1.54	108

주: 1) 1.불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못함 + 별로 만족하지 못함, 3.만족은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함
2) 학령 표기는 패널아동 기준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집단 유형별로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을 보다 쉽게 살펴보기 위해 사건계열 그래프를 그린 결과는 [그림 Ⅴ-1-2]와 같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M1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M2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지만, 15차(2022년, 중2)로 올수록 만족도가 높아진 집단(회색→노란색)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M3은 분석자료 초기인 11차년도에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15차년도에는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노란색→회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4는 관측기간 전부에서 전반적으로 불만족(검정) 혹은 보통(회색)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이다.

[그림 Ⅴ-1-2] 모의 집단 유형별 삶의 만족도 사건계열 그래프(2018~2022년)





주: 1.매우 불만족 + 불만족(검정), 2.보통(회색), 3.만족+매우 만족(노랑)을 의미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나) 모의 삶의 만족도 유형별 특성

아동 및 모 특성, 가구 특성 중에서 유형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모 학력변수 하나였다. 즉, 유형집단별에 따라 아동의 성별이나 모 연령은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거주지역의 규모나 가구원수 또한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모 학력의 경우에는 유형집단별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집단(M1)은 다른 집단에 비해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비중이 절반 이상 적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M1 집단은 모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도 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표 V-1-5〉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과 모의 특성 및 가구 특성(2022년 기준)

단위: 명, 세, (%)

구분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계
아동 성별	남아	293 (51.1)	106 (45.5)	65 (55.6)	62 (57.4)	526 (51.0)
	여아	280 (48.9)	127 (54.5)	52 (44.4)	46 (42.6)	505 (49.0)
	χ^2	5.577				-
모연령	30대	27 (4.7)	8 (3.5)	8 (6.8)	7 (6.5)	50 (4.9)
	40대	489 (85.5)	196 (84.9)	98 (83.8)	81 (75.7)	864 (84.1)
	50대 이상	56 (9.8)	27 (11.7)	11 (9.4)	19 (17.8)	113 (11.0)
	평균	44.9	45.2	44.8	45.6	45.1
	χ^2/F	9.128/1.27				-

구분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계
모학력	고졸이하	97 (16.9)	84 (36.1)	37 (31.6)	42 (38.9)	260 (25.2)
	대졸	423 (73.8)	140 (60.1)	73 (62.4)	62 (57.4)	698 (67.7)
	대학원 이상	53 (9.3)	9 (3.9)	7 (6.0)	4 (3.7)	73 (7.1)
	x^2	52.862***				-
지역 규모	대도시	407 (71.0)	160 (68.7)	75 (64.1)	72 (66.7)	714 (69.3)
	중소도시	103 (18.0)	38 (16.3)	24 (20.5)	19 (17.6)	184 (17.9)
	읍면지역	63 (11.0)	35 (15.0)	18 (15.4)	17 (15.7)	133 (12.9)
	x^2	5.270				-
가구원 수	3명	56 (9.8)	25 (10.7)	15 (12.8)	14 (13.0)	110 (10.7)
	4명	308 (53.8)	132 (56.7)	62 (53.0)	55 (50.9)	557 (54.0)
	5명 이상	209 (36.5)	76 (32.6)	40 (34.2)	39 (36.1)	364 (35.3)
	평균	4.6	4.5	4.3	4.6	4.5
	x^2/F	2.753/0.83				-
전 체		573 (100.0)	233 (100.0)	117 (100.0)	108 (10.5)	1,031 (100.0)

주: 1) 모 연령은 결측이 4명 있음.
2) 대졸은 전문대졸과 4년제 대학졸업을 의미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유형집단별로 15차년도(2022년, 중2)의 모 취업 여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은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M2 집단(모의 삶의 만족도가 관측 초기에는 낮았으나 점차 높아진 집단)과 M4 집단(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았던 집단)의 경우 299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단 M4 집단은 관측치가 많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집단(M1)은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 비중이 40.1%로,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V-1-6〉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모의 취업 여부 및 가구소득(2022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계
모 취업 여부	취업	371 (65.7)	158 (67.8)	79 (68.1)	76 (71.7)	684 (67.1)
	미취업	194 (34.3)	75 (32.2)	37 (31.9)	30 (28.3)	336 (32.9)
	x^2	1.648				-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1 (3.7)	19 (8.2)	5 (4.4)	14 (13.1)	59 (5.8)
	300~499만원 이하	110 (19.4)	59 (25.4)	26 (22.8)	37 (34.6)	232 (22.8)
	500~699만원 이하	208 (36.8)	92 (39.7)	48 (42.1)	37 (34.6)	385 (37.8)

구분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계
	700만원 이상	227 (40.1)	62 (26.7)	35 (30.7)	19 (17.8)	343 (33.7)
	χ^2	46.665***				-

주: 모 취업 상태가 결측인 경우 11개 있으며, 가구소득이 결측인 경우가 12개 있음.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모 취업 여부는 매 차수 유형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취업모의 비중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지만,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따른 유형 집단별로는 큰 차이가 없이, 모든 집단에서 취업모 비중이 늘어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표 V-1-7〉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모의 취업 비중 변화(2018~2022년)

단위: 명, (%)

구분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χ^2	계
11차	330 (58.7)	127 (55.0)	64 (55.2)	70 (66.0)	4.162	591 (58.2)
12차	326 (58.5)	135 (58.7)	66 (57.4)	65 (60.2)	0.183	592 (58.6)
13차	345 (61.0)	141 (61.0)	65 (56.0)	65 (60.8)	1.042	616 (60.4)
14차	352 (62.0)	152 (66.1)	74 (63.3)	64 (60.4)	1.505	642 (62.9)
15차	371 (65.7)	158 (67.8)	79 (68.1)	76 (71.7)	1.648	684 (67.1)

주: 1) 모가 취업 중인 관측치와 비중만을 표기하였으며, 전체에서 모 취업자 수를 뺀 것이 모가 미취업(학업, 미취업 등)인 경우임.
2) 전체 관측치는 11차년도 1,015명, 12차년도 1,010명, 13차년도 1,020명, 14차년도 1,021명, 15차년도 1,020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월평균 가구소득도 차수가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취업모 비중과는 달리 가구소득은 유형 집단별로 모든 차수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집단(M1)은 모든 차수에서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해 가구소득 평균이 높았다. 반면,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았던 집단(M4)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구소득 평균이 모든 차수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삶의 만족도는 가구소득 수준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Ⅴ-1-8〉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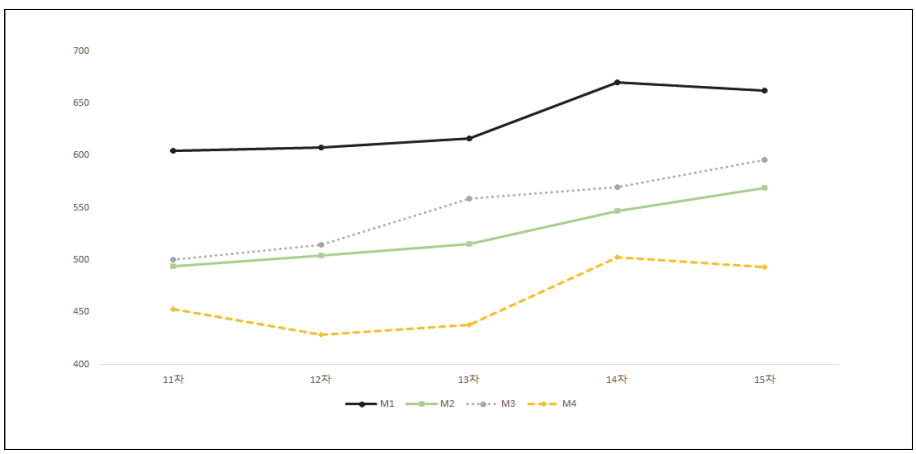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구분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x^2	계
11차	604.7 (526)	494.1 (214)	500.2 (107)	452.9 (97)	5.18**	552.2 (944)
12차	607.7 (544)	503.9 (219)	514.2 (108)	428.1 (100)	8.14***	555.4 (971)
13차	616.5 (546)	515.6 (219)	559.1 (106)	438.1 (105)	7.40***	568.5 (976)
14차	670.5 (531)	547.2 (213)	569.9 (102)	502.8 (97)	5.94***	614.5 (939)
15차	662.0 (566)	569.1 (232)	596.0 (114)	493.3 (107)	13.11***	615.7 (1,019)

주: 1) 소득 무응답(모름/무응답)으로 인해 차수별로 관측치수가 다름.
2) 14차년도 M3 집단에 월평균 가구소득을 2억 5천만원을 응답한 관측치는 아웃라이어로 보고 결측 처리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1$, *** $p < .001$.

이를 보다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형 집단별로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를 그려보면,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집단(M1)의 가구소득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매 차수 조금씩 더 상승하는 경향성이 발견되며,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았던 집단(M4)는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가구소득을 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집단(M2)와 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낮아지는 집단(M3)은 중간 수준의 가구소득을 보이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M3의 가구소득 수준이 M2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3]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2018~2022년)



주: 1) 소득 무응답(모름/무응답)으로 인해 차수별로 관측치 수가 다름.
2) 14차년도 M3 집단에 월평균 가구소득을 2억 5천만원을 응답한 관측치는 아웃라이어로 보고 결측 처리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집단별로 자녀 양육비용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용은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집단(M1)에서 가장 높았고,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았던 집단(M4)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자녀 양육비용이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결과로 추측된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며, 특히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한 14차년도(2021년, 중1)에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유형 집단에서 동일하게 관측되는 현상이었다.

〈표 V-1-9〉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자녀 양육비용(2018~2022년)

단위: 만원

구분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x^2	계
11차 (2018, 초4)	155.3	144.4	137.7	128.0	3.78*	148.0
12차 (2019, 초5)	157.4	144.8	150.4	125.8	4.71**	150.4
13차 (2020, 초6)	161.8	145.0	152.0	126.9	5.98***	153.2
14차 (2021, 중1)	201.1	181.6	191.5	164.6	5.25**	191.8

주: 1) 양육비용은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지출과 소비성지출을 합친 금액임.
2) 관측치는 11차년도 1,031명, 12차년도 1,030명, 13차년도 1,031명, 14차년도 1,029명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집단별로 부부 갈등 변수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았던 집단(M4)의 경우 부부 갈등 변수가 조사된 모든 차수에서 높았으며,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집단(M1)은 부부 갈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차수에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가 높아진 집단(M2)의 경우에는 점차 부부 갈등 지표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점차 낮아진 집단(M3)의 경우에는 부부 갈등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즉, 모의 삶의 만족도는 부부 갈등 변수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Ⅴ-1-10〉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부부 갈등 (2018~2022년)

단위: 점

구분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x^2	계
11차 (2018, 초4)	1.76	2.41	2.00	2.78	87.1***	2.04
13차 (2020, 초6)	1.78	2.34	2.08	2.73	68.7***	2.04
15차 (2022, 중2)	1.84	2.26	2.36	2.93	80.0***	2.11

주: 1) 부부 갈등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2) 관측치는 모든 차수에서 M1 573명, M2 233명, M3 117명, M4 108명으로, 총 1,031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한편, 아동의 학습시간이나 학업성취가 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습시간은 유형 집단별로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업성취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의 학습의 시간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13차년도(2020년, 초6)에 약간 감소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길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모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유형 집단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든 집단에서 발견되는 현상이 볼 수 있다.

〈표 Ⅴ-1-11〉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의 일주일 학습시간(2018~2022년)

단위: 시간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x^2	계
11차 (2018, 초4)	48.1	48.4	48.3	49.0	0.43	48.3
12차 (2019, 초5)	50.0	50.3	49.0	49.2	0.92	49.9
13차 (2020, 초6)	47.1	47.8	46.1	46.9	0.98	47.1
14차 (2021, 중1)	53.8	51.6	53.1	51.2	3.04*	53.0
15차 (2022, 중2)	56.6	55.0	56.6	54.2	1.87	56.0

주: 1) 학습시간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시간, 숙제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 인터넷 강의 등 학교수업 외 비대면 교육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주중 시간×5 + 주말 시간×2로 산출함.
2) 관측치는 모든 차수에서 M1 573명, M2 233명, M3 117명, M4 108명으로, 총 1,031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5$.

반면,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모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자녀의 학업성취는 학업 이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학업성취를 아동이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14차년

도(2021년, 중1)의 학업 이해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비교적 패널아동들의 학업 이해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15차년도(2022년, 중2)에는 3.62점으로 약간 낮아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집단(M1)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았던 집단(M4)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가 높아진 집단(M2)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낮아진 집단(M3)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1-12〉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학업 이해도(2018~2022년)

단위: 시간

구분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χ^2	계
14차 (2021, 중1)	3.88	3.74	3.75	3.51	8.19***	3.80
15차 (2022, 중2)	3.73	3.50	3.57	3.34	11.56***	3.62

주: 1) 학업 이해도는 총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서 각 과목별로 5점 척도임(1.거의 이해하지 못함~5.매우 잘 이해함).
2) 관측치는 1,022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한편,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 정도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인 낮은 집단(M4)에서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M4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유형의 경우 해마다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집단 간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3〉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2018~2022년)

단위: 점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χ^2	계
12차 (2019, 초5)	3.90	3.81	3.92	3.74	3.61*	3.86
14차 (2021, 중1)	3.78	3.67	3.72	3.59	4.76***	3.73
15차 (2022, 중2)	3.76	3.66	3.67	3.54	4.93***	3.71

주: 1) 부모애착은 총 12개 문항 5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5.항상 그렇다). 7~9번, 11번 문항은 역코딩
2) 관측치는 12차년도 1,023명, 14차년도 1,020명, 15차년도 1,022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5$, *** $p < .001$.

2) 아동의 삶의 만족도 궤적과 집단별 특성

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 궤적에 따른 유형화 결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2.18~2.72점 사이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전반적으로 모의 삶의 만족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인 모의 삶의 만족도와는 반대 방향의 경향성을 보였다. 또, 모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13차년도, 초6)에 예년보다 낮아진데 반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반대로 2020년에 소폭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11차년도(2018년)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12차년도(2019년)에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11차년도에는 만족한다는 응답비중이 75.8%에 달하는데 반해 12차년도에는 보통이 63.0%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다만, 이와 같은 변화가 아동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생긴 변화인지, 설문의 변경으로 인한 변화인지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명료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12차년도(2019년, 초5) 이후 보통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은 이후로 쭉 이어지는 양상이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점차 줄어드는데 반해, 불만족 비중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아동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에 불만족하는 아동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표 Ⅴ-1-14〉 아동의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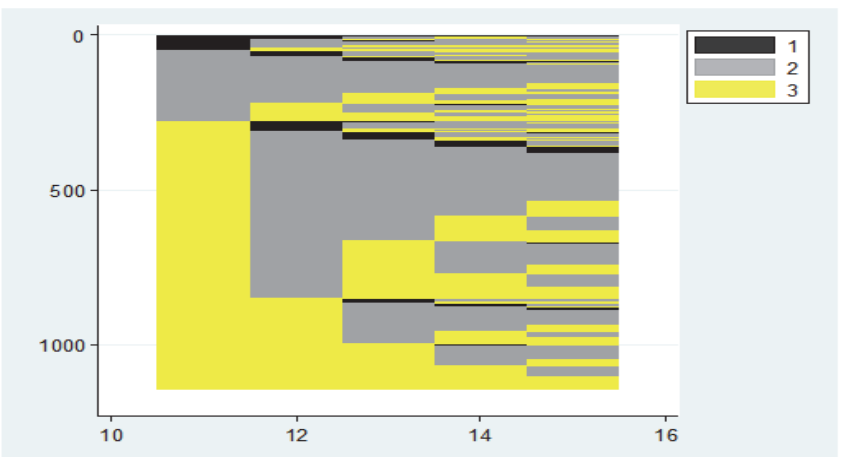
	11차 (2018, 초4)	12차 (2019, 초5)	13차 (2020, 초6)	14차 (2021, 중1)	15차 (2022, 중2)
불만족	49 (4.3)	65 (5.7)	78 (6.8)	100 (8.7)	126 (11.0)
보통	228 (19.9)	721 (63.0)	650 (56.8)	694 (60.6)	690 (60.3)
만족	868 (75.8)	359 (31.4)	417 (36.4)	351 (30.7)	329 (28.7)
평균점수	2.72	2.26	2.30	2.22	2.18

주: 1) 아동 삶의 만족도는 총 3개 변수(각 4점 만점)를 합산한 값을 5점 만점으로 다시 환산한 후, 0~2.99점은 1.불만족, 3~3.99점은 2.보통, 4~5점은 3. 만족으로 재분류함.
2) N = 1,145
3) 학령 표기는 패널아동 기준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사건계열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과는 달리 관측 초기(11차년도)에 높았다가 점차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는 12차년도(2019년, 초5)로, 11차년도에 만족(노란색)이었다가 12차년도에 보통(회색)으로 이동한 아동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3차년도(2020년, 초6)에는 다시 보통(회색)에서 만족(노란색)으로 변화한 아동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을 활용한 유형화 결과,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C1 집단은 지속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으로, 11차년도(2018년, 초4)에 3점 만점에 평균 2.9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후 이보다는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2.5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이었다. C1으로 분류된 아동은 전체 1,145명중 486명이었다. C2는 11차년도에는 대부분이 3점으로

[그림 V-1-4] 아동의 삶의 만족도 궤적(2018~2022년): 사건계열 그래프



주: 1) 아동 삶의 만족도는 총 3개 변수(각 4점 만점)를 합산한 값을 5점 만점으로 다시 환산한 후, 0~2.99점은 1.불만족(검정), 3~3.99점은 2.보통(회색), 4~5점은 3.만족(노랑)으로 재분류함.
2) N = 1,145.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응답한 집단으로, 12차년도(2019년, 초5)에 만족도 점수가 1.9점으로 크게 낮아지고, 13차년도(2020년, 초6)에 다시 2.27로 증가했다가 14차년도(2021년, 중1)에는 삶의 만족도 평균이 1.91점으로 다시 낮아진 집단이다. C2 집단에는 316명이 속하여 C1보다는 적지만 상당수 아동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C3은 11차년도 2.84점, 12차년도 2.82점으로 비교적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다, 13차년도(2020년, 초6)에 만족도가 평균 1.79점으로 크게 낮아진 집단으로, 가장 적은 숫자인 136명이 이 집단에 속했다. C4는 11차년도(2018년, 초4)일 때부터 평균 1.76점의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으며, 이후로도 2점 이하의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집단으로 207명이 C4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5〉 아동 집단 유형별 삶의 만족도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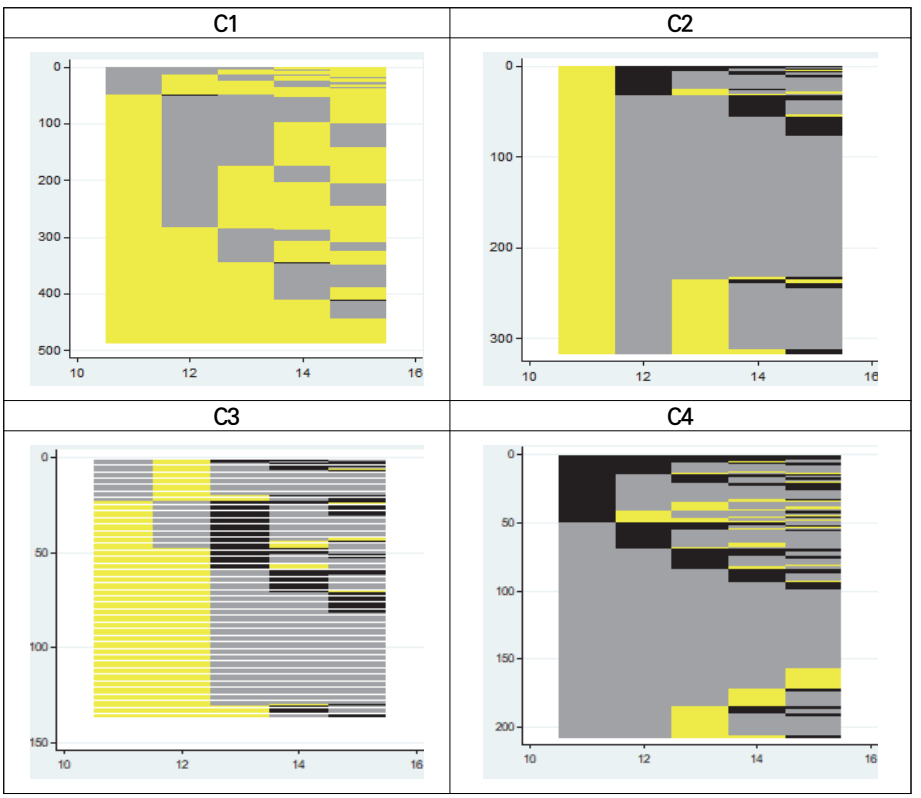
	11차 (2018, 초4)	12차 (2019, 초5)	13차 (2020, 초6)	14차 (2021, 중1)	15차 (2022, 중2)	N
집단_C1	2.90	2.49	2.58	2.62	2.59	486
집단_C2	3.00	1.90	2.27	1.91	1.87	316
집단_C3	2.84	2.82	1.79	1.86	1.79	136
집단_C4	1.76	1.89	2.01	1.98	1.93	207

주: 1) 아동 삶의 만족도는 총 3개 변수(각 4점 만점)를 합산한 값을 5점 만점으로 다시 환산한 후, 0~2.99점은 1.불만족, 3~3.99점은 2.보통, 4~5점은 3.만족으로 재분류함.
2) 학령 표기는 패널아동 기준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집단 유형별 사건계열 그래프를 살펴보면, C1의 경우 12차년도 이후 만족도가 보통(회색)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C2의 경우 집단에 속한 모든 아동이 11차년도에는 만족도가 3점이었던 집단으로, 12차년도에 불만족(검정색) 혹은 보통(회색)으로 변화한 경우이다. C3은 12차년도까지는 만족(노란색) 혹은 적어도 보통(회색) 응답이 유지된 집단이나, 13차년도(2020년, 초6) 이후로는 만족도가 보통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이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C3 집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집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13차년도)에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C3의 경우는 이들 유형과는 달리 2020년도(13차년도)에 만족도가 확연하게 낮아지는 방향(노란색→ 회색 혹은 검정색)으로 이동한 아동들

이다. 마지막으로 C4 집단은 관측 초기(11차년도)부터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집단으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회색 혹은 검정색)를 보이는 집단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1-5] 아동 집단 유형별 삶의 만족도 사건계열 그래프(2018~2022년)



주: 아동 삶의 만족도는 총 3개 변수(각 4점 만점)를 합산한 값을 5점 만점으로 다시 환산한 후, 0~2.99점 은 1.불만족(검정), 3~3.99점은 2.보통(회색), 4~5점은 3.만족(노랑)으로 재분류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나) 아동의 삶의 만족도 유형별 특성

유형집단별 아동 성별과 모 특성(모 연령, 모 학력), 지역 규모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원수는 초등6학년 이후 만족도가 감소한 집단(C3)이 다른 유형에 비해 5% 유의수준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6〉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과 모의 특성 및 가구 특성(2022년 기준)

단위: 명, (%), 세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계
아동 성별	남아	254 (52.3)	166 (52.5)	66 (48.5)	101 (49.0)	587 (51.3)
	여아	232 (4707)	150 (47.5)	70 (51.5)	105 (51.0)	557 (48.7)
	χ^2	1.216				-
모연령	30대	25 (5.2)	14 (4.5)	7 (5.2)	9 (4.4)	55 (4.8)
	40대	404 (83.3)	268 (85.4)	116 (85.3)	173 (84.0)	961 (84.2)
	50대이상	56 (11.6)	32 (10.2)	13 (11.9)	24 (11.7)	125 (11.0)
	평균	45.0	44.9	45.0	45.6	45.1
	χ^2/F	1.086/1.62				-
모학력	고졸이하	123 (25.5)	71 (22.8)	38 (28.2)	54 (26.6)	286 (25.3)
	대졸	323 (67.0)	224 (72.0)	86 (63.7)	133 (65.5)	766 (67.7)
	대학원 이상	36 (7.5)	16 (5.1)	11 (8.2)	16 (7.9)	79 (7.0)
	χ^2	4.847				
지역 규모	대도시	346 (71.2)	221 (69.9)	96 (70.6)	137 (66.5)	800 (69.9)
	중소도시	88 (18.1)	52 (16.5)	26 (19.1)	34 (16.5)	200 (17.5)
	읍면지역	52 (10.7)	43 (13.6)	14 (10.3)	35 (17.0)	144 (12.6)
	χ^2	6.463				
가구원 수	3명	48 (9.9)	41 (13.0)	11 (8.1)	21 (10.2)	121 (10.6)
	4명	273 (56.2)	159 (50.3)	72 (52.9)	109 (52.9)	613 (53.6)
	5명이상	165 (34.0)	116 (36.7)	53 (39.0)	76 (36.9)	410 (35.8)
	평균	4.5	4.5	4.9	4.6	4.6
	χ^2/F	5.020/2.62*				-
전 체		485 (100.0)	314 (100.0)	136 (100.0)	206 (100.0)	1,145 (100.0)

주: 1) 아동의 성별 결측치가 1개 있으며, 모 연령 결측 4개, 모 학력 결측 14개, 지역 규모 결측 1개, 가구원수 결측 1개
2) 대졸은 전문대졸과 4년제대학졸업을 의미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5$.

한편, 유형 집단별 2022년 기준 취업모 비중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가구소득 또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집단의 경우 가구소득이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아동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V-1-17〉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모의 취업 여부 및 가구소득(2022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계
모 취업 여부	취업	317 (66.6)	202 (65.2)	89 (65.9)	148 (74.0)	756 (67.6)
	미취업	159 (33.4)	108 (34.8)	44 (33.1)	52 (26.0)	363 (32.4)
	χ^2	4.83				-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6 (5.5)	17 (5.5)	8 (5.9)	14 (7.0)	65 (5.8)
	300~499만원 이하	109 (22.9)	62 (20.1)	32 (23.7)	52 (25.9)	255 (22.8)
	500~699만원 이하	191 (40.1)	110 (35.7)	49 (36.3)	65 (32.3)	415 (37.1)
	700만원이상	150 (31.5)	119 (38.6)	46 (34.1)	70 (18.0)	385 (34.4)
	χ^2	7.82				-

주: 모 취업 상태가 결측인 경우 26개 있으며, 가구소득이 결측인 경우가 25개 있음.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조사차수별로도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집단 간에 모의 취업 여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비중은 모든 유형 집단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이며, 특별히 삶의 만족도 유형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1-18〉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모의 취업 비중 변화(2018~2022년)

단위: 명, (%)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χ^2	계
11차	270 (56.7)	194 (63.0)	69 (52.3)	122 (61.6)	6.05	655 (58.8)
12차	269 (57.2)	190 (62.1)	72 (55.4)	123 (61.2)	2.92	654 (59.1)
13차	279 (59.1)	197 (63.8)	75 (56.0)	132 (65.4)	4.72	683 (61.2)
14차	288 (60.3)	201 (65.1)	82 (61.2)	140 (69.3)	5.71	711 (63.3)
15차	317 (66.6)	202 (65.2)	89 (66.9)	148 (74.0)	4.83	756 (67.6)

주: 1) 모가 취업 중인 관측치와 비중만을 표기하였으며, 전체에서 모 취업자 수를 뺀 것이 모가 미취업(학업, 미취업 등)인 경우임.
2) 전체 관측치는 11차년도 1,114명, 12차년도 1,107명, 13차년도 1,117명, 14차년도 1,123명, 15차년도 1,119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조사차수별로 유형 집단 간 월평균 가구소득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 가구소득은 C2(12차년도 이후 만족도가 낮아진 집단)에서 가장 높아서, 15차년도 기준 평균 658만 6천원이었다. 그러나, 다른 유형 집단의 가구소득도 모두 600만원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삶의 만족도 궤적에 따

른 유형 집단별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확연했던 모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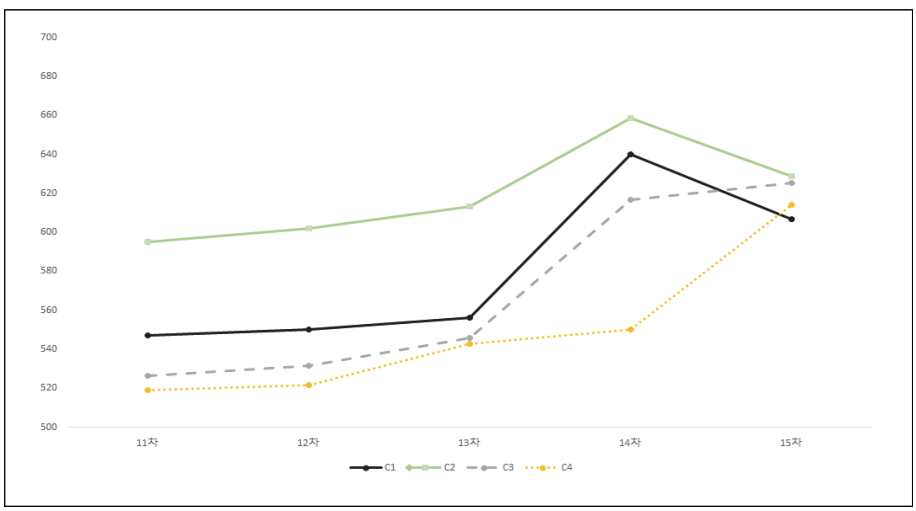
〈표 Ⅴ-1-19〉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2018~2022년)

단위: 만원, (명)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χ^2	계
11차	547.2 (451)	595.2 (283)	526.4 (117)	519.2 (188)	1.32	552.9 (1,039)
12차	549.9 (459)	602.1 (293)	531.6 (124)	521.7 (192)	2.06	557.0 (1,068)
13차	556.2 (460)	613.1 (299)	545.8 (126)	542.8 (195)	1.84	568.3 (1,080)
14차	639.8 (439)	658.6 (290)	616.7 (123)	550.1 (190)	1.76	626.0 (1,042)
15차	606.6 (476)	628.9 (308)	625.3 (135)	614.2 (201)	0.41	616.3 (1,120)

주: 1) 소득 무응답(모름/무응답)으로 인해 차수별로 관측치 수가 다름.
2) 14차년도 C4 집단에 월평균 가구소득을 2억 5천만원을 응답한 관측치는 아웃라이어로 보고, 결측 처리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그림 Ⅴ-1-6]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2018~2022년)



주: 1) 소득 무응답(모름/무응답)으로 인해 차수별로 관측치 수가 다름.
2) 14차년도 C4 집단에 월평균 가구소득을 2억 5천만원을 응답한 관측치가 포함되어, 평균치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는데, 11차~15차년도 전체 기간 중 C2(12차년도 이후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한 집단)의 가구소득 평균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C1(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의 가구소득이 14차년도 이전까지는 다른 유형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15차년도 기준 C1(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의 가구소득 평균은 4개 유형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가구소득 수준과는 큰 상관을 갖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가구소득이 14차년도(2021년, 중1)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C4(지속적으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14차년도에 증가하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는 것에 그친 반면, 15차년도에 큰 상승폭을 보인다는 점이다.

모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 집단별로 학습시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의 학습시간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아동의 학습시간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시간은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1-20〉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의 일주일 학습시간(2018~2022년)

단위: 시간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x^2	계
11차 (2018, 초4)	48.2	48.0	48.2	48.7	0.31	48.2
12차 (2019, 초5)	49.8	50.1	49.6	50.3	0.28	49.9
13차 (2020, 초6)	47.5	46.9	46.9	46.2	0.91	47.0
14차 (2021, 중1)	52.3	53.3	53.0	53.5	0.81	52.9
15차 (2022, 중2)	56.5	55.1	56.3	55.1	1.23	55.9

주: 1) 학습시간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시간, 숙제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 인터넷 강의 등 학교수업 외 비대면 교육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주중 시간×5 + 주말 시간×2로 산출함.
2) 관측치는 1,145명으로 12차년도 결측 2개, 13차년도에 1개의 결측이 있음.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C1)은 학업 이해도가 다른 3개 집단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나머지 3개 유형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Ⅴ-1-2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학업 이해도(2018~2022년)

단위: 시간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x^2	계
14차 (2021, 중1)	3.96	3.71	3.67	3.63	14.11***	3.79
15차 (2022, 중2)	3.77	3.54	3.46	3.44	14.14***	3.61

주: 1) 학업 이해도는 총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서 각 과목별로 5점 척도임(1.거의 이해하지 못함~5.매우 잘 이해함).
2) 관측치는 1,145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한편, 학교 선호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집단(C1)이 가장 높고,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았던 집단(C4)가 가장 낮았다. 학교 선호도는 학교를 좋아하느냐를 질문하는 단일 문항으로, 11차년도(2018년, 초4)에 비해 13차년도(2020년, 초6)에 학교 선호도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22〉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학교 선호도(2018~2022년)

단위: 시간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x^2	계
11차 (2018, 초4)	3.14	2.96	2.92	2.46	31.99***	2.94
13차 (2020, 초6)	2.78	2.49	2.24	2.23	28.82***	2.54

주: 1) 학업 선호도는 단일 문항으로 4점 척도임(1.좋아하지 않는다~4.매우 좋아한다).
2) 관측치는 1,145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아동이 부모가 자신에게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성취압력은 5점 만점에 평균 2.30~2.41점으로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단, 유형 집단별로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집단(C1)에서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C4(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았던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12차년도(2019, 초5) 이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집단(C2)은 성취압력이 해가 지남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13차년도(2020년, 초6)에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1-23〉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성취압력(2018~2022년)

단위: 점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χ^2	계
11차 (2018, 초4)	2.35	2.36	2.55	2.53	6.30***	2.41
12차 (2019, 초5)	2.23	2.32	2.39	2.41	4.58***	2.31
13차 (2020, 초6)	2.26	2.31	2.32	2.38	1.22	2.30
14차 (2021, 중1)	2.22	2.35	2.42	2.49	6.17***	2.33
15차 (2022, 중2)	2.29	2.37	2.46	2.48	3.14*	2.37

주: 1) 성취압력 아동이 부모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별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2) 관측치는 1,145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5$, *** $p < .001$.

학업 스트레스는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시험을 통한 평가가 시작되는 중2(15차년도) 시기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 집단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동일 시점 내에서는 유형 집단별로 C1(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집단)의 학업 스트레스가 C4(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반증한다.

〈표 V-1-24〉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학업 스트레스(2018~2022년)

단위: 점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χ^2	계
11차 (2018, 초4)	1.94	1.92	2.11	2.55	28.87***	2.07
12차 (2019, 초5)	2.07	2.08	2.18	2.48	12.85***	2.16
13차 (2020, 초6)	2.19	2.21	2.38	2.47	5.99***	2.27
14차 (2021, 중1)	2.20	2.21	2.41	2.55	11.38***	2.29
15차 (2022, 중2)	2.59	2.59	2.70	2.95	9.01***	2.67

주: 1) 학업 스트레스는 11~13차년도는 총 3개 문항, 14~15차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별 5점 척도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
2) 관측치는 1,145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또래애착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의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지표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집단(C1)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았던 집단(C4)의 경우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점수도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5〉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또래애착_의사소통(2018~2022년)

단위: 점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χ^2	계
11차 (2018, 초4)	3.22	3.14	3.12	2.79	30.58***	3.10
13차 (2020, 초6)	3.20	3.07	2.94	2.93	16.93***	3.09
14차 (2021, 중1)	3.27	3.11	3.09	2.95	21.51***	3.15
15차 (2022, 중2)	3.27	3.12	3.14	2.92	24.22***	3.15

주: 1) 또래애착은 총 9개 문항, 3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문항별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2) 관측치는 1,145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신뢰감 또한 C1이 모든 차수에서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C4 집단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15차년도(2022년, 중3) 기준 C1 집단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신뢰감이 4점 만점 기준 3.35점으로 매우 높은데 반해 C4 집단 속한 아이들은 2.89점에 그쳤다.

〈표 V-1-26〉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또래애착_신뢰(2018~2022년)

단위: 점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χ^2	계
11차 (2018, 초4)	3.35	3.27	3.20	2.81	43.78***	3.21
13차 (2020, 초6)	3.29	3.16	3.05	2.93	21.39***	3.16
14차 (2021, 중1)	3.35	3.15	3.11	2.91	33.05***	3.19
15차 (2022, 중2)	3.31	3.12	3.13	2.89	26.50***	3.16

주: 1) 또래애착은 총 9개 문항, 3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문항별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2) 관측치는 1,145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반대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는 C4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15차년도(2022년, 중2) 기준 C1 집단의 또래애착_소외 지표는 평균 1.76점에 그친 반면, C4 집단의 경우에는 2.0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또래 집단 내에서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집단일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또래애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함께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래애착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연령 증가와는 무관하게 초4~중2 시기 중 모든 시점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표 V-1-27〉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또래애착_소외(2018~2022년)

단위: 점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χ^2	계
11차 (2018, 초4)	1.80	1.85	1.88	2.16	19.21***	1.89
13차 (2020, 초6)	1.79	1.87	2.01	2.05	10.65***	1.87
14차 (2021, 중1)	1.81	1.84	1.95	2.05	8.49***	1.89
15차 (2022, 중2)	1.76	1.86	1.91	2.03	9.78***	1.86

주: 1) 또래애착은 총 9개 문항, 3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문항별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2) 관측치는 1,145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아동이 부에 대해서 느끼는 애착 또한 아동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 부에 대한 애착은 C4 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C1 집단의 경우 모든 차수에서 부에 대한 애착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8〉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의 부에 대한 애착(2018~2022년)

단위: 점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χ^2	계
12차 (2019, 초5)	3.73	3.59	3.69	3.30	28.22***	3.61
14차 (2021, 중1)	3.62	3.48	3.48	3.27	18.79***	3.50
15차 (2022, 중2)	3.70	3.55	3.47	3.41	6.42***	3.58

주: 1) 부모애착은 총 12개 문항 5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5.항상 그렇다). 7~9번, 11번 문항은 역코딩
2) 관측치는 12차년도 1,133명, 14차년도 1,145명, 15차년도 1,145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부에 대한 애착과 마찬가지로 모에 대한 애착 점수 또한 C4 집단의 경우 현저하게 낮았으며, C1 집단에 속한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모와의 애착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에 대한 애착 점수에 비해 모에 대한 애착 점수가 모든 차수에서 약간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모에 대한 애착 점수는 초반 만족도가 높았으나 이후 만족도가 낮아진 2개 유형의 집단(C2와 C3)에서 14차년도(2021년, 중1) 이후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표 V-1-29〉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아동의 모에 대한 애착 (2018~2022년)

단위: 점

구분	집단_C1	집단_C2	집단_C3	집단_C4	χ^2	계
12차 (2019, 초5)	3.98	3.83	3.90	3.58	28.10***	3.85
14차 (2021, 중1)	3.88	3.67	3.60	3.51	27.48***	3.72
15차 (2022, 중2)	3.89	3.66	3.63	3.48	19.40***	3.72

주: 1) 부모애착은 총 12개 문항 5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5.항상 그렇다). 7~9번, 11번 문항은 역코딩
2) 관측치는 12차년도 1,138명, 14차년도 1,145명, 15차년도 1,145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01$.

또래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 점수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점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아동-모 삶의 만족도 궤적의 연관성 및 특징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집단과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집단 간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1~15차년도 아동과 모 모두가 응답된 관측치인 1,006명이 이 절의 분석 대상이다. 이 중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집단(M1과 C1)인 경우가 261명(2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의 삶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으나(M1)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 4학년 때는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나 초등 5학년 이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집단(C2)가 154명(15.3%)으로 다음이었다.

〈표 V-1-30〉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집단 교차 분석

단위: 명, (%)

구분		모의 유형 집단				계
		집단_M1	집단_M2	집단_M3	집단_M4	
아동 유형 집단	집단_C1	261 (25.9)	90 (9.0)	49 (4.9)	38 (3.8)	438 (43.5)
	집단_C2	154 (15.3)	65 (6.5)	34 (3.4)	25 (2.5)	278 (27.6)
	집단_C3	62 (6.2)	33 (3.3)	14 (1.4)	14 (1.4)	123 (12.2)
	집단_C4	87 (8.7)	37 (3.7)	17 (1.7)	26 (2.6)	167 (16.6)
계		564 (56.1)	225 (22.4)	114 (11.3)	103 (10.2)	1006 (100.0)

주: 비중은 전체 100%를 기준으로 산출된 값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15차년도(2022년, 중2) 기준으로 모의 삶의 만족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0.0018로 전혀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11~15차년도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을 기준을 산출한 아동과 모의 유형 집단 간의 상관계수는 0.0752로 5% 유의수준[24]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모의 유형 집단과 아동의 유형 집단 변수를 활용하여 다시금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화 결과,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CM1은 아동의 유형 집단이 1에 가깝고, 모의 유형 집단도 1에 가까운 집단이다. 즉,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집단이라 볼 수 있으며, 전체 분석대상의 56.7%에 해당하는 570명이 이 집단에 속하였다. CM2는 아동의 유형 집단 평균이 3.5이고, 모의 유형 집단 평균은 1.3인 집단으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편이었거나 최근에 낮아진 집단인데 반해, 모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CM2에 속하는 관측치는 21.8%로 219명이었다. 반면, CM3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하고 있으나, 모의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146명, 14.5%)이며, CM4는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던 집단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전체 표본에서 7.1%(71명)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보였다. 즉, 한국아동패널 표본의 경우 대체로 아동과 모 모두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표본이 가장 많고, 아동과 모의

24) 정확한 p값은 0.017.

삶의 만족도가 서로 상반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365명(219명+146명)이었으며,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둘 다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1-31〉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유형 집단

단위: 명, (%)

구분		cluster means		계
		아동 유형	모 유형	
아동_모 유형 집단	집단_CM1	1.35	1.27	570 (56.7)
	집단_CM2	3.53	1.35	219 (21.8)
	집단_CM3	1.53	3.42	146 (14.5)
	집단_CM4	3.75	3.59	71 (7.1)

주: 전체 관측치는 1,006명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아동-모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및 가구 특성은 지면의 제약과 가독성 제고를 위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만 제시하였다. 또, 학습, 상호관계 및 발달 관련 지표들의 경우 분석자료 중 가장 최근 차수인 15차년도 자료(2022년, 중2) 기준 값에 대한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앞서, 모 혹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유형 집단별 특징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변수들은 차수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하나 해가 지나더라도 집단 간 차이는 경향성 자체가 크게 변동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25)]

가구 특성 중에서는 가구소득이 유일하게 유형 집단 간 차이를 보인 변수였다.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CM1)의 경우 평균 가구소득이 629만 5천원으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높으나 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CM3)나 지속적으로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낮은 집단(CM4)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이할 만한 점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나 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CM2)의 평균 가구소득이 634만 7천원으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모의 삶의 만족도는 가구소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지만,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가구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25) 실제 모든 차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15차년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변인들은 다른 차수에서도 여전히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음.

같이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즉, 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인 CM1과 CM2의 가구소득이 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 CM3와 CM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표 V-1-32〉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유형 집단별 가구소득(2022년 기준)

단위: 명, %, 만원

구분		집단_CM1	집단_CM2	집단_CM3	집단_CM4	계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7 (4.8)	13 (6.0)	11 (7.8)	8 (11.3)	59 (5.9)
	300~499만원 이하	120 (21.3)	47 (21.7)	38 (26.8)	23 (32.4)	228 (22.9)
	500~699만원 이하	214 (37.9)	84 (38.7)	57 (40.1)	24 (33.8)	379 (38.1)
	700만원 이상	203 (36.0)	73 (33.6)	36 (25.4)	16 (22.5)	328 (33.0)
	평균 가구소득	629.5	634.7	548.2	541.0	612.7
	x^2/F	16.900/4.63**				-

주: 1) 결측치가 12개 있어, 전체 관측치는 994명임.
2)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평균 가구소득은 모든 차수에서 15차년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1$.

한편, 학습 및 상호관계 등과 관련된 변수들은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유형 집단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학업 이해도는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CM1)에서 3.72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반대로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CM4)에서는 3.22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의 학업 이해도(학업성취)가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CM1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한편, 또래애착의 경우 의사소통과 신뢰 지표의 경우 CM1(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과 CM3(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높고, 모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소외 관련 지표의 경우 CM1에서 특히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CM1과 CM3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또래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집단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들이었다.

부모애착과 관련 변수는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해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CM1)에서 부모 둘 다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애착 관계가 좋은 경우 아동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부에 대한 애착 점수가 낮은 집단은 CM2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나 모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 집단이라는 점이다. 이는 아동과 부의 애착 관계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모의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음을 반증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모와 아동의 애착 점수는 CM4(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둘 다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CM2(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나 모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편)의 경우에도 CM4와 큰 차이가 없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아동의 애착 관계는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때, 아동과 부모 사이의 애착은 부 혹은 모 한쪽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안되고, 부-아동, 모-아동의 관계 모두가 좋을 때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부 갈등(아동의 입장에서는 부모 사이의 갈등)의 경우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CM1)에서 가장 낮고,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CM4)에서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부모가 서로 갈등을 겪는 경우 아동의 삶의 만족도 또한 영향을 받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단, 부부 갈등의 경우 응답자가 모이기 때문에, 부부 갈등 변수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보다는 모의 삶의 만족도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낮고 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CM2)의 부부 갈등 점수는 2.0점으로 CM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높고 모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CM3)의 부부 갈등 점수는 2.55점으로 CM2와는 상당한 간극을 보였다.

〈표 V-1-33〉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유형 집단별 특성(2022년 기준)

단위: 점

		집단_CM1	집단_CM2	집단_CM3	집단_CM4	x^2	계
학업 이해도		3.72	3.50	3.57	3.22	12.22***	3.61
성취압력		2.30	2.45	2.47	2.46	3.06*	2.37
학업 스트레스		2.56	2.82	2.73	2.76	5.11**	2.66
또래애착	의사소통	3.22	3.00	3.15	3.00	11.69***	3.15
	신뢰	3.24	2.94	3.20	3.06	14.68***	3.16
	소외	1.78	1.99	1.86	2.02	8.06***	1.85
부모애착	부에 대한 애착	3.68	3.39	3.52	3.55	5.94***	3.57
	모에 대한 애착	3.82	3.50	3.65	3.48	20.29***	3.70
부부 갈등		1.96	2.00	2.55	2.80	46.16***	2.11

주: 1) 학업 이해도는 총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서 각 과목별로 5점 척도임(1.거의 이해하지 못함~5.매우 잘 이해함). N = 1,006
2) 성취압력은 아동이 부모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별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N = 1,006
3) 학업 스트레스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별 5점 척도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 N = 1,006
4) 또래애착은 총 9개 문항, 3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문항별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N = 1,006
5) 부모애착은 각 12개 문항 5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5.항상 그렇다). 7~9번, 11번 문항은 역코딩. N = 1,006
6) 부부 갈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N = 1,006

자료: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15차(2022년) 원자료

* $p < .05$, ** $p < .01$, *** $p < .001$.

라. 소결

이상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삶의 만족도는 자녀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개인에 따라 1.만족도가 계속해서 높았던 집단(M1), 2.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만족도가 높아진 집단(M2), 3.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만족도가 낮아진 집단(M3), 4.계속해서 만족도가 낮았던 집단(M4)으로 구분된다. 둘째, 모의 삶의 만족도는 유형 집단별로 가구 특성 중에서 모 학력과 가구소득 정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집단(M1)이 높고,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았던 집단(M4)에서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셋째, 부부 갈등 점수는 정확하게 삶의 만족도 변화와 동일한 변화궤적을 보였으며, 아동의 학습시간은 모의 삶의 만족도와 큰 연관성이 없는데 반해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한편 아동

의 모에 대한 애착 정도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M4)에서만 유의미한 차이(애착 점수도 낮음)를 보였다.

넷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모의 삶의 만족도와 달리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C1), 삶의 만족도가 증감을 반복하는 집단(C2), 초등 6학년 이후 삶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낮아진 집단(C3),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C4)으로 구분된다. 즉,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처음 조사가 실시된 11차년도에 3점 만점에 평균 2.72점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만 포착되는 양태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가구 특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모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 가구소득조차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가구의 소득수준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섯째, 학업 이해도(학업성취), 학교선호도와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등의 변인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 집단별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업성취도나 학업 스트레스, 성취압력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또한 낮아지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단, 아동의 일주일 동안의 학습시간 자체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유형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학습시간이 길어져서 아동들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기보다는 학습의 결과적 측면이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일곱째, 긍정적인 또래애착(의사소통, 신뢰)과 부정적인 또래애착(소외)는 모두 유형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C1)에서는 긍정적 또래애착이 높고 부정적 또래애착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C4)는 긍정적 또래애착이 낮고, 부정적 또래애착이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C4)은 다른 3개 유형 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애착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이할 만한 점은 또래애착이나 부모와의 애착 점수는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C4)에서

만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C1)의 애착 점수가 약간 높긴 하지만 C2나 C3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애착 점수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애착 점수의 차이 때문에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15차년도(2022년, 중2) 기준으로 모의 삶의 만족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11~15차년도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을 기준을 산출한 아동과 모의 유형 집단 간의 상관계수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 각각의 변화궤적에 따라 분류한 유형 집단 변수를 활용하여,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CM1)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편이었거나 최근에 낮아진 집단인데 반해, 모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CM2),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하고 있으나, 모의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CM3),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던 집단(CM4)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아홉째, 모-아동의 삶의 만족도 유형 집단에 따라 가구 특성 중에서 가구소득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 모두 낮은 집단(CM4)의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M1의 평균 가구소득은 CM2의 평균 가구소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의 삶의 만족도는 가구소득에 크게 연동되는데 반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가구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및 상호관계 등과 관련된 변수 또한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 유형 집단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 성취나 학업 스트레스는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됨에 따라 학업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 있으나, 학습과 관련된 과정적 측면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결과적 측면의 변인들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는 주

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동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의 삶의 만족도는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시점상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제한됐던 2020년(13차년도)에는 모의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반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개선되는 현상이 포착되었다. 이는 모의 삶의 만족도에는 가정 내 자녀 양육 시간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는 학교에서의 생활시간이 영향을 미침을 방증한다. 추후 이와 유사한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모의 삶의 만족도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라 하더라도 적절한 가정 양육 지원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 아동-모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은 아동이 부모와의 애착이나 또래애착 등이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였다. 특히 부모애착의 경우 아동과 모의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동·청소년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아동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예: 관계 개선 교육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때,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부-아동 애착과 모-아동 애착이 모두 높을 때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부모 둘 다와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애착은 상호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모와 좋은 애착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동이 해야 하는 노력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에서의 애착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청소년기 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또래관계가 학교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가 학습적 부분 이 외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여건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심층분석II - 사교육 이용패턴의 종단적 분석과 특성 분석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참여시간은 7.2시간으로 전년대비 각각 10.8%, 2.8%p, 0.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23. 3. 7.)[26].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조 9천억 원, 중학교 7조 1천억 원, 고등학교 7조원 규모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5.2%, 중학교 76.2%, 고등학교 6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23. 3. 7.). 또한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참여학생은 5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8%, 7.9% 증가하였고,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 목적으로는 선행학습, 진학준비는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고, 학교수업 보충 목적은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23. 3. 7.).

이외에도 2023년 서울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유치원) 월평균 학원비는 지난해 118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 증가하였고, 연간 약 1,427만원으로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675만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23.10.12.), 초·중·고 뿐만 아니라 유아시기부터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 대상, 방법의 연구를 통해 2024년 통계청에서 유아 사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께 통계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매일경제, 2023.10.13.)[27].

사교육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와 사교육이 학업성취와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저출생 현상의 원인으로 학령기 사교육비 부담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파악과 함께,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사교육 이용형태와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6) 통계청 보도자료(2023. 3. 7.).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7)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20973 (2023년 10월 13일 인출)

먼저, 초1부터 중2까지 아동의 사교육 참여 형태와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패턴 변화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고, 변화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는 분석하였다.

나.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 초1)부터 15차(2022년, 중2)까지 총 8개년도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로는 사교육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아동 및 가구 특성 변수들을 이용하였다.

2) 분석변수

가) 사교육

사교육 관련 변수는 보호자가 응답한 내용으로, 사교육 종류 및 이용 여부, 사교육이용기관, 사교육비, 사교육시간, 사교육비 부담정도, 사교육 만족도 등이 있다.

사교육 종류는 초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코딩, 한자, 기타(창의성, 영어이외 외국어 등) 등이 있고, 중학교는 한자가 제외되고 논술이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사교육 이용기관은 초등학교 시기는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화상강의, 교내 방과후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으로, 중학교는 EBS 교육방송 강의가 추가되었다.

사교육 비용은 월평균 금액으로 단위는 만원이며,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서비스에 지출되는 사교육비(협의)와 교내 방과후과정 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사교육비(광의)로 구분하였으며, 주로 학원이나 과외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사교육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협의의 사교육비를 주로 사용하였다.

사교육 시간은 1주일 이용시간으로 사교육 이용과목의 사교육시간을 합산한 값을 재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사교육비 부담정도는 5점 척도로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부담됨'(5점), 사교육 이용만족도 또한 5점 척도로 '매우 만족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만족함'(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학업능력

아동의 학업능력 관련 변수로는 학업 이해도와 학업 수행 능력 변수가 있다. 한국아동패널 15차년도(2022년, 중2)의 경우 학업 이해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에 대해 아동이 생각하는 이해수준을 5점 척도(1=거의 이해하지 못함, 2=잘 이해하지 못함, 3=보통, 4=잘 이해함, 5=매우 잘 이해함)로 조사하였다. 아동이 응답한 학업 이해도 변수 이외에,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패널아동이 또래학생 대비 상대적 수준이 어느 정도를 조사한 학업 수행 능력 변수 있다. 학업 이해도와 동일하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에 대해 5점 척도(1=부진(0~20%), 2=보통 이하(20~40%), 3=보통(40~60%), 4=보통 이상(60~80%), 5=매우 잘함(80~100%)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 이해도와 학업 수행 능력 변수는 5개 과목의 평균으로 변환하여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다) 개인 및 가구 배경변수

패널아동 변수로는 성별 변수를 사용하였고, 여학생을 1, 남학생을 0으로 코딩하였고, 거주지 지역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거주지 권역은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제주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부모 및 가구배경 변수로는 부모의 학력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무학부터 대학원졸업까지 7개 범주였던 것을 고졸 이하, 2~3년제, 4~5년제, 대학원졸의 4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기타, 무직(미취업)으로 재분류하였다. 모의 주당 근로시간은 주중과 주말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산출된 값이고, 가구소득은 월평균 소득으로 만원 단위이며,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범주화하였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사교육비의 변화패턴을 유형화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8년간의 사교육비 변화궤적을 기반으로 그룹화하여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사교육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9.4와 STATA 18.0을 이용하였다.

다. 연구결과

1) 아동의 사교육 참여 변화 추이

가) 아동의 사교육 이용형태 변화 추이

사교육을 크게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한 교과목 중심 사교육과, 음악, 미술, 체육 등을 중심으로 한 특기적성 사교육으로 구분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사교육을 '사교육 안함', '교과목×, 특기적성○', '교과목○, 특기적성×', '교과목○, 특기적성○' 등 4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이 중 특기적성 사교육만 참여하고 교과목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교과목×, 특기적성○')는 없어 3개 범주사례만 있었다.

먼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내 방과후과정을 포함한 광의의 사교육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초등학생 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4% 미만이었고, 패널조사에 응한 중2 아동들은 모두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초1에서 초6까지 '교과목○, 특기적성×'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교과목○, 특기적성○'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의 형태가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중학교 시기는 '교과목○, 특기적성×'의 경우는 거의 없고, 중2의 경우 모든 패널조사 아동이 '교과목○, 특기적성○'의 형태를 보였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내 방과후과정을 제외하고 학교 밖 교육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협의의 사교육 기준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인다. '교과목○, 특기적성×'은 초1 당시 8.3%에서 중2 61.0%로 가파르게 상승한데 반해, '교과목○, 특기적성○' 사교육 비율은 초1 81.8%에서 중2 28.7%로 크게 감소하였다.

사교육 이용형태를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목 중심 사교육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기적성 사교육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내 방과후과정을

중심으로 변해감을 알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히 중학생이 되면 학교 밖 사교육 시장과 학생들의 사교육참여는 교과목 중심으로 변하고, 특기적성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은 교내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해감을 알 수 있다.

〈표 V-2-1〉 사교육 이용형태별 연도별 추이(201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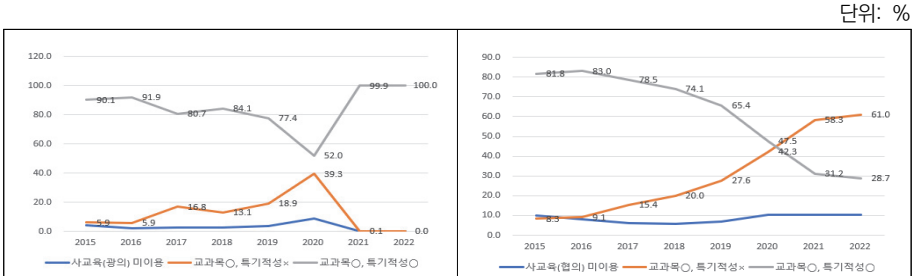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5 (초1)	2016 (초2)	2017 (초3)	2018 (초4)	2019 (초5)	2020 (초6)	2021 (중1)	2022 (중2)
사교육 (광의)	미이용	63	34	38	40	52	122	1	0
		(3.9)	(2.2)	(2.6)	(2.8)	(3.7)	(8.7)	(0.1)	0.0
	교과목○, 특기적성×	95	90	249	188	267	549	1	0
		(5.9)	(5.9)	(16.8)	(13.1)	(18.9)	(39.3)	(0.1)	(0.0)
	교과목○, 특기적성○	1,440	1,401	1,197	1,206	1,093	726	1,346	1,304
		(90.1)	(91.9)	(80.7)	(84.1)	(77.4)	(52.0)	(99.9)	(100.0)
	계	1,598	1,525	1,484	1,434	1,412	1,397	1,348	1,304
사교육 (협의)	미이용	158	121	90	85	99	143	141	134
		(9.9)	(7.9)	(6.1)	(5.9)	(7.0)	(10.2)	(10.5)	(10.3)
	교과목○, 특기적성×	133	138	229	287	389	591	786	796
		(8.3)	(9.1)	(15.4)	(20.0)	(27.6)	(42.3)	(58.3)	(61.0)
	교과목○, 특기적성○	1,307	1,266	1,165	1,062	924	663	421	374
		(81.8)	(83.0)	(78.5)	(74.1)	(65.4)	(47.5)	(31.2)	(28.7)
	계	1,598	1,525	1,484	1,434	1,412	1,397	1,348	1,304

자료: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초1)~15차년도(2022년, 중2)

[그림 V-2-1] 사교육 이용형태별 연도별 추이(2015~2022년)

단위: %



〈사교육(광의)〉 〈사교육(협의)〉

자료: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초1)~15차년도(2022년, 중2)

나) 아동의 사교육비 변화 추이

협의의 사교육을 중심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사교육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다가, 중학교 입학 시기에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 특기적성○' 사교육비와 '교과목○, 특기적성×' 사교육비 평균을 보면, 초1 시기에는 2배 이상의 평균 차이를 보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중2의 경우 둘 간의 평균 차이는 상당히 감소하여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비 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특기적성에 사교육비 투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2-2〉 사교육 이용형태별 월평균 사교육비(협의) 추이(201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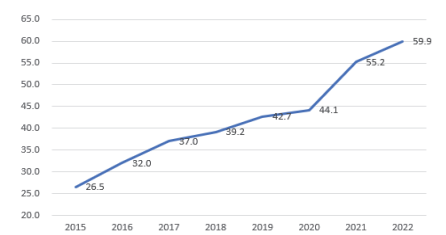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평균	26.5	32.0	37.0	39.2	42.7	44.1	55.2	59.9
	표준편차	17.9	21.5	26.3	25.3	27.8	25.9	30.4	34.8
	수	1,437	1,401	1,386	1,327	1,294	1,237	1,179	1,146
교과목○, 특기적성×	평균	13.5	19.5	25.1	27.6	31.2	38.0	52.6	58.2
	수	132	137	227	279	380	583	766	778
교과목○, 특기적성○	평균	27.8	33.4	39.4	42.4	47.4	49.5	60.0	63.5
	수	1,305	1,264	1,159	1,047	914	654	413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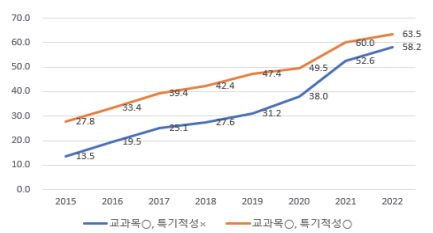
자료: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초1)~15차년도(2022년, 중2)

[그림 Ⅴ-2-2] 사교육 이용형태별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2015~2022년)

단위: 만원



〈사교육비(전체)〉



〈이용형태별 사교육비〉

다) 사교육 이용기관별 사교육비 변화 추이

사교육 이용기관별 사교육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학교급에 상관없이 학원에 지출되는 사교육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에 대해 사교육비의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학원, 과외에 지출되는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원비와 과외비 지출이 다소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V-2-3〉 사교육 기관별 사교육비 추이(201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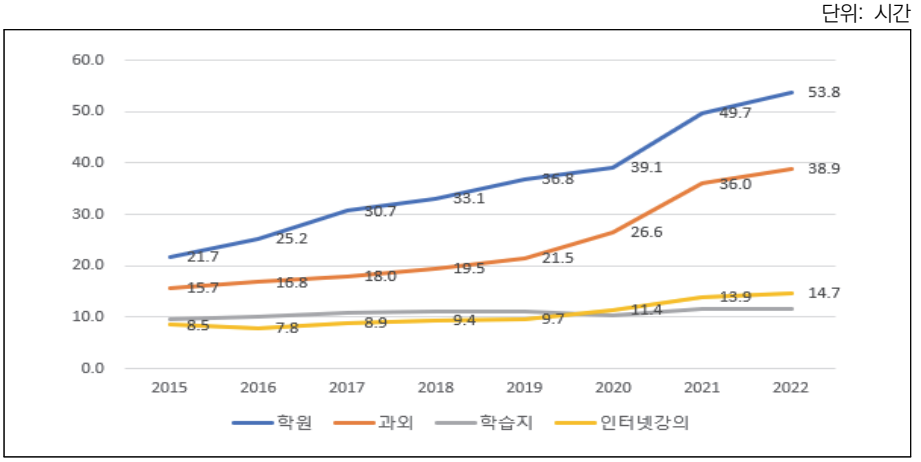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학원		21.7	25.2	30.7	33.1	36.8	39.1	49.7	53.8
과외		15.7	16.8	18.0	19.5	21.5	26.6	36.0	38.9
학습지		9.6	10.1	10.8	11.1	11.0	10.3	11.6	11.7
인터넷 강의		8.5	7.8	8.9	9.4	9.7	11.4	13.9	14.7
8~13차	교내 방과후학교	7.1	7.2	7.3	6.7	7.0	6.2	-	-
	사설기관 교육	8.9	7.4	9.5	11.4	11.1	17.5	-	-
	공공기관 교육	5.0	4.0	5.7	6.3	7.6	4.8	-	-
14~15차	기타[1)]	-	0-	-	-	-	-	12.7	9.8

주: 14차년 중학생의 이용기관별 사교육비 중 '기타'는 교내 방과후학교, EBS교육방송,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합산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초1)~15차년도(2022년, 중2)

[그림 V-2-3] 사교육 기관별 사교육비 추이(2015~2022년)

단위: 시간



라) 아동의 사교육 시간 변화 추이

협의의 사교육을 중심으로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시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주당 평균 사교육 이용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당 이용시간의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중학교 1학년(11.6시간) 때 초등학교 6학년(9.7시간)보다 2시간 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초1 시기에 주당 7.6시간으로 주5일을 기준으로 하면 1일 1.5시간에서, 중2 시기에는 주당 12.0시간으로 1일 2.4시간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교과목○, 특기적성×'의 경우 초1 시기에는 주당 3.3시간으로 주당 교과목 사교육 시간이 적었으나, 중2에는 주당 11.6시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교과목○, 특기적성○'은 초1 8.0시간에서 중2 12.8시간으로 '교과목○, 특기적성×' 사교육 시간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결국 교과목 사교육 시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소 크게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Ⅴ-2-4〉 사교육 이용형태별 주당 사교육 이용시간 추이(201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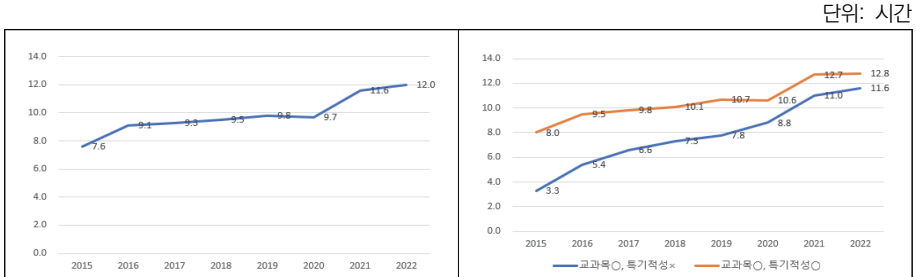
단위: 시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평균	7.6	9.1	9.3	9.5	9.8	9.7	11.6	12.0
	표준편차	4.4	5.4	5.5	5.4	5.5	5.3	5.8	6.1
	수	1,438	1,404	1,394	1,349	1,313	1,254	1,189	1,155
교과목○, 특기적성×	평균	3.3	5.4	6.6	7.3	7.8	8.8	11.0	11.6
	수	133	138	229	287	389	591	773	784
교과목○, 특기적성○	평균	8.0	9.5	9.8	10.1	10.7	10.6	12.7	12.8
	수	1,305	1,266	1,165	1,061	924	663	416	371

자료: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초1)~15차년도(2022년, 중2)

[그림 Ⅴ-2-4] 사교육 이용형태별 주당 사교육 이용시간 추이(2015~2022년)

단위: 시간



〈사교육 이용시간(전체)〉 〈이용형태별 사교육 이용시간〉

2) 아동 사교육비 지출 변화유형 그룹화

본 연구에서는 패널아동의 사교육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떠한 변화유형을 보이는지를 찾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매년 반복적으로 측정된 종단자료를 유형화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분석방법 중 하나로(김재희, 2016),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아동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사교육비의 변화유형을 범주화하였고, 추정함수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변경하면서 BIC값이 가장 작은 모형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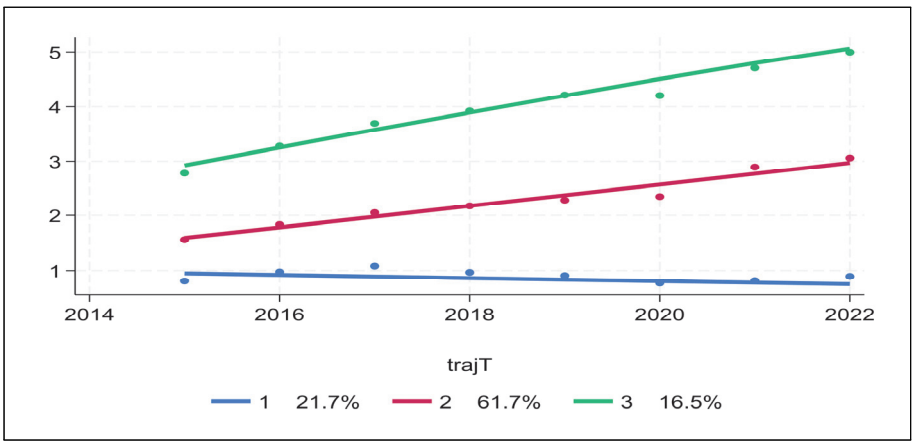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8년간 사교육비 변화를 유형화하기 위한 집단중심추세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궤적형태는 0, 1차, 2차모형 등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테스트하였으며, 가장 적합한 모델이 확인이 될 때까지 그룹수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3개집단의 궤적모형(1 1 1)을 아동의 사교육비 변화 유형의 최적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아동의 8년간의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교육비 변화의 궤적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표 V-2-5〉 그룹수 및 사교육비 변화궤적에 따른 집단중심추세모형별 BIC값

그룹수	궤적모형	BIC(=11,502)	BIC(=1698)
2	0 0	-19492.73	-19488.91
2	0 1	-18860.54	-18855.76
2	1 1	-18823.60	-18817.86
3	0 0 0	-18819.85	-18814.11
3	0 1 1	-17927.80	-17920.15
3	**1 1 1**	**-17927.31**	**-17918.70**

주: 궤적모형의 0은 상수항 1은 1차 선형함수. 2차함수 모형은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Ⅴ-2-5]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 변화유형



1번째 집단은 아동의 21.7%가 속하는 유형이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8년 동안 사교육비가 다소 낮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상태로 지속되는 그룹(사교육 저투자 유지형 그룹)이고, 2번째 집단은 61.7%의 아동이 속하는 유형으로 평균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룹(사교육 중투자 증가형 그룹)이고, 3번째 집단은 16.5%의 아동이 속하는 유형으로, 다른 아동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집단이 계속해서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보이는 그룹(사교육 고투자 증가형 그룹)이다.

3)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특성 분석

앞서 사교육비 지출 변화유형을 3그룹 설정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변화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성별, 지역규모에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비율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거주하는 지역규모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높은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그룹3의 경우에 대도시 거주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낮고 거의 동일한 그룹1의 경우는 대도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소도시 거주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고투자그룹은 서울/경인권에 많았고, 저투자그룹은 비수도권 권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표 V-2-6〉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성별 및 지역특성(2022년)

단위: 명, (%)

구분		그룹1 (저투자 유지형)	그룹2 (중투자 증가형)	그룹3 (고투자 증가형)	계
아동 성별	남학생	243 (54.6)	345 (49.3)	77 (50.3)	665 (51.2)
	여학생	202 (45.4)	355 (50.7)	76 (49.7)	633 (48.8)
	계	445 (100.0)	700 (100.0)	153 (100.0)	1,298 (100.0)
	$\chi^2(df)$	3.1(2)			
거주지 지역규모	대도시	165 (58.7)	-49.3 (69.3)	-51.2 (86.3)	909 (69.7)
	중소도시	74 (26.3)	-50.7 (9.9)	-48.8 (4.4)	164 (12.6)
	읍면	42 (15.0)	-100 (20.8)	-100 (9.3)	231 (17.7)
	계	281 (100.0)	818 (100.0)	205 (100.0)	1,304 (100.0)
	$\chi^2(df)$	84.7(4)***			
거주지 권역	서울권	19 (6.8)	88 (10.8)	60 (29.3)	167 (12.8)
	경인권	66 (23.5)	264 (32.3)	73 (35.6)	403 (30.9)
	대전/충청/강원권	53 (18.9)	112 (13.7)	19 (9.3)	184 (14.1)
	대구/경북권	36 (12.8)	89 (10.9)	15 (7.3)	140 (10.7)
	부산/울산/경남권	56 (19.9)	149 (18.2)	26 (12.7)	231 (17.7)
	광주/전라/제주권	51 (18.2)	116 (14.2)	12 (5.9)	179 (13.7)
	계	281 (100.0)	818 (100.0)	205 (100.0)	1,304 (100.0)
	$\chi^2(df)$	89.6(10)***			

자료: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초1)~15차년도(2022년, 중2)
*** $p < .001$.

사교육비 변화유형이 부모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변화유형별로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그룹3(사교육비 고투자)의 경우 부모학력이 4년제 및 대학원 졸인 비율이 높았고, 그룹1(사교육비 저투자)은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유형별로 부모직업에 따른 비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변화유형 그룹3의 경우는 관리직/전문가와 사무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와 기타 직업은 비율이 낮았다. 이에 반해 그룹1 아동집단의 모의 직업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룹1보다 그룹3의 경우 모가 미취업인 비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부의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그룹3은 부의 직업이 관리자/전문가인 경우가 59.9%로 상당히 높은 반면, 그룹1은 22.8%로 2배 이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그룹1은 부의 직업이 기타인 비율이 42.0%, 그룹3(5.8%)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돌봄의 대체수단으로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변화유형별로 모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그룹1은 40.3시간, 그룹2는 39.1시간, 그룹3은 37.1시간이었으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변화유형별로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비율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화유형별로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룹1의 가구소득 평균은 499.6만원, 그룹2는 652.1만원, 그룹3은 802.3만원으로 변화유형별로 가구소득의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그만큼 아동의 사교육 투자금액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을 구간으로 나누어 해당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변화유형 그룹과 가구소득 구간별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그룹1의 경우 3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가 12.8%, 7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가 16.6%인데 반해, 그룹2은 300만원 미만 2.6%, 700만원 이상 60.8%로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2-7〉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부모 및 가구 특성(2022년)

단위: 명, (%)

구분		그룹1 (저투자 유지형)	그룹2 (중투자 증가형)	그룹3 (고투자 증가형)	계
모 학력	고졸이하	165 (38.0)	155 (22.3)	11 (7.2)	331 (25.8)
	2~3년제 졸	118 (27.2)	215 (30.9)	35 (23.0)	368 (28.7)
	4~5년제 졸	137 (31.6)	274 (39.4)	82 (54.0)	493 (38.5)
	대학원 졸	14 (3.2)	51 (7.3)	24 (15.8)	89 (6.9)
	계	434 (100.0)	695 (100.0)	152 (100.0)	1281 (100.0)
	$x^2(df)$	92.8(6)***			
부 학력	고졸이하	155 (37.7)	148 (21.7)	9 (6.0)	312 (25.1)
	2~3년제 졸	91 (22.1)	148 (21.7)	23 (15.3)	262 (21.1)
	4~5년제 졸	133 (32.4)	298 (43.6)	82 (54.7)	513 (41.2)
	대학원 졸	32 (7.8)	89 (13.0)	36 (24.0)	157 (12.6)
	계	411 (100.0)	683 (100.0)	150 (100.0)	1244 (100.0)
	$x^2(df)$	92.2(6)***			
모 직업	관리자/전문가	69 (16.2)	145 (21.2)	39 (26.4)	253 (20.1)
	사무종사자	91 (21.3)	147 (21.5)	37 (25.0)	275 (21.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08 (25.3)	142 (20.8)	13 (8.8)	263 (20.9)
	기타	28 (6.6)	32 (4.7)	5 (3.4)	65 (5.2)
	무직(미취업)	131 (30.7)	217 (31.8)	54 (36.5)	402 (32.0)
	계	427 (100.0)	683 (100.0)	148 (100.0)	1258 (100.0)
	$x^2(df)$	25.7(8)**			

구분		그룹1 (저투자 유지형)	그룹2 (중투자 증가형)	그룹3 (고투자 증가형)	계
부 직업	관리자/전문가	88 (22.8)	238 (37.3)	82 (59.9)	408 (35.1)
	사무종사자	58 (15.0)	121 (19.0)	28 (20.4)	207 (17.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58 (15.0)	96 (15.1)	18 (13.1)	172 (14.8)
	기타	162 (42.0)	167 (26.2)	8 (5.8)	337 (29.0)
	무직(미취업)	20 (5.2)	16 (2.5)	1 (0.7)	37 (3.2)
	계	386 (100.0)	638 (100.0)	137 (100.0)	1161 (100.0)
	$x^2(df)$	102.1(8)***			
모 주당 근로시간	평균(표준편차)	40.3 (12.5)	39.1 (12.0)	37.1 (11.8)	39.3 (12.2)
	F	2.6			
맞벌이 여부	외벌이	210 (47.2)	289 (41.3)	69 (45.1)	568 (43.8)
	맞벌이	235 (52.8)	411 (58.7)	84 (54.9)	730 (56.2)
	계	445 (100.0)	700 (100.0)	153 (100.0)	1298 (100.0)
	$x^2(df)$	3.98(2)			
가구소득 (금액)	평균(표준편차)	499.6 (205.2)	652.1 (281.3)	802.3 (355.1)	618.1 (285.5)
	F	83.7***			
가구소득 (구간)	300만원 미만	57 (12.8)	35 (5.0)	4 (2.6)	96 (7.4)
	300~500만원 미만	145 (32.6)	122 (17.4)	12 (7.8)	279 (21.5)
	500~700만원 미만	169 (38.0)	266 (38.0)	44 (28.8)	479 (36.9)
	700만원 이상	74 (16.6)	277 (39.6)	93 (60.8)	444 (34.2)
	계	445 (100.0)	700 (100.0)	153 (100.0)	1298 (100.0)
	$x^2(df)$	152.7(6)***			

자료: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초1)~15차년도(2022년, 중2)
** $p < .01$, *** $p < .001$.

8년간의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사교육 이용특성(이용기관, 이용시간, 이용부담,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변화유형별로 사교육 이용기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3은 학원 이용비율이 94.7%, 과외가 5.3%이고 이외 학습지, 인터넷 강의, 기타는 없었던 반면, 그룹1은 학원 77.8%, 과외, 6.9%, 학습지 3.8%, 인터넷 강의 8.1%, 기타 3.5%로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변화유형별로 주당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그룹1은 9.1시간, 그룹2는 12.3시간, 그룹3은 17.0시간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높고 매년 상승하는 그룹3이 그룹1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사교육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따른 비용부담 평균은 그룹1은 2.9점, 그룹2는 3.2점, 그룹3은 3.3으로 사교육비가 높은 고투자 증가형 그룹에서 좀 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사교육 만족도의 경우 변화유형 그룹1은 3.8점, 그룹2는 3.8점, 그룹3은 3.9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룹별 만족도 평균에 차이는 없었다.

〈표 Ⅴ-2-8〉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사교육 특성(2022년)

단위: 명, (%)

구분		그룹1 (저투자 유지형)	그룹2 (중투자 증가형)	그룹3 (고투자 증가형)	계
사교육 이용기관	학원	269 (77.8)	610 (91.5)	142 (94.7)	1,021 (87.8)
	과외	24 (6.9)	45 (6.8)	8 (5.3)	77 (6.6)
	학습지	13 (3.8)	1 (0.2)	0 (0.0)	14 (1.2)
	인터넷 강의	28 (8.1)	6 (0.9)	0 (0.0)	34 (2.9)
	기타	12 (3.5)	5 (0.8)	0 (0.0)	17 (1.5)
	계	346 (100.0)	667 (100.0)	150 (100.0)	1,163 (100.0)
	$x^2(df)$	92.3(8)***			
사교육 시간	평균(표준편차)	9.1 (5.6)	12.3 (5.4)	17.0 (6.8)	12.0 (6.1)
	F	105.2***			
사교육비 이용부담	평균(표준편차)	2.9 (1.0)	3.2 (0.8)	3.3 (0.8)	3.1 (0.9)
	F	17.5***			
사교육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3.8 (0.6)	3.8 (0.5)	3.9 (0.5)	3.8 (0.5)
	F	1.45			

자료: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초1)~15차년도(2022년, 중2)
*** $p < .001$.

또한 사교육비 변화유형과 학업능력 수준 간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학업 이해도는 패널아동이 중1이 되면서 14차년도(2021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아동이 응답한 문항으로, 5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2021년 3.8점, 2022년 3.6점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 모두 사교육비 변화유형 그룹별로 학업 이해도 평균에 차이가 있었고, 2022년 기준으로 그룹1의 경우 5점 중 3.4점, 그룹2는 3.7점, 그룹3은 3.9점으로 사교육비 지출금액이 높은 그룹일수록 학업 이해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초등 1학년부터 아동의 담임교사를 통해 학업 수행 능력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모두 존재하는 초등 3학년부터 분석하였다. 담임교사가 응답한 초3~중2 기간 동안 학업능력수준은 초등 3학년 시기에 4.2점 수준에서 중학교 3.7점 수준으로 또래학생 대비 상대적 수준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연도별로 학업 수행 능력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그룹1이 5점 중 3.4점, 그룹2가 3.9점, 그룹3이 4.2점으로 그룹3(고투자 증가형)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고, 매년 학업 수행 능력 평균은 그룹3〉그룹2〉그룹1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9〉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학업 이해 및 수행능력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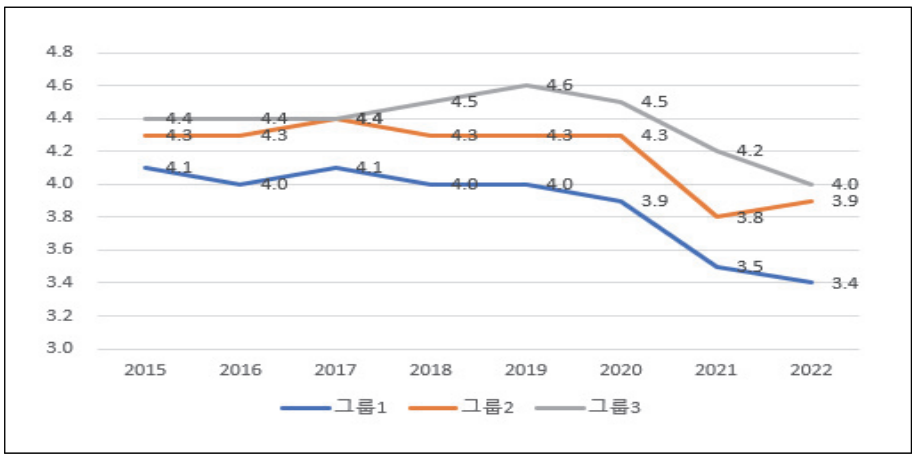
구분		그룹1 (저투자 유지형)	그룹2 (중투자 증가형)	그룹3 (고투자 증가형)	계	N
학업 이해도	14차(2021, 중1)	3.6 (0.8)	3.8 (0.7)	4.1 (0.7)	3.8 (0.8)	1,320
	F	28.5***				
	15차(2022, 중1)	3.4 (0.8)	3.7 (0.7)	3.9 (0.7)	3.6 (0.8)	1,287
	F	36.8***				
학업 수행 능력	10차(2017, 초3)	4.1 (0.9)	4.4 (0.9)	4.4 (0.7)	4.3 (0.9)	631
	F	5.4**				
	11차(2018, 초4)	4.0 (1.0)	4.3 (0.8)	4.5 (0.7)	4.2 (0.9)	705
	F	14.8***				
	12차(2019, 초5)	4.0 (0.9)	4.3 (0.8)	4.6 (0.7)	4.2 (0.8)	587
	F	16.7***				
	13차(2020, 초6)	3.9 (1.0)	4.3 (0.7)	4.5 (0.6)	4.2 (0.8)	592
	F	21.0***				
	14차(2021, 중1)	3.5 (1.0)	3.8 (1.0)	4.2 (0.9)	3.7 (1.0)	623
	F	12.2***				
	15차(2022, 중2)	3.4 (1.2)	3.9 (1.1)	4.2 (1.2)	3.7 (1.2)	493
	F	12.5***				

주: 1) 학업 이해도는 아동이 응답한 것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의 5점 척도 평균임(1=거의 이해하지 못함, 2=잘 이해하지 못함, 3=보통, 4=잘 이해함, 5=매우 잘 이해함).
2) 학업 수행 능력은 교사가 패널아동의 또래학생 대비 상대적 수준에 응답한 것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의 5점 척도 평균임(1=부진(0~20%), 2=보통 이하(20~40%), 3=보통(40~60%), 4=보통 이상(60~80%), 5=매우 잘함(80~100%).

자료: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초1)~15차년도(2022년, 중2)

** $p < .01$, *** $p < .001$.

[그림 V-2-6]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학업 이해 및 수행능력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가구소득 대비 자녀 지출 비중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대비 자녀 지출비 비중은 초1~2학년 시기에는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초3시기부터는 사교육비 고투자 증가형(그룹3)의 비율이 높고, 저투자 유지형(그룹1)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출을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과 소비성 지출로 구분하여, 먼저 가구소득 대비 적금, 보험, 용돈 등으로 보이는 자녀 비소비성 지출 비중은 초4학년(2018년), 초5학년(2019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외 연도는 저투자 유지형(그룹1)에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고투자 증가형(그룹3)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비중은 초1~2학년 시기는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차이가 없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가구소득대비 자녀 소비성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다. 초3학년 이후부터는 사교육비 고투자 증가형(그룹3)에서 가구소득 대비 소비성 자녀 지출비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단순 일원분산분석이지만 앞서 사교육비 고투자 증가형(그룹3)에서 학업능력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한다는 점은 그만큼 사교육 투자가 학업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학부모들도 이러한 기대 속에서 사교육을 포함한 자녀에 소비성 지출을 늘린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V-2-10〉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자녀 지출비 비중(2015~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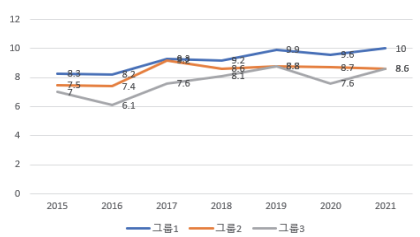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구소득 대비 자녀 지출비 비중	그룹1	32.8	33.3	25.2	27.7	26.8	27.3	33.7
	그룹2	31.3	32	28.7	29.5	28.8	29.3	35.4
	그룹3	33.4	32.7	31.7	34.3	35.1	34.7	40.7
	F	1.6	0.4	15.2***	12.8***	22.5***	16.7***	8.9***
가구소득 대비 자녀 비소비성 지출비 비중	그룹1	8.3	8.2	9.3	9.2	9.9	9.6	10
	그룹2	7.5	7.4	9.2	8.6	8.8	8.7	8.6
	그룹3	7	6.1	7.6	8.1	8.8	7.6	8.6
	F	3.6*	6.5**	3.3*	1.7	2.8	5.0**	5.3**
가구소득 대비 자녀 소비성 지출비 비중	그룹1	24.5	25.1	15.9	18.5	16.9	17.7	23.7
	그룹2	23.8	24.6	19.5	20.9	20	20.6	26.8
	그룹3	26.4	26.6	24.1	26.2	26.3	27.2	32.1
	F	2.1	0.7	32.1***	25.6***	43.4***	38.0***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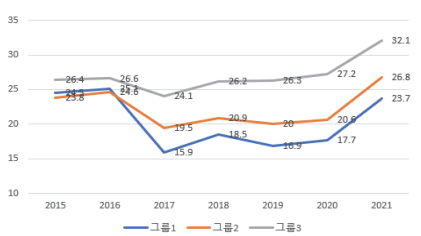
주: 1) 비소비성 지출: 각종 세금, 적금, 보험, 타 가구원을 위한 용돈, 월 상환금 등
2) 소비성 지출: 식비,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현물 구입비, 용돈, 기타 잡비 등
자료: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초1)~15차년도(2022년, 중2)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V-2-7]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자녀지출 비중(2015~2021년)

단위: %



〈가구소득 대비 자녀 비소비성 지출 비중〉



〈가구소득 대비 자녀 소비성 지출 비중〉

라. 소결

첫째, 한국아동패널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 예체능 등 특기적성 사교육('교과목×, 특기적성○')만 하는 경우는 없었고, 국,영,수 등 교과 중심 사교육('교과목○, 특기적성×', '교과목○, 특기적성○')을 이용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목○, 특기적성×' 비율은 증가, '교과목○,

특기적성○'은 감소하여 사교육의 형태가 교과 중심으로 변해감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시기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기적성 중심 교내 방과후과정 참여가 상당하여, 교과 등 학습 중심은 학원이 과외를 많이 이용하고, 취미 등 특기적성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내 방과후과정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중심의 사교육 수요가 많아지기는 하나, 학교 내의 방과후과정 등을 통한 특기적성에 대한 교육수요가 여전하여 공교육 체제 내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한 양질의 방과후과정 제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교육비는 중학교 진학과 함께 다소 크게 증가하였고, 교과 중심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반면 특기적성 사교육비는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 과외 등 오프라인 상에서 면대면 중심 사교육비가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 등 주로 온라인 등 서비스 비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중심의 사교육 수요가 늘면서 학원과 과외 중심의 이용형태가 증가와 함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의 주당 평균 사교육 이용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사교육 시간이 다소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특기적성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교과 중심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초1부터 중2까지 사교육비 지출액을 바탕으로 변화궤적을 추적한 결과, 개별 아동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교육비 변화패턴은 3개 그룹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그룹1은 사교육비가 다소 낮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상태로 지속되는 그룹(사교육 저투자 유지형 그룹)이고, 그룹2는 평균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룹(사교육 중투자 증가형 그룹)이고, 그룹3은 다른 아동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많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사교육 고투자 증가형 그룹)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룹1을 제외하고는 그룹2와 그룹3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사교육비 변화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지역별로는 그룹3은 대도시, 서울/경인권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그룹1은 중소도시, 비수도권 권역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와 서울 등 수도권의 사교육비 단가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지역별 사교육비 단가 등 차이를 조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교육비 변화패턴별로 부모학력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고투자 상승형(그룹3)은 고학력을 가진 부모의 비율이 높았고, 부모 직업이 관리직/전문가나 사무종사자인 경우가 많았고, 저투자 유지형(그룹1)은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와 부모직업이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기타인 경우가 많았다.

일곱째,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모의 근로시간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는 없었고, 가구소득의 평균에 차이가 있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의 사교육 투자금액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 대비 자녀 지출비 비중은 초1~2학년 시기에는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초3시기부터는 사교육비 고투자 증가형(그룹3)에서 가구소득 대비 자녀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저투자 유지형(그룹1)은 지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여덟째,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사교육 이용특성(이용기관, 이용시간, 이용부담,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결과, 사교육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3개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2022년 기준으로 고투자 증가형(그룹3)은 학원 이용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저투자 유지형(그룹1)은 인터넷 강의와 학습지, 공공기관 이용 등 기타 시설 이용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높고 매년 상승하는 고투자 증가형(그룹3)이 저투자 유지형(그룹1)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사교육 기관 이용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사교육비 변화유형별로 학업능력 간의 차이분석결과, 아동이 응답한 학업 이해도와 교사가 응답한 학업 수행 능력 모두 고투자 증가형(그룹3) 〉 중투자 증가형(그룹2) 〉 저투자 유지형(그룹1) 순으로 학업능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사교육이 학업능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VI

패널데이터 추이분석 및 시사점

01 한국아동패널 1-15차 추이분석
02 15차년도 데이터 분석의 시사점

Ⅵ. 패널데이터 추이분석 및 시사점

1. 한국아동패널 1-15차 추이분석

가. 1-15차년도 아동 특성 추이

1) 아동 체중

아동의 평균 체중은 초등 1학년인 7세 때에는 25.27kg이며, 초등 3학년인 9세 때에는 33.15kg로 증가했고, 초등 6학년인 12세부터는 50.0kg를 넘었다. 중등 1학년 13세에는 55.15kg, 중등 2학년인 14세에는 58.32kg으로 측정되었다. 10대 이전에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중이 다소 높긴 하였으나 10대 이후부터 그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여 초등 4학년인 10세에 차이가 2.32kg이었던 것이 12세에 4.5kg, 13세에 7.86kg로 커졌으며, 중학교 2학년인 14세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0kg 이상 체중이 더 나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표 Ⅵ-1-1〉 아동의 체중

단위: kg,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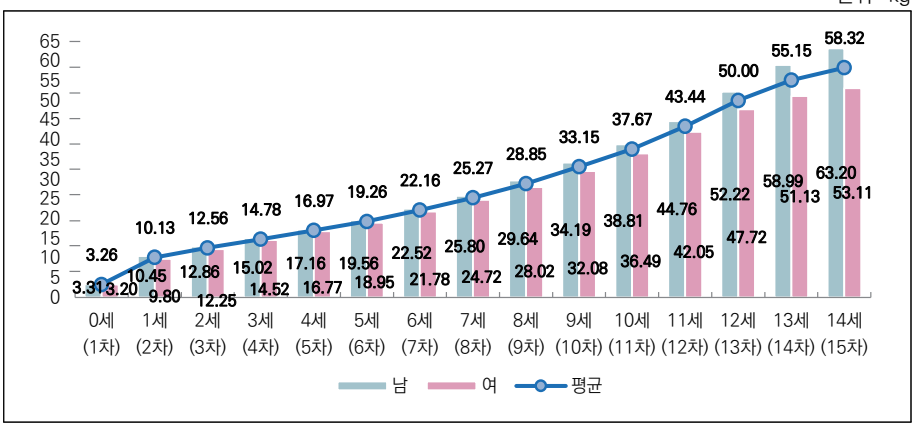
구분	체중(남)					체중(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3.31	0.41	1.4	4.7	(1055)	3.20	0.40	1.2	4.9	(1018)
1세(2차)	10.45	1.09	5.7	15.0	(858)	9.80	1.03	7.0	13.0	(851)
2세(3차)	12.86	1.44	7.0	21.0	(883)	12.25	1.37	8.6	20.0	(854)
3세(4차)	15.02	1.67	11.0	21.0	(902)	14.52	1.66	10.0	21.0	(852)
4세(5차)	17.16	2.09	11.0	25.0	(870)	16.77	2.14	11.6	29.6	(833)
5세(6차)	19.56	2.67	13.0	33.0	(853)	18.95	2.63	11.0	34.5	(802)
6세(7차)	22.52	3.65	15.4	38.8	(794)	21.78	3.49	14.0	38.6	(756)
7세(8차)	25.80	4.64	16.8	48.2	(797)	24.72	4.34	17.0	48.7	(759)
8세(9차)	29.64	5.88	19.4	54.3	(769)	28.02	5.36	18.0	55.0	(726)
9세(10차)	34.19	7.38	20.6	69.3	(751)	32.08	6.64	18.8	60.0	(724)
10세(11차)	38.81	8.68	20.0	75.5	(725)	36.49	8.01	21.3	75.6	(696)
11세(12차)	44.76	10.05	23.4	75.0	(706)	42.05	8.55	24.4	75.0	(666)

구분	체중(남)					체중(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12세(13차)	52.22	11.34	25.0	95.0	(671)	47.72	8.87	27.0	91.5	(653)
13세(14차)	58.99	12.90	30.0	116.0	(667)	51.13	9.15	32.0	105.0	(638)
14세(15차)	63.20	13.57	32.0	122.0	(652)	53.11	9.23	35.0	100.0	(608)

자료: 한국아동패널 1-15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I-1-1] 아동의 체중

단위: kg



자료: 한국아동패널 1-15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아동 신장

아동의 신장도 꾸준히 증가하여 초등 1학년인 7세에 123.46cm, 초등 3학년인 9세 135.32cm가 되었고 초등 6학년인 12세에는 155.41cm로 증가하였으며, 중등 1학년인 13세에는 161.63cm, 14세에는 165.34cm로 커졌다. 신장은 초등 3학년인 9세까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2cm 정도 컸는데 초등 5학년인 11세에는 역전되어 여학생의 신장이 0.57cm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초등 6학년 시기에는 다시 남학생이 1.04cm 더 커졌고, 그 격차는 점차 커져 중등 2학년인 14세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8.21cm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1-2〉 아동의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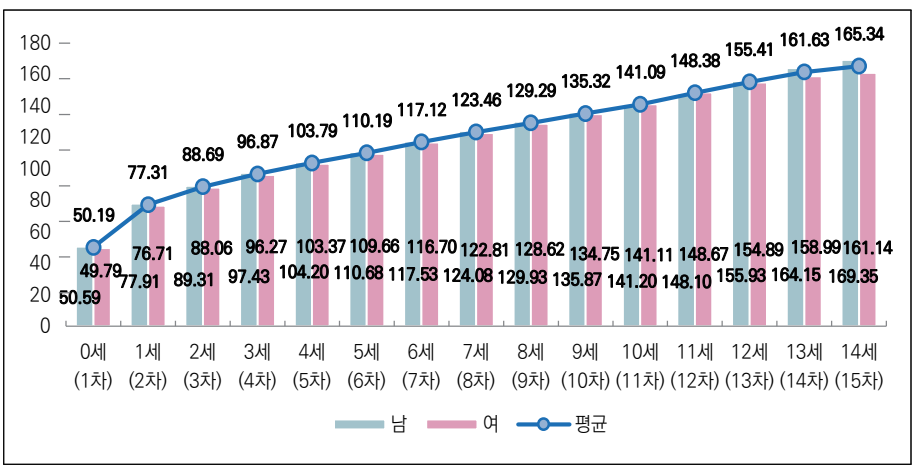
단위: cm, (명)

구분	신장(남)					신장(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50.59	2.35	36.5	60.0	(908)	49.79	2.74	29.4	58.0	(907)
1세(2차)	77.91	4.09	60.0	96.0	(558)	76.71	3.98	60.0	100.0	(561)
2세(3차)	89.31	4.11	65.0	110.0	(716)	88.06	3.89	69.0	100.0	(699)
3세(4차)	97.43	3.82	85.0	111.0	(902)	96.27	3.56	85.0	110.0	(851)
4세(5차)	104.20	4.19	85.0	125.0	(870)	103.37	3.93	91.2	120.0	(833)
5세(6차)	110.68	4.55	97.0	130.0	(851)	109.66	4.31	98.0	125.0	(801)
6세(7차)	117.53	4.70	103.0	132.0	(791)	116.70	4.62	104.0	130.5	(757)
7세(8차)	124.08	5.02	109.0	144.0	(798)	122.81	4.98	107.2	140.5	(761)
8세(9차)	129.93	5.27	114.0	148.8	(769)	128.62	5.19	113.0	147.0	(727)
9세(10차)	135.87	5.58	119.0	155.0	(750)	134.75	5.68	116.0	154.0	(724)
10세(11차)	141.11	6.24	123.1	172.2	(718)	141.06	6.44	120.3	164.7	(687)
11세(12차)	148.10	6.70	129.0	172.0	(709)	148.67	6.43	122.3	168.0	(675)
12세(13차)	155.93	7.36	134.5	180.0	(678)	154.89	5.88	126.4	172.0	(662)
13세(14차)	164.15	7.16	139.9	185.4	(670)	158.99	5.37	135.0	180.0	(641)
14세(15차)	169.35	6.41	145.9	187.0	(648)	161.14	5.22	142.0	180.0	(619)

자료: 한국아동패널 1-15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Ⅵ-1-2] 아동의 신장

단위: cm



자료: 한국아동패널 1-15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아동 BMI

비만도 판정에 주로 사용되는 BMI는 정상범위를 18.5-23로 보는데 중등 1학년 시기 이후부터의 패널아동들의 평균 BMI는 정상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등 1학년 13세의 평균 BMI는 21.0이며, 이듬해에는 21.23으로 증가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나 중등 2학년인 14세에는 남학생 21.96, 여학생 20.44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52 더 높은 수치로 분석되었다.

〈표 Ⅵ-1-3〉 아동의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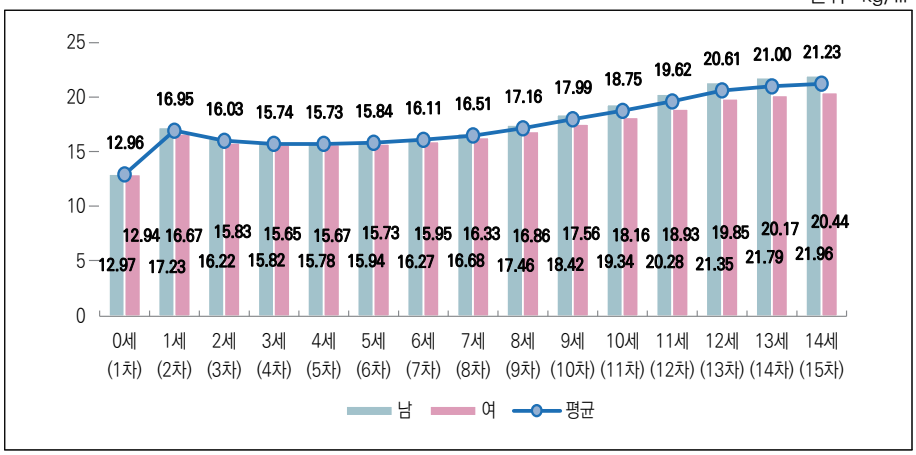
단위: kg/m^2, (명)

구분	BMI(남)					BMI(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12.97	1.45	5.40	28.37	(908)	12.94	1.73	7.89	34.01	(907)
1세(2차)	17.23	1.90	10.85	33.33	(557)	16.67	2.02	9.50	30.56	(559)
2세(3차)	16.22	1.78	8.33	30.28	(714)	15.83	1.72	10.63	24.69	(698)
3세(4차)	15.82	1.42	10.68	22.71	(902)	15.65	1.43	10.37	22.45	(851)
4세(5차)	15.78	1.39	11.70	22.07	(870)	15.67	1.48	12.08	23.97	(833)
5세(6차)	15.94	1.64	11.34	24.35	(851)	15.73	1.69	9.26	24.65	(800)
6세(7차)	16.27	2.05	12.42	30.85	(790)	15.95	1.97	11.57	24.86	(753)
7세(8차)	16.68	2.33	12.49	28.80	(797)	16.33	2.24	11.21	27.49	(759)
8세(9차)	17.46	2.72	12.76	26.80	(769)	16.86	2.46	12.68	28.06	(726)
9세(10차)	18.42	3.19	11.81	32.07	(749)	17.56	2.80	12.25	28.70	(724)
10세(11차)	19.37	3.45	12.71	30.30	(716)	18.21	3.17	12.74	40.89	(683)
11세(12차)	20.28	3.66	12.27	30.82	(704)	18.93	3.02	13.23	32.67	(664)
12세(13차)	21.35	3.76	12.57	34.89	(668)	19.85	3.04	13.57	35.61	(650)
13세(14차)	21.79	4.01	13.92	37.62	(664)	20.17	3.04	12.98	34.00	(635)
14세(15차)	21.96	4.15	14.09	39.84	(641)	20.44	3.15	14.50	35.06	(602)

주: BMI는 몸무게(kg)/신장(m^2)로 계산하며, 체지방축적을 나타내어 비만도 판정에 많이 사용함(정상범위 18.5-23). 단, BMI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지수이므로 아동에게 적용 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5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Ⅵ-1-3] 아동의 BMI

단위: kg/㎡



자료: 한국아동패널 1-15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1-15차년도 부모 특성 추이

1) 부모의 취/학업 상태

부모의 취업 상태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취/학업 상태의 비중이 줄곧 90% 중후반대로 큰 변동 없는 패턴을 보이는 데에 비해, 어머니의 경우는 30% 초반 대부터 시작하여 60% 후반 대까지의 비중을 보이며 아버지와는 상이한 패턴으로 전개된다. 어머니의 취학업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이 0세 때의 취학업의 비중은 30.1%로 가장 낮게 기록되었으나 이후 증가경향을 보여 아동이 6세 때에는 46.4%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아동이 초등 1학년이 되는 7세 때에는 44.6%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동이 초등 6학년인 12세에는 60.7%, 중등 1학년인 13세에는 63.3%, 14세 때에는 68.1%까지 증가하였다.

〈표 Ⅵ-1-4〉 부모의 취/학업 상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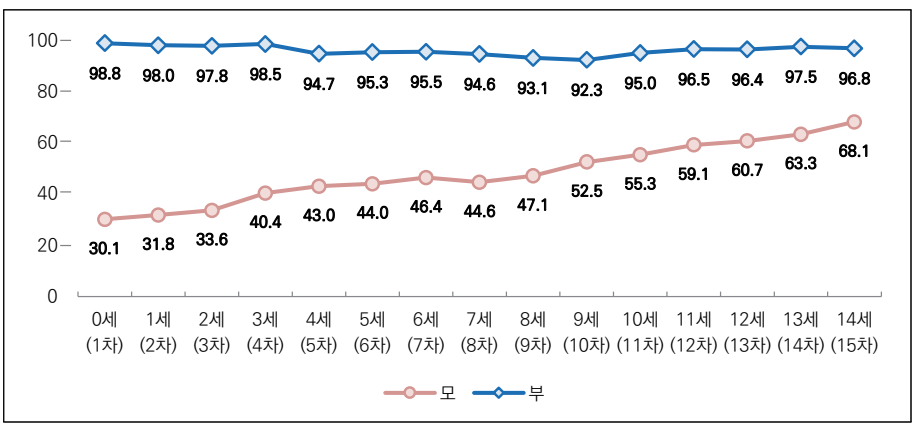
구분	어머니			아버지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계(수)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계(수)
0세(1차)	30.1	69.9	100.0(2078)	98.8	1.2	100.0(2010)
1세(2차)	31.8	68.2	100.0(1887)	98.0	1.7	100.0(1892)
2세(3차)	33.6	66.4	100.0(1801)	97.8	2.2	100.0(1788)

구분	어머니			아버지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계(수)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계(수)
3세(4차)	40.4	59.6	100.0(1741)	98.5	1.5	100.0(1740)
4세(5차)	43.0	57.0	100.0(1683)	94.7	5.3	100.0(1616)
5세(6차)	44.0	56.0	100.0(1638)	95.3	4.7	100.0(1540)
6세(7차)	46.4	53.6	100.0(1587)	95.5	4.5	100.0(1483)
7세(8차)	44.6	55.4	100.0(1568)	94.6	5.4	100.0(1469)
8세(9차)	47.1	52.9	100.0(1492)	93.1	6.9	100.0(1371)
9세(10차)	52.5	47.5	100.0(1442)	92.3	7.7	100.0(1304)
10세(11차)	58.2	41.8	100.0(1391)	95.6	4.4	100.0(1333)
11세(12차)	59.1	40.9	100.0(1365)	96.5	3.5	100.0(1244)
12세(13차)	60.7	39.3	100.0(1365)	96.4	3.6	100.0(1232)
13세(14차)	63.3	36.7	100.0(1320)	97.5	2.5	100.0(1164)
14세(15차)	68.1	31.9	100.0(1279)	96.8	3.2	100.0(1167)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3.
2) 11-15차: 한국아동패널 11-15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Ⅵ-1-4] 부모의 취업 상태

단위: %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4.
2) 11-15차: 한국아동패널 11-15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부모의 종사상 지위

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정규직/상용직의 비중이 아동연령과 상관없이 70~80% 정도로 나타나고 비정규직 2~6% 정도, 자영업 등의 기타의 비중이 10~20% 정도로 나타나는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정규직/상용직의 비중

이 아동의 영아기를 제외하면 줄곧 60% 대로 나타난다. 이와 연동하여 어머니의 비정규직의 비중은 대체로 10% 이상이며, 자영업 등의 기타의 비중은 20% 대를 상회한다.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 연령 0,1세 때에는 정규직/상용직의 비중이 85.7%, 79.7%로 높게 나타나다가 아동 연령 2세 때부터 낮아져 4세 때 61.0%까지 떨어진 후 초등시기 내내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다 아동이 중등 1학년인 13세에는 정규직/상용직의 비중이 69.0%, 14세에는 67.1%로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표 Ⅵ-1-5〉 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정규직/상용직	비정규직		기타	계(수)	정규직/상용직	비정규직		기타	계(수)
		임시직	일용직				임시직	일용직		
0세(1차)	85.7	4.8	1.8	7.7	100.0(622)	82.2	4.2	2.1	11.6	100.0(1902)
1세(2차)	79.7	8.3	2.4	9.6	100.0(591)	84.4	3.5	2.7	9.4	100.0(1751)
2세(3차)	68.7	11.6	1.7	18.1	100.0(588)	73.0	3.0	2.8	21.1	100.0(1657)
3세(4차)	67.1	12.4	1.2	19.2	100.0(691)	73.4	2.3	2.7	21.6	100.0(1534)
4세(5차)	61.0	12.9	2.9	23.2	100.0(715)	74.1	2.0	2.6	21.3	100.0(1477)
5세(6차)	65.7	11.7	1.5	21.1	100.0(711)	73.5	2.3	2.9	21.3	100.0(1330)
6세(7차)	66.5	12.1	0.8	20.5	100.0(725)	74.2	1.7	3.1	21.0	100.0(1242)
7세(8차)	64.3	11.1	1.6	23.1	100.0(694)	75.8	2.3	2.0	19.9	100.0(1246)
8세(9차)	62.8	10.9	1.3	25.1	100.0(698)	74.0	2.6	2.4	21.0	100.0(1217)
9세(10차)	62.7	10.3	1.5	25.6	100.0(751)	76.2	3.0	1.5	19.3	100.0(1272)
10세(11차)	64.4	9.3	1.9	24.4	100.0(807)	75.4	2.6	2.2	19.8	100.0(1296)
11세(12차)	61.5	10.1	2.2	26.2	100.0(802)	76.4	2.9	2.1	18.6	100.0(1164)
12세(13차)	62.7	9.7	2.1	25.5	100.0(821)	77.4	3.0	1.9	17.7	100.0(1049)
13세(14차)	69.0	8.5	1.3	21.2	100.0(822)	75.3	1.6	0.9	8.7	100.0(980)
14세(15차)	67.1	11.4	1.6	20.0	100.0(862)	69.9	1.2	2.2	26.7	100.0(1129)

주: 기타는 자영업, 가족기업 종사자수를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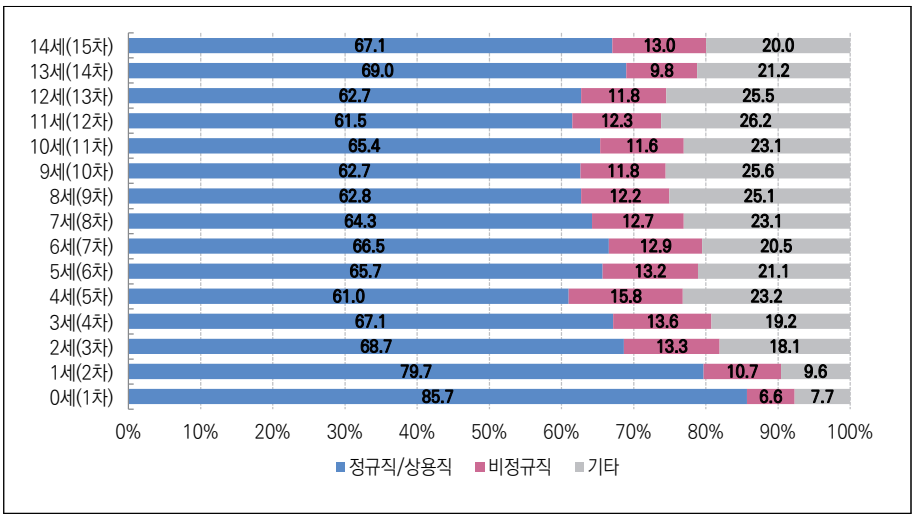
자료: 1) 1-10차(어머니):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4-245.

2) 11-15차(어머니): 한국아동패널 11-15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1-15차(아버지): 한국아동패널 1-15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I-1-5]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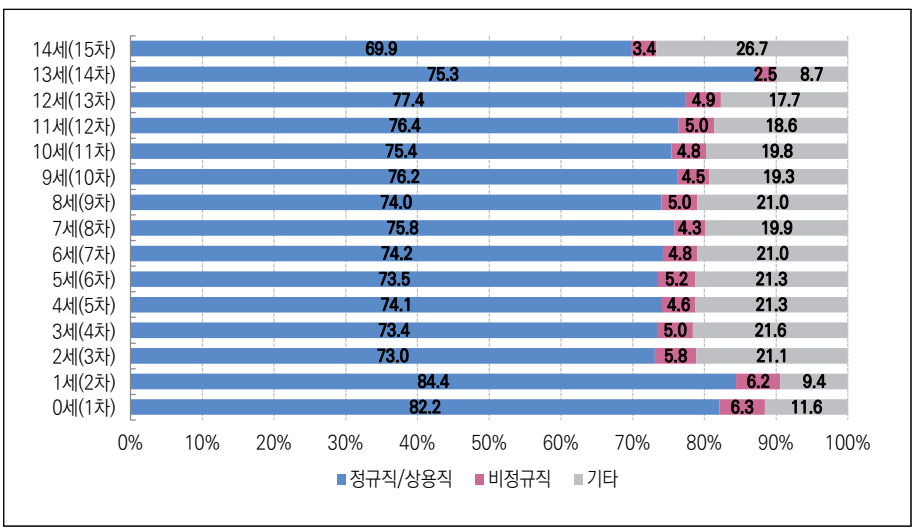
단위: %



주: 비정규직 수치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44-245.
2) 11-15차: 한국아동패널 11-15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I-1-6]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주: 비정규직 수치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1-15차: 한국아동패널 1-15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부모의 결혼 만족도

부모의 결혼 만족도는 격년 조사로 15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다. 14차년도까지의 대략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아버지보다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아동 연령 0, 1세에 비교적 높게 유지되던 점수가 2세부터 감소세를 보여 아동연령 6세에는 어머니 3.20점, 아버지 3.45점으로 최저점을 찍는 것이 목격된다. 이후 결혼 만족도 점수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아동이 중등 1학년인 13세에는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Ⅵ-1-6〉 부모의 결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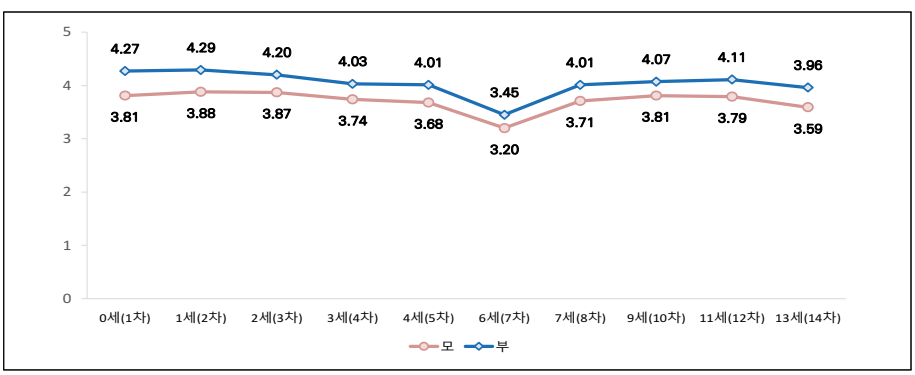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81	0.77	(1857)	4.27	0.68	(1648)
1세(2차)	3.88	0.79	(1874)	4.29	0.71	(1788)
2세(3차)	3.87	0.77	(1756)	4.20	0.72	(1673)
3세(4차)	3.74	0.73	(1690)	4.03	0.65	(1622)
4세(5차)	3.68	0.76	(1665)	4.01	0.66	(1611)
6세(7차)	3.20	0.67	(1564)	3.45	0.56	(1479)
7세(8차)	3.71	0.81	(1547)	4.01	0.73	(1467)
9세(10차)	3.81	0.94	(1394)	4.07	0.85	(1304)
11세(12차)	3.79	0.82	(1260)	4.11	0.75	(1182)
13세(14차)	3.59	0.80	(1315)	3.96	0.73	(1164)

주: 결혼 만족도는 8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8.
2) 12, 14차: 한국아동패널 12차, 14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Ⅵ-1-7] 부모의 결혼 만족도

단위: 점



주: 결혼 만족도는 8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8.
2) 12, 14차: 한국아동패널 12차, 14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4) 부모의 부부 갈등

부모의 부부 갈등 문항 역시 격년조사이나 결혼 만족도 문항과 번갈아가며 조사되어 15차년도에는 분석에 포함되었다. 부부 갈등은 앞서의 결혼 만족도의 분석 결과와 달리 아동이 0세 때 어머니의 점수가 아버지 점수에 비해 다소 높은 특성을 보이나, 그 이후에는 성별 차이가 미미하다. 아동 연령 0세에는 어머니의 점수가 1.99점으로 아버지의 점수 1.89점보다 높아 어머니가 인식하는 갈등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후부터는 부모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나며 아동 연령 6세까지는 미미하게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다 아동의 초등 1학년인 7세 때 점수가 다소 낮아지다가 이후부터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동이 중등 2학년인 14세에는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의 점수가 2.10점으로 아버지의 점수 2.03점보다 높게 나타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 갈등 정도가 큰 것이 확인된다.

〈표 Ⅵ-1-7〉 부모의 부부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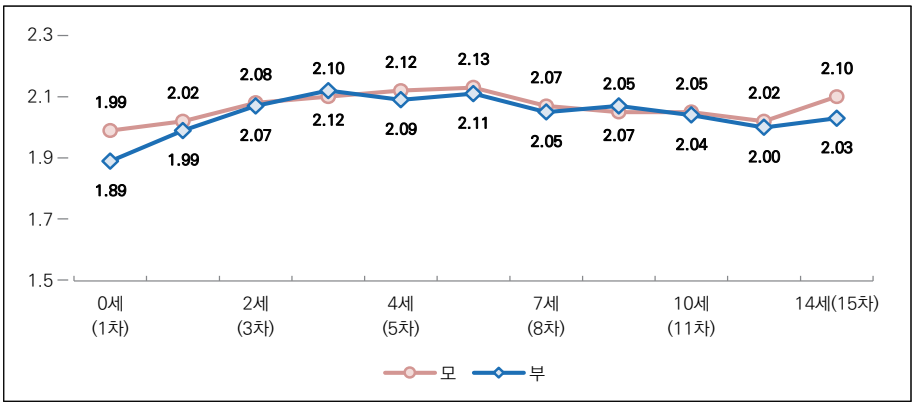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1.99	0.77	(1858)	1.89	0.70	(1649)
1세(2차)	2.02	0.76	(1815)	1.99	0.70	(1727)
2세(3차)	2.08	0.77	(1710)	2.07	0.74	(1620)
3세(4차)	2.10	0.76	(1696)	2.12	0.73	(1621)
4세(5차)	2.12	0.78	(1664)	2.09	0.72	(1607)
6세(7차)	2.13	0.84	(1563)	2.11	0.77	(1479)
7세(8차)	2.07	0.82	(1545)	2.05	0.73	(1467)
8세(9차)	2.05	0.82	(1435)	2.07	0.77	(1359)
10세(11차)	2.05	0.81	(1401)	2.04	0.79	(1182)
12세(13차)	2.02	0.79	(1303)	2.00	0.75	(1232)
14세(15차)	2.10	0.79	(1247)	2.03	0.74	(1167)

주: 부부 갈등은 9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1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47.
2) 13, 15차: 한국아동패널 13, 15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Ⅵ-1-8] 부모의 부부 갈등

단위: 점



주: 부부 갈등은 9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1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7.
2) 13, 15차: 한국아동패널 13, 15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5) 부모가 받는 사회적 지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받는 사회적 지지를 도구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의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 연령 0세 때 4가지 모두의 점수가 4점대로 높게 나타나다가 이후 3점대로 낮아졌으나 큰 변동 없이 3점대 중후반의 점수를 유지하였다. 아동이 중등 2학년인 14세 때의 분석결과를 보면, 도구적 지지 점수가 3.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정서적 지지 3.89점, 사교적 지지 3.82점, 정보적 지지 3.78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1-8〉 사회적 지지

단위: 점, (명)

구분	도구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세(1차)	4.18	0.78	4.08	0.84	4.10	0.80	4.12	0.81	(2075)
1세(2차)	3.91	0.83	3.87	0.86	3.81	0.85	3.80	0.87	(1895)
2세(3차)	3.89	0.82	3.89	0.84	3.80	0.82	3.80	0.85	(1772)
3세(4차)	3.84	0.85	3.85	0.85	3.74	0.83	3.76	0.85	(1703)
5세(6차)	3.70	0.94	3.73	0.88	3.80	0.86	3.86	0.81	(1331)
6세(7차)	3.42	1.04	3.49	0.97	3.47	0.99	3.55	0.93	(1614)

구분	도구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7세(8차)	3.89	0.76	3.87	0.80	3.81	0.75	3.84	0.81	(1594)
8세(9차)	3.88	0.74	3.86	0.78	3.80	0.77	3.87	0.78	(1619)
9세(10차)	3.95	0.76	3.95	0.79	3.91	0.76	3.93	0.79	(1477)
10세(11차)	3.95	0.74	3.91	0.72	3.90	0.76	3.94	0.75	(1429)
12세(13차)	3.96	0.69	3.89	0.68	3.82	0.72	3.94	0.68	(1397)
13세(14차)	3.85	0.75	3.73	0.73	3.74	0.75	3.85	0.74	(1348)
14세(15차)	3.92	0.67	3.82	0.64	3.78	0.67	3.89	0.67	(1304)

주: 6, 7차 조사에서는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으로 부터의 지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음. 본 표에는 전체 집단의 평균을 제시함.
자료: 1) 1-10차: 도남희 외(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02.
2) 11-15차: 한국아동패널 11차, 13-15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 1-15차년도 지역사회 특성 추이

지역사회 특성으로 여가 및 문화시설의 접근 편리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동의 영유아기, 아동초기에 조사된 점수보다 초등 중학년 이후 아동후기부터 조사된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시설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 가구가 인식하는 접근 편리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이 중등 2학년인 14세 때의 분석결과를 보면 여가 및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은 각각 3.64점, 3.26점으로 1~15차년도의 점수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Ⅵ-1-9〉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점, (명)

구분	여가시설 접근 편리성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25	1.08	(1864)	2.57	1.10	(1855)
1세(2차)	3.15	1.07	(1895)	2.51	1.06	(1897)
2세(3차)	3.23	1.05	(1771)	2.53	1.04	(1770)
3세(4차)	3.12	1.02	(1700)	2.50	1.02	(1701)
4세(5차)	3.13	1.19	(1673)	2.41	1.10	(1672)
5세(6차)	3.13	1.18	(1613)	2.43	1.09	(1613)
6세(7차)	3.24	1.16	(1565)	2.50	1.07	(1565)
7세(8차)	3.18	1.18	(1556)	2.92	1.15	(1556)
8세(9차)	3.25	1.08	(1525)	3.03	1.06	(1525)

구분	여가시설 접근 편리성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9세(10차)	3.38	1.03	(1484)	3.16	1.05	(1484)
10세(11차)	3.35	0.78	(1434)	3.18	0.86	(1434)
11세(12차)	3.40	0.75	(1412)	3.23	0.82	(1412)
12세(13차)	3.42	0.72	(1397)	3.16	0.82	(1397)
13세(14차)	3.41	0.72	(1348)	3.12	0.82	(1348)
14세(15차)	3.64	0.82	(1304)	3.26	1.00	(1304)

주: 1) 5차 조사부터는 각 항목을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음. 이에 따라 '여가 공간/시설'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의 접근 편리성을, '문화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 도서관의 접근 편리성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함.
2) 8차 조사 이후에는 '여가 공간·시설'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실내 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문화시설'은 영화관, 관람 및 체육시설, 공연시설, 도서관의 접근 편리성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함.
자료: 1) 1-10차: 도남희 외(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 (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03.
2) 11-15차: 한국아동패널 11-15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15차년도 데이터 분석의 시사점

이하에서는 15차년도 조사의 기초분석결과 중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나거나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결과에 대해 영역별로 요약서술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가. 15차년도 데이터 분석결과 요약

1) 아동의 일상생활 및 신체·건강

식생활 진단 조사 결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인스턴트 섭취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는 월평균 550만원 초과인 고소득가구보다 과일 섭취 점수가 낮았다.

생활시간의 경우도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의 수면시간 조사 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수면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책읽기 평균시간도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다소 높았다. 숙제 및 학습시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길었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750만원 초과하는 가구는 월평균 350만원 초과 550만원 이하 가구보다 주말 아동의 숙제 및 학습시간이 길었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숙제 등 학습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

다. 영상시청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긴 반면, 게임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주중 영상시청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게임시간의 경우도 저소득가구가 고소득가구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부모응답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아동응답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부모응답의 미디어기기 중독 조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중이 44.94%로 나타났으나, 아동응답의 스마트폰 중독 조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 비중이 1.02%로 매우 낮았다.

신체적 자아상의 경우 아동들은 4점 척도 중 평균 2.68점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신장 만족을 제외한 남은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체중조절 경험도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 증량 노력 17.62%, 노력 안함 34.94%, 유지 노력이 23.64%로 나타난 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 과반에 가까운 45.47%가 감량 노력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읍면지역의 아동이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더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2) 아동의 학습 및 사회·정서

아동의 집행기능은 11차년도부터 격년조사로 시행하였으며 13차년도부터는 보호자 응답에서 아동 직접 응답방식으로 변경되어 조사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행동통제 곤란 평균점수가 더 높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은 반대로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아동이 타지역 아동에 비해 부주의 평균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점수는 5점 중 평균 2.67점으로 조사되어 14차 응답결과(전체 평균 2.42점, 김지현 외, 2022: 132)에 비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숙제/시험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은 14차년도에 처음으로 추가한 내용으로 5개 문항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전체 평균은 2.69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

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월평균 750만원 초과 고소득가구 아동의 자기조절학습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5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3.13점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3.19점, 여학생 3.06점으로 남학생이 더 높았다. 아동의 삶의 만족감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4점 중 2.96점이었으며, 아동의 우울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점 중 1.51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의 경우 아동 성별로는 남학생이 1.49점, 여학생 1.54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았고, 지역 규모가 클수록 우울수준이 더 높았다.

아동의 끈기는 5점 중 평균 3.06점이었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3.11점으로 여학생 3.0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소재 아동이 3.16점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아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공감척도는 14차년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변인으로 공감척도 전체 평균은 6점 척도에서 4.21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이 높았다.

학교적응은 14차 조사(중1)부터 청소년용 학교적응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성별로는 학교친구 영역과 학교생활 영역의 경우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은 반면, 학교교사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학교공부 영역에서 월평균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550만원 초과 가구 아동의 점수가 더 높았고, 학교친구 영역에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750만원 초과 고소득가구 아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애착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또래애착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만 남학생 3.08점, 여학생 3.2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비행 인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읍면이 도시지역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용돈사용에 대해 남학생은 저축한다는 응답과 문화생활에 쓴다는 응답비중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의류, 화장품 구매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경우 간식 및 군것질에 용돈을 쓴다는 응답비중이 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의 경우 문화생활에 용돈을 쓴다는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집과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부모 및 가구 특성

부모 각각 조사한 자아존중감의 경우, 부모 모두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부모 각각 조사한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의 경우도 대체로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을 살펴보면, 일-가정 이점은 평균 3.79점, 갈등은 2.17점으로 갈등보다 이점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일-가정 이점 점수는 평균 3.89점, 갈등은 2.15점으로 아버지 역시 갈등보다 이점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모두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가정 이점 점수가 높았으며, 일-가정 갈등의 경우 지역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경우 아동 성별,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 성별이 남성이거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어머니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한편, 아버지의 경우는 지역 규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학업적/교육적 지원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집안 공부 분위기 조성과 공부방법 조언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평소 자녀의 생활 확인 및 일정 관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가구가 외부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15차 조사 때 처음 조사한 변인으로 아동과 부모 각각 조사하였다. 아동은 전체 문항 평균이 3.91점, 아버지는 3.74점, 어머니는 3.76점으로 아동의 점수가 가장 높아 가족 내 의사소통이 대체로 잘 이뤄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이나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여 고소득가구의 어머니는 저소득가구보다 가정 내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15차년도에 처음으로 담임교사 대상으로 학교풍토를 교사풍토, 학생풍토, 학부모풍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교사풍토는 4개 항목 4점 척도로 조사하였는데, 3.21점에서 3.66점 수준으로 4개 항목 모두 높게 나타났다.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가 3.6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항목은 3.21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생풍토에 대해서는 5개 항목, 동일하게 4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2.94점에서 3.33점의 분포를 보였다. 학생들의 학교 시설을 아끼려는 마음 항목은 2.94점으로 가장 낮았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는 3.33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부모풍토의 경우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항목이 2.97점으로 가장 낮았고,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항목이 3.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 대상의 학생비행 조사 역시 15차년도에 처음으로 수행되었다. 조사결과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한다'는 평균 2.47점,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는 평균 2.90점으로 두 문항 모두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를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4개 항목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4개 항목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항목은 생활지도 항목이었고(3.37점), 수업지도 항목은 2.73점으로 4개 항목 중에서는 비교적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 역시 15차년도에 처음 조사한 문항으로 9개 항목,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전체 평균은 4.13점으로 효능감 수준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 연령이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 조사 결과, 90.80%가 학교 수업 외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가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구소득이 높고 지역 규모가 클수록 응답비중이 높았다. 또한,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에 설문에서도 88.57%가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구소득이 높거나 지역 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하는 사교육의 과목은 수학이 가장 많았으며, 영어, 과학, 국어, 체육, 논술, 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하는 학교 외 기관 및 매체는 학원으로 월평균 53.61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8.19만원, 인터넷/화상 강의 13.41만원, 학습지(방문교사) 11.74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이 느끼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25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부담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 아동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최근 1년 동안 이사한 패널가구 중 이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대상 패널가구의 43.92%가 주거환경(주택, 교통)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구소득별로 차이를 보여 소득이 낮을수록 주변환경(의료, 문화)의 이유로 이사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시설의 편리성 조사 결과 교육·의료·복지시설 모두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여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접근편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 공간·체육·문화시설의 경우 여가 공간시설에서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편리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안정성 조사에서는 지역 규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정기순찰' 항목에서는 대도시지역의 안정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한 동의 정도 분석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약 42%로 나타난 가운데 가구소득이 높거나 지역 규모가 클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약 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정도로 나타난 가운데 가구소득이 높거나 지역 규모가 클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비

중이 높았다. 고교학점제의 경우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약 42%, 보통에 대한 응답이 약 38%로 나타났으며, 지역 규모가 클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높았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에 대한 분석결과 약 7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나. 시사점

1) 부모-자녀 간 관점차이에 대한 인식 및 상호이해를 위한 지원 필요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을 비롯해 주양육자와 부모 각각, 아동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며, 비슷하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대상에게 동시에 묻기도 하여 쌍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꽤 흥미로우며 많은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대한 조사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조사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미디어 중독 조사는 아동이 초등학생이던 13차년도 초등 6학년까지는 부모응답으로만 진행되었는데 14차년도부터는 아동 자가 조사를 추가하였다. 부모응답은 pc와 스마트폰을 모두 이용한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것이고 아동 조사는 스마트폰에 대한 심리적 중독을 측정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14차년도에 이어 15차년도 결과분석에서도 부모응답과 아동의 자가 응답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15차년도의 경우 부모응답의 미디어기기 중독 조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중이 무려 44.94%였으나, 아동응답의 스마트폰 중독 조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 비중이 1.02%에 불과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15차조사 때 처음 실시한 것으로 10개 문항으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되는 정도를 질문한다. 이는 아동과 부모 각각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10개 문항 전체에서 아동이 부모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전체 문항 평균이 3.91점, 아버지는 3.74점, 어머니는 3.76점으로 나타나 아동은 부모가 인식한 수준보다 가족 내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현상과 특성을 바라보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관점이 매우 다르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상호이해가 없다면 갈등과 오해가 클 수 있

음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들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바, 부모교육 등을 통해 부모-자녀 간 관점차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도시지역 아동의 학업부담 경계 및 읍면지역의 편의시설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15차년도 조사에 대한 기초분석에서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 규모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생활시간 및 건강, 사교육 관련 내용들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 및 지역사회 특성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났다. 아동의 생활시간 중 아동의 수면, 책읽기 시간은 읍면지역에서 길게 나타난 반면, 숙제 및 학습시간은 도시지역이 길게 나타났다. 아동의 숙제/시험 스트레스는 대도시지역이 읍면에 비해 높고 지역 규모가 클수록 아동의 우울수준이 높았다. 또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도 도시지역이 읍면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에 대한 조사,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도시지역일수록 이용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이 느끼는 사교육 부담은 도시지역 아동이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조사에서도 부모 모두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 시설의 편리성 조사 결과에서는 교육·의료·복지시설, 여가공간 등에서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상 도시지역 아동이 읍면지역에 비해 학업비중이 높고 관련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 정서의 점수도 높게 나타나 도시지역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과도한 학업부담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읍면지역의 경우는 교육, 의료, 복지, 여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관련한 시설의 확충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3) 저소득가구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모색

15차년도 조사의 기초분석 시에는 가구소득을 범주화해 집단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때 최저소득 구간은 총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의 60% 선에 맞추어 설정하였다(350만원 이하)[28]. 분석결과 가구소득에 따라 다양한 변인에서 소득

별 격차가 나타났으며, 특히 월평균 35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의 열악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아동의 식생활에서 월평균 35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는 월평균 550만원 이상인 고소득가구보다 과일 섭취 점수가 낮았으며, 생활시간 면에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 아동은 주중 영상시청시간과 게임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습관련해서는 월평균 35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월평균 750만원 초과 고소득가구 아동은 자기조절학습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에 대한 조사,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에 대한 조사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학업적/교육적 지원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월평균 35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학교공부 및 숙제확인 성적관리에 힘씀, 진로진학 정보수집. 생활확인 및 일정관리 등의 전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고소득가구의 어머니의 경우 저소득가구보다 가정 내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인식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저소득가구 아동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미디어, 게임 등에 과다 노출된 가능성이 크고 부모로부터의 교육적 지원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뿐 아니라 저소득의 경제적 상황은 아동의 조절능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과도 부정적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아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제적 빈곤으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뚜렷해지는 성차에 대한 이해 및 지원

아동의 성별 격차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함께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15차년도 조사는 성별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중2시기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기초분석결과에서도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선 아동의 일상생활 측

28) 15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5,121,080원, 5인가구 6,024,515원으로 중위소득의 60% 소득액은 각각 3,072,648원, 3,614,709원이며, 15차조사에 응한 아동패널의 총 가구원수는 4.6명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10월 15일 인출).

면에서 성별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생활시간의 활용 측면에서는 여학생의 숙제 및 학습시간이 길고 미디어 시간의 경우 여학생은 영상시청, 남학생은 게임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신체적 자아상의 주요항목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과 동시에 여학생의 과반 정도가 체중 감량 노력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스턴트 섭취가 잦은 특성을 보였다.

아동의 학습 및 사회정서 부문의 성별 차이도 드러나, 집행기능의 경우 남학생은 행동통제 곤란 점수가 높고 여학생은 정서통제 곤란 점수가 높았으며, 자기조절학습은 여학생이 점수가 높았으나 학업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이 높고 우울수준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적응에서의 친구와 생활영역, 공동체 의식 및 공감과 같은 사회성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이는 아동의 성별 격차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면도 있지만, 신체적 자아상과 같이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적 개입도 강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강윤아·신택수(2018). 부모와 자녀의 삶 만족도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인과적 전이 관계 분석: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한 잠재전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3). pp.185~211.

관계부처합동(2020. 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김동옥·이혜진(2019).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섭취 영향요인 :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8), 111-121.

김재희. (2017).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변화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4), 127-152.

김아영·김진희·계승희(2018).한국 청소년의 가당음료 섭취실태 및 영향요인.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51(5), 465-479.

김용희·한창근(2017). 부모 삶의 만족도와 아동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8(3). pp.29~55.

김주후·정소미(2022). 학부모의 직업가치에 따른 자녀의 진로진학활동 참여정도 및 진로진학활동도움인식정도 분석: 자녀 사교육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4), 591-606.

김은설·배윤진·김근진·조혜주·김혜진(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II).

김지현·김동훈·조미라·배윤진·김혜진·박은영(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 (한국아동패널 II).

김지현·도남희·배윤진·김혜진·강규돈·장현진(202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 (한국아동패널 II).

김현진·김미혜(2014).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잠재성장모형(LGM)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2), 85-106.

김현철·황수진·박혜랑(2019).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화추이. 한국청소년연구, 30(1), 155-183.

권순형·도재우·민윤경·양희준·이강주·이쌍철·이정우·이희현(20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

도남희·배윤진·이예진·이윤진·김문정·임준범·김희수(201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7 (한국아동패널 II). .

도남희·이정원·김지현·조혜주·박은영·김희수(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 (한국아동패널 II).

서수인·오진경·임민경(2017). 청소년 폭음과 흡연, 신체활동 부족, 부적절한 체중조절, 성 행태와의 관련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4(1), 1-12.

이탄·이민우·신문수·김성준(2021). 청소년 정신건강 및 음주행태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11(2), 127-134.

이휘인·김현철(2015).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 및 중학생의 특성화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2014 서울교육종단연구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1(6), 169-190.

장지연·이혜정(2008). 중·고령자의 근로생애 유형-사건계열분석기법을 이용한 취업력 분석. 노동리뷰, 42, 76~86.

정지영·정혜원(2022).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pp.839~854.

주익현·채철균(2020). 부모의 신체활동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 여성연구, 104(1), 153-177.

최효미(2016). 출생 코호트별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 - 무상 보육 정책 시행 전후를 중심으로. 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통계청 보도자료(2023.3.7.).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a). 국민 삶의 질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b).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하규영·이민영(2020).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정서행동문제의 매개효과 : 부모구성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7(1). pp. 39~63.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pp. 187-249). Greenwich, CT: JAI Press.

Elder, G. H., Jr. (1998). Life Course Dynam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Elder, G. H., Jr. (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W. Damon(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pp. 939-991). New York: Wiley.

Macindoe, H., & Abbott, A.(2004), Seqeu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Techique for Social Science Data, Handbook of Data Analysis, Sage Publication.

[인터넷 출처 자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20973 (2023년 10월 13일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675 (2023년 10월 15일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서비스찾기〉 서비스목록〉 생애주기〉 청소년.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2023년 6월 30일 인출)

사교육걱적없는세상 홈페이지 〉 정책 자료실〉 영유아.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16573059&t=board (2023년 10월 12일 인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교육청책연구〉 종단연구〉 3차년도(2012년)설문지-학생용(초,중,고) https://www.serii.re.kr/fus/MI0000000000000000495/board/BO00000362/ctgynone/view0010v.do (2023년 5월 17일 인출)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홈페이지〉 조사항목〉 설문지〉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설문지 https://www.kdca.go.kr/yhs/home.jsp (2023년 5월 3일 인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 원시자료〉 자료분석지침〉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제8기(2019-2021)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3/sub03_06_02.do (2023년 5월 3일 인출)

World Happiness Report (2023). https://worldhappiness. report/ed/2023/world-happiness-trust-and-social-connections-in-times-of-crisis/#ranking-of-happiness-2020-2022 (2023년 9월 21일 인출)

Abstract

2023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m :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Mira Cho · Hyo Mi Choi · Dong Hoon Kim · Hyejin Kim · Min-gwon kang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is the first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in Korea, starting with newborns, and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in 2008 for children born in 2008, and the 16th survey was conducted in 2023.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families, care and childcare (infancy and early childhood), and school and private education (childhood) that affect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we have accumulated multi-layered research data to understand children and the systems that surround them, including children, primary caregivers, parents of children, teachers at childcare support organizations (infancy and early childhood), and teachers at schools (childhood).

As of March 15, 2023, there were a total of 1,228 research reports, seminars, and papers published using the Korean Child Panel data. Of these, 857 academic papers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at 70%. When looking at the utilization of data in academic papers, there are 523 cross-sectional studies and 334 longitudinal studies.

The 2023 Korean Child Panel Survey was conducted in four separate parts.

First, we conduct the 16th survey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The panel children, who were born in 2008 when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in 2008, entered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is year. The 16th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anel children, their households (primary caregivers,

parents), and their schools (homeroom teachers). In the 16th survey, 1,508 households out of a total sample of 2,150 households were selected as the effective sample. The final number of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in the 16th year survey was 1,288 (1,258 children). This is 85.4% of the targeted sample of 1,508 households. This is 62.0% of the 2,078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the 1st year survey and 98.8% of the 1,304 households that completed the 15th year survey 15 in 2022.

Second, we conducted a basic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15th Korean Child Panel Survey and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using accumulated longitudinal data. The basic analysis centered on the main variables of children, parents, family, school, community, and policy areas using the 15th survey data. Using longitudinal data, we analyzed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of the panel children and parents and analyzed the patterns of private education use in depth.

Third, we held the 14th Korea Child Panel Conference and released the 14th survey data. The data of the 14th survey, conducted in 2021, was first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and utilized, and was released to the public after a certain period of verification after the conference.

Fourth, we performed management and user convenience tasks for the 1st-14th data. We updated and continuously checked and managed the survey data, questionnaires, tool profiles, and change maps of variables from the 1st to 14th surveys, and devised and implemented other measures to improve user convenience.

Keyword: panel study, longitudinal data, Kre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부록

부록 1. 16차년도(2023년 조사) IRB 승인통지서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04535)
Tel. 02-398-7761 Email. yjyj465@kicce.re.kr

심 의 일 자	2023. 06. 14.
과 제 번 호	220996-230614-HR-007
연 구 제 목	한국 아동 성장 발달 종단 연구 2023(한국아동패널 II)
연 구 책 임 자	조 미 라
연 구 승 인 일	2023. 07. 26.
연 구 승 인 기 간	2023. 07. 26. ~ 2023. 12. 31.
연 구 승 인 번 호	KICCEIRB-2023-제08호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장 KICCE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부록 2. 15차년도(2022년 조사) 질문지

한국갤럽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www.gallup.co.kr
T 02-3702-2100 GALLUP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2 (아동용)

Gallup
2022-211-0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매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2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종서
전화 02-3702-2612

다음은 아동의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동의 신체 측정 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중]

J01-1) 나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 입니까?

2021년 측정 몸무게 : (_____kg)

① 몸무게 미계측
② 계측 몸무게(_____kg)

a. 종단값 제시(종단1)
b.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c. 범위: 25~200
d. 22년도 체중 〈 21년도 체중 → J01-1-1)로 갈 것

J01-1-1) 몸무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병치레
② 다이어트
③ 기타(적을 것 : _____)
④ 전년도 오류(전년도 몸무게 : _____kg)
⑤ 전년도 오류. 몸무게 알 수 없음
⑥ 올해 몸무게를 잘못 입력함 → J01-1)로 갈 것

a. 재입력한 전년도 몸무게가 종단값보다 같거나 클 경우 경고창

[신장]

J01-2) 현재 키는 몇 cm 입니까?

벽면에 아동의 발, 엉덩이, 머리를 밀착시키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측정해 주세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측정 키: (cm)

① 키 미계측 ② 계측 키(_____ cm)

a. 종단값 제시(종단2)
b.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c. 범위: 100~250
d. 22년도 신장 〈 21년도 신장 → J01-2-1)로 갈 것

J01-2-1) 키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병치레 ② 기타(적을 것 : _____)
③ 전년도 오류(전년도 키: ____ cm) ④ 전년도 오류. 키 알 수 없음
⑤ 올해 키를 잘못 입력함 → J01-2)로 갈 것

a. 재입력한 전년도 키가 종단값보다 같거나 클 경우 경고창

[허리둘레]
J01-3) 현재 허리둘레는 몇 cm 입니까?

줄자가 배꼽을 지나 수평으로 재주세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측정 허리둘레: (____ cm)

① 허리둘레 미계측 ② 계측 허리둘레(_____ cm)

a. 종단값 제시(종단3) b.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c. 범위: 0~200 d. 22년도 허리둘레 〈 21년도 허리둘레 → J01-3-1)로 갈 것

J01-3-1) 허리둘레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병치레
② 다이어트
③ 키가 크면서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⑤ 전년도 오류(전년도 허리둘레: ____ cm)
⑥ 전년도 오류. 허리둘레 알 수 없음
⑦ 올해 허리둘레를 잘못 입력함 → J01-3)으로 갈 것

a. 재입력한 전년도 허리둘레가 종단값보다 같거나 클 경우 경고창

J01-4) 신체계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택해 주세요.

	조사원이 직접 계측	아동이 스스로 직접 계측 후 입력	아동이 알고 있는 수치 입력
체중	①	②	③
신장	①	②	③
허리둘레	①	②	③

지금부터는 보호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각각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다음은 아동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생활 진단]

J02-1) 식생활을 간단히 평가해 볼 수 있는 식생활 진단표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아닌 편이다
1) 우유나 유제품 (요거트, 요플레 등)을 매일 2병 이상 마신다	①	②	③
2)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끼니마다 먹는다	①	②	③
3) 김치 이외의 채소를 끼니마다 먹는다	①	②	③
4) 과일 (1개)이나 과일주스 (1잔)를 매일 먹는다	①	②	③
5)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①	②	③
6) 지방이 많은 육류 및 생선류 (삼겹살, 갈비, 장어 등)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①	②	③
7)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①	②	③
8)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①	②	③
9)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등)를 간식으로 주 2회 이상 먹는다	①	②	③
10)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편식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탄산음료 섭취]

J02-2) 최근 1주일 동안 탄산음료(예시 : 콜라, 사이다 등)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①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 ② 주 1-2번
③ 주 3-4번 ④ 주 5회 이상

[인스턴트식 섭취]

J02-3) 최근 1주일 동안 인스턴트(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①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② 주 1-2번
③ 주 3-4번 ④ 주 5회 이상

[음주경험 여부]

J02-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① 술을 마셔본 적 없다 → J02-5)로 갈 것
② 있다 → J02-4-1)로 갈 것

J02-4-1) 처음으로 술 1잔을 모두 마셔본 적은 언제입니까?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① 초등학교 1학년 ② 초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④ 초등학교 4학년
⑤ 초등학교 5학년 ⑥ 초등학교 6학년
⑦ 중학교 1학년 ⑧ 중학교 2학년

J02-4-2)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달에 1번 미만
③ 한달에 1번 정도 ④ 한달에 2-4번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a. J02-4-1=8일 경우, '①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선택 불가'

[흡연경험 여부]

J02-5)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적 있습니까?

① 담배를 피워본 적 없다 → J02-6)으로 갈 것
② 있다 → J02-5-1)로 갈 것

J02-5-1)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때는 언제입니까?

① 초등학교 1학년 ② 초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④ 초등학교 4학년
⑤ 초등학교 5학년 ⑥ 초등학교 6학년
⑦ 중학교 1학년 ⑧ 중학교 2학년

J02-5-2)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면 '0'을, 매일 담배를 피웠다면 '30'을 입력해 주세요.

_____ 일

a. 범위 0~30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J02-6) 현재 휴대폰(스마트폰 등)이 있습니까?

① 있음(스마트폰)
② 있음(2G폰, 피처폰)
③ 없음

[미디어 이용시간]
J02-7)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다음의 항목에 1일 평균 몇 시간 몇 분 사용합니까? (3시간일 경우 3시간 00분으로 기입, (분)은 10분 단위로 입력해주세요.)

구 분	전혀 안함	시간
1) 학습(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학교/학원 숙제 등)	①	(　　)시간 (　　)분
2) 정보 검색(맛집, 쇼핑, 뉴스 검색 등)	①	(　　)시간 (　　)분
3) 게임	①	(　　)시간 (　　)분
4)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감상, 웹툰 감상 등) 단, 게임과 SNS 제외 주의	①	(　　)시간 (　　)분
5)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①	(　　)시간 (　　)분
총계 1일 평균 (　　)시간 (　　)분 → 합계가 0이거나 8 이상일 경우 경고 팝업		

a. 시간범위 0~12, 단 총계가 24를 넘을 수 없음 b. 분은 10 단위로 입력(0~50) c. '전혀 안함' 선택 시 0시 0분 자동입력

[미디어 기기 중독_자가진단]

J02-8)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a. J02-6=1(스마트폰 있음) 응답자만 진행

다음부터는 학기 중의 해당요일에 대해서 답하는 문항입니다.
방학 중 응답하는 경우 '종업식 전 주'의 해당요일을 회상하며 응답해 주세요.

[기상/취침 시각_주중(생선변수:수면시간), 기상/취침 시각_주말(생선변수:수면시간)]

J02-10) 평소 학기 중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

▣ 24시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저녁9시 → 21시, 밤12시 → 0시)

▣ 30분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00분, 30분만 입력 가능)

1) 주중 **[자동구현] 요일**	( )시 ( )분에 잠들어 ~ ( )시 ( )분에 일어남	▶ 주중, 1일 수면시간 ( ) 시간
2) 주말 **[자동구현] 요일**	( )시 ( )분에 잠들어 ~ ( )시 ( )분에 일어남	▶ 주말, 1일 수면시간 ( ) 시간

a. 잠드는 시간 범위: 19~23, 0~4
b. 깨는 시간 범위: 4~12
c. 분은 0, 30만 입력 가능
d. 산출된 1일 수면시간도 화면에 구현

▣ 주중 일과시간은 [자동구현]요일을 기준으로 회상하여 응답해주십시오.

J02-11) [자동구현]요일에 학교에 직접 등교하였습니까?

① 그렇다(대면 수업일)
② 아니다(비대면 수업일)

[일과활동시간_주중]

J02-12) 학기 중 [자동구현]요일을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0을 기입해 주세요.

- 방학 중에 조사할 경우, 종업식 이전 주의 배정된 요일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 시간 환산 예 : 30분(0.5시간) 단위로 응답 가능

시간	활동 안함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30분	5시간	5시간 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 30분	7시간	7시간 30분	8시간	8시간 30분	9시간	9시간 30분	10시간	10시간 30분	11시간	11시간 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구분	활동 내용	주중 하루
생활필수 행동	1) 수면시간(밤)	(　　)시간
	2)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　　)시간
학습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대면/비대면 포함)	(　　)시간
	4)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받는 시간 (학원, 과외 등)	(　　)시간
	5) 숙제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자습)	(　　)시간
	6) 인터넷 강의 등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　　)시간
여가 및 교제	7) 책 읽는 시간	(　　)시간
	8)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시청	(　　)시간
	9)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　　)시간
	10)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　　)시간
	11)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　　)시간
	12-1)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 등 사교활동	(　　)시간
	12-2) SNS, 카카오톡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교제	(　　)시간
	13)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　　)시간
	14) 종교 활동	(　　)시간
가정관리	15)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 돕기	(　　)시간
기타	16) 이동 시간	(　　)시간
	17) 기타 시간	(　　)시간
	▶ 현재까지 시간의 합	(　　) / 24시간

a. 수면시간은 J02-10 주중 수면시간 산출값 자동입력
b. 0 입력 불가 항목: 1), 2), 3), 16). 단, J02-11=2일 경우 16)은 0 입력 가능
c. 합계 자동 구현, 합계가 24가 되어야 다음 문항 진행

[일과활동시간_주말]

▣ 주말 일과시간은 [자동구현]요일을 기준으로 회상하여 응답해주십시오.

J02-13) 학기 중 [자동구현]요일을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0을 기입해 주세요.

- 방학 중에 조사할 경우, 종업식 이전 주의 배정된 요일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 시간 환산 예 : 30분(0.5시간) 단위로 응답 가능

시간	활동 안함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30분	5시간	5시간 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 30분	7시간	7시간 30분	8시간	8시간 30분	9시간	9시간 30분	10시간	10시간 30분	11시간	11시간 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구분	활동 내용	주말 하루
생활필수 행동	1) 수면시간(밤)	(　　)시간
	2)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　　)시간
학습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대면/비대면 포함)	(　　)시간
	4)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받는 시간 (학원, 과외 등)	(　　)시간
	5) 숙제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자습)	(　　)시간
	6) 인터넷 강의 등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　　)시간
여가 및 교제	7) 책 읽는 시간	(　　)시간
	8)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시청	(　　)시간
	9)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　　)시간
	10)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　　)시간
	11)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　　)시간
	12-1)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 등 사교활동	(　　)시간
	12-2) SNS, 카카오톡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교제	(　　)시간
	13)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　　)시간
	14) 종교 활동	(　　)시간
가정관리	15)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 돕기	(　　)시간

구분	활동 내용	주말 하루
기타	16) 이동 시간	(　　)시간
	17) 기타 시간	(　　)시간
	▶ 현재까지 시간의 합	(　　) / 24시간

a. 수면시간은 J02-10 주중 수면시간 산출값 자동입력
b. 0 입력 불가 항목: 1), 2), 3), 16). 단, J02-11=2일 경우 16)은 0 입력 가능
c. 합계 자동 구현, 합계가 24가 되어야 다음 문항 진행

[시간사용 만족도]

J02-14)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부족함	충분함	지나치게 많음
1)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2)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3)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취미, 운동 등)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4)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5)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6) 여가활동 시간(취미, 운동 등)은 충분하다	①	②	③
7) 숙제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8)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충분하다 ※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음식 준비,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등의 가사일 돕기를 의미합니다.	①	②	③

[독서량]

J02-15)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

- e-book, 학습 만화 포함
- '2주에 1권을 읽는 경우 '0.5'로 입력해 주세요'

① 안 읽음
② 1주일에 평균(　　)권을 읽음

[실내외 신체 활동]

J02-16) 지난 7일 동안 실내외에서 한번에 [보기]와 같은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 입니까?

[보기]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땀이 날 정도의 신체활동 (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① 없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이상

[취미(악기연주,스포츠경험) 여부]

J02-17) 현재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가 있습니까? (전공으로 하는 악기는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취미(악기연주,스포츠경험) 여부]

J02-18) 현재 즐겨 하는 운동이 있나요? (전공으로 하는 운동은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취미 여부]

J02-19) 현재 취미가 있습니까? (악기, 운동도 포함)

① 있다 → J02-20)으로 갈 것
② 없다 → J02-21)로 갈 것

[취미 종류]

J02-20)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① 노래. 악기 연주
② 운동/스포츠, 댄스
③ 웹툰 포함한 그림그리기
④ 영상제작 (YouTube 영상 포함)
⑤ 독서 (e-book 포함)
⑥ 음악 및 영화 감상
⑦ 기타(적을 것 : _____)

[가사 참여 여부]

J02-21) 다음은 가사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 [의생활]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기, 빨랫감 모으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거나 개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①	②	③	④
2) [식생활]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밥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①	②	③	④
3) [주생활]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	①	②	③	④
4) [돌봄] 부모님 심부름, 동생 돌보기, 가족이 아플 때 돕기, 우편물 챙기기, 집안행사(명절, 생일 등) 준비 등	①	②	③	④

[2차 성징]

J02-22) 몽정(남아) 또는 초경(여아) 등 2차 성징이 나타났습니까?

① 예 → J02-22-1)로 갈 것
② 아니오 → J02-23)으로 갈 것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4)

[2차 성징]

J02-22-1) 처음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시작 년도 ( )년
② 작년 응답과 동일함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5)
a. 범위 2015~2022

[신체적 자아상]

J02-23)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2-21-1)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J02-21-2) 나는 내 체중이 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J02-21-3) 나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좋다	①	②	③	④
J02-21-4) 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①	②	③	④
J02-21-5)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체중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J02-24)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체중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J02-25) 최근 1년 동안 본인의 의지로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①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 J02-25-1)로 갈 것
②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 J02-25-1)로 갈 것
③ 몸무게를 늘리려고 노력했다 → J03-1)로 갈 것
④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본 적 없다 → J03-1)로 갈 것

[체중조절 방법]

J02-25-1)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운동
② 식사량을 줄이거나 또는 식단조절 (식사는 거르지 않고 섭취량을 줄임)

③ 결식 (식사를 거름)
④ 건강기능식품
⑤ 원푸드 다이어트(포도, 우유, 감자, 고구마 등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다이어트)
⑥ (적을 것 : _____)

지금부터는 공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GRIT(끈기)]

J03-1)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학업 이해도]

J03-2) 아래 과목의 학교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목	거의 이해하지 못함	잘 이해하지 못함	보통	잘 이해함	매우 잘 이해함
국어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수학	①	②	③	④	⑤
사회	①	②	③	④	⑤
과학	①	②	③	④	⑤

[과목 선호도]

J03-3)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역사 포함)
⑤ 과학 ⑥ 도덕
⑦ 기술,가정 ⑧ 음악
⑨ 미술 ⑩ 체육
⑪ 정보 ⑫ 진로

[학업 스트레스]

J03-4)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그런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조절학습]

J03-5)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싫어하는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이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해야지 다짐을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예를 들면, 공부가 잘 되는 장소나 시간에 공부하거나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번갈아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과목별 특징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5) 공부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간 중간에 스스로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지금부터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J04-1) 현재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습니까?
(방과후 학교, 또는 지역 아동센터,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J04-2)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J05-1)으로 갈 것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J04-2) 몇 개의 학원/과외를 다니고 있습니까? 종합반의 경우, 과목개수로 넣어주세요.

( )개

a. 범위 1~30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J04-3)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의 개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적은 편
② 적당한 편
③ 많은 편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J04-4)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②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부담스럽다

[사교육의 효과 인식]
J04-5) 사교육이 나의 실력(성적, 능력, 솜씨, 기술 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지금부터는 본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속어 사용]
J05-1) 다음과 같은 언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예 존나, 새끼, 개XX, 현피뜬다. 쌉가능 등의 비속어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가끔 사용한다
③ 자주 사용한다
④ 매일 사용한다

a.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자아존중감_초등~]
J05-2)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는 좋은 면이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집행기능]

J05-3) 다음 문장을 읽고,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보세요. 나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2)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3)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4)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5)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①	②	③
6)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7)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8)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알겠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9)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10)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11) 숙제나 공부 혹은 심부름 등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12) 나는 다른 친구들 보다 내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①	②	③
13)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14)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①	②	③
15) 어른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을 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16) 글쓰기가 어렵다	①	②	③
17)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①	②	③
18)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①	②	③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9)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①	②	③
20) 나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①	②	③
21)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숙제나 공부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22) 내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23)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①	②	③
24)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25)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①	②	③
26) 자주 울컥한다	①	②	③
27)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	①	②	③
28)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29) 원래 계획한 일에 변화가 생기면(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순간 화가 치솟는다	①	②	③
30) 기분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31) 내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①	②	③
32) 옷, 안경, 양말, 장난감, 책, 연필 등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33) 방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①	②	③
34) 숙제를 다 해가도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고 온다	①	②	③
35) 점심 도시락,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36) 잘 잊어버린다	①	②	③
37)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①	②	③
38) 방이 늘 어질러져 있다	①	②	③
39) 방안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40)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①	②	③

다음 문장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반적 행복감]

J06-1)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행복 하지 않다	별로 행복 하지 않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 하다
1) 나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외모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6) 나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삶의 만족도]

J06-2)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걱정거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우울]

J06-3) 아래에 적혀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1~2일)	자주 있었다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1) 기분이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2)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문 항 내 용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1~2일)	자주 있었다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3) 슬픈 기분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4)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5) 즐겁게 지냈다	①	②	③	④
6) 입맛이 없어서 별로 먹고 싶은 기분이 안 들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힘겹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9)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1)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사이버 비행]

J06-4) 다음은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이용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내 용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문제되는 편이다	매우 문제된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①	②	③	④	⑤
3)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①	②	③	④	⑤
5) 불건전한 정보(폭력적, 성적인 내용, 자살 등)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①	②	③	④	⑤
5)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①	②	③	④	⑤

지금부터는 주변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래애착]

J7-1)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생각을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4)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7)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학교적응_중고등학교]

J07-2)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하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노력만 하면 지금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6) 학교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반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학교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반 친구가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에게는 고민을 나눌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생님들은 배울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선생님들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7) 나는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 등 학교시설을 아껴서 사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잘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학교 안에서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학교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주번활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요즈음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우리학교의 특별한 행사(소풍,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공감]

J7-3)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무리에 끼지 못하고 혼자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놀자고 먼저 얘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기운 없이 앉아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말을 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고통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5) 나는 친구의 힘든 일을 함께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 하는 친구가 있으면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누군가 곤란에 처해있을 때 기꺼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내게는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다른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시무룩해있는 친구를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염려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친구가 슬퍼할 때면 나도 기분이 슬퍼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부터는 본인의 학교와 학교 밖 친구들 관련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폭력 피해(온/오프)]

J08-1)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없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에 1-2번	일주일 여러번
1) 다른 학생(친구)에게 뺨, 얼굴, 머리 등을 주먹이나 발로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다른 학생(친구)에게 왕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항 내 용	없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에 1-2번	일주일 여러번
3) 다른 학생(친구)에게 험담, 심한(상스러운) 욕설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다른 학생(친구)이 나를 고의적으로 툭툭 치고, 심부름을 시키고, 숙제를 해 오라는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학생(친구)에게 돈이나 물건(학용품, 가방, 시계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학생(친구)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학생(친구)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온라인 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온라인 상에서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학교 친구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학교 밖의 사람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카메라 및 핸드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위협받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폭력 가해(온/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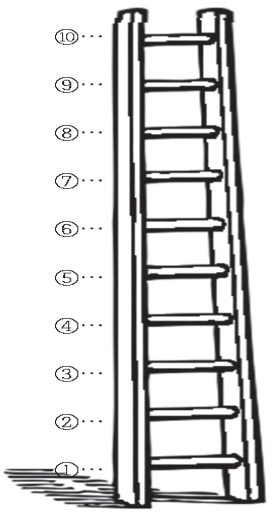
J08-2)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없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에 1-2번	일주일 여러번
1) 다른 친구를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쳤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다른 친구를 의도적으로 혼자 남겨두거나 따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두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들 목적으로 다른 친구에 대한 나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쪽지 같은 것을 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돈이나 다른 물건들을 빼앗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친구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온라인 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온라인 상에서 그 친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누군지 모르게 하여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학교 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학교 밖의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카메라 및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괴롭힘(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행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부터는 본인의 가족과 장래희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J09-1) 귀 가정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사다리 중에서 어디쯤이라고 생각합니까?
(1 : 매우 못 산다, 10 : 매우 잘 산다)



[이성관계]

J09-2) 나는 서로 좋아하며 사귀는 이성 친구(나와 성별이 다른 친구)가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미래희망직업]

J09-3) 어떤 직업을 가장 원합니까? 가장 원하는 직업과 그 다음으로 원하는 직업을 적어주세요.

원하는 직업 1순위 , 원하는 직업 2순위

-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 응답 예시 : 교사, 요리사, 성악가, 작곡가, 은행원, 생물학자, 경찰관, 운동선수, 연예인, 크리에이터 등

[미래희망모습]

J09-4)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① 돈을 잘 버는 사람
② 유명한 사람
③ 우리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④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⑥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

[진로성숙도]

J09-5)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5)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①	②	③	④
7)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미래에 대한 인식]

J09-6) 본인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매우 어둡다	어두운 편	보통	밝은 편	매우 밝다
①	②	③	④	⑤

[결혼관]
J09-7) 미래에 결혼할 생각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자녀관]
J09-8) 자녀(아이)를 가질 생각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저축 여부]
J09-9) 평소에 저축을 합니까?

① 예 → J09-9-1로 이동
② 아니오 → J09-10으로 이동

[저축 방법]
J09-9-1) 저축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저금통이나 지갑에 모아둔다
② 내가 직접 은행(입출금 통장, 예적금)에 저축한다
③ 부모님이 은행(입출금 통장, 예적금)에 저축한다
④ 내가 직접 단순저축 외 금융상품(펀드, 주식 등)에 가입한다
⑤ 부모님이 내 저축금을 단순저축 외 금융상품(펀드, 주식 등)에 가입한다
⑥ 기타 (적을 것 : _____)

[용돈 지급 여부]
J09-10) 용돈을 받습니까?

① 받지 않음 → J09-11)로 갈 것
② 필요할 때마다 받음 → J09-10-1)로 갈 것
③ 정기적으로 받음 → J09-10-1)로 갈 것

[용돈 지급액]

J09-10-1) 일주일간 받는 용돈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11,400원은 11,000원, 11,500원은 12,000원입니다.

일주일에 (　　)원

a. 범위 1,000~100,000

[용돈 사용처]

J09-10-2) 용돈을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2개를 선택해 주세요.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① 학습 자료(학용품, 준비물 등)　② 저축
③ 간식 및 군것질 하기(식사포함)　④ 교통비
⑤ 음악, 게임, 팬덤활동 등 문화생활　⑥ 의류 및 화장품
⑥ 기타(적을 것 : _____)

[가구의 경제적 걱정 빈도]

J09-11) 가족들이 돈 문제로 걱정을 자주 합니까?

① 전혀 걱정하지 않음　② 가끔 걱정함
③ 자주 걱정함　④ 항상 걱정함

[안전의식 및 대처]

J9-12)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1) 내용이 실제 위험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학교안전교육(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을 의미함1)

[공동체 의식]

J09-13)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본인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성취압력]

J10-1)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하여 잔소리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부모님은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내 공부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은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내가 컴퓨터(또는 핸드폰)에 빠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정해두고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하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내가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이 나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교 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본인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으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애착]

J10-2)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버지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낼 때 아버지는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6)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아버지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나의 문제로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아버지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아버지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애착]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낼 때 어머니는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머니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는 자신의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나의 문제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머니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0) 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어머니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 종단값(종단7)이 5)사별, 6)이혼, 7)별거일 경우 "9. 해당없음" 보기 추가

이제는 가족 및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J10-4) 아래의 각 문항에서 귀하의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 감독]

J10-5)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2) 나의 부모님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3) 나의 부모님은 내가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4) 나의 부모님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합리적 설명]

J10-6)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아동학대]

J10-7)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1)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3)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 아동학대 관련 고민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혹은 앱을 통하여 연락바랍니다.전화·문자 상담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이콜 112'
- 아동학대 전화·문자 상담: 182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3. 15차년도(2022년 조사) 질문지 : 보호자용

한국아동패널 2022 (보호자 질문지)

Gallup
2022-211-0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매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1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종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D01-1) 조사 날짜는?

(　　)월 (　　)일

D01-2) 아동 이름이 맞습니까?

아동 이름 : _____
① 맞음 → D01-3-1)으로 갈 것
② 틀림 → (실제 이름 : _____) → 기입 후, → D01-3)으로 갈 것

a. 구현값 제시(종단1)

D01-3) 아동 이름이 바뀐 이유는? → 응답 후, → D01-3-1)으로 갈 것

① 개명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③ 부모의 결혼상태 변동
④ 기타(적을 것:)

D01-3-1) "아동" 성별이 _____ 가 맞습니까?

① 맞음
② 틀림

a. 구현값 제시(종단2)

D01-3-2) "아동" 출생월일이 _____ 월 _____ 일이 맞습니까?

① 맞음
② 틀림 → (실제 출생월일 : _____ 월 _____ 일)
→ 기입 후, → D01-4)으로 갈 것

a. 구현값 제시(종단3)

D01-4) 귀하와 아동의 관계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친인척 (직접 입력 :)

D01-5) 귀하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1) 응답자 성명:(_____)
① 맞음 → 2)~4) 응답 후 → D01-6)으로 갈 것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하고, → 2)~4) 응답 후 → D01-5-5)로 갈 것

2) 집 전화:(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③ 집 전화 없음

3) 어머니 휴대폰:(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③ 전화 없음

4) 아버지 휴대폰:(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③ 전화 없음

a. 구현값 제시(종단4~8) b. D01-4=1이면 D01-5-1에 종단4(어머니 이름) 제시 D01-4=2면 D01-5-1에 종단5(아버지 이름) 제시 D04-4>2면 D01-5-1 응답자 이름 직접입력

D01-5-5) 귀하의 성명이 바뀐 이유는?

① 개명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③ 결혼상태 변동
④ 기타(적을 것 :)

a. D01-4=1, 2 AND D01-5-1=2일 경우만 진행 b. D01-4>2일 경우 D01-5-5 skip

D01-6) 한국아동패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패널아동들에게 관련 정보와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아동 및 보호자 모두 동의하실 경우 아동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목적: 한국아동패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정보 전달 및 이벤트 진행
수집 정보: 패널아동의 핸드폰 번호
보유 기간: 수집일로부터 2032년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아동패널 조사 참여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① 아동 및 보호자 모두 동의함 (패널아동 핸드폰 번호:)
② 아동의 핸드폰이 없음
③ 동의하지 않음

a. 종단값 있을 경우 D01-6 skip(종단9)

D01-7) 귀댁의 주소지를 확인해 주세요.
▶ 2022년 도로명 주소:
(_____) 시·도 (_____) 군·구 (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a. 구현값 제시(종단10)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D01-8) 귀댁은 아래 주소지 거주 이후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 OO(이)가 태어난 이후가 아닌, 아래 지난 주소지 이후의 이사 횟수를 의미합니다.

▶ 2021년 도로명 주소:
(_____) 시·도 (_____) 군·구 (_____)

① 총 이사 횟수 (_____) 회 → D01-9)로 갈 것
② 이사하지 않음 → D02-1)로 갈 것

a. 구현값 제시(종단11) b. 이사 횟수 범위 1~10

[이사 사유]

D01-9) 귀댁이 이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거환경(주택, 교통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②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③ 주변 환경(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④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⑤ 집값 부담 때문에
⑥ 기타(적을 것 :)

02 다음은 귀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D02-1) 귀 댁의 가구 구성원 수 및 ○○(이)의 출생순위를 응답해 주세요.

구분	▶ 총 가구원수 (_____)명
1) 자녀 수	(_____) 남 (_____) 녀 ⇒ 총 (_____) 명
2) ○○(이)의 출생순위	(_____)
3) ○○(이)의 부모	(_____) 명
4) ○○(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_____) 명
5) ○○(이)의 친인척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조카, 증조부모 포함	(_____) 명
6) 기타(적을 것: _____)	(_____) 명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 - 구현값 수정 가능(6)기타 제외)
b. 2) 출생순위 수정 시, → D02-1-1)으로 갈 것
c. 총 가구원수 화면에 구현: 1)~6) 합산

D02-1-1) ○○(이)의 출생순위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 수 및 출생순위 잘못 응답 → D02-1)으로 갈 것
② 손위형제 사망
③ 손위형제 입양
④ 재혼으로 인한 형제순위 변동
⑤ 기타(적을 것:)

가구 구성 형태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출생년도.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성별,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결혼여부]

D02-2) ○○(이)의 형/오빠, 누나/언니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구분	1) 출생년도	2) 성별	3) 결혼 여부
첫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두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세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네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13) - 구현값 수정 가능
b. 출생년도 범위 1990~2008

[패널아동의 동생 출생년도, 패널아동의 동생 성별, 패널아동의 동생 입적사유]

D02-3) ○○(이)의 동생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구분	1) 출생년도	2) 성별	3) 입적 사유
동생 1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2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3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4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14) - 구현값 수정 가능
b. 출생년도 범위 2008~2022
c. 1)에 신규 응답자 중 동일한 출생년도가 2명 이상일 경우 → D02-3-1)로 갈 것

D02-3-1) ○○(이) 동생은 다둥이입니까?

① 네, 다둥이임 → D02-4)로 갈 것
② 아니오, 다둥이는 아니고 같은 해에 태어난 동생임 → D02-4)로 갈 것
③ 아니오, 동생의 출생년도를 잘못 응답함 → D02-3)으로 갈 것

[동거 여부]
D02-4) 부모님과 ○○(이)는 주 4일 이상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어머니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2) 아버지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a. D01-4=1, 2일 경우만 진행
b. [D02-4]에 ①로 응답 시 → D02-6)으로 갈 것
c. ②선택 시, 해당 분류만 → D02-5)으로 갈 것

[비동거 이유]
D02-5)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이)가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머니	① 어머니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③ 어머니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적을 것: _____)
2) 아버지	① 아버지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② 군 복무 중 ③ 아버지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적을 것: _____)

[반려동물 여부]
D02-6) 귀 댁에서는 애완동물(반려동물)을 키웁니까? 해당하는 보기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키우지 않음
② 개
③ 고양이
④ 기타(적을 것 :)

a. ① 응답 시 타 보기 선택 불가

[패널아동의 개별 방 여부]

D02-7) ○○(이)는 개인 방이 있습니까?

개인 방: 혼자만 사용하는 공부방, 침실 등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쓰는 방은 해당하지 않음

① 예, 개인 방이 있음
② 아니오, 개인 방이 없음

03 다음은 귀 댁의 경제적 특성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구소득]

D03-1) 귀 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가구소득: 근로, 금융, 사업, 임대, 이전,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지칭함.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월 평균 실 수령 가구소득 (_____) 만원

a. 한글 금액 구현
b. 범위: 0~9,000
c. 가구소득 = 0, → 팝업 "귀 댁은 지난 1년 동안 가구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d. 22년 실수령 가구소득 〉(21년 실수령 가구소득*3) or 22년 실수령 가구소득 〈 (21년 실수령 가구소득*1/3), → 팝업 "귀 댁은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가구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증가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취소]를 누르고 응답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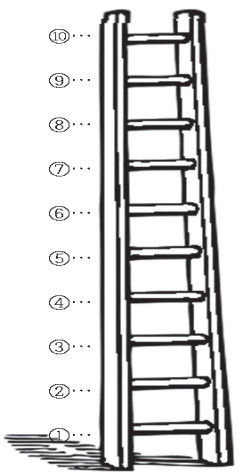
[취업 모 근로소득]

D03-2) 귀하께서는 현재 취업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귀하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대답해주십시오.

① 취업 중. 월 평균 어머니의 실 수령 근로소득 (　　)만원
② 미취업 → D03-3-1)로 갈 것

a. 한글 금액 구현
b. 범위: 0~9,000
c. 21년 실수령 근로소득이 = D03-1, → D03-2-2로 갈 것
d. 21년 실수령 근로소득 〉(20년 실수령 근로소득*3) or 21년 실수령 근로소득 〈 (20년 실수령 근로소득*1/3), → D03-2-1)로 갈 것
e. D03-1 ≥ D03-2

※ 다음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사회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밑에는 최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교육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며, 누구도 원치 않거나,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D03-3-1)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D03-3-2)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 있는 의미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
[가구의 소비성 지출, 가구의 비소비성 지출,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패널아동에 대한 교육 비용]

D03-4) 귀 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아래의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 * 비소비성 지출: 세금, 과태료, 연금, 적금, 보험료, 대출이자, 다른 가구(부모, 친척 등)에 지출하는 금액, 종교단체 기부금, 단체회비 등	월 평균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____) 만원
2)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 * 소비성 지출: 식료품·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의료), 교통, 통신, 교육, 오락·문화, 외식·숙박 비용 등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 (____) 만원
▶ 가구 총 지출 비용	(____) 만원 (자동계산)

a. 22년 비소비성 지출 〉(21년 비소비성 지출*3) or 22년 비소비성 지출 〈 (21년 비소비성 지출*1/3), → 팝업 "귀하의 비소비성 지출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증가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b. 22년 소비성 지출 〉(21년 소비성 지출*3) or 22년 소비성 지출 〈 (21년 소비성 지출*1/3), → 팝업 "귀하의 소비성 지출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증가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c. 실수령 가구소득(D03-1) 〈 가구 총 지출 비용, → 팝업 "귀 댁의 총 지출 비용이 실수령 가구소득보다 많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4 다음은 ○○(이)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혼 상태]

D04-1) ○○(이) 부모님의 현재 결혼상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의 어머니, 아버지는 _____ (이)의 호적상 부모임.

1) 어머니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2) 아버지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19)
b. ①미혼, ④동거, ⑤사별, ⑥이혼, ⑦별거로 응답한 경우 D04-3으로 이동

[결혼일(생성변수: 결혼상태 유지기간)]

D04-2) ○○(이) 어머니, 아버지의 현재 결혼기념일은 언제 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생년월일(생성변수: 연령)]

D04-3) ○○(이)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 어머니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맞음 ② 틀림 -〉 수정
2) 아버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맞음 ② 틀림 -〉 수정

a. 구현값 확인 후 skip
b. D01-4 ①어머니 또는 ②아버지 로 답한 경우에 한해 응답
c. D04-1에서 ①미혼, ⑤사별, ⑥이혼, ⑦별거로 응답한 경우 D01-4의 응답자 생년월일만 질문
d. D04-1에서 변경이 없었으나 D04-3에서 생년월일 변경 시, → D04-3-1)으로 갈 것

[최종학력]

D04-4) ○○(이)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1) 어머니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 ⑦ 대학원 졸업
2) 아버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 ⑦ 대학원 졸업

a. 기존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1)
b. D01-4 ①어머니 또는 ②아버지로 답한 경우에 한해 응답
c. D04-1에서 ①미혼, ⑤사별, ⑥이혼으로 응답한 경우 D01-4의 응답자 최종학력만 질문
d. 최종학력이 낮아졌을 경우, → 팝업 “지난 조사보다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장애 유무]

D04-5) ○○(이) 부모님은 장애가 있습니까?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등급)

1) 어머니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아버지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a. D01-4 ①어머니 또는 ②아버지로 답한 경우에 한해 응답
b. D04-1에서 ①미혼, ⑤사별, ⑥이혼으로 응답한 경우 D01-4의 응답자 장애만 질문

05 다음은 귀하의 취업/학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a. D01-4>1일 경우 D05 파트 전체 skip

[취/학업상태]

D05-1)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함.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함.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D05-2)로 갈 것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D05-11)로 갈 것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D05-2)로 갈 것
④ 미취업/미학업 → D06-1)로 갈 것

a. D03-2=1(취업 중)일 경우 ②, ④ 선택 불가
b. D03-2=2(미취업)일 경우 ①, ③ 선택 불가

[재직 상태]

D05-2) 현재 귀하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재직 중
② 휴직 중

a. (종단)에 D05-1 ②, ④ 응답자, → D05-4)으로 갈 것

[직장 변동 여부]

D05-3) 귀하의 현재 직업은 지난 조사 이후 직장 또는 주 업무의 변동이 있습니까?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주 직장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세요.
☑ 지난 조사 시 응답: 직장명( ), 주 업무( )

① 아니오(변동 없음)
② 직장이 바뀜
③ 직장은 그대로이나, 주 업무가 바뀜(전근, 부서, 직위 변경 포함)
④ 지난 조사 시, 미취업/미학업이었음

a. (종단23) 구현 - 종단값이 '무응답'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Go D05-4 b. (종단)에 취업 상태 ①, ③ 응답자가 ④ 선택 시, → 팝업 "귀하께서는 작년에 취업 중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D05-4)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아래의 분류에서 골라주십시오.

직업명	직 업 예 시
① 관리자	업무의 80%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게이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③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 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직업명	직 업 예 시
④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미용(코디네이터, 분장사)/기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반려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등
⑤ 판매 종사자	- 대금수납/매표/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⑨ 단순노무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 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⑩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종사상 지위]

D05-5)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

a. D05-2에 ② 응답 시, → D05-7)로 갈 것

[근무 일 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

D05-6) 귀하의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 일)
1) 근무 일수	(_____)일 근무	(_____)일 근무
2) 근무 시간	1일 평균 (_____)시간 근무	1일 평균 (_____)시간 근무
3) 왕복 출퇴근 시간	1일 평균 왕복 (_____) 소요	1일 평균 왕복 (_____)소요

a. 평일 근무 일수: 0~5
b. 주말 근무 일수 : ①주말 근무 안함, ②주말 격주 근무, ③매 주말 1일 근무, ④매 주말 2일 근무
c. 근무 시간 : 0~20, 0.5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
d. 왕복 출퇴근 시간 : 시간/분 직접 입력, 시간: 0~4, 분: 10분 단위 입력
e. 주중, 주말 근무 일수 모두 0 ⇒ D05-6-1
f. D05-5에 ① & 주당 근무시간(주중 근무일수*시간 + 주말 근무일수*시간) 45시간 미만 ⇒ D05-6-2

D05-6-1) 귀하는 주중/주말 근무 일수를 모두 '0'일로 입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근무 일수를 잘못 입력함 → D05-6)으로 갈 것
② 취업/학업 상태를 잘못 입력함 → D05-1)으로 갈 것
③ 휴직/재직 상태를 잘못 입력함 → D05-2)으로 갈 것

D05-6-2) 상용직 근로자인 귀하는 주당 총 '45시간 미만(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신다고 입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네, 상용직이며 주당 총 45시간 미만(점심시간 1시간 포함)으로 근무합니다
→ D05-7)로 갈 것
② 상용직 아님 → D05-5)로 갈 것
③ 근무시간 잘못 입력 → D05-6)으로 갈 것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D05-7) 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D05-8)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다음 각 문장에서 본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1)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06 다음은 패널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건강상태_보호자 인식]

D06-1) ○○(이)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여부,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이유]
D06-2) ○○(이)는 지난 1년 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치료 경험 있음(이유: _____)
② 치료 경험 없음

[입원 치료 여부, 입원 치료 이유]
D06-3) ○○(이)는 지난 1년 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입원한 적 있음(이유: _____)
② 입원한 적 없음

[장애 판정 여부, 장애 판정 유형, 장애 정도]
D06-4) 지난 조사 이후 ○○(이)는 아래의 장애를 판정받았습니까? 장애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장애 유형	장애정도	장애 유형	장애정도
□ 1) 지체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9) 간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 뇌병변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 호흡기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 시각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1) 장루, 요루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 청각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 간질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 언어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3) 지적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 안면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4) 정신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 신장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5) 자폐성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6) 기타 (적을것:)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8) 심장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7) 없음 → D06-5)으로 갈 것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등급)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4)

[만성 질환(진단여부, 최초진단일), 만성 질환별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D06-5) 다음의 질환 중 ○○(이)가 진단 받은 질환의 병원 치료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질환 유형	1) 최초 진단일	2) 병원 치료 여부
□ 1) 선천성 심장질환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2) 간질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3) 당뇨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4)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5) 만성 중이염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6) 만성 요로감염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7) 천식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8) 만성 비염 (알레르기성 포함)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9) 아토피 피부염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10) 식품알레르기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11) 알레르기 결막염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12) 기타 질환 (　　)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5)
b. 진단일 입력범위
- 년: 2008~2022
- 월: 1~12

[심리사회적 질환(진단여부, 최초진단일),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D06-6) 다음 중 ○○(이)가 진단 받은 장애의 상담 및 병원 치료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장애 유형	1) 최초 진단일	2) 상담 및 병원 치료 여부
□ 1) 의사소통 장애 (언어장애, 발화음장애, 말더듬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2) 자폐 스펙트럼 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4) 특정 학습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5) 운동장애(틱장애, 정형적 동작장애,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6)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방화증, 도벽증)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7) 배설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8) 급식 및 섭식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9) 불안 장애(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10) 기타 장애(적을 것:_____)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6)
b. 진단일 입력범위
- 년: 2008~2022
- 월: 1~12

[시력 보정도구 착용 시기,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D06-7) ○○(이)는 안경 또는 시력교정도구를 사용합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예, 안경 사용함(사용 시기: 만 _____ 세)
② 예, 시력교정도구 사용함(사용 시기: 만 _____세)
③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음

a. 선택 범위 적용: 0~14 b.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7) - 구현값 수정 가능 c. ①, ②항목은 중복응답 가능

[가족과의 식사 횟수]

D06-8) ○○(이)는 일주일에 평균 몇 번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까?(외식 포함)

① 거의 안함
② 주 1~2회
③ 주 3~5회
④ 주 6-7회
⑤ 주 8회 이상

[미디어 중독]

D06-9) 다음의 문장을 읽고 ○○(이)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귀하께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이)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PC·스마트폰은 게임하기, SNS 보내기, 동영상 보기, 인터넷 하기 등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PC·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2) 평소와는 달리, PC·스마트폰을 할 때만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3) PC·스마트폰에 빠진 이후로, 폭력(언어적, 신체적)적으로 변했다	①	②	③	④
4)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PC·스마트폰을 한다	①	②	③	④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PC·스마트폰을 한다	①	②	③	④
6) PC·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①	②	③	④
7) PC·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8) 하루 이상을 밤을 새우면서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9) PC·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10) PC·스마트폰을 할 때 건드려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밤새워서 PC·스마트폰을 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12) PC·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잔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13) PC·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14)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5) PC·스마트폰 사용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활동별 참여 빈도]

D06-10) ○○(이)가 지난 1년간 다음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한 달은 4주 기준임
☑ 문화체험활동: 과학관, 천체관, 역사관, 체험관 등
☑ 예술감상활동: 미술관,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

구분	① 참여안함	② 1년에	③ 한 달에	④ 일주일에
1) 장보기 및 쇼핑	_____	(　　)회	(　　)회	(　　)회
2) 친인척 방문	_____	(　　)회	(　　)회	(　　)회
3) 당일 여행 및 나들이	_____	(　　)회	(　　)회	(　　)회
4) 1박이상의 국내 여행(가족 또는 단체)	_____	(　　)회	(　　)회	(　　)회
5) 해외 여행 및 연수	_____	(　　)회	(　　)회	(　　)회
6)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활동, 견학	_____	(　　)회	(　　)회	(　　)회
7) 종교활동(예배·예불·미사 참석, 캠프 등)	_____	(　　)회	(　　)회	(　　)회
8) 봉사활동	_____	(　　)회	(　　)회	(　　)회
9) 동아리활동(합창단, 스카우트 등)	_____	(　　)회	(　　)회	(　　)회
10) 친구와의 사교활동(친구집 방문, 놀기 등)				

a. 입력 가능 범위 - ②1년에 : 1~365 - ③한달에 : 1~31 - ④일주일에 : 1~7
b. 각 행의 ②~④ 항목간에는 중복 불가

[부모 감독]

D06-11) 다음에서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해당 없음
1) ○○(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이)가 어른 없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이)가 어른 없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⑨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수]

D06-13) 귀하가 이름을 알고 있는 ○○(이)의 친구는 몇 명입니까?

(　　)명

a. 숫자 입력 범위 : 0~100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D06-14) 다음은 OO(이)에 대한 귀하의 학업적/교육적 지원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활동을 수행하는 빈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에게 공부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의 성적관리에 신경쓴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진로진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학부모들 모임에 나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07 다음은 귀댁에 함께 살지 않는 친, 외가 식구, 친구, 지인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 지원 정도]

D07-1)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서로 집안 길흉사에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①	②	③	④	⑤

08 다음은 ○○(이)의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진학 여부]
D08-1) ○○(이)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중학교에 다니고 있음 * 대안학교 포함 → D08-4)로 갈 것
② 아니오, 다니고 있지 않음 → D08-2)로 갈 것

[미진학 이유]
D08-2) ○○(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교부적응(학업부진, 대인관계, 교칙압박 등) 때문에
② 학교폭력(폭력, 금품갈취 등) 때문에
③ 해외 출국(유학, 연수, 이민, 파견 동행 등) 때문에
④ 부모의 교육철학(학원, 홈스쿨링 등) 때문에
⑤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⑥ 질병 때문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대체이용기관]
D08-3) ○○(이)가 중학교 대신에 현재 이용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①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② 학원
③ 홈스쿨링 ④ 기타 기관(적을 것 : _____)

a. 기타 란에 '대안학교' 입력 불가
b. 응답 후 D09-1로 이동

D08-4) ○○(이)의 학교생활을 알기 위해 담임선생님께 조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합리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하여, ○○(이)의 담임선생님께 조사를 부탁드리도록 동의해 주시겠습니까?담임선생님께서 동의하실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선생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약 10분 정도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① 네, 동의함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음 → D08-7)로 갈 것

D08-5) ○○(이)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 이름과 학급을 응답해 주세요.

(_____) 중학교 (_____) 학년 (_____)반

D08-6) ○○(이) 담임 선생님 성함은 무엇입니까?
(※ 조사 후 면접원이 전해드릴 교사용 안내문 내의 정보를 이용해 담임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실 경우 이용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사설문 참여독려 용도로만 쓰일 예정입니다.)

담임 선생님 성함(_____)

[전학 여부]
D08-7) ○○(이)는 중학교 진학 이후, 전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학한 적 없음 ② 전학한 적 있음

[학교 유형_중학]
D08-8) ○○(이)가 다니는 학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중학교 ② 예술중학교
③ 체육중학교 ④ 국제중학교
⑤ 대안학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학교 행사 참여 여부]
D08-9) 다음의 ○○(이)의 학교 행사에 귀하는 **올해** 상반기 중 얼마나 참여하셨습니까?

구 분	참여 횟수			
	전혀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1) 자녀관련 상담(학업, 생활, 진로 등)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	①	②	③	④
3) 학교 내 학부모 단체 가입 및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총)회 등)	①	②	③	④
4) 부모교육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①	②	③	④
5)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활동	①	②	③	④
6) 진학설명회	①	②	③	④
7) 기타 학교방문	①	②	③	④

[학교 시비스만족도]

D08-12) ○○(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만족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기초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①	②	③	④	⑤
4) 학교급식	①	②	③	④	⑤
5) 안전관리 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①	②	③	④	⑤
7) 인성지도	①	②	③	④	⑤
8) 학습에 불편함이 없는 학교시설환경	①	②	③	④	⑤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①	②	③	④	⑤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09 다음은 ○○(이)가 이용하는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 중학교 정규수업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외 교육관련 서비스 이용을 중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서비스 이용 종류, 교육서비스 이용기관]

D09-1) ○○(이)가 현재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를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방학 중에 조사하는 경우, 학기 중 한 달간을 기준으로 함.

〈학원〉
- 학원(단과반, 종합반)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종합반(연합반)의 경우, 시간과 비용은 전체 비용이 아닌 과목별로 나눈 것을 적어주십시오.
- 동일 과목에 대해 학원을 두 곳 이상 다니는 경우 합산하여 적어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과외〉
- 과외(개인/그룹 과외)의 모든 교과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동일 과목에 대해 두 가지 이상 과외(개인/그룹 과외)를 하는 경우 합산하여 적어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학습지〉, 〈인터넷/화상강의〉
- 학습지 과외의 모든 교과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 분	이용 안함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논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수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과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음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미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 체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9) 컴퓨터, 코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기타1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 기타2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2) 기타3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a. 같은 행에서 ①은 다른 응답과 중복 불가
b. ②~⑧에 한가지라도 선택된 항목만, D09-2~D09-6 구현
c. 1)~12)에 모두 ①로 응답된 경우, Go D10-1

[교육서비스 이용 시간, 교육서비스 비용,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교육서비스 만족도]
* 다음은 ○○(이)가 현재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09-2) 학원
D09-3) 가정내 개인/그룹지도(과외)
D09-4) 학습지(방문교사)
D09-5) 인터넷/화상강의
D09-6) 기타(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사교육비 부담정도					이용만족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는 편임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매우 만족 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국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논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수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과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미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체육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컴퓨터, 코딩 등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1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2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3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 입력범위
- 시간: 0.5~20
- 비용: 0~500

b. D09-1 응답값에 따라 해당하는 과목/서비스 반복

[교육서비스 이용 이유]

D09-7) ○○(이)가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2순위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③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④ 학교수업 보충(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⑤ 자녀 감독 (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⑦ 기타(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이유) (적을 것 : _____)

[교육서비스 교재비]

D09-8) OO(이)가 구매하는 교재비는 월평균 얼마입니까? (사교육 및 개인학습을 위한 문제집 포함)

월 평균 교재비( )만원

a. 입력범위 0~200

10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계신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육환경 안전성]

D10-1)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다음의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는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를 의미함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 모름
1)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⓪
2)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⓪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 모름
3) 유해시설(유흥가, 윤락가 등)로부터 떨어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⓪
4)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⓪
5)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⓪
6)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⓪
7)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⓪
8)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⓪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지역 시설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

D10-2) 다음은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시설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종류	거리상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리함	⓪ 이용 안함	① 전혀 만족 하지 않음	② 거의 만족 하지 않음	③ 보통 임	④ 대체로 만족 함	⑤ 매우 만족 함
1) 공간시설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2)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시설(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공연시설, 도서관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4) 의료시설(보건소, 병원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5)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복지 시설(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D10-3) 현재 귀 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④ 모름/무응답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D10-4) 지난 1년간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부보조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기타 보조금(기초노령연금, 통신비 감면, 바우처, 희망키움통장 등)이 포함됨

① 정부(주민센터)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
②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에게서 받은 현금과 물품
③ 복지관, 종교·사회단체로부터 받은 현금과 물품(학교장학금 포함)
④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과 물품(자녀학자금 보조 포함)
⑤ 없음
⑥ 모름/무응답

a. ⑤, ⑥은 각각 단수응답만 가능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D10-5) 다음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와 관련한 교육부 주요 교육정책입니다.
다음의 교육정책 추진에 대해서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2022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8만원 지원)

☑ 자유학년제 운영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과정 중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2020년 고 2,3학년 대상)

☑ 고등학교체제 단순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로 개편하여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자사고 등 관련 규정 삭제('20.2)

☑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2021년부터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5백만원 지원(2020년 4백만원)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급변하는 사회,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교육과정 개편 등 미래 교육체계로의 전환, 인구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 약화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

☑ 교육급여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교생 대상의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 덜기 위함(2020년 지원금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인상)

☑ 코로나19 대응 정책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각종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을 고려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함

종류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①	②	③	④	⑤
2) 자유학년제 운영	①	②	③	④	⑤
3)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체제 단순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①	②	③	④	⑤
5) 고교학점제 도입	①	②	③	④	⑤
6)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①	②	③	④	⑤
8) 교육급여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9) 코로나19 대응	①	②	③	④	⑤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15차년도(2022년 조사) 질문지 : 어머니용

한국갤럽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2 (어머니용)

Gallup
2022-211-016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경우,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본 질문지의 응답은 배우자와 서로 상의·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 가량** 소요됩니다.

2022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2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종서
전화 02-3702-2612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질문지 작성자	① 어머니 ② 할머니 ③ 할아버지 ④ 기타 친인척 ⑤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⓪ 미참여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다음은 귀하의 평소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행복감]

문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			보통이다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행복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행복하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			보통 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삶의 만족도]

문2)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임
④ 만족하는 편임
⑤ 매우 만족함

[일상적 스트레스]

문3)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전혀 받지 않음
② 별로 받지 않음
③ 약간 받음
④ 많이 받음

[자아존중감]

문4)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미디어 중독]

문5)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한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5)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기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이 안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부 갈등]

문6)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배우자)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배우자)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배우자)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배우자)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 가족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7) 아래의 각 문항에서 귀하의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건강 및 음주, 흡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건강상태]

문8)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음주 여부/횟수]

문9)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회~4회
③ 주 2회~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문10)으로 갈 것

[음주 양]

문9-1)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과음 횟수]

문9-2)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문10)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⓪ 피우지 않음 ① 10개비 이하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다음은 귀하의 자녀(패널아동)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육 스트레스]

문11)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나쁜 행동이나 욕을 배울까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를 소신껏 교육시키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선생님과 나의 교육관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 조사원 방문 시 어머니께서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시면,문12) ~ 문18)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귀하의 취업 상태 및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학업상태]
문12) 귀하는 현재 취업 또는 학업 중 이십니까?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문13)으로 갈 것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문18)로 갈 것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문13)으로 갈 것
④ 아니요 → 조사 종료

[재직 상태]
문13) 현재 귀하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직장 변동 여부]
문14) 귀하의 현재 직장, 주 업무는 2021년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① 2021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② 아니요, 직장 또는 업무내용이 바뀜
③ 예, 2021년과 동일함

문14-1)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아래의 분류에서 골라주십시오.

직업명	직 업 예 시
① 관리자	업무의 80%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게이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직업명	직 업 예 시
③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 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④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미용(코디네이터, 분장사) /기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반려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등
⑤ 판매 종사자	- 대금수납/매표/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⑨ 단순노무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 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⑩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종사상 지위]

문14-2)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자)

[근무 일 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

문15) 귀하의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 일)
1) 근무 일수	(　　)일 근무	① 주말 근무 안함 ② 주말 격주 근무 ③ 매 주말 1일 근무 ④ 매 주말 2일 근무
2) 근무 시간	1일 평균 (　　)시간 근무	1일 평균 (　　)시간 근무
3) 왕복 출퇴근 시간	1일 평균 왕복 (　)시간 (　)분 소요	1일 평균 왕복 (　)시간 (　)분 소요

a. 평일 근무 일수는 0~5 중에서 기재해 주세요.
b. 근무 시간은 0.5시간 단위로 기재해 주세요.
c. 왕복 출퇴근 시간에서 분은 10분 단위로 기재해 주세요.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문16) 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취업 모 근로소득]

문17)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월 평균 어머니의 실 수령 근로소득 (　　)만원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문18)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각 문장에서 본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5. 15차년도(2022년 조사) 질문지 : 아버지용

한국아동패널 2022 (아버지) Gallup 2022-211-016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본 질문지의 응답은 배우자와 서로 상의·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 가량** 소요됩니다.

2022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2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종서
전화 02-3702-2612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질문지 작성자	① 아버지 ② 기타(적을 것 : _____)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⓪ 미참여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다음은 귀하의 평소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행복감]

문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			보통이다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행복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행복하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			보통 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삶의 만족도]

문2)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임
④ 만족하는 편임
⑤ 매우 만족함

[일상적 스트레스]

문3)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전혀 받지 않음
② 별로 받지 않음
③ 약간 받음
④ 많이 받음

[자아존중감]

문4)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미디어 중독]

문5)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한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5)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기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이 안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부 갈등]

문6)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내(배우자)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내(배우자)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내(배우자)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아내(배우자)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 가족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7) 아래의 각 문항에서 귀하의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건강 및 음주, 흡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건강상태]

문8)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음주 여부/횟수]

문9)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회~4회
③ 주 2회~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문10)으로 갈 것

[음주 양]

문9-1)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과음 횟수]

문9-2)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문10)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⓪ 피우지 않음 ① 10개비 이하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다음은 귀하의 자녀(패널아동)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육 스트레스]

문11)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나쁜 행동이나 욕을 배울까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를 소신껏 교육시키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선생님과 나의 교육관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취업 상태 및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학업상태]

문12) 귀하는 현재 취업 또는 학업 중 이십니까?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문13)으로 갈 것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문18)로 갈 것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문13)으로 갈 것
④ 아니요 → 조사 종료

[재직 상태]

문13) 현재 귀하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직장 변동 여부]

문14) 귀하의 현재 직장, 주 업무는 2021년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① 2021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② 아니요, 직장 또는 업무내용이 바뀜
③ 예, 2021년과 동일함

문14-1)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아래의 분류에서 골라주십시오.

직업명	직 업 예 시
① 관리자	업무의 80%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게이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③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 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④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미용(코디네이터, 분장사) /기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반려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등
⑤ 판매 종사자	- 대금수납/매표/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⑨ 단순노무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 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⑩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종사상 지위]

문14-2)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자)

[근무 일 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

문15) 귀하의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 일)
1) 근무 일수	(　　)일 근무	① 주말 근무 안함 ② 주말 격주 근무 ③ 매 주말 1일 근무 ④ 매 주말 2일 근무
2) 근무 시간	1일 평균 (　　)시간 근무	1일 평균 (　　)시간 근무
3) 왕복 출퇴근 시간	1일 평균 왕복 (　)시간 (　)분 소요	1일 평균 왕복 (　)시간 (　)분 소요

a. 평일 근무 일수는 0~5 중에서 기재해 주세요.
b. 근무 시간은 0.5시간 단위로 기재해 주세요.
c. 왕복 출퇴근 시간에서 분은 10분 단위로 기재해 주세요.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문16) 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취업 부 근로소득]

문17)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월 평균 아버지의 실 수령 근로소득 (　　)만원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문18)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각 문장에서 본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
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6. 15차년도(2022년 조사) 질문지 : 담임교사용

한국아동패널 2022 (담임교사용)

Gallup
2022-211-016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2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종서
전화 02-3702-2612

다음은 패널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학생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_____)

SQ2. 학생의 학년/반
(　　)학년 (　　)반

SQ3. 학생 생년월일
2008년 (　)월 (　)일

다음은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 유형_중학]
L01-1)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중학교　　② 예술중학교
③ 체육중학교　　④ 국제중학교
⑤ 대안중학교　　⑥ 기타(적을 것 :_____)

[남여공학 여부]
L01-2)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남녀공학 ② 여학교 ③ 남학교

[시범학교 유형]
L01-3)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연구학교
② 시범학교
③ 혁신학교
④ 기타(적을 것 :_____)
⑤ 해당 없음

[학급수, 학급 학생수]
L01-4)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① 학급수: ( )학년 총 ( )학급
② 담임 학급 학생수: 남학생 (_____)명, 여학생 (_____)명 총 (_____)명

[학교풍토]
L01-5)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교 교사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합니까?

문항내용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1)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	①	②	③	④
2) 교사들 간의 신뢰와 협력	①	②	③	④
3) 학교 제반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①	②	③	④
4)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학교풍토]
L01-6)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교 학생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합니까?

문항내용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1) 학교에 대한 자부심	①	②	③	④
2)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3) 학교생활을 잘 하려는 의지	①	②	③	④
4)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	①	②	③	④
5) 학교 시설을 아끼려는 마음	①	②	③	④

[학교풍토]

L01-7)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교 학부모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합니까?

문항내용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1)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	①	②	③	④
2)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①	②	③	④
3) 학교 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①	②	③	④

[학교비행]

L01-8) 다음 각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 환경]

L01-9)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환경에 대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1) (학교) 전반적인 건물상태	①	②	③	④	⑤
2) 기자재 및 시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주변환경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의 통학 조건(교통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 성별]
L02-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 ② 남

[교사 연령]
L02-2) 선생님의 연령은 몇 세인가요? 만 나이로 응답해 주세요.

만 (_____)세

[교사 최종학력]
L02-3) 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대졸(2, 3년제졸) ② 대졸(4년제 이상)
③ 석사과정 ④ 석사
⑤ 박사과정 ⑥ 박사

[교사 경력]
L02-4) 선생님은 올해 육아휴직, 군경력을 제외한 교사경력 몇년 차이십니까?

총 (_____)년차 / 육아휴직, 군경력 제외, 교육경력만

[교사 근무 시간/근무 일]
L02-5)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응답해주세요.

주중 1일 평균 (_____)시간 (_____)분 근무

[교사 담당과목]
L02-6)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과목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역사 포함) ⑤ 과학 ⑥ 도덕
⑦ 기술,가정 ⑧ 음악 ⑨ 미술
⑩ 체육 ⑪ 정보 ⑫ 진로
⑬ 기타

[업무 스트레스]

L02-7)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각 영역(업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문항내용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 학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2)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지도	①	②	③	④	⑤
4) 행정업무	①	②	③	④	⑤

[교사효능감]

L02-8) 다음은 교사로서의 특성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선생님께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왜 그런지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교과내용에 따라 수업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분석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생활지도를 할 때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보면 내가 지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선생님과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아동 관계]

L03-1) 선생님과 ○○(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와의 관계를 가장 잘 기술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와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와 나는 항상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이)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위안을 받으려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이)는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칭찬을 하면, ○○(이)는 뿌듯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이)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이)는 나에게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이)가 느끼는 감정에 쉽게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이)는 훈육을 받으면 계속 화를 내거나 반항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를 상대하면 나는 진이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는 고단한 하루를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 대한 ○○(이)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거나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이)는 나를 영악하게 조종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와 솔직하게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이) 부모님의 학교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정도]

L04-1) ○○(이)의 보호자는 학교 행사(참관수업, 학부모 총회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참여한다
⑤ 항상 참여한다

[부모의 학교 상담 참여 정도]

L04-2) ○○(이)의 보호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기 상담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참여한다
⑤ 항상 참여한다

[부모의 학교 생활 관심 정도]

L04-3) ○○(이)의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심을 보입니까?

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②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심을 보인다
⑤ 매우 관심이 많다

다음은 ○○(이)의 체력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력검사 결과(PAPS)]

L05-1) 지금부터 나이스(NEIS)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응답받고자합니다. 현재 나이스(NEIS)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의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이)의 PAPS 기록 없음 → L06-1)로 이동
② ○○(이)의 PAPS 점수 및 등급을 모두 볼 수 있음 → L05-2-1)로 이동
③ ○○(이)의 PAPS 점수만 볼 수 있음 → L05-2-1)로 이동
④ ○○(이)의 PAPS 등급만 볼 수 있음 → L05-2-2)로 이동

[체력검사 결과(PAPS)]

L05-2-1)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해당 문항은 나이스(NEIS) 기록 확인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력평가	
전체점수	(　　)점

[체력검사 결과(PAPS)]

L05-2-2)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해당 문항은 나이스(NEIS) 기록 확인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력평가	
전체등급	①1등급 ②2등급 ③3등급 ④4등급 ⑤5등급

다음은 ○○(이)의 학력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 수행 능력_중학]

L06-1) 선생님께서 ○○(이)의 아래 과목의 수행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또래학생 대비 상대적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문항은 담당교과 선생님에게 문의 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부진 (0-20%)	보통 이하 (20-40%)	보통 (40-60%)	보통 이상 (60-80%)	매우 잘함 (80-100%)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①	②	③	④	⑤
3) 수학	①	②	③	④	⑤
4) 사회	①	②	③	④	⑤
5) 과학	①	②	③	④	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
(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68 650800
ISBN 979-11-6865-080-0